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장진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초빙연구원 : 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연구원 : 이인휘(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위촉연구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Table of Contents

Ⅰ 서론_ 1

1.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3. 1인가구 기본계획의 주요 목적 ····· 10
4. 연구추진체계 ····· 12

Ⅱ 가족구조 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_ 13

1. 1인가구 일반 현황 ····· 15
   2.1.1. 서울시 1인가구 추이 및 구성 ····· 15
   2.1.2. 서울시 1인가구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 ····· 19
   2.1.3.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 ····· 21
   2.2.4. 서울시 1인가구 자치구별 분포 및 밀집지역 ····· 24
   2.2.5. 소결 : 서울시 1인가구의 특징 ····· 36
2. 1인가구에 대한 법제 현황 ····· 37
   2.2.1. 1인가구의 기본권 ····· 38
   2.2.2. 가족 관련 법제와 1인가구 ····· 39
   2.2.3. 각 영역의 관련 법제: 주거 관련 법제 ····· 40
   2.2.4. 각 영역의 관련 법제: 사회보장 관련 ····· 42

3.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관련 법제 ····· 42
2.3.1. 서울특별시 ····· 42
2.3.2. 부산광역시 ····· 44
2.3.3. 세종특별자치시 ····· 45
2.3.4. 서울시 금천구 ····· 45
2.3.5. 기타(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 ····· 50
2.3.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

4. 1인가구 관련 정책 ····· 54
2.4.1. 중앙부처의 1인가구 정책 ····· 54
2.4.2. 서울시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 55
2.4.3.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 57
2.4.4. 기존 1인가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8

Ⅲ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결과_ 59

1. 조사개요 ····· 61

2. 1인가구 일반특성 ····· 68

3. 1인가구 생활인식 및 태도 ····· 76
3.3.1. 1인가구의 삶 ····· 76

4. 1인가구 경제상태 ····· 86
3.4.1.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수준 ····· 86
3.4.2. 비경제활동의 원인 및 구직욕구 ····· 90
3.4.3. 생활비 지출 및 노후준비 정도 ····· 94

5. 1인가구 주거환경 및 안전 ····· 103
3.5.1.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 ····· 103
3.5.2. 주거안전 ····· 112
3.5.3. 공동체주거 ····· 115
6. 1인가구 안전상태 ····· 121
3.6.1. 일상생활 안전 및 교육 ····· 121
3.6.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이용률 및 정책요구 ····· 126
7. 1인가구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 130
3.7.1. 원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 130
3.7.2. 1인가구 여가활동 ····· 141
8. 1인가구 건강 ····· 146
3.8.1.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 146
3.8.2. 의료·보건기관 이용 및 식생활 ····· 150
9.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 154
3.9.1. 변수설명 및 분석모형 ····· 154
3.9.2. 분석결과 ····· 157
10. 소결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60
3.10.1. 1인가구의 삶 ····· 160
3.10.2. 경제상태 및 노후준비 ····· 161
3.10.3. 주거환경 및 공동체주거 ····· 162
3.10.4. 안전환경 및 여성안전정책 ····· 164
3.10.5. 사회적 관계망 및 여가 ····· 165
3.10.6. 건강상태 ····· 166

Ⅳ 1인가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_ 169

1. 조사개요 ····· 171
1) 조사목적 및 대상 ····· 171
2) 조사진행방법 ····· 173
3)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74
4) 조사내용 ····· 176

2. 1인가구 형성경로와 가족관계 ····· 177
1) 가구구성 변동 ····· 177
2)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183
3) 정책체감도: 정책 바깥의 1인가구 ····· 190

3. 경제와 주거 ····· 193
1) 불안한 경제상황 ····· 193
2) 낮은 주거의 질 ····· 195
3) 원룸·고시원의 안전문제와 고립 ····· 199
4) 대안으로서 공동체 주거 ····· 204

4. 건강과 관계망 ····· 210
1) 식사와 영양 ····· 210
2) 사회적 관계망 ····· 212

5. 미래 전망과 가족구성 계획 ····· 218
1) 노후준비와 미래계획 ····· 218
2) 가족구성 전망 ····· 219

6. 소결 ····· 224
1) 불안정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 ····· 225
2) 독립향유와 친밀성욕구 공존 ····· 225
3) 정책으로부터 소외 ····· 226

V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_ 229

1.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의 개요 ····· 231
2.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핵심 키워드 ····· 234
3.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 239
3.1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239
3.2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251
3.3 '안심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안정성 확보' ····· 263
3.4 '1인가구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삶 구현' ····· 273
4.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 284
4.1 '따로 또 같이 하는 따듯하고 풍요로운 삶 실현' ····· 284
4.2 '주거공동체와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 구현' ·· 296
5. 사회적 인정과 존중 ····· 303
5.1 '인식과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 ····· 303

참고문헌 _ 314

부록 _ 315

표 목차

▌표 Ⅰ-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세대별 조사방법 ····· 8
▌표 Ⅱ-1▌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증감률(1990-2015) ····· 16
▌표 Ⅱ-2▌ 서울시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1990-2015) ····· 17
▌표 Ⅱ-3▌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 세대별 비중(2015) ····· 18
▌표 Ⅱ-4▌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가구 교육수준(2015) ····· 19
▌표 Ⅱ-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인상태(2015) ····· 20
▌표 Ⅱ-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형태(2015) ····· 22
▌표 Ⅱ-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점유유형(2015) ····· 23
▌표 Ⅱ-8▌ 서울시 자치구별 성별/세대별 1인가구 분포현황(2015) ····· 25
▌표 Ⅱ-9▌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비중(2015) ····· 27
▌표 Ⅱ-10▌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2015) ····· 29
▌표 Ⅱ-11▌ 서울시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2015) ····· 30
▌표 Ⅱ-12▌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2015) ····· 31
▌표 Ⅱ-13▌ 서울시 고령 1인가구 밀집지역(2015) ····· 32
▌표 Ⅱ-14▌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별 밀집지역(2015) ····· 33
▌표 Ⅱ-15▌ 서울시 1인가구 점유유형별 밀집지역(2015) ····· 35
▌표 Ⅱ-1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 47
▌표 Ⅱ-17▌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 50
▌표 Ⅱ-18▌ 서울시 강동구와 용산구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 52
▌표 Ⅲ-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세대별 조사방법 ····· 61
▌표 Ⅲ-2▌ 조사계획 수립 4단계 ····· 62
▌표 Ⅲ-3▌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 65
▌표 Ⅲ-4▌ 서울시 1인가구 층화변수별 표집현황 ····· 67
▌표 Ⅲ-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교육수준 ····· 68
▌표 Ⅲ-6▌ 서울시 1인가구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 69
▌표 Ⅲ-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인상태 ····· 70
▌표 Ⅲ-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경제활동상태 ····· 71
▌표 Ⅲ-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형태 ····· 72
▌표 Ⅲ-1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점유유형 ····· 73
▌표 Ⅲ-1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 74

List of Tables

▌표 Ⅲ-12▐ 서울시 경제활동 1인가구 성별·세대별 소득분포 ····· 75
▌표 Ⅲ-1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유입경로 ····· 77
▌표 Ⅲ-1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자 사는 어려움(1순위) ····· 78
▌표 Ⅲ-15▐ 서울시 1인가구 성별-혼인상태별 혼자 사는 어려움(1순위) ····· 79
▌표 Ⅲ-1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 ····· 81
▌표 Ⅲ-17▐ 서울시 1인가구 임금수준별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 ····· 83
▌표 Ⅲ-1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편견, 차별, 무시 받은 경험 ····· 84
▌표 Ⅲ-1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삶의 만족도 ····· 85
▌표 Ⅲ-2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지위 ····· 87
▌표 Ⅲ-2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 ····· 88
▌표 Ⅲ-22▐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 ····· 89
▌표 Ⅲ-2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소득 ····· 90
▌표 Ⅲ-24▐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가구 일을 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점 ····· 91
▌표 Ⅲ-25▐ 서울시 비경제활동 1인가구 세대별 일하지 않는 이유 ····· 92
▌표 Ⅲ-26▐ 서울시 비경제활동 1인가구 구직 시 어려움 ····· 93
▌표 Ⅲ-27▐ 60세 이상 1인가구 비경제활동 이유 ····· 94
▌표 Ⅲ-2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지출 분포 ····· 95
▌표 Ⅲ-29▐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지출 상관관계 ····· 95
▌표 Ⅲ-30▐ 서울시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별 월평균지출 ····· 96
▌표 Ⅲ-31▐ 서울시 1인가구 세대별-경제활동상태별 부채원인 ····· 96
▌표 Ⅲ-32▐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부채원인 ····· 97
▌표 Ⅲ-3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항목별 지출현황 ····· 99
▌표 Ⅲ-3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항목별 소득대비 지출비중 ····· 99
▌표 Ⅲ-3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소득대비지출 분포 ····· 100
▌표 Ⅲ-3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노후대비 정도 ····· 101
▌표 Ⅲ-37▐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노후대비를 못하는 원인 ····· 102
▌표 Ⅲ-3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지 선택 시 중요요인 ····· 104
▌표 Ⅲ-39▐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주거지 선택 시 중요요인 ····· 105
▌표 Ⅲ-40▐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거면적 ····· 106
▌표 Ⅲ-4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면적 ····· 107
▌표 Ⅲ-42▐ 서울시 남성 1인가구 소득수주별 주거면적 ····· 108
▌표 Ⅲ-4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소득수주별 주거면적 ····· 109
▌표 Ⅲ-44▐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주거면적 상관관계 ····· 110

List of Tables

▌표 Ⅲ-45▐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움 ····· 111
▌표 Ⅲ-4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지 불안정도 ····· 112
▌표 Ⅲ-4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주거형태별 주거지 불안정도 ····· 113
▌표 Ⅲ-48▐ 서울시 1인가구 성별 주거지 불안의 원인 ····· 114
▌표 Ⅲ-49▐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거지 불안의 원인 ····· 115
▌표 Ⅲ-5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공동체주거 인지도 ····· 116
▌표 Ⅲ-51▐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 인식 ····· 116
▌표 Ⅲ-52▐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 117
▌표 Ⅲ-53▐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 ····· 118
▌표 Ⅲ-5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공동체주거를 위해 필요한 점(2순위) ····· 120
▌표 Ⅲ-5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정도 ····· 121
▌표 Ⅲ-56▐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친구 수-안전정도 상관관계 ····· 122
▌표 Ⅲ-57▐ 서울시 1인가구 세대별 일상생활에서 불안의 원인 ····· 122
▌표 Ⅲ-5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노출되어 있는 범죄유형 ····· 124
▌표 Ⅲ-5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안전을 위한 노력방법 ····· 125
▌표 Ⅲ-60▐ 점유유형별 안전을 위한 노력방법 ····· 126
▌표 Ⅲ-61▐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 127
▌표 Ⅲ-62▐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전정책 이용률 ····· 128
▌표 Ⅲ-6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가장 필요한 여성안전정책 ····· 129
▌표 Ⅲ-6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 131
▌표 Ⅲ-65▐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 131
▌표 Ⅲ-66▐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고민상대 수 상관관계 ····· 131
▌표 Ⅲ-67▐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상대 수 -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 132
▌표 Ⅲ-68▐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상대 수 별 삶의 만족도 ····· 132
▌표 Ⅲ-6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고민상담 상대 ····· 133
▌표 Ⅲ-7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이웃의 중요성 정도 ····· 134
▌표 Ⅲ-7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이웃의 의미 ····· 135
▌표 Ⅲ-72▐ 서울시 성별·세대별 이웃과의 관계 ····· 136
▌표 Ⅲ-73▐ 서울시 성별·세대별 이웃과의 직접만남 빈도 ····· 137
▌표 Ⅲ-7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친구 직접만남 빈도 ····· 138
▌표 Ⅲ-75▐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친구만남 빈도 ····· 138
▌표 Ⅲ-76▐ 서울시 성별·세대별 부모 직접만남 빈도 ····· 139
▌표 Ⅲ-77▐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부모, 자녀, 친구, 이웃만남 상관관계 ····· 140

List of Tables

▌표 Ⅲ-78▐ 서울시 성별·세대별 원가족과 만나는 주된 이유 ····· 140
▌표 Ⅲ-7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현재 주로 하는 활동 ····· 142
▌표 Ⅲ-8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희망 여가활동 ····· 143
▌표 Ⅲ-8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희망여가활동의 어려움 ····· 144
▌표 Ⅲ-82▐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대상 ····· 145
▌표 Ⅲ-8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 146
▌표 Ⅲ-8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관적 정신 건강상태 ····· 147
▌표 Ⅲ-85▐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 신체건강, 고민상담 상대의 수 상관관계 · 148
▌표 Ⅲ-8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우울감 경험빈도 ····· 149
▌표 Ⅲ-87▐ 우울감, 주거면적, 고민상담 상대의 수, 일상생활 및 주거지 안전정도,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 149
▌표 Ⅲ-8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만성질환 진단 여부 ····· 150
▌표 Ⅲ-8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의료·보건기간 동행자 ····· 151
▌표 Ⅲ-9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152
▌표 Ⅲ-91▐ 서울시 1인가구 하루에 한번 식사를 거르는 빈도 ····· 153
▌표 Ⅲ-92▐ 서울시 1인가구 반찬 만들기 번거로워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빈도 ····· 153
▌표 Ⅲ-93▐ 기초통계량 ····· 156
▌표 Ⅲ-94▐ 추정결과 ····· 157
▌표 Ⅲ-95▐ 한계효과 ····· 159
▌표 Ⅳ-1▐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74
▌표 Ⅳ-2▐ FGI 주요내용 ····· 176
▌표 Ⅳ-3▐ 1인가구 FGI 결과 ····· 224
▌표 Ⅳ-4▐ 1인가구 영역별·세대별 핵심 정책대상 ····· 237

그림 목차

▌그림 Ⅴ-1▐ 서울시 1인가구 지원의 목표 및 방향 ····· 235
▌그림 Ⅴ-2▐ 장애인 위생시설 활동 공간 및 구조 ····· 250
▌그림 Ⅴ-3▐ 우리동네 이웃지킴이 운영체계 ····· 257
▌그림 Ⅴ-4▐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컨설팅 운영방안(안) ····· 261
▌그림 Ⅴ-5▐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운영방안(안) ····· 267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1인가구 기본계획의 주요 목적
4. 연구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족은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점차 부부와 자녀 중심의 근대적 가족형태로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적 문화전통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이후 도시화의 진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후기산업화에 이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는 점차 가족이 갖는 의미와 기능마저 변화하면서 점차 가구구성원이 최소화됨은 물론 핵가족의 개인화 증후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과거와 달리 결혼 및 출산규범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생애과업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젠더 및 세대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이 그것이다(김혜영, 2014; 정경희 외, 2012). 가구통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대체로 4인 가구의 삶이 보편적이었으나, 2010년은 2인 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가구(27.2%)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구는 2001년 약 150만 가구에서 2016년 약 120만 가구로 줄어든 반면, 1인가구는 2001년에서 2015년 사이 약 54만 가구에서 112만 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 결과,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시도 평균을 상회하는 29.5%에 달하고 있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로 집계되고 있다(통계청, KOSIS, 2017).

1인가구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함의에 관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생애주기 가운데 일정 시간, 혹은 남은

시간동안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사회 및 가족 변화의 반영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지형의 변화 또한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1인가구는 하나의 동질한 집단이 아닌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계와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의 확대나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전제한 가족의 형태나 삶의 방식이 비정형화되고 불확정적인 것이 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다인가구 중심의 가족정책 변화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연이은 세계경제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의 증가는 노동시장진입을 앞둔 청년세대들의 삶을 왜곡, 변형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더욱이 시장 불안정성은 여전하고, 향후에도 뚜렷한 개선의 증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의 지연 및 회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제도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비혈연(非血緣)가구와의 관계망 형성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혼 및 가족관계의 약화나 비혼 삶의 선택을 비단 한 개인의 대안적 삶의 문제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1인 가구가 운데 일부는 특정한 선택을 강요받은 사회적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 압력을 개인이 감당하는 과정인 만큼 이들의 대안적 삶 역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 및 환경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빗대어 88만원 세대, 삼포, N포 세대라는 용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세대들에게 있어 결혼이나 출산은 물론 취업이나 내 집은 물론 인간관계나 미래의 희망조차 꿈꾸기 어려운 상황을 함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연구한 김영정·장진희(2017)에 의하면 청년층은 사회적 고립이 가장 낮은 세대였으며, 고용안정과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 및 고령세대의 1인가구들 역시 자기 부양과 돌봄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다는 어려움과 함께 다가올 노후나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대는 청년층과 달리 가족중심의 생활에 익숙해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가족 이외의 다양한 지지망과 자조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쉽게 사회적 고

립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결혼관계 해체로 빈곤을 겪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 은퇴 후 소득원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령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형성에 위축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건, 2016; 장진희, 2016).

우리사회가 점차 개인화되고 있으나, 중장년세대의 경우에는 가족주의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라는 점에서 결혼 및 가족관계의 해체와 변화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역으로 다양한 관계의 단절과 왜곡을 통해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즉 현재 1인가구로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타인과의 유대나 결속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의 지속은 곧 미래의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결혼규범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혼은 계층적 특성과 혼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 이혼율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를 구성하는 하위집단간 이혼율의 격차는 지속되거나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Raley & Bumpass, 2003; 우해봉, 2011; 김혜영, 2014). 따라서 이혼한 중장년 1인가구는 미혼이나 사별 1인가구에 비해 다양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네트워크의 축소나 사회적 낙인감 등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혼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계단절, 특히 유자녀 기혼자의 경우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당사자는 물론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이후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거나 빈곤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윤홍식, 2004;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김혜영, 2014). 따라서 남성에 비해 중장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나 경제적 불안감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돌봄 및 가사노동의 미숙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일부 취약계층 남성들은 불안정한 직업지위와 낮은 소득원으로 인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빈곤의 위협에 봉착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더욱이 남성들은 왜곡된 남성다움을 강요받아온 세대라는 점에서 사적생활을 터놓을 만한 정서적 지지망이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이진숙·이윤석, 2014). 이들은 생애주기 특성상 부모님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원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남성들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이 주로 음주나 흡연과 같은 습관적 행위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김혜영·선보영·진미정, 2007). 이런 점에서 중장년남성 1인가구에 대한 정서심리적,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은 매우 긴요하지만, 현재 사회정책의 기조를 통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독거노인으로 표현되어온 고령 1인가구의 어려움은 이보다 중층적이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거노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관련 정책 역시 비교적 다양하다. 예컨대 노인가구 가운데 부양자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에 시달릴 수 있으며, 고령화되면서 노인기 질환 등 만성적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의 돌봄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지어 질환의 방치는 물론 고독사의 위험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고령 1인가구가 느끼는 불안감은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질병시 수발자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일상적인 가사 및 자기 돌봄에 대한 부담감 등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향후 고령 1인가구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고립감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불안감의 해소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정경희 외, 2012). 따라서 노인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정책과제들을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망 설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처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의 마련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1인가구의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1인 가구의 삶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 FGI를 통해 이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특히 정책과제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나 특징을 포괄하며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복지증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마련하였다. 조례에는 공동체 회귀를 위한 공동체주거와 소셜다이닝 등의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서울시 1인가구 현황분석 및 기존 법·제도 검토,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Focus Group Interview로 구분된다. 따라서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삶의 심층적 이해와 정책욕구 등을 진단하기 위한 인터뷰 진행을 통해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이들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1인가구에 대한 중기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와 내용,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를 지닌다.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기는 하나, 사회보장 및 복지대상 등 많은 현행법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역별 관련법제에서의 1인가구에 대한 법제를 검토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 1인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인가구 관련 조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서울시 1인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의 세대구조, 주거형태, 점유유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6개 광역시 1인가구와 다른 서울시 1인가구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지역비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1인가구의 자치구별 분포를 분석하여 서울시 1인가구 특성에 따른 밀집지역을 제시하고 자치구별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1년 이상 1인가구로 거주한 20-80대 3,000

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삶, 경제,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정책수요 총 8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특히 표본을 설계함에 있어서 서울시 1인가구의 대표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총조사 서울시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5개 권역별로 비례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성별/세대별 분석을 기본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혼인상태 또는 소득수준, 주거형태 등에 의한 차이가 존재하거나 의미를 갖는 경우 이를 분석·제시하였다. 가령, 1인가구의 유입경로에 있어서 성별/세대별 구분은 유의미하나 주거형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반면, 주거지안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별/세대별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에 의한 차이가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영역에 따라 의미를 갖는 요인이 있는 경우 성별/세대별 구분뿐만 아니라, 해당요인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Ⅰ-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세대별 조사방법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서울시에 1년 이상 1인가구로 거주한 20-80대 3,000명
표집방법	통계청 인구총조사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비례층화추출
층화변수	성별, 연령별, 5개 권역별(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조사내용	1인가구의 삶, 경제상태,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및 정책수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대면조사

넷째,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본은 성별과 연령, 그리고 5개 권역에 의해 비례층화하여 취약계층 1인가구를 집중 조명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은 조사내용 이상의 1인가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그들의 생활실태와 어려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룹인터뷰 대상자들은 1인 가구 가운데서도 표집대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책수혜의 경험이 있는 집단들을 선별하여 1인 가구 관련 모임이나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면접의사가 있는 대상자들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주택 공급의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

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원룸/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개발을 모색하나 단일한 프로그램이나 과제제안이 아닌 중기대책마련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의 마련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1인가구의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설계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설계의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 관점이나 연령적 범주에 따라 1인가구의 일부 세대는 이미 몇몇 기존정책 틀 내에 포섭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고령 1인가구의 지원정책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나 기초보장 서비스 내에 부분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 또한 없지 않다.

초저출산의 지속으로 인구감소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을 반영하듯, 부양자녀가 없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 예컨대 세제혜택이나 주거지원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저출산 시대 강조되는 유자녀 우선정책이라는 주요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지점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급격한 인구감소가 갖는 위험한 사회적 결과에 비춰본다면, 유자녀중심의 정책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 가운데는 이미 가족위험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직·간접적인 결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구 및 가족형태를 고려하는 사회정책의 설계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특히 미혼의 청년세대나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부재는 고립되고 불안정한 중장년 및 고령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유사정책들과의 긴장, 경합,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만큼 포괄적인 정책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1인 가구 정책은 단순한 특정 가구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의제나 프로그램으로 한정될 일 수 없다. 더욱이 이들 가구는 기혼 유자녀 가족에 비해 삶의 방식이 유동적이며 변화가 잦다는 점에서(김혜영, 2014),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3. 1인가구 기본계획의 주요 목적

이러한 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주요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 가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현재 1인가구는 29.5%이며, 그 증가추이를 감안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머지않아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생애주기의 특정한 시점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경험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서울시민의 대표적 가구형태로 등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수가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심리적 긴장과 갈등 및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등 다양한 동적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나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구비나 환경조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1인가구를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평가,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과 맞춤식 서비스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2) 1인가구의 연령 및 성별, 계층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어 단일한 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의 청년 1인가구,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와 건강유지의 고령 1인가구, 각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서로 상이하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경제 상태와 주거안전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김영정 외, 2016; 박건 외, 2016; 장진희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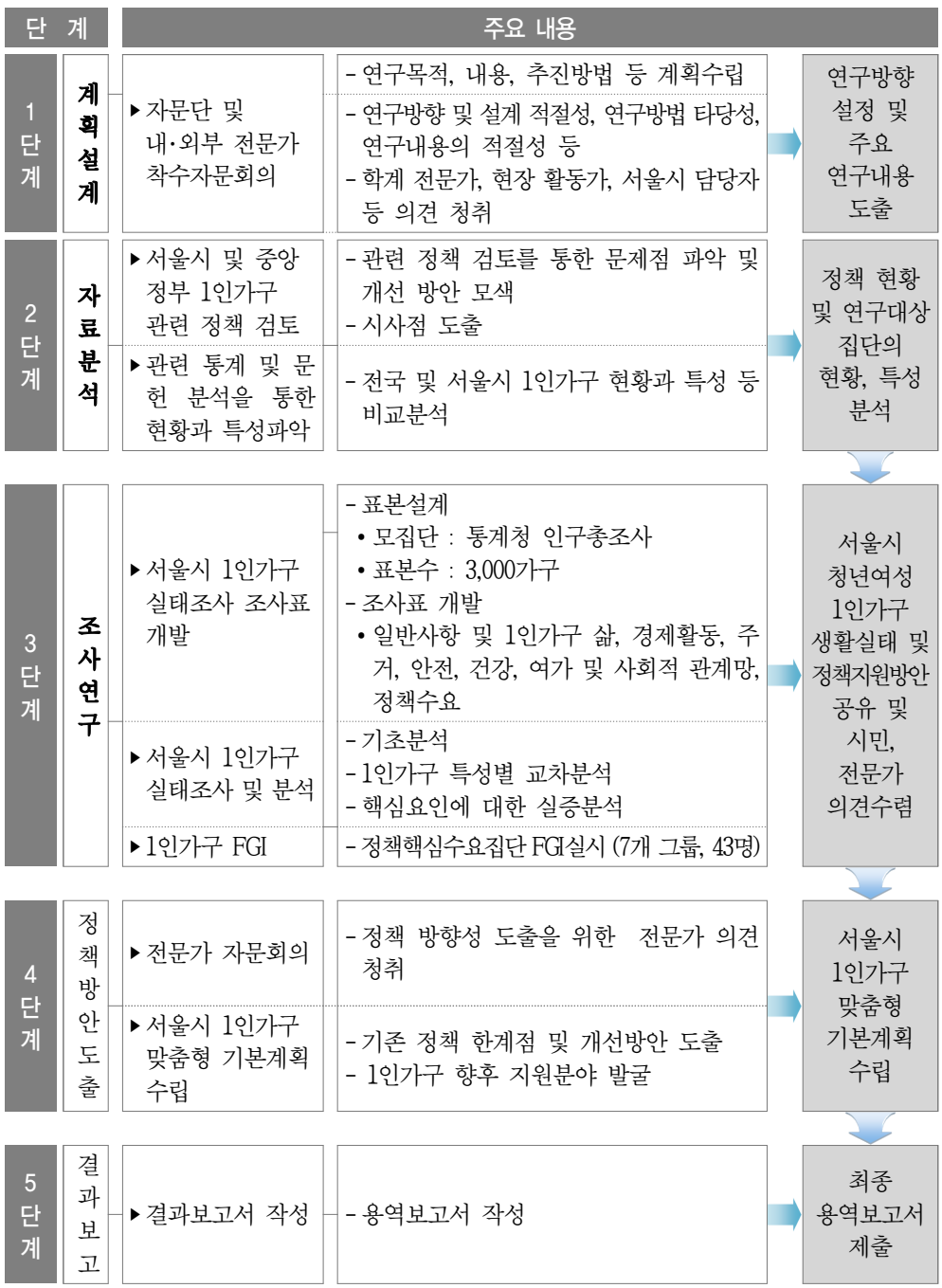
(3) 1인가구의 이질성은 정책간 긴장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초저출산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유자녀 다인가구정책에 대한 단독가구의 정책우선성의 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인가구에 대한 조세나 주거지원은 물론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접근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기성의 사회정책 및 서비스의 설계가 갖는 특징과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개입의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의 정책 기조와 흐름을 위반하거나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그 효과성은 물론 정책의 장기적 수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유자녀 다인가구 및 1인가구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중복 및 충돌지점으로부터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다단계적 전략수립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관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⑷ 1인가구의 정책은 현재의 국가정책 기조와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그들 삶의 불확정성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서울시를 위시한 지방정부의 사회 및 가족정책은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상응하면서도 고유한 욕구와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초보장 등의 국가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대상자의 구체적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기획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설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중앙정부의 서비스 설계와는 달리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의 설계는 정책대상자의 만족도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1인가구에 대한 면밀한 욕구분석에 기초하면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설계가 기획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기적인 기본계획을 통해서만이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II

가족구조 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

1. 1인가구 일반 현황
2. 1인가구에 대한 법제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관련 법제
4. 1인가구 관련 정책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가족구조 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

1. 1인가구 일반 현황

2.1.1. 서울시 1인가구 추이 및 구성

□ **2010년 이후 1인가구 증가속도 가속화. 서울시 가구의 29.5% 1인가구로 구성, 그 중 청년세대 46.8%, 중장년세대 29.8%, 고령세대 22.3% 차지**

최근 혼밥, 혼술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 100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10여년간 두 배 증가하여 2000년 220만 명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10년 410만 명, 2015년에는 1990년 대비 5.1배 증가한 52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역시 가파른 1인가구의 상승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megacity)로 분류되었으나, 극심한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2015년 상주인구는 980만 명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1990년 280만 가구에서 2015년 378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인구감소와 가구 수 증가현상은 서울시 가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원인으로 1인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1990년 25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50만 명, 그리고 2015년 112만 명에 도달하여 '1인가구 100만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의 증감률은 1990년 이후 5년 단위 평균 34.3%를 보여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1990년 대비 2015년 1인가구 증감률은 333.5%로 울산광역시(143.5%)와 울산광역시(143.5%) 다음으로 낮았다. 그러나 2010-2015년 1인가구의 증감률은 30.6%를 보여 광주광역시(33.5%), 울산광역시(33.8%)를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전국에서 1인가구 증가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Ⅱ-1▐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증감률(1990-2015)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1990 (A)	257,382	77,230	59,890	38,321	23,350	20,327	-
	-	-	-	-	-	-	-
1995	382,024	115,574	82,766	67,546	43,088	41,142	-
	(△48.4%)	(△49.6%)	(△38.2%)	(△76.3%)	(△84.5%)	(△102.4%)	-
2000	502,245	154,237	107,913	97,127	60,207	62,742	42,532
	(△31.5%)	(△33.5%)	(△30.4%)	(△43.8%)	(△39.7%)	(△52.5%)	-
2005	675,739	222,515	148,331	141,511	87,447	98,678	57,923
	(△34.5%)	(△44.3%)	(△37.5%)	(△45.7%)	(△45.2%)	(△57.3%)	(△36.2%)
2010	854,606	290,902	192,472	190,882	122,506	134,938	77,421
	(△26.5%)	(△30.7%)	(△29.8%)	(△34.9%)	(△40.1%)	(△36.7%)	(△33.7%)
2015 (B)	1,115,744	361,749	239,517	243,678	163,577	169,391	103,551
	(△30.6%)	(△24.4%)	(△24.4%)	(△27.7%)	(△33.5%)	(△25.5%)	(△33.8%)
증감률 (B-A)/(A)	(△333.5%)	(△368.4%)	(△299.9%)	(△535.9%)	(△600.5%)	(△733.3%)	△(143.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각 년도

서울시 일반가구의 증가속도보다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크게 앞서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 서울시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9.1%에 불과하였으나,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15년 29.5%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 1인가구는 절반수준을 유지되었다.

▌표 Ⅱ-2▐ 서울시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1990-2015)

(단위: 명, %)

구분	일반가구 (A)	1인가구 (B)	1인가구 비중 (C=A/B)	여성1인가구 (D)	여성 1인가구 비중 (D/B)	남성 1인가구 (E)	남성 1인가구 비중 (E/B)
1990	2,814,845	257,382	9.1	132,406	51.4	124,976	48.6
2000	3,085,936	502,245	16.3	264,905	52.7	237,340	47.3
2005	3,309,890	675,739	20.4	353,835	52.4	321,904	47.6
2010	3,504,297	854,606	24.4	450,030	52.7	404,576	47.3
2015	3,784,490	1,115,744	29.5	571,685	51.2	544,059	48.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각 년도

서울시 1인가구의 46.8%는 청년 1인가구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 29.8%, 고령 1인가구 22.3%로 나타나 1인가구 중 청년세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서울시보다 1인가구 증감률이 높은 지역인 광주광역시(40.8%)와 대전광역시(44.7%) 역시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청년세대의 인식변화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 1인가구는 청년세대와 달리 1인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24만 명 수준으로, 부산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체 1인가구 수를 크게 압도한다. 즉 서울시 1인가구 내에서의 비중을 통한 지원의 경중을 두기보다 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고 아우를 수 있는 기본계획이 요구된다.

▌표 Ⅱ-3▐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 세대별 비중(2015)

(단위: 명, %)

구분			총합	남성	여성	구분			총합	남성	여성
서울	N	소계	1,115,744	544,059	571,685	인천	N	소계	243,678	129,044	114,634
		15-19세	13,721	5,604	8,117			15-19세	2,108	1,019	1,089
		청년	521,685	272,130	249,555			청년	78,631	49,604	29,027
		중장년	331,957	191,468	140,489			중장년	94,991	57,561	37,430
		고령	248,381	74,857	173,524			고령	67,948	20,860	47,088
	%	15-19세	1.2	0.5	0.7		%	15-19세	0.9	0.4	0.4
		청년	46.8	24.4	22.4			청년	32.3	20.4	11.9
		중장년	29.8	17.2	12.6			중장년	39.0	23.6	15.4
		고령	22.3	6.7	15.6			고령	27.9	8.6	19.3
부산	N	소계	361,749	164,617	197,132	광주	N	소계	163,577	83,271	80,306
		20세 미만	4,850	2,279	2,571			15-19세	2,109	1,023	1,086
		청년세대	109,318	60,852	48,466			청년	66,666	38,459	28,207
		중장년세대	117,868	65,168	52,700			중장년	54,217	32,446	21,771
		고령세대	129,713	36,318	93,395			고령	40,585	11,343	29,242
	%	20세 미만	1.3	0.6	0.7		%	15-19세	1.3	0.6	0.7
		청년세대	30.2	16.8	13.4			청년	40.8	23.5	17.2
		중장년세대	32.6	18.0	14.6			중장년	33.1	19.8	13.3
		고령세대	35.9	10.0	25.8			고령	24.8	6.9	17.9
대구	N	소계	239,517	112,180	127,337	대전	N	소계	169,391	87,113	82,278
		15-19세	3,080	1,454	1,626			15-19세	4,869	2,516	2,353
		청년	76,205	44,134	32,071			청년	75,645	44,371	31,274
		중장년	83,946	46,851	37,095			중장년	50,802	28,961	21,841
		고령	76,286	19,741	56,545			고령	38,075	11,265	26,810
	%	15-19세	1.3	0.6	0.7		%	15-19세	2.9	1.5	1.4
		청년	31.8	18.4	13.4			청년	44.7	26.2	18.5
		중장년	35.0	19.6	15.5			중장년	30.0	17.1	12.9
		고령	31.8	8.2	23.6			고령	22.5	6.7	15.8
울산	N	소계	103,551	59,031	44,520	전국	N	소계	2,397,207	1,179,315	1,217,892
		15-19세	611	305	306			15-19세	31,348	14,200	17,148
		청년	36,752	26,316	10,436			청년	964,902	535,866	429,036
		중장년	40,489	24,378	16,111			중장년	774,270	446,833	327,437
		고령	25,699	8,032	17,667			고령	626,687	182,416	444,271
	%	15-19세	0.6	0.3	0.3		%	15-19세	1.3	0.6	0.7
		청년	35.5	25.4	10.1			청년	40.3	22.4	17.9
		중장년	39.1	23.5	15.6			중장년	32.3	18.6	13.7
		고령	24.8	7.8	17.1			고령	26.1	7.6	18.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2.1.2. 서울시 1인가구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46.1%는 2-3년제를 포함한 대졸자였으며 고졸 24.2%, 초졸 10.0%, 중졸 8.2%, 대학원졸 7.9%, 미취학 3.5% 순이었다. 그 중에서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았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의 84.1%, 청년여성 1인가구의 86.8%가 대졸이상 교육수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대졸이상 교육수준비중은 청년층의 절반수준인 중장년남성 1인가구 42.8%, 중장년여성 1인가구 41.3%였다. 고령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낮은 교육수준과 함께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큰 세대로 조사되었다. 고령층의 대졸이상 비중은 고령남성 1인가구 21.2%, 고령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2.1%p 낮은 9.1%였다. 반면 미취학 비중은 고령남성 1인가구의 5.5% 보다 10.9%p 높은 16.4%였으며, 초졸 역시 15.9%p 높은 37.0%였다. 즉 젠더관점 및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Ⅱ-4▐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가구 교육수준(2015)

(단위: 명, %)

구분		미취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총합
전체		39,302	111,938	91,442	270,208	513,924	88,150	1,114,964
		3.5	10.0	8.2	24.2	46.1	7.9	100.0
남성	소계	4,802	25,912	36,809	136,760	264,497	42,867	511,647
		0.9	5.1	7.2	26.7	51.7	8.4	100.0
	15-19세	0	0	126	1858	3789	23,866	29,639
		0.0	0.0	0.4	6.3	12.8	80.5	100.0
	청년	36	-	1,568	38,503	189,241	23,866	253,214
		0.0	-	0.6	15.2	74.7	9.4	100.0
	중장년	239	8,000	18,596	70,881	60,009	13,094	170,819
		0.1	4.7	10.9	41.5	35.1	7.7	100.0
	고령	4,527	17,912	16,519	25,518	14,413	2,952	81,841
		5.5	21.9	20.2	31.2	17.6	3.6	100.0
여성	소계	34,500	86,026	54,633	133,448	249,427	45,283	603,317
		5.7	14.3	9.1	22.1	41.3	7.5	100.0
	15-19세	-	6	91	1,649	1,189	3,904	6,839
		-	0.1	1.3	24.1	17.4	57.1	100.0

구분		미취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총합
	청년	11		819	31,354	185,450	25,765	243,399
		0.0		0.3	12.9	76.2	10.6	100.0
	중장년	131	8,576	16,328	59,388	46,146	13,211	143,780
		0.1	6.0	11.4	41.3	32.1	9.2	100.0
	고령	34,358	77,444	37,395	41,057	16,642	2,403	209,299
		16.4	37.0	17.9	19.6	8.0	1.1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서울시 1인가구의 59.8%는 비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 18.3%, 이혼 13.8%, 기러기 등이 포함된 유배우는 8.1% 순이었다. 혼인상태 역시 세대별,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비혼의 비중이 높았으며 여성 1인가구는 사별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인의 횟수가 많고, 여성은 남성보다 더 긴 평균수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95%는 비혼이었으나, 중장년 1인가구는 비혼을 중심으로 이혼, 유배우, 사별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중장년 1인가구의 유입경로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경로에 따라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Ⅱ-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인상태(2015)

(단위: 명, %)

구분			비혼	유배우	사별	이혼	총합
전체			666,685	90,634	204,096	153,549	1,114,964
			59.8	8.1	18.3	13.8	100.0
남성	소계		351,095	50,131	33,842	76,579	511,647
			68.6	9.8	6.6	15.0	100.0
	15-19세		5,773	0.0	0.0	0.0	5,773
			100.0	0.0	0.0	0.0	100.0
	청년		241,186	8,619	140	3,269	253,214
			95.2	3.4	0.1	1.3	100.0
	중장년		94,460	28,360	3,808	44,191	170,819
			55.3	16.6	2.2	25.9	100.0
	고령		9,676	13,152	29,894	29,119	81,841
			11.8	16.1	36.5	35.6	100.0

구분			비혼	유배우	사별	이혼	총합
여성	소계		315,590	40,503	170,254	76,970	603,317
			52.3	6.7	28.2	12.8	100.0
	15-19세		6,839	0.0	0.0	0.0	6,839
			100.0	0.0	0.0	0.0	100.0
	청년		232,623	6,487	129	4,160	243,399
			95.6	2.7	0.1	1.7	100.0
	중장년		64,077	19,653	15,288	44,762	143,780
			44.6	13.7	10.6	31.1	100.0
	고령		12,051	14,363	154,837	28,048	209,299
			5.8	6.9	74.0	13.4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2.1.3.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

□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 단독주택(46.2%) > 아파트(20.7%) > 연립/다세대(16.4%) 등의 순, 남성 1인가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에 거주**

서울시 1인가구의 주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46.2%)이었으며 아파트(20.7%), 연립/다세대(16.4%), 오피스텔(7.5%),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5.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5%) 순이었다. 청년 1인가구의 12.3%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중장년 1인가구 5.6%, 고령 1인가구 1.1%를 보인 다른 세대에 오피스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오피스텔과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시설, 면적, 안전 등 여러 주거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남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 아파트 거주비중은 12.0%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3%p 높은 13.3%였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커져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19.1%였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0.4%p 높은 29.5%였다. 또한 고령남성 1인가구 24.5%였으며, 고령여성 1인가구는 10.0%p 높은 34.5%였다.

▌표 Ⅱ-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형태(2015)

(단위: 명,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	총합
전체	소계	514,641	230,732	183,037	38,603	83,221	64,730	1,114,964
		46.2	20.7	16.4	3.5	7.5	5.8	100.0
	15-19세	6,356	631	1,492	660	1,224	2,249	12,612
		50.4	5.0	11.8	5.2	9.7	17.8	100.0
	청년	223,599	62,818	84,680	20,323	61,076	44,117	496,613
		45.0	12.6	17.1	4.1	12.3	8.9	100.0
	중장년	148,579	75,130	49,306	10,844	17,600	13,140	314,599
		47.2	23.9	15.7	3.4	5.6	4.2	100.0
	고령	136,107	92,153	47,559	6,776	3,321	5,224	291,140
		46.7	31.7	16.3	2.3	1.1	1.8	100.0
남성	소계	253,830	83,388	75,149	21,644	38,821	38,815	511,647
		49.6	16.3	14.7	4.2	7.6	7.6	100.0
	15-19세	3,088	265	617	388	368	1,047	5,773
		53.5	4.6	10.7	6.7	6.4	18.1	100.0
	청년	120,380	30,376	40,797	10,978	26,380	24,303	253,214
		47.5	12.0	16.1	4.3	10.4	9.6	100.0
	중장년	87,385	32,705	22,578	7,474	10,419	10,258	170,819
		51.2	19.1	13.2	4.4	6.1	6.0	100.0
	고령	42,977	20,042	11,157	2,804	1,654	3,207	81,841
		52.5	24.5	13.6	3.4	2.0	3.9	100.0
여성	소계	260,811	147,344	107,888	16,959	44,400	25,915	603,317
		43.2	24.4	17.9	2.8	7.4	4.3	100.0
	15-19세	3,268	366	875	272	856	1,202	6,839
		47.8	5.4	12.8	4.0	12.5	17.6	100.0
	청년	103,219	32,442	43,883	9,345	34,696	19,814	243,399
		42.4	13.3	18.0	3.8	14.3	8.1	100.0
	중장년	61,194	42,425	26,728	3,370	7,181	2,882	143,780
		42.6	29.5	18.6	2.3	5.0	2.0	100.0
	고령	93,130	72,111	36,402	3,972	1,667	2,017	209,299
		44.5	34.5	17.4	1.9	0.8	1.0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 서울시 1인가구 77.3% 전세 또는 월세거주, 특히 청년 1인가구 주거불안정 심각

서울시 1인가구의 51.4%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 25.9%, 자가 18.2%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1인가구 중 77.3%는 주거불안정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청년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주거비 지출이 발생하는 월세 거주비중은 청년 1인가구 63.0%, 중장년 1인가구 51.3%, 고령 1인가구 30.4%로 조사되어 청년 1인가구는 가장 열악한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세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 역시 높은 주거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울시 1인가구의 공통된 문제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표 Ⅱ-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점유유형(2015)

(단위: 명,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총합
전체		소계	203,309	288,518	573,314	49,823	1,114,964
			18.2	25.9	51.4	4.5	100.0
		15-19세	309	1,259	10,626	418	12,612
			2.5	10.0	84.3	3.3	100.0
		청년	31,404	132,828	312,843	19,538	496,613
			6.3	26.7	63.0	3.9	100.0
		중장년	57,310	78,629	161,376	17,284	314,599
			18.2	25.0	51.3	5.5	100.0
		고령	114,286	75,802	88,469	12,583	291,140
			39.3	26.0	30.4	4.3	100.0
	남성	소계	63,193	125,863	296,927	25,664	511,647
			12.4	24.6	58.0	5.0	100.0
		15-19세	126	566	4,903	178	5,773
			2.2	9.8	84.9	3.1	100.0
		청년	17,583	70,332	154,332	10,967	253,214
			6.9	27.8	60.9	4.3	100.0
		중장년	23,012	36,529	100,867	10,411	170,819
			13.5	21.4	59.0	6.1	100.0
		고령	22,472	18,436	36,825	4,108	81,841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총합
			27.5	22.5	45.0	5.0	100.0
	여성	소계	140,116	162,655	276,387	24,159	603,317
			23.2	27.0	45.8	4.0	100.0
		15-19세	183	693	5,723	240	6,839
			2.7	10.1	83.7	3.5	100.0
		청년	13,821	62,496	158,511	8,571	243,399
			5.7	25.7	65.1	3.5	100.0
		중장년	34,298	42,100	60,509	6,873	143,780
			23.9	29.3	42.1	4.8	100.0
		고령	91,814	57,366	51,644	8,475	209,299
			43.9	27.4	24.7	4.0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2.2.4. 서울시 1인가구 자치구별 분포 및 밀집지역

□ **관악구, 강남구, 노원구(고령 1인가구) 중심의 1인가구 분포, 가장 높은 1인가구 밀집도 관악구, 그 중 청년 1인가구 64.5% 차지. 중장년 1인가구 중랑구 및 금천구, 고령 1인가구 노원구 및 도봉구 밀집. 청년 1인가구의 높은 주거 불안정성**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에 의하면 서울시 1인가구는 관악구와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서울시 1인가구 중 9.0%에 해당하는 9만 9천명의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남구 6만 1천명(5.6%), 강서구 5만 6천명(5.1%)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관악구 1인가구는 강남구 1인가구보다 1.6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시 1인가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자치구로 조사되었다. 관악구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서울시 내의 대표적 '고시촌'으로 낙후된 주거환경과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주거비를 가진 지역으로 꼽힌다(장진희 외, 2016). 이는 1인가구가 주거비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1인가구 성별-자치구별 분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모두 관악구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이후 분포는 차이를 보였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남성 1인가구는 5만 3천명(10.0%)이었으며 동대문구 2만 6천명(5.0%), 광진구 2만 6천명(5.0%), 동작구

2만 6천명(4.9%) 등의 순이었다. 여성 1인가구 역시 관악구에 4만 5천명(8.0%)으로 가장 많았으나, 강남구 3만 5천명(6.2%), 강서구 3만 명(5.3%) 등의 순이었다.

세대별 분포에 있어서도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관악구,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고령 1인가구는 노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 실태조사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서울시 1인가구의 선호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했으며 고령 1인가구는 원래 거주하는 지역을 선호하고 오래 머무르는 특징을 보였다. 노원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오래된 주공아파트가 밀집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로 인해 고령 1인가구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Ⅱ-8▐ 서울시 자치구별 성별/세대별 1인가구 분포현황(2015)

(단위: 명)

행정	세대	1인가구			행정	세대	1인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종로구	청년	10,582	5,614	4,968	마포구	청년	29,947	14,458	15,489
	중장년	6,517	3,890	2,627		중장년	13,091	6,892	6,199
	고령	5,281	1,970	3,311		고령	8,724	2,250	6,474
	소계	22,380	11,474	10,906		소계	51,762	23,600	28,162
중구	청년	7,801	4,201	3,600	양천구	청년	10,672	5,949	4,723
	중장년	6,314	3,932	2,382		중장년	12,060	6,755	5,305
	고령	4,764	1,718	3,046		고령	9,875	2,915	6,960
	소계	18,879	9,851	9,028		소계	32,607	15,619	16,988
용산구	청년	13,601	6,606	6,995	강서구	청년	24,353	12,414	11,939
	중장년	9,935	5,630	4,305		중장년	18,174	9,968	8,206
	고령	7,277	2,258	5,019		고령	14,102	4,226	9,876
	소계	30,813	14,494	16,319		소계	56,629	26,608	30,021
성동구	청년	16,268	9,130	7,138	구로구	청년	17,501	9,550	7,951
	중장년	10,869	6,722	4,147		중장년	13,482	8,332	5,150
	고령	7,488	2,258	5,230		고령	9,757	3,101	6,656
	소계	34,625	18,110	16,515		소계	40,740	20,983	19,757
광진구	청년	30,365	15,461	14,904	금천구	청년	12,015	7,507	4,508
	중장년	14,680	8,714	5,966		중장년	11,609	7,468	4,141
	고령	8,378	2,700	5,678		고령	7,473	2,663	4,810
	소계	53,423	26,875	26,548		소계	31,097	17,638	13,459

행정	세대	1인가구			행정	세대	1인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동대문구	청년	26,811	14,947	11,864	영등포구	청년	22,554	11,911	10,643
	중장년	13,163	8,201	4,962		중장년	15,054	9,382	5,672
	고령	11,338	3,785	7,553		고령	10,592	3,573	7,019
	소계	51,312	26,933	24,379		소계	48,200	24,866	23,334
중랑구	청년	14,762	8,072	6,690	동작구	청년	31,838	17,574	14,264
	중장년	17,798	11,025	6,773		중장년	11,821	6,706	5,115
	고령	12,308	4,109	8,199		고령	9,357	2,484	6,873
	소계	44,868	23,206	21,662		소계	53,016	26,764	26,252
성북구	청년	25,668	12,768	12,900	관악구	청년	64,036	36,055	27,981
	중장년	13,294	7,552	5,742		중장년	22,074	13,839	8,235
	고령	11,793	3,278	8,515		고령	13,098	4,005	9,093
	소계	50,755	23,598	27,157		소계	99,208	53,899	45,309
강북구	청년	10,909	5,612	5,297	서초구	청년	19,002	9,029	9,973
	중장년	12,792	7,289	5,503		중장년	11,309	5,944	5,365
	고령	11,860	3,630	8,230		고령	6,650	1,834	4,816
	소계	35,561	16,531	19,030		소계	36,961	16,807	20,154
도봉구	청년	7,694	3,883	3,811	강남구	청년	34,041	14,713	19,328
	중장년	9,978	5,574	4,404		중장년	17,192	8,784	8,408
	고령	9,427	2,787	6,640		고령	10,129	2,756	7,373
	소계	27,099	12,244	14,855		소계	61,362	26,253	35,109
노원구	청년	15,344	8,514	6,830	송파구	청년	24,439	12,054	12,385
	중장년	13,948	7,105	6,843		중장년	17,501	9,686	7,815
	고령	15,690	3,922	11,768		고령	11,184	3,245	7,939
	소계	44,982	19,541	25,441		소계	53,124	24,985	28,139
은평구	청년	15,852	8,170	7,682	강동구	청년	14,618	7,665	6,953
	중장년	14,974	8,083	6,891		중장년	14,799	8,749	6,050
	고령	12,823	3,676	9,147		고령	10,267	3,308	6,959
	소계	43,649	19,929	23,720		소계	39,684	19,722	19,962
서대문구	청년	21,012	10,273	10,739	서울시	청년	521,685	272,130	249,555
	중장년	9,529	5,246	4,283		중장년	331,957	191,468	140,489
	고령	8,746	2,406	6,340		고령	248,381	74,857	173,524
	소계	39,287	17,925	21,362		소계	1,102,023	538,455	563,568

주: 15세 미만 1인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표 Ⅱ-9▐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비중(2015)

(단위: 명)

행정	세대	1인가구			행정	세대	1인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종로구	청년	47.3	25.1	22.2	마포구	청년	57.9	27.9	29.9
	중장년	29.1	17.4	11.7		중장년	25.3	13.3	12.0
	고령	23.6	8.8	14.8		고령	16.9	4.3	12.5
	소계	100.0	51.3	48.7		소계	100.0	45.6	54.4
중구	청년	41.3	22.3	19.1	양천구	청년	32.7	18.2	14.5
	중장년	33.4	20.8	12.6		중장년	37.0	20.7	16.3
	고령	25.2	9.1	16.1		고령	30.3	8.9	21.3
	소계	100.0	52.2	47.8		소계	100.0	47.9	52.1
용산구	청년	44.1	21.4	22.7	강서구	청년	43.0	21.9	21.1
	중장년	32.2	18.3	14.0		중장년	32.1	17.6	14.5
	고령	23.6	7.3	16.3		고령	24.9	7.5	17.4
	소계	100.0	47.0	53.0		소계	100.0	47.0	53.0
성동구	청년	47.0	26.4	20.6	구로구	청년	43.0	23.4	19.5
	중장년	31.4	19.4	12.0		중장년	33.1	20.5	12.6
	고령	21.6	6.5	15.1		고령	23.9	7.6	16.3
	소계	100.0	52.3	47.7		소계	100.0	51.5	48.5
광진구	청년	56.8	28.9	27.9	금천구	청년	38.6	24.1	14.5
	중장년	27.5	16.3	11.2		중장년	37.3	24.0	13.3
	고령	15.7	5.1	10.6		고령	24.0	8.6	15.5
	소계	100.0	50.3	49.7		소계	100.0	56.7	43.3
동대문구	청년	52.3	29.1	23.1	영등포구	청년	46.8	24.7	22.1
	중장년	25.7	16.0	9.7		중장년	31.2	19.5	11.8
	고령	22.1	7.4	14.7		고령	22.0	7.4	14.6
	소계	100.0	52.5	47.5		소계	100.0	51.6	48.4
중랑구	청년	32.9	18.0	14.9	동작구	청년	60.1	33.1	26.9
	중장년	39.7	24.6	15.1		중장년	22.3	12.6	9.6
	고령	27.4	9.2	18.3		고령	17.6	4.7	13.0
	소계	100.0	51.7	48.3		소계	100.0	50.5	49.5
성북구	청년	50.6	25.2	25.4	관악구	청년	64.5	36.3	28.2
	중장년	26.2	14.9	11.3		중장년	22.3	13.9	8.3
	고령	23.2	6.5	16.8		고령	13.2	4.0	9.2

행정	세대	1인가구			행정	세대	1인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소계	100.0	46.5	53.5		소계	100.0	54.3	45.7
강북구	청년	30.7	15.8	14.9	서초구	청년	51.4	24.4	27.0
	중장년	36.0	20.5	15.5		중장년	30.6	16.1	14.5
	고령	33.4	10.2	23.1		고령	18.0	5.0	13.0
	소계	100.0	46.5	53.5		소계	100.0	45.5	54.5
도봉구	청년	28.4	14.3	14.1	강남구	청년	55.5	24.0	31.5
	중장년	36.8	20.6	16.3		중장년	28.0	14.3	13.7
	고령	34.8	10.3	24.5		고령	16.5	4.5	12.0
	소계	100.0	45.2	54.8		소계	100.0	42.8	57.2
노원구	청년	34.1	18.9	15.2	송파구	청년	46.0	22.7	23.3
	중장년	31.0	15.8	15.2		중장년	32.9	18.2	14.7
	고령	34.9	8.7	26.2		고령	21.1	6.1	14.9
	소계	100.0	43.4	56.6		소계	100.0	47.0	53.0
은평구	청년	36.3	18.7	17.6	강동구	청년	36.8	19.3	17.5
	중장년	34.3	18.5	15.8		중장년	37.3	22.0	15.2
	고령	29.4	8.4	21.0		고령	25.9	8.3	17.5
	소계	100.0	45.7	54.3		소계	100.0	49.7	50.3
서대문구	청년	53.5	26.1	27.3	서울시	청년	47.3	24.7	22.6
	중장년	24.3	13.4	10.9		중장년	30.1	17.4	12.7
	고령	22.3	6.1	16.1		고령	22.5	6.8	15.7
	소계	100.0	45.6	54.4		소계	100.0	48.9	51.1

주1: 15세 미만 1인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주2: 자치구별 1인가구수 대비 해당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2015

자치구별 1인가구 밀집도(1인가구/일반가구)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의 밀집도가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 10가구 중 4가구는 1인가구였다. 1인가구가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인 강남구의 밀집도는 29.1%였으며, 양천구는 20% 미만의 비중을 보여 1인가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로 조사되었다.

▌표 Ⅱ-10▐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2015)

밀집도[1)]	1인가구 밀집지역
40% 이상	관악구
30%-40% 미만	중구,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성동구
20%-30% 미만	성북구, 강남구,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강서구, 은평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도봉구,
20% 미만	양천구

주: 자치구별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서울시 1인가구 자치구별 분포 중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관악구와 동작구였다. 그 중에서 관악구는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임과 동시에 1인가구 중 청년 1인가구가 64.5%를 차지하며,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밀집된 자치구였다. 3만 2천명의 1인가구가 거주하는 동작구의 경우 1인가구 밀집도가 30% 수준이었으나, 동작구 1인가구 중 60.1%는 청년 1인가구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역시 1인가구 중 절반이상이 청년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자치구였다. 이처럼 청년 1인가구가 밀집된 자치구는 Ⅲ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볼 청년 1인가구가 직면한 여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년남성 1인가구와 달리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강남구 1인가구의 31.5%는 청년여성 1인가구였으며 마포구 역시 마포구 1인가구 중 29.9%는 청년여성 1인가구였다. 서울시 1인가구와 청년남성 1인가구가 가장 밀집된 자치구인 관악구의 경우, 청년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2%로 높았다. 이처럼 안전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는(장진희 외, 2016)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환경 조성방안이 요구된다.

▌표 Ⅱ-11▐ 서울시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2015)

밀집도[1)]	청년 1인가구	청년남성 1인가구	청년여성 1인가구
60% 이상	동작구, 관악구	-	-
50%-60% 미만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	-
40%-50% 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	-
30%-40% 미만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20%-30% 미만	도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10%-20% 미만	-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동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주: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청년 1인가구수,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성별 1인가구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는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과 달리 대부분의 자치구에 20-40% 미만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중장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와 금천구였는데, 중랑구 1인가구 중 39.7%, 금천구 1인가구 중 37.3%는 중장년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이병호, 2014), 금천구 1인가구 중 24.0%는 중장년남성 1인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취약집단으로 보고되는 중장

년여성 1인가구(박건 외, 2016)는 양천구와 도봉구가 16.3%로 가장 높았으나 23개 자치구의 중장년여성 1인가구 밀집도는 10-20%미만이었다. 청년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중장년여성 1인가구 비중은 동작구 9.6%, 관악구 8.3%로 가장 낮았다.

▌표 Ⅱ-12▐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2015)

밀집도[1)]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남성 1인가구	중장년여성 1인가구
40%이상	-	-	-
30%-40% 미만	중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
20%-30% 미만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
10%-20% 미만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 미만	-	-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주: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중장년 1인가구수,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성별 1인가구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서울시 1인가구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진 고령 1인가구는 자치구별 밀집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1인가구의 34.9%는 고령 1인가구였다. 이뿐만 아니라 도봉구 역시 고령 1인가구의 비중이 34.8%로 매우 높았으며, 강북구 또한 33.4%로 나타났다. 고령남성 1인가구에 비해 고령여성 1인가구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고령여성 1인가구가 자치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남성

1인가구보다 높았다. 자치구 중 고령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북구였으나, 10.3%로 다소 낮았다. 반면 노원구 1인가구 중 고령여성 1인가구는 26.2%였으며 도봉구 24.5%, 강북구 23.1% 역시 높았다.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양천구의 경우, 고령여성이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서울시 고령 1인가구 밀집지역(2015)

밀집도[1)]	고령 1인가구	고령남성 1인가구	고령여성 1인가구
40% 이상	-	-	-
30%-40% 미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	-
20%-30% 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10%-20% 미만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 미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주: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고령 1인가구수,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성별 1인가구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서울시 1인가구의 자치구별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 비중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안전에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중은 광진구 1인가구의 64.5%, 중랑구1인가구의 64.0%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중을 보인 관악구의 단독주택 1인가구 비중은 58.5%였다. 단독주택과 함께 주거안전에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인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와 송파구의 밀집도가 가장 높았는데 은평구 1인가구의 33.6%, 송파구 1인가구의 32.8%가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안전 환경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표 Ⅱ-14▐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별 밀집지역(2015)

밀집도[1)]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60% 이상	광진구, 중랑구	-	-	-
50%-60% 미만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노원구	-	-
40%-50% 미만	종로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	-	-
30%-40% 미만	중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도봉구, 강서구, 강남구	은평구, 송파구	-
20%-30% 미만	노원구, 강서구	중구, 성동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
10%-20% 미만	-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밀집도[1)]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10% 미만		광진구, 관악구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주1: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주거형태별 1인가구수 비율을 의미함
주2: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의 경우 중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이상 10-20%미만)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10%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1인가구의 점유유형을 통해서 주거불안정 지역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점유유형 중 가장 주거가 불안정하고 매월 주거비를 부담하는 월세로 거주하는 1인가구 거주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와 강남구로 나타났다. 관악구 1인가구의 61.3%, 강남구 1인가구의 60.0%가 월세 1인가구로 조사되어 1인가구 주거불안정성이 가장 심각한 자치구였다. 특히 두 지역은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그 중 청년 1인가구가 밀집된 자치구라는 공통점을 갖으며 간접적으로 청년 1인가구의 낮은 주거불안정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광진구 55.9%, 종로구 55.2%, 그리고 가장 낮은 월세 1인가구 비중을 보인 도봉구 35.9%까지 월세 1인가구가 자치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주거불안정의 문제가 단순 청년 1인가구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 전체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전세는 매월 경제적 부담을 지지는 않으나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불안정한 점유형태이다. 전세 1인가구의 밀집도는 월세와 같이 높은 밀집도와 특정지역에 편중된 모습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그 중 양천구가 31.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종로구와 용산구(10% 미만)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전세 1인가구 비중 20-30% 미만의 밀집도를 보였다.

가장 안정적 점유유형인 자가의 비중은 서울시 1인가구 중 18.2%로 매우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1인가구의 34.4%로 높았다. 월세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관악구 1인가구의 자가 비중은 9.8%로 가장 낮은 자치구였으며, 강남구 역시 13.4%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광진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모두 자가 비중 10-20% 미만으로 낮아 다시 한 번 청년층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나타났다.

▌표 Ⅱ-15▐ 서울시 1인가구 점유유형별 밀집지역(2015)

밀집도[1)]	자가	전세	월세
60% 이상	-	-	관악구, 강남구
50%-60% 미만	-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40%-50% 미만	-	-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30%-40% 미만	도봉구	양천구	도봉구, 은평구
20%-30% 미만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10%-20% 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용산구	-
10% 미만	관악구	-	-

주1: 자치구 1인가구수 대비 점유유형별 1인가구수 비율을 의미함
주2: 무상의 경우 모든 자치구가 10% 미만에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2.2.5. 소결 : 서울시 1인가구의 특징

본 장에서는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1인가구의 추이와 세대구성비, 주거형태, 점유유형 등을 분석하고 서울시 1인가구가 갖는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1인가구 내에서도 성별 및 세대별 비교를 통해 각 집단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세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25만명에 불과했던 서울시 1인가구는 점증하여 2015년 112만명에 달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로 서울시는 1인가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서울시 1인가구의 증감률은 30.6%를 보여 1인가구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로 가장 빠른 증가폭을 보여 향후 1인가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서울시 1인가구 증가추세로 인해 1인가구는 서울시 가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청년세대 46.8%, 중장년세대 29.8%, 고령세대 22.3%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령세대가 1인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1인가구의 수는 부산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체 1인가구 수를 크게 넘어선다. 따라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지원방안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1인가구는 세대에 따라 분포하고 있는 자치구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관악구는 서울시 1인가구의 9.0%가 집중되어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였으며 다음으로 강남구 5.6%, 강서구 5.1%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관악구는 두 번째로 1인가구가 집중된 강남구보다 1.6배 많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관악구 가구 중 40%는 1인가구였다. 관악구와 강남구는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가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청년 1인가구가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1인가구는 주로 노원구와 도봉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원구 1인가구의 34.9%, 도봉구 1인가구의 34.8%는 고령 1인가구였다. 종합해보면 서울시 1인가구는 관악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고령 1인가구는 노원구와 도봉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향후 특정세대를 대상으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치구별 1인가구 분포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1인가구의 46.2%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주거형태 중 주거환경 측면에서 가장 나은 것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20.7%, 연립/다세대 16.4%, 오피스텔 7.5%, 등의 순이었다. 청년 1인가구는 다른 세대와 달리 오피스텔 거주비중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오피스텔과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낮고 아파트 거주비중이 높았다. 즉 청년층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아파트 거주비중이 낮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성별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주거환경에 있어서 청년층과 남성이 열악한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초기자본의 부재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안전 등을 이유로 주거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1인가구의 77.3%는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불안정의 문제가 드러났다. 주거형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이 가장 심각함을 의미한다. 청년 1인가구의 63.0%는 매월 주거비를 부담하는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주거불안정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가구가 집중된 관악구와 강남구 1인가구의 60%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가장 안정된 고령 1인가구의 56.4%는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거불안은 1인가구 공통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이 요구된다.

2. 1인가구에 대한 법제 현황

1인가구의 증가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를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1인가구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도 사회보장 및 복지대상 등 많은 현행법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법제가 개인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

되어 1인가구를 포함하여 법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1인가구에 대한 기본권보장 내용과 영역별 관련법제에서의 1인가구에 대한 법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련 조례 등을 검토·분석한다.

2.2.1. 1인가구의 기본권

1인가구는 현행법상 가족제도로 보호받지는 못하나 1인가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1인가구도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혼인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며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된다.

둘째는「헌법」제11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사실 현행법상 1인가구는「헌법」이 보호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1인가구도 이에 의거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헌법」제34조에 의거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보건복지, 일자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1인가구는 이들보다 더욱 열악한 생활을 하더라도 사회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헌법」제35조제3항에서 주거생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요소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인가구도 다양한 주거지원의 대상으로서의 서비스

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의거해서는 1인가구는 보호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가족이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협동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하고 가족의 존립기반인 가정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을 전제로 하므로 1인가구는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2.2. 가족 관련 법제와 1인가구

「민법」에서 전제하는 가족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이며 1인가구는 가구형태에 따른 분류이므로 1인가구 중 원래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나 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인가구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조항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는 건강한 가정이 아닌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므로 국가와 지자체는 1인가구

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 증가를 억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인가구는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1인가구의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문제되는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 등을 심판을 통해 개시하며,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 후견의 심판을 통해 후견을 선임하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친족 등이 없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찾기 힘들고 1인가구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1인가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고려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2.2.3. 각 영역의 관련 법제: 주거 관련 법제

공공주택은 주로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이에 대한 공급은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 중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제2조제1호, 제2의2호).

이러한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을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청약가점제가 인정되는 항목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규정되어 있다[2)]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인가구에게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제도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된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은 1명마다 5점씩 가산되어 총 상한점 35점이 가산된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납입횟수가 같아도 1인가구는 5점에만 해당하므로 1인가구는 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는 국민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서도 동순위 경쟁 시 선발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여전히 1인가구에게 불리한 효과를 낳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활성화 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공급되는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상한가, 사업계획 승인기준, 주택공급 규칙적용,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규제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이므로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공시된 최저주택기준은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을 14m^2, 4인가구의 경우 43m2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도록 주택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 인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을 주택법 제5조의3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가 많이 주거하는 준주택에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으므로 최저기준의 적용이 요구된다.

제2조(정의)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2.2.4. 각 영역의 관련 법제: 사회보장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한 뒤 OECD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대도시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비중이 매우 높고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지 지출이 높다는 점 등 다양한 1인가구에 대한 소비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럼으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에 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수급자격 결정에서도 가구유형의 변화와 가구규모의 축소화 등 가족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3] 독거노인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준 완화 및 폐지가 요구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관련 법제

2.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총 1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5조, 제7조 참조

가족도시 구현이다.

둘째, 1인가구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이다. '1인가구 복지정책'은 1인가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정책을 말한다.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하며, '소셜다이닝'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1인가구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하여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고, 나눔활동 등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제고하는 공유사회 지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시장과 시민의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시민 또한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은 1인가구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1인가구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하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이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1인가구 복지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주거복지사업,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소셜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지원사업,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 기관 지원 사업, 1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등이다.

2.3.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2016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인가구',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공유주택'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셋째, 부산광역시는 1인가구의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도 이에 대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시장은 5년마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사회적 가족형성 유지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연구조사 사업,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1인가구 시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2.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9월 29일「세종특별자치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1인가구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인가구',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소셜다이닝'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시장의 책무로서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대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시장은 5년마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매년 시행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1인가구 지원 사업으로 소셜다이닝 등 사회적 가족 형성 유지 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사회 안정적 관계형성 지원 사업, 1인가구 복지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사업, 여가생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1인가구 지원시책의 홍보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2.3.4. 서울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7년 5월 15일「금천구 1인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1인가구

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책무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안전망구축, 주거지원, 커뮤니티 지원, 건강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Ⅱ-1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구분	조례명	제정일	시행일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 도시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6.3.24	2016.3.24	-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제1조) - 정의: 1인가구(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1인가구 복지정책,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공동생활가정, 소셜다이닝 등에 대한 정의(제3조) -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제4조) - 1인가구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제5조) - 5년마다 1인가구 복지에 관한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 제도개선/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제7조) -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제8조) - 실태조사 실시 및 계획 수립에 활용(제9조) - 1인가구 복지지원: 주거복지 사업/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공동생활가정[4]에 대한 지원사업/ 소셜 다이닝[5]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여가 생활 지원사업/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1인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제10조)

4) 공동생활가정: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제3조제5호)
5) 소셜 다이닝(Social-Dining):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제3조제6호)

구분	조례명	제정일	시행일	내용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2	2016.12.3	- 목적: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제1조) - 정의: 1인가구, 사회적 도시, 사회적가족도시, 공유주택 등에 대한 정의(제2조) - 광역시의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가족도시 조성에 대한 책무(제3조)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 규모, 조달방안 및 분배/ 기타 필요한 사항(제4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 - 실태조사 실시(제6조) - 지원사업: 공유주택(share house)[6] 등 주거사업/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사회적 가족형성 유지 지원 사업/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1인가구 복지 관련기관 단체 지원 및 연구 조사사업/ 그밖에 필요한 사업(제7조) - 홍보: 부산광역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제8조) - 1인가구 등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제9조)
세종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7.9.29	2017.9.29	- 목적: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제1조) - 정의: 1인가구, 사회적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소셜다이닝 등에 대한 정의(제2조) - 책무: 시장의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대한 규정(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 시행계획 수립,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제5조)

6) 공유주택 : 부산광역시장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제2조제4호)

구분	조례명	제정일	시행일	내용
				-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제6조) - 지원사업: 사회적 가족형성 유지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사회안정적 관계형성지원, 관련단체 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 여가생활지원(제7조) - 홍보 및 포상(제8조-제9조)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 1인가구 기본조례	2017.5.15	2017.5.15	- 목적: 금천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제1조) - 정의: 1인가구,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공유주택, 소셜다이닝 등에 대한 용어정의(제2조) - 구청장의 1인가구 등에 대한 책무(제3조) - 1인가구에 대해 5년만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제4조) - 시행계획 수립, 시행(제5조) - 실태조사 실시(제7조) -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공유주책 등 주거지원사업/ 소셜다이닝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1인가구 식품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제7조) - 포상(제8조)

2.3.5. 기타(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

1인가구와 관련된 조례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6개이며, 기초자치단체는 82개이다.

▌표 Ⅱ-17▐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강원도: 화천군,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창원시, 함안군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봉화군, 의성군, 청도군, 포항시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충청남도: 계룡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충청북도: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제천시, 대구광역시: 남구, 달성군, 동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전라남도: 곡성군, 나주시, 목포시, 영양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대부분이 1인가구 혹은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독사', '독거노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고독사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조례명에 "1인가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강동구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와 용산구의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1인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연령별에 상관없이 외로움 등에 시달리고 커뮤니티 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고독사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Ⅱ-18 참조).

▌표 Ⅱ-18▌ 서울시 강동구와 용산구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시행일	내용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2017.8.9	2017.8.9	- 목적: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제1조) - 정의: 1인가구,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정의(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강동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1인가구가 적용대상(제4조) -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매년 수립: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린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고독사 위험자 예방교육/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5조) -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제6조) - 지원대상 규정(제7조) -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발굴, 연계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등(제8조) - 협력체계구축(제9조)
서울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4.7	2017.4.7	- 목적: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1조) - 정의: 노인, 홀로 사는 노인,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정의(제2조) - 구청장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무(제3조) -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제5조) - 실태조사 실시(제6조) - 협력체계 구축(제7조) - 지원대상(제8조) - 지원내용: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간리사 등 파견을 통해 말벗, 안전확인 등 서비스 제공/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제9조)

2.3.6.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인가구가 최근에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는 주로 3-4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에 대부분의 법제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우선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라고 하여도 이를 보장해 줄 관련 법제는 1인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우선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관련 법제에서 가족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1인가구는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가족의 환경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인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므로 가족관련 법제에서 1인가구를 고려한 내용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주거관련법제에서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의 선정자격에 가족수에 따란 가점제가 있어서 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준주택의 경우 최소거주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1인가구의 현황을 고려하여 1인가구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의 선정자격을 정하고 최저거주기준을 준주택에도 고려하는 등의 주거분야에서의 다양한 법규나 기준에서 1인가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법 관련법제나 조세분야 관련 법제도 1인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내용의 개정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5년 단위의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 실태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규정은 있으나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3년 혹은 4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및 실태조사 실시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는 많은 기자체가 규정하고 있으나 고독사예방은 모든 1인가구에 필요하므로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독거노인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 1인가구도 포함하도록 법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내용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4. 1인가구 관련 정책

1인가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주거지원이나 돌봄 지원 정책에 한정되어 있는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 조례제정 및 보건복지, 커뮤니티, 주거, 안전영역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4.1. 중앙부처의 1인가구 정책

중앙정부는 아직 1인가구에 대한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정책 대상도 저소득 1인가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복지차원에서의 사업만이 행해지고 있다. 그 중 1인가구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공임대주택유형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실버주택, 기존 주태매입임대 및 행복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활용한 전세임대 및 고령층용 전세임대 등 있으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청년임대리츠 등 1인가구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1인가구 공통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거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차원으로의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지원정책 중 실질적 주거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조에 관한 정책으로 주거

비 및 금융관련지원이 있으며, 이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시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금융 관련 지원 중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청년 1인가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가 유리하며 버팀목 전세대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1인가구가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지원에 관한 정책 역시 저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주거지원정책 외에 돌봄지원정책을 꼽을 수 있다. 돌봄지원정책은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관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민간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을 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돌봄지원정책은 독거노인만을 위하거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독거노인을 우선시하는 등 고령 1인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중장년층 역시 돌봄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지닌다.

2.4.2. 서울시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인 만큼 복지, 네크워크 안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인가구 정책이나 사업은 제한적이다. 세대별로 1인가구 정책 지원영역이 다른데, 고령 1인가구는 돌봄영역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두드러진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목적은 고령 1인가구의 돌봄과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서울재가 관리사 사업, 사랑의 안심폰 지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안전과 정신건강, 식사지원에 한정

하고 있다. 고령 1인가구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1인가구 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목적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계획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선정·지원함으로써 1인가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아웃만들기 지원사업, 우리 마을 지원 사업-활동지원, 우리 마을 지원 사업-공간지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다만 사회적 고립을 가진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체로 회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1인가구의 성별·세대별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중 하나로 여성안전정책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지하철 보안관, 서울시 셉티드 사업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안심택배서비스와 안심귀가스카우트를 꼽을 수 있다. 안심택배서비스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험 또는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50개소에서 2017년 190개로 확대하였다. 안심택배서비스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거주지까지의 거리, 설치위치, 적은 공급량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의 귀갓길을 도와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역시 이용시간대와 정책이용 여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에게 주거안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안전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 중 중요한 주거분야의 정책으로는 1인가구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지방출신 서울시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50%이하 1인 단독가구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원룸형 임대주택 등이 주요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공공에서의 지속적인 공급의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주거공급 및 세대융합의 일환으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세대의 소극적 참여와 낮은 지원으로 인해 크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장진희 외, 2016).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1인가구만의 주거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을 여러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분야는 이른바 독거노인으로 일컬어지는 저소득층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고 안전영역은 여성 1인가구만을 중심으로 함과 동시에 안전의 매우 중요한 영역인 주거안전은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거영역은 저소득층 혹은 다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기본계획수립이 요구된다.

2.4.3.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커뮤티니 활성화를 위한 금천구의 대대(垈貸)식당, 광진구의 꿈꾸는 싱글라이프, 서초구의 별별동아리, 싱글톡톡 등이 있으며, 1인가구의 보건복지나 건강을 위해서는 강남구의 청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금천구의 혼밥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 성동구의 식사합시다, 송파구의 독거노인 텔레케어, 마포구의 골목형 시장 육성을 통한 1인가구를 위한 특화시장 만들기 등이 있다. 이러한 자치구별 1인가구 사업은 대부분 청년 1인가구 또는 고령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장년 1인가구 중심 사업을 가진 자치구는 금천구에 그쳤다. 또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은 마포구, 서초구 두 개 자치구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의 1인가구 사업은 대상별로 나누어 행해지긴 하나 대부분 청년층 또는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부족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사업은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건강이나 안전 등에 한정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2.4.4. 기존 1인가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1인가구의 정책이나 지원사업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주거지원정책과 돌봄지원정책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1인가구에 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복지, 주거, 커뮤니티, 안전 등 중앙정부보다 여러 영역에 걸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돌봄, 고독사 예방, 건강 등 한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정책 또는 사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법제가 우선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1인가구 일반특성
3. 1인가구 생활인식 및 태도
4. 1인가구 경제상태
5. 1인가구 주거환경 및 안전
6. 1인가구 안전상태
7. 1인가구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8. 1인가구 건강
9.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10. 소결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주요 결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7년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20-80대 남녀로 한정하였으며, 총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3,00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선별을 위해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서울시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권역별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양적조사이며, 조사대상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였다.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접근이 수월한 20-30대와 40대까지 온라인조사와 대면조사를 함께 실시하였고, 50대 이후부터의 조사는 모두 대면조사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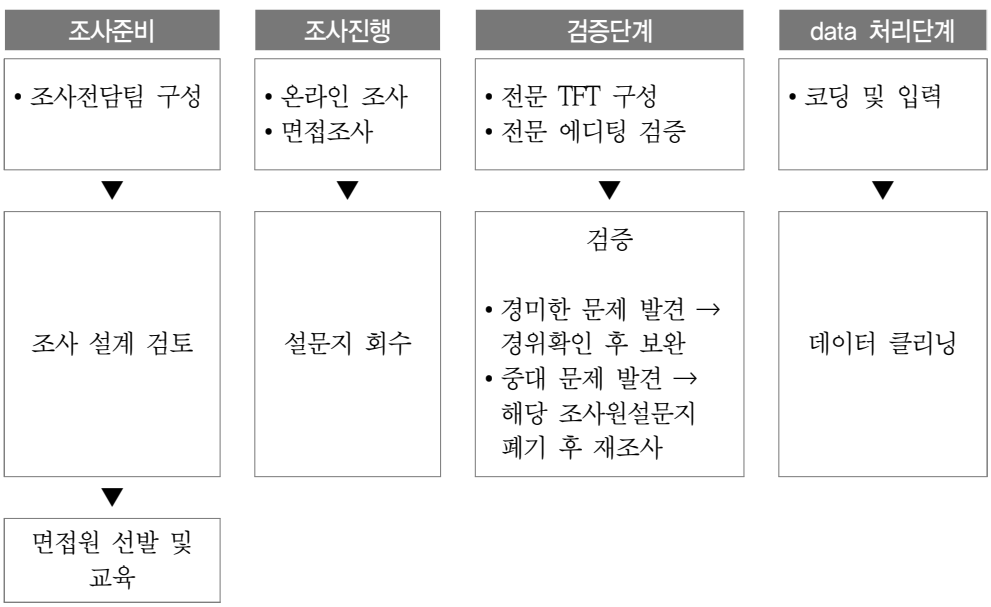
▌표 Ⅲ-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세대별 조사방법

구분	세부내용
20대 ~ 30대	온라인조사 / 대면조사
40대 ~ 50대	온라인 / 대면조사
60대 ~ 80대	대면조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준비단계, 진행단계, 검증단계, 자료처리단계 총 4단계의 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인가구 조사에 있어 대면조사의 높은 비중을 고려해 3년 이상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면접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장조

사 경험 5년 이상 전문가를 실사감독원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 중 개인적인 사정 등의 중도 탈락을 대비하여 동일한 자격조건의 예비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진행하였다.

▌표 Ⅲ-2▐ 조사계획 수립 4단계



실태조사 자료는 최종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에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기본적인 1인가구 인적특성과 함께 1인가구의 삶, 경제활동, 주거, 안전, 건강,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총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모든 세대에 걸쳐 동일한 하나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동일영역에 대해 세대별-성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인적특성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거주형태와 원가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근 일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가족을 별거와 분리하고자 기혼을 혼인상태에 포함하였다.

1인가구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1인가구에 유입하게 된 경로와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1인가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문항에 포함하였

다. 또한 현재의 1인가구 형태가 다른 가구형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향후 희망하는 가구형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1인가구의 차별경험을 조사하여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거영역은 주로 주거환경과 주거비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주거환경 중에서도 주거면적과 안전에 집중하였다. 현재 거주지의 안전정도와 불안의 원인을 밝히고자 문항을 구성하였고, 점유유형 및 주거환경이 사회적 관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등에서 사용되는 점유유형과 주거형태로는 1인가구의 주거환경을 정확히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유유형에는 기존의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반전세를 포함하여 설계하였으며, 주거형태에는 고시원/원룸, 오피스텔을 분리하여 보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주택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공동체주택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거안전을 제외한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일반 안전영역에 포함하였다. 일반 안전영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상태와 불안의 원인, 가장 불안한 장소와 가장 노출된 범죄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안전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일반 안전영역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여성안전정책의 인식정도와 이용률을 조사하여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1인가구의 건강상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주관적 신체·정신건강 상태와 우울감 경험여부, 만성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의료기관 방문과 운동 횟수에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1인가구가 갖는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특히1인가구 건강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혼자 지내는 것으로 인한 식생활 균형을 조사문항에 포함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및 여가는 1인가구가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갖는 가장 열악한 영역으로 여가시간 활용과 더불어 여가를 보내는 대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웃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있어 장벽의 높이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흔히 1인가구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1인가구가 실제적으로 고립된 대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원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과의 소통 및 접촉 빈도를 조사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았다.

경제상태는 현재 일을 하는 경제활동 1인가구와 비경제활동 1인가구를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비경제활동 1인가구를 대상으로 구직 시 어려운 점을 조사하고, 그 중 정년퇴직한 고령 1인가구의 일자리 욕구를 살펴보았다. 경제상태를 조사함에 있어 월평균임금과 부모지원, 자녀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소득을 파악하고, 월평균 지출과 부채규모를 파악하였다. 특히부채의 원인을 조사하여 1인가구의 빈곤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년을 혼자 보낼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 준비의 정도와 방법,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 주거, 안전, 건강,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총 5개 영역에 대해 정책욕구정도를 파악하고, 영역별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서울시 1인가구의 전반적 생활실태를 분석하고자 6개 영역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성별-세대별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조사영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형태별 또는 소득수준별, 혼인상태별 실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령, 주거형태는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주거안전은 주거형태에 크게 좌우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적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민감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1인가구 실태는 성별-세대별을 기본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의 요인을 추가로 제시하여 이것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Ⅲ-3▐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구분	중분류	주요 조사항목
1인가구의 삶	- 일반적 사항 - 삶의 만족도 - 향후 가구형태	• 1인가구가 된 최초 시점 및 합가여부 • 1인가구 거주기간, 유입경로, 차별경험 및 종류 • 1인가구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려운 점 • 향후 희망가구 및 거주 형태
경제활동	- 근로상태 - 소득 및 지출 - 저축 및 부채 - 구직활동 - 만족도	• 현재 경제활동 여부 및 하지 않는 이유,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 •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직업 및 산업 • 총소득(근로소득, 가족의 지원, 국민연금 등) • 월평균 생활비(저축, 여가, 부양비, 주거비, 부채상환 등) • 자산소유 여부, 부채의 규모 및 부채의 원인 • 서울시 및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향후 전반적 생활수준, 노후준비정도 및 방법
주거	- 주거현황 - 주거환경 - 주거선택 - 주거안전 - 주거만족	• 주거면적, 주택구입 마련 시 어려움 • 세입자 경험 및 집주인과의 관계, 주거지 만족도 •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망, 주거선택 시 중요순위 • 주거지 안전 및 불안의 원인 • 현재 주택마련 방법/비용, 임대주택에 관한 의견 • 중개수수료 부담정도, 현 주거지 비용 부담정도 • 공동체 주거에 관한 의견
안전	- 안전교육 - 안전환경 - 안전정책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및 불안의 원인 • 주관적 범죄발생 가능 장소, 주관적 범죄 노출정도 • 안전교육 수료 여부 및 일상생활에서 도움정도 • 향후 안전교육 참석에 대한 의견 • 서울시 안정정책에 관한 의견
건강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의료시설 이용 - 식생활	• 신체·정신 건강상태, 우울감 경험 여부 및 빈도, 만성질환 • 운동 빈도 및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함께 하는 사람 및 장소 •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장소 •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동반자 및 불편사항 • 평소 식생활에 관한 의견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 여가현황 - 여가여건 - 사회참여 - 원가족과의 관계 - 이웃과의 관계	•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시간 활용 • 희망 여가활동의 어려움 • 함께 여가를 보내는 사람 및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 사회단체나 모임에서의 활동정도, 고민상담 수 및 상담 대상자 •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 및 접촉빈도 • 원가족과 만나는 주된 목적, 비동거 가족 돌봄 역할수행 • 이웃의 수 및 친밀성 만족정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 • 사회관계에 관한 의견
정책요구	- 정책인지도 - 정책요구	• 1인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 각 영역별 정책수요

앞서 본 조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서울시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성별과 10세 단위 연령별, 5개 권역별 변수를 층화변수로 활용하여 표본설계 하였음을 밝혔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표집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 1인가구로 1년 이상 거주한 1인가구 총 3,000명을 유효 표본으로 남성 1인가구 1,469명(48.9%), 여성 1인가구 1,531명(51.1%)을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716명(23.9%)로 가장 많았고, 20-29세 704명(23.5%), 40-49세 482명(16.1%), 50-59세 422명(14.1%), 70세 이상 353명(11.8%), 60-69세 323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대별로 재구분하면 청년 1인가구는 1,420명(47.3%), 중장년 1인가구 904명(30.1%), 고령 1인가구 676명(22.5%)이었다. 성별-세대별 1인가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 681명(48.0%)이었으며, 청년남성 1인가구는 이보다 58명 많은 739명(52.0%)이었다. 중장년 1인가구 역시 청년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384명(42.5%)이었으며,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이보다 134명 많은 520명(57.5%)이었다. 고령세대는 고령여성 1인가구가 466명(68.9%)으로 고령남성 1인가구 210명(31.1%)보다 256명 많았다.

서울시 1인가구는 관악구, 강남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1인가구가 추출될 경우, 그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권역별 층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25개 자치구로 표본을 층화할 경우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1인가구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의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총조사 모집단을 활용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고 서남권 984명(32.8%), 동북권 932명(31.1%), 동남권 521명(17.3%), 서북권 367명(12.2%), 도심권 196명(6.5%)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서울시 1인가구 층화변수별 표집현황

(단위: 명, %)

구 분			3,00표본 할당	설문 취합 현황			
				%	온라인	대면	계
전체			3,000	100.0	1,269	1,731	3,000
성별	남성		1,469	48.9	670	799	1,469
	여성		1,531	51.1	599	932	1,531
연령별	20-29세		704	23.5	453	251	704
	30-39세		716	23.9	581	135	716
	40-49세		482	16.1	235	247	482
	50-59세		422	14.1	0	422	422
	60-69세		323	10.8	0	323	323
	70세 이상		353	11.8	0	353	353
성별-세대별	청년세대		1,420	100.0	966	416	1,382
		청년여성	681	48.0	500	181	681
		청년남성	739	52.0	466	235	701
	중장년세대		904	100.0	486	531	1,017
		중장년여성	384	42.5	350	147	497
		중장년남성	520	57.5	136	384	520
	고령세대		676	100.0	99	639	738
		고령여성	466	68.9	99	285	384
		고령남성	210	31.1	0	354	354
권역별	도심권		196	6.5	96	100	196
	동북권		932	31.1	354	578	932
	서북권		367	12.2	163	204	367
	서남권		984	32.8	432	552	984
	동남권		521	17.3	224	297	521

2. 1인가구 일반특성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시 1인가구의 절반이상(51.7%)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졸이하는 38.1%수준이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의 78.9%, 청년여성 1인가구의 80.4%가 2-3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인 반면 고령남성 1인가구 24.3%, 고령여성 1인가구 14.4%에 불과하였다. 특히 고령층은 성별 교육수준 차이가 가장 큰 세대로 나타났는데 주로 월소득 100만원 이상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고령남성이 집중되어 있는 점(장진희 외, 2015)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령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층은 가장 양질의 노동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침체 등을 원인으로 실업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요구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χ^2(p)
1인가구	(3,000)	(1,144)	38.1	(304)	10.1	(1,368)	45.6	(184)	6.1	-
남성	(1,469)	(475)	32.3	(148)	10.1	(749)	51.0	(97)	6.6	
청년	(739)	(156)	21.1	(73)	9.9	(461)	62.4	(49)	6.6	205.1***
중장년	(520)	(168)	32.3	(67)	12.9	(244)	46.9	(41)	7.9	
고령	(210)	(151)	71.9	(8)	3.8	(44)	21.0	(7)	3.3	
여성	(1,531)	(669)	43.7	(156)	10.2	(619)	40.4	(87)	5.7	
청년	(681)	(133)	19.5	(77)	11.3	(421)	61.8	(50)	7.3	445.2***
중장년	(384)	(160)	41.7	(56)	14.6	(138)	35.9	(30)	7.8	
고령	(466)	(376)	80.7	(23)	4.9	(60)	12.9	(7)	1.5	

*p<0.10, **p<.0.05, ***p<0.01

세대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실제 월평균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원졸업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251.4만원이었으나 동일세대 고졸이하 월평균임금은 이보다 49.5% 낮은 124.5만원이었다. 중장년층 역시 교

육수준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졸업 교육수준을 가진 중장년 1인가구의 월평균은 333.5만원이었으며 고졸이하는 이보다 50.9% 낮은 수준의 169.6만원이었다. 고령층은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큰 세대로 나타났는데 대학원졸 고령 1인가구는 309.3만원이었으나 고졸이하 고령 1인가구는 1/4수준의 54.2만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이하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가진 청년 1인가구와 고령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드러났다.

▌표 Ⅲ-6▐ 서울시 1인가구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단위: 명, 만원)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청년	(1,420)	(289)	124.5	(150)	181.2	(882)	194.8	(99)	251.4
중장년	(904)	(328)	169.6	(123)	194.4	(382)	233.0	(71)	333.5
고령	(676)	(527)	54.2	(31)	172.1	(104)	163.6	(14)	309.3

1인가구 혼인상태 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하였으나 비혼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 1인가구 혼인상태 구성은 비혼 65.1%, 이혼/별거 13.9%, 사별 11.4%, 기혼 9.6% 순이었다. 그중에서 청년남성 1인가구의 95.7%, 청년여성 1인가구의 98.2%는 비혼으로 이들의 향후 결혼이행 계획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비혼비중이 높은 청년층, 사별비중이 높은 고령층과 달리 중장년층은 다양한 혼인형태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기혼 14.6%, 비혼 45.1%, 이혼/별거 33.1%, 사별 7.3%였다. 반면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동일세대 여성 1인가구보다 비혼비중이 16.1%p 높은 61.2%였다.

▌표 Ⅲ-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인상태

(단위: 명, %)

구분		기혼		비혼		이혼/별거		사별	
1인가구	(3,000)	(287)	9.6	(1,953)	65.1	(417)	13.9	(343)	11.4
남성	(1,469)	(140)	9.5	(1,045)	71.1	(200)	13.6	(84)	5.7
청년	(739)	(22)	3.0	(707)	95.7	(8)	1.1	(2)	0.3
중장년	(520)	(67)	12.9	(318)	61.2	(126)	24.2	(9)	1.7
고령	(210)	(51)	24.3	(20)	9.5	(66)	31.4	(73)	34.8
여성	(1,531)	(147)	9.6	(908)	59.3	(217)	14.2	(259)	16.9
청년	(681)	(6)	0.9	(669)	98.2	(6)	0.9	(0)	0.0
중장년	(384)	(56)	14.6	(173)	45.1	(127)	33.1	(28)	7.3
고령	(466)	(85)	18.2	(66)	14.2	(84)	18.0	(231)	49.6

서울시 1인가구의 72.8%는 경제활동 중이었으며 27.2%는 비경제활동 1인가구로 나타났다. 성별 경제활동의 비중은 남성 1인가구 75.6%였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5.6%p 낮은 70.0%였는데 이는 중장년 이후의 성별차이에서 기인한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활동비중은 83.7%였으며 이후 중장년여성 1인가구 81.8%, 고령여성 1인가구 40.3%로 감소하였다. 남성 1인가구 역시 청년남성 1인가구 80.0%에서 중장년기에 소폭 증가하여 중장년남성 1인가구 81.8%, 고령남성 1인가구 44.8%로 감소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비중이 3.7%p 높았으나 중장년층부터 남성의 경제활동비중이 높아져 고령층에 가서는 고령남성 1인가구가 4.5%p 높았다.

특히 노동시장 은퇴시점이 지난 고령 1인가구의 경제활동 비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 1인가구의 40%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공공영역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경제적 자립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며,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하다. 고령 1인가구 역시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지니고 있으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마찬가지로 고령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표 Ⅲ-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χ^2(p)
1인가구	(3,000)	(2,183)	72.8	(817)	27.2	-
남성	(1,469)	(1,111)	75.6	(358)	24.4	
청년	(739)	(591)	80.0	(148)	20.0	127.3***
중장년	(520)	(426)	81.9	(94)	18.1	
고령	(210)	(94)	44.8	(116)	55.2	
여성	(1,531)	(1,072)	70.0	(459)	30.0	
청년	(681)	(570)	83.7	(111)	16.3	281.5***
중장년	(384)	(314)	81.8	(70)	18.2	
고령	(466)	(188)	40.3	(278)	59.7	
χ^2(p)						11.9***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는 여러 주거형태 중 열악한 환경으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 원룸/고시원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립/다세대(31.4%), 원룸/고시원(22.6%), 아파트(21.4%), 오피스텔(14.2%), 단독주택(9.1%), 기타(1.3%) 순이었다. 그 중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결과를 보였다. 여러 주거형태 중 가장 나은 주거환경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비중은 23.3%로 남성 1인가구 19.3%보다 4.0%p 높았다. 반대로 좁은 주거면적 등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알려진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은 29.3%였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3.2%p 낮은 16.1%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거형태는 안전문제와 직결되는데, 안전에 민감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진희 외, 2016).

청년세대에서 중장년, 고령세대로 올라갈수록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거주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오피스텔과 고시원/원룸 거주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정기간 이상의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계층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다. 바꿔 말하면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청년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집단임을 의미하는데 실제 조사결과, 청년남성 1인가구의 37.6%, 청년여성 1인가구의 30.4%가 고시원/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사회적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취약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 Ⅲ-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원룸		기타	
1인가구	(3,000)	(274)	9.1	(942)	31.4	(641)	21.4	(427)	14.2	(677)	22.6	(39)	1.3
남성	(1,469)	(131)	8.9	(389)	26.5	(284)	19.3	(222)	15.1	(430)	29.3	(13)	0.9
청년	(739)	(52)	7.0	(174)	23.6	(95)	12.9	(136)	18.4	(278)	37.6	(4)	0.5
중장년	(520)	(36)	6.9	(158)	30.4	(129)	24.8	(77)	14.8	(118)	22.7	(2)	0.4
고령	(210)	(43)	20.5	(57)	27.1	(60)	28.6	(9)	4.3	(34)	16.2	(7)	3.3
여성	(1,531)	(143)	9.3	(553)	36.1	(357)	23.3	(205)	13.4	(247)	16.1	(26)	1.7
청년	(681)	(24)	3.5	(209)	30.7	(72)	10.6	(158)	23.2	(207)	30.4	(11)	1.6
중장년	(384)	(29)	7.6	(145)	37.8	(143)	37.2	(33)	8.6	(27)	7.0	(7)	1.8
고령	(466)	(90)	19.3	(199)	42.7	(142)	30.5	(14)	3.0	(13)	2.8	(8)	1.7

서울시 1인가구의 31.7%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반전세 9.2%, 사글세 8.3%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1인가구의 49.2%는 매달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27.5%는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1인가구의 81.8%는 주거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는 결과를 보였다. 즉 서울시 10가구 중 8가구는 주거불안정, 절반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주거불안정은 청년층에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 55.8%, 청년여성 1인가구 56.3%는 보증금 월세 또는 사글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드러났다.

▌표 Ⅲ-1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점유유형

(단위: 명, %)

구분		자가		전세		반전세		보증금 월세		사글세		임대·무상·기타		χ^2(p)
1인가구	(3,000)	(546)	18.2	(825)	27.5	(275)	9.2	(950)	31.7	(250)	8.3	(154)	5.1	-
남성	(1,469)	(244)	16.6	(366)	24.9	(133)	9.1	(479)	32.6	(176)	12	(71)	4.8	
청년	(739)	(67)	9.1	(162)	21.9	(79)	10.7	(328)	44.4	(84)	11.4	(19)	2.6	158.2***
중장년	(520)	(112)	21.5	(155)	29.8	(37)	7.12	(118)	22.7	(67)	12.9	(31)	6	
고령	(210)	(65)	31	(49)	23.3	(17)	8.1	(33)	15.7	(25)	11.9	(21)	10	
여성	(1,531)	(302)	19.7	(459)	30	(142)	9.3	(471)	30.7	(74)	4.8	(83)	5.4	
청년	(681)	(44)	6.5	(167)	24.5	(70)	10.3	(332)	48.8	(51)	7.5	(17)	2.5	315.6***
중장년	(384)	(103)	26.8	(118)	30.7	(48)	12.5	(80)	20.8	(10)	2.6	(25)	6.5	
고령	(466)	(155)	33.3	(174)	37.3	(24)	5.2	(59)	12.7	(13)	2.8	(41)	8.8	
χ^2(p)														58.3***

*p<0.1, **p<.0.05, ***p<0.01

주거형태와 점유유형은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인가구의 소득수준[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서울시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232.4만원이었으며 중위소득은 200.0만원으로 나타나 세대별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이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성별 임금차이에 있어서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남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51.8만원,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39.5만원 낮은 212.3만원이었다. 그 중 혼인해체를 경험한 대상이 다수 포함되는 중장년층은 성별임금차이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281.3만원을 보인 중장년남성 1인가구에 비해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50.7만원 낮은 230.6만원이었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결과는 여성이 경제적 취약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에 더욱 민감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7) 소득수준은 연령과 종사상지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이는 '서울시 1인가구 경제상태'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표 Ⅲ-1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단위: 만원)

구분		표본수	월평균임금	중위임금	표준편차
1인가구		(2,183)	232.4	200.0	138.1
남성		(1,111)	251.8	230.0	158.9
	청년	(591)	235.5	210.0	132.2
	중장년	(426)	281.3	250.0	166
	고령	(94)	221.1	180.0	240.9
여성		(1,072)	212.3	200.0	109
	청년	(570)	211.7	200.0	91.8
	중장년	(314)	230.6	200.0	116
	고령	(188)	183.2	180.0	136.1

서울시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 분포는 300만원 이상 25.2%, 200-250만원 미만 24.1%, 135만원 초과-200만원 미만 22.9%, 250-300만원 미만 14.1% 순이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7%는 최저임금이하로 나타나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책욕구를 집중 조명할 필요가 드러났다.

월평균임금 분포를 통해 성별임금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남성 1인가구는 200-250만원을 중심으로 고소득에 분포되는 반면 여성 1인가구는 200-250만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에 분포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남성 1인가구는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에 31.8%가 집중되어있고 200-250만원 미만에 21.6%가 분포한 쌍봉형태를 가졌다. 반면 여성 1인가구는 200-250만원에 26.6%가 집중되어 있고 135-200만원 미만 25.7%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을 가진 여성 1인가구 비중은 남성 1인가구보다 13.3%p 낮은 18.5%수준이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하 수준의 임금을 가진 비중 역시 남성 1인가구 10.6%보다 6.3%p 높은 16.9%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성별 임금분포의 차이는 크게 중장년세대와 고령세대에 의해 발생하였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무려 41.3%가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장년 여성 1인가구는 22.6%에 불과하였다. 최저임금이하 비중 역시 중장년남성 1인가구 6.6%,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3.6%p 높은 10.2%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은 최

저임금이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그 중 특히 고령여성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고령남성 1인가구의 25.5%가 최저임금이하 소득을 가진 반면, 고령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9.1%p 높은 34.6%였다.

▌표 Ⅲ-12▐ 서울시 경제활동 1인가구 성별·세대별 소득분포

(단위: 명, %)

구분		최저임금 이하		135–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χ^2(p)
1인가구	(2,183)	(299)	13.7	(500)	22.9	(525)	24.1	(308)	14.1	(551)	25.2	-
남성	(1,111)	(118)	10.6	(225)	20.3	(240)	21.6	(175)	15.8	(353)	31.8	
청년	(591)	(66)	11.2	(127)	21.5	(152)	25.7	(89)	15.1	(157)	26.6	107.8***
중장년	(426)	(28)	6.6	(58)	13.6	(81)	19.0	(83)	19.5	(176)	41.3	
고령	(94)	(24)	25.5	(40)	42.6	(7)	7.5	(3)	3.2	(20)	21.3	
여성	(1,072)	(181)	16.9	(275)	25.7	(285)	26.6	(133)	12.4	(198)	18.5	
청년	(570)	(84)	14.7	(134)	23.5	(177)	31.1	(82)	14.4	(93)	16.3	73.3**
중장년	(314)	(32)	10.2	(94)	29.9	(76)	24.2	(41)	13.1	(71)	22.6	
고령	(188)	(65)	34.6	(47)	25.0	(32)	17.0	(10)	5.3	(34)	18.1	
χ^2 (p)												70.8***

*p<0.1, **p<.0.05, ***p<0.01

3. 1인가구 생활인식 및 태도

3.3.1. 1인가구의 삶

□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혼인상태 변화,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1인가구 유입. 청년 1인가구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고령 1인가구 사별,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유입경로를 지닌 중장년 1인가구

1인가구의 주된 유입경로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40.5%)였으며 이혼, 별거, 사별(20.9%), 개인적 편의와 자유(20.2%)순이었다. 반면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유입비중은 2.8%에 불과하여 원가족과의 단절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의한 유입경로는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혼인해체로 인한 유입비중이 높았고 남성 1인가구는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유입이 높았다. 남성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해서(41.8%),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서(23.5%),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등 혼인해체로 인해서(14.8%)등이었다. 여성 1인가구 역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해서(39.2%)가 가장 높았으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유입(26.7%)은 남성 1인가구보다 11.9%p 높았다. 반면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유입된 비중은 남성보다 6.5%p 높은 17.0%였다.

청년층은 주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1인가구에 유입되었으며 고령층은 사별로 인한 유입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중장년층은 특정 유입경로가 아닌 여러 경로가 복합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23.9%), 개인적 편의와 자유(29.8%), 혼인해체(19.4%), 가족구성원의 이동(13.7%) 순이었다. 중장년여성 1인가구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의 특징과 고령 1인가구의 특징이 복합된, 청년세대에서 고령세대로 이행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세대로 해석된다.

▌표 Ⅲ-1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유입경로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인가구	3,000	(1,214)	40.5	(626)	20.9	(71)	2.4	(319)	10.6	(83)	2.8	(605)	20.2	(82)	2.7
남성	1,469	(614)	41.8	(218)	14.8	(48)	3.3	(141)	9.6	(48)	3.3	(345)	23.5	(55)	3.7
청년	739	(474)	64.1	(10)	1.4	(3)	0.4	(33)	4.5	(12)	1.6	(174)	23.6	(33)	4.5
중장년	520	(124)	23.9	(101)	19.4	(30)	5.8	(71)	13.7	(24)	4.6	(155)	29.8	(15)	2.9
고령	210	(16)	7.6	(107)	51.0	(15)	7.1	(37)	17.6	(12)	5.7	(16)	7.6	(7)	3.3
여성	1,531	(600)	39.2	(408)	26.7	(23)	1.5	(178)	11.6	(35)	2.3	(260)	17.0	(27)	1.8
청년	681	(487)	71.5	(6)	0.9	(4)	0.6	(58)	8.5	(9)	1.3	(108)	15.9	(9)	1.3
중장년	384	(86)	22.4	(133)	34.6	(7)	1.8	(50)	13.0	(14)	3.7	(92)	24.0	(2)	0.5
고령	466	(27)	5.8	(269)	57.7	(12)	2.6	(70)	15.0	(12)	2.6	(60)	12.9	(16)	3.4

①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②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④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⑤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⑥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기타

□ 경제적 불안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 외로움이 혼자 살아가는 가장 큰 어려움. 그 중 여성 1인가구 안전에 대한 높은 불안감

혼자 생활하면서 갖는 주된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31.0%)과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24.1%), 외로움(22.0%)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2.2%)은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1인가구의 공통된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가구에게 경제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외의 문제는 성별과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1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29.8%)에 이어 외로움(27.6%),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21.4%) 순이었으며,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32.1%),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26.7%), 외로움(16.7%) 등이었다. 특히 남성 1인가구 중 안전(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가진 비중은 0.8%에 불과하였으나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0.3%p 높은 11.2%로 나타나 명확한 성별차이를 보였다. 여성 1인가구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안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 중 21.7%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고령세대로 이동할수록 외로움과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이 큰 결과를 보여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표 Ⅲ-1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자 사는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인 가구	3,000	930	661	724	73	64	184	66	9	94	159	36
	100.0	31.0	22.0	24.1	2.4	2.1	6.1	2.2	0.3	3.1	5.3	1.2
남성	1,469	438	406	315	38	57	12	31	6	48	99	19
	100.0	29.8	27.6	21.4	2.6	3.9	0.8	2.1	0.4	3.3	6.7	1.3
청년	739	252	194	123	19	34	7	9	2	38	53	8
	100.0	34.1	26.3	16.6	2.6	4.6	1.0	1.2	0.3	5.1	7.2	1.1
중장년	520	128	146	139	15	20	5	7	4	9	38	9
	100.0	24.6	28.1	26.7	2.9	3.9	1.0	1.4	0.8	1.7	7.3	1.7
고령	210	58	66	53	4	3	0	15	0	1	8	2
	100.0	27.6	31.4	25.2	1.9	1.4	0.0	7.1	0.0	0.5	3.8	1.0
여성	1,531	492	255	409	35	7	172	35	3	46	60	17
	100.0	32.1	16.7	26.7	2.3	0.5	11.2	2.3	0.2	3.0	3.9	1.1
청년	681	204	89	146	11	6	148	5	3	30	30	9
	100.0	30.0	13.1	21.4	1.6	0.9	21.7	0.7	0.4	4.4	4.4	1.3
중장년	384	154	53	95	19	1	17	11	0	8	24	2
	100.0	40.1	13.8	24.7	5.0	0.3	4.4	2.9	0.0	2.1	6.3	0.5
고령	466	134	113	168	5	0	7	19	0	8	6	6
	100.0	28.8	24.3	36.1	1.1	0.0	1.5	4.1	0.0	1.7	1.3	1.3

①경제적 불안감 ②외로움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 ④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성(性)적인 문제 해결 ⑥안전(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⑦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 ⑧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⑪기타

▫ 이혼/별거 여성 1인가구의 높은 경제적 불안감

혼인해체로 인해 1인가구로 유입된 집단은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주로 여성 1인가구에게 나타났다. 이혼/별거 여성 1인가구 45.2%가 경제적 어려움을 보인 반면 이혼/사별 남성 1인가구는 26.5%였으며 기혼남성27.9%, 미혼남성 31.2%보다 더 낮았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경험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노동시장 이탈 후 이혼, 사별로 인해 갑자기 1인가구에 유입된 집단의 경제적 문제를 지적한 박건 외(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Ⅲ-15▐ 서울시 1인가구 성별-혼인상태별 혼자 사는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남성	기혼	140	39	40	28	1	8	0	3	0	3	16	2
		100.0	27.9	28.6	20.0	0.7	5.7	0.0	2.1	0.0	2.1	11.4	1.4
	미혼	1,045	326	271	218	27	42	11	14	5	44	73	14
		100.0	31.2	25.9	20.9	2.6	4.0	1.1	1.3	0.5	4.2	7.0	1.3
	이혼 별거	200	53	64	47	9	6	1	7	1	1	9	2
		100.0	26.5	32.0	23.5	4.5	3.0	0.5	3.5	0.5	0.5	4.5	1.0
	사별	84	20	31	22	1	1	0	7	0	0	1	1
		100.0	23.8	36.9	26.2	1.2	1.2	0.0	8.3	0.0	0.0	1.2	1.2
여성	기혼	147	37	34	55	2	0	7	2	0	2	6	2
		100.0	25.2	23.1	37.4	1.4	0.0	4.8	1.4	0.0	1.4	4.1	1.4
	미혼	908	280	124	212	18	6	163	13	2	37	43	10
		100.0	30.8	13.7	23.4	2.0	0.7	18.0	1.4	0.2	4.1	4.7	1.1
	이혼 별거	217	98	34	44	13	1	1	12	1	4	7	2
		100.0	45.2	15.7	20.3	6.0	0.5	0.5	5.5	0.5	1.8	3.2	0.9
	사별	259	77	63	98	2	0	1	8	0	3	4	3
		100.0	29.7	24.3	37.8	0.8	0.0	0.4	3.1	0.0	1.2	1.5	1.2

①경제적 불안감 ②외로움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 ④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성(性)적인 문제 해결 ⑥안전(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⑦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 ⑧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⑪기타

□ 서울시 1인가구 35.8% 향후 결혼 희망, 23.7% 1인가구 유지계획. 중장년여성 1인가구, 향후 비혈연가구 구성에 가장 긍정적이나 청년남성 1인가구는 가장 부정적

1인가구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1인가구는 결혼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 1인가구로 머물러 있는 대상으로 평가하며 현재 저출산의 원인을 1인가구 증가에서 찾는다. 나아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1인가구의 지원이 저출산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논의는 1인가구가 모두 결혼을 희망하며 정상가구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한편에서는 1인가구는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가구의 형태이며, 1인가구 생활방식에 인정과 존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의 점검을 위해 1인가구의 다인가구로의 이행가능성과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1인가구의 35.8%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1인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중도 23.7%를 차지하였다. 즉 1인가구는 다인가구로의 이행과정에 있기도 하며, 현재의 1인가구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기도 하는 복합적 집단인 것이다. 다만, 성별에 의한 원하는 가구형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남성 1인가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비중(42.7%)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를 지속하거나 비혈연(非血緣)가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었다.

남성 1인가구의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42.7%), 지금처럼 혼자(20.3%), 잘 모르겠음(16.4%), 원가족과 함께(11.7%) 등의 순이었다. 여성 1인가구 역시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29.2%)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 1인가구보다 13.5%p 낮았으며, 지금처럼 혼자(27.0%), 잘 모르겠음(19.0%), 원가족과 함께(12.7%) 등의 순이었다. 친구,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에 있어 남성 1인가구는 8.4%, 여성 1인가구 11.2%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가 비혈연가구 구성에 더욱 긍정적이었다.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는 성별차이와 더불어 세대별 차이도 크게 발생했다.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남성 1인가구는 55.2%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6.7%p 낮은 48.5%였다. 이처럼 청년 1인가구의 절반 수준만이 결혼을

희망하는 결과는 이들의 지원을 통한 결혼-저출산 대응이 정책효과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8.4%, 청년여성 1인가구 9.7%였으나 고령남성 1인가구 20.0%, 고령여성 1인가구 17.0%로 증가하였다. 혼자 사는 어려움에 있어서 중장년 1인가구와 고령 1인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높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받기 위해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

(단위: 명, %)

구분		지금처럼 혼자		원래의 가족과 함께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잘 모르겠음		기타	
1인가구	(3,000)	(711)	23.7	(366)	12.2	(1,074)	35.8	(104)	3.5	(190)	6.3	(532)	17.7	(23)	0.8
남성	(1,469)	(298)	20.3	(172)	11.7	(627)	42.7	(45)	3.1	(78)	5.3	(241)	16.4	(8)	0.5
청년	(739)	(130)	17.6	(62)	8.4	(408)	55.2	(23)	3.1	(24)	3.3	(89)	12.0	(3)	0.4
중장년	(520)	(130)	25.0	(68)	13.1	(195)	37.5	(14)	2.7	(36)	6.9	(76)	14.6	(1)	0.2
고령	(210)	(38)	18.1	(42)	20.0	(24)	11.4	(8)	3.8	(18)	8.6	(76)	36.2	(4)	1.9
여성	(1,531)	(413)	27.0	(194)	12.7	(447)	29.2	(59)	3.9	(112)	7.3	(291)	19.0	(15)	1.0
청년	(681)	(168)	24.7	(66)	9.7	(330)	48.5	(25)	3.7	(35)	5.1	(54)	7.9	(3)	0.4
중장년	(384)	(113)	29.4	(49)	12.8	(87)	22.7	(19)	5.0	(52)	13.5	(62)	16.2	(2)	0.5
고령	(466)	(132)	28.3	(79)	17.0	(30)	6.4	(15)	3.2	(25)	5.4	(175)	37.6	(10)	2.2

□ 월평균 임금수준과 1인가구 형태의 지속성은 역U자형태 관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비혈연가구 구성에 부정적

일각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서울시 경제활동 1인가구 중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희망하는 비중은 42.1%로, 비경제활동 1인가구 19.0%에 비해 23.1%p 높았다. 하지만 비제활동 1인가구는 결혼의향이 낮은 고령층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는 과대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임금수준과 향후 가구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수준을 가진 1인가구 중 앞으로도 1인가구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중은 26.8%였으나, 135-200만원 미만 23.0%, 200-250만원 미만 22.9%, 250-300만원 미만 21.4%로 낮아졌다. 즉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1인가구를 희망하는 비중이 낮아져 임금수준과 1인가구 형태의 지속성은 역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에서는 앞으로도 1인가구를 희망하는 비중이 26.7%로 증가하여 임금수준과 1인가구 형태의 지속성은 역U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대로 결혼을 희망하는 비중은 최저임금이하 28.1%, 135-200만원 미만 37.4%, 200-250만원 미만 46.3%, 250-300만원 미만 49.7%로 증가하나, 300만원 이상의 경우 다시 45.7%로 감소하였다.

향후 비혈연가구와의 가구구성에 있어서도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친구 등 친한 사람들 또는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비중은 최저임금이하 16.4%, 135-200만원 미만 11.0%, 200-250만원 미만 8.2%, 250-300만원 미만 8.4%, 300만 원 이상 6.4%를 보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비혈연가구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였다.

▌표 Ⅲ-17▐ 서울시 1인가구 임금수준별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

(단위: 명, %)

구분		지금처럼 혼자	원래의 가족과 함께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잘 모르겠음	기타
비경제활동 1인가구	817	183	119	155	37	49	260	14
	100.0	22.4	14.6	19.0	4.5	6.0	31.8	1.7
경제활동 1인가구	2,183	528	247	919	67	141	272	9
	100.0	24.2	11.3	42.1	3.1	6.5	12.5	0.4
최저임금 이하	299	80	39	84	17	32	46	1
	100.0	26.8	13.0	28.1	5.7	10.7	15.4	0.3
135-200만원 미만	500	115	47	187	19	36	91	5
	100.0	23.0	9.4	37.4	3.8	7.2	18.2	1.0
200-250만원 미만	525	120	57	243	10	33	59	3
	100.0	22.9	10.9	46.3	1.9	6.3	11.2	0.6
250-300만원 미만	308	66	34	153	8	18	29	0
	100.0	21.4	11.0	49.7	2.6	5.8	9.4	0.0
300만원 이상	551	147	70	252	13	22	47	0
	100.0	26.7	12.7	45.7	2.4	4.0	8.5	0.0

□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청년세대는 주로 지속적인 결혼강요, 중장년 이후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견, 차별, 무시경험. 여성 1인가구 주로 결혼강요, 남성 1인가구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서울시 1인가구의 53.5%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형태로는 지속적인 결혼강요(15.2%)와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3.6%),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11.9%)가 가장 많았다. 최근 1인가구를 다루는 언론이나 세미나, 포럼 등에서 1인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결과를 대변한다.

여성 1인가구는 주로 지속적인 결혼강요(15.8%)와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12.2%),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2.0%)이 차별의 주요 형태였다. 또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성희롱 경험비중은 6.2%로, 남성 1인가구

1.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성 1인가구는 지속적인 결혼강요(14.5%)보다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5.2%)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또한 1인가구로 인한 차별이나 무시의 경험은 세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지속적인 결혼강요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후 세대의 경우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22.0%, 청년남성 1인가구의 16.8%가 지속적인 결혼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가구에 대해 무능력자 또는 문제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결혼을 강요하는 현실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가 다인가구만을 정상가구로 여기고 1인가구는 비정상적인 혹은 건강하지 않은 가구형태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1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편견, 차별, 무시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무능력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		지속적인 결혼강요		성희롱		소득공제에서제외		복지서비스 제외		기타		없음	
1인가구	3,666	497	13.6	556	15.2	145	4.0	304	8.3	436	11.9	25	0.7	1,703	46.5
남성	1,769	269	15.2	256	14.5	27	1.5	144	8.1	204	11.5	11	0.6	857	48.5
청년	881	96	10.9	148	16.8	18	2.0	73	8.3	103	11.7	1	0.1	442	50.2
중장년	666	123	18.5	103	15.5	7	1.1	63	9.5	91	13.7	5	0.8	274	41.1
고령	221	50	22.6	5	2.3	2	0.9	8	3.6	10	4.5	5	2.3	141	63.8
여성	1,898	228	12.0	300	15.8	118	6.2	160	8.4	232	12.2	14	0.7	846	44.6
청년	897	67	7.5	197	22.0	69	7.7	104	11.6	137	15.3	5	0.6	318	35.5
중장년	505	104	20.6	77	15.3	33	6.5	41	8.1	74	14.7	3	0.6	173	34.3
고령	496	57	11.5	26	5.2	16	3.2	15	3.0	21	4.2	6	1.2	355	71.6

주: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결과임

□ 서울시 1인가구 73.2% 현재의 삶에 만족. 특히 고령 1인가구의 낮은 삶의 만족

서울시 1인가구는 1인가구로 인한 차별과 편견, 무시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2%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여성 1인가구와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1인가구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69.3%, 중장년남성 1인가구 64.2%, 고령남성 1인가구 43.9%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 77.0%, 중장년여성 77.1%, 고령여성 1인가구 63.1%였다.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영정·장진희(2017)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절대소득의 규모보다 사회적 관계망과 고용안정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상태와 주거환경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다른 요인들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며 반대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지닌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은 수준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Ⅲ-1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χ^2(p)
1인가구	3,000	134	4.5	669	22.3	1,753	58.4	444	14.8	-
남성	1,469	89	6.1	362	24.6	822	56	196	13.3	
청년	739	23	3.1	124	16.8	471	63.7	121	16.4	130.0^{***}
중장년	520	31	6	155	29.8	269	51.7	65	12.5	
고령	210	35	16.7	83	39.5	82	39.1	10	4.8	
여성	1,531	45	2.9	307	20.1	931	60.8	248	16.2	
청년	681	4	0.6	88	12.9	444	65.2	145	21.3	103.6^{***}
중장년	384	14	3.7	74	19.3	235	61.2	61	15.9	
고령	466	27	5.8	145	31.1	252	54.1	42	9	
χ^2(p)										30.6^{***}

*p<0.1, **p<.0.05, ***p<0.01

4. 1인가구 경제상태

3.4.1.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수준

□ 여성 1인가구의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 중장년여성의 고용불안정 심각. 임시/일용직 1인가구 월평균소득 상용직의 59.2% 수준, 중장년 1인가구 가장 큰 소득수준 격차. 서울시 1인가구 중 31.6% 최저임금이하 소득수준, 고령 1인가구의 경제적 취약계층

서울시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8%로 높았으나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 고용형태인 상용직의 비중은 63.2%에 그쳤으며 임시/일용직 22.5%,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 14.3%였다. 상용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모두 63.2%로 동일하였으나 임시/일용직 비중은 여성 1인가구 23.7%, 남성 1인가구 21.4%로 여성 1인가구가 소폭 높았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상용직 비중은 71.9%로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았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 57.0%, 고령여성 1인가구는 46.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청년남성 1인가구의 상용직 비중은 66.2%, 중장년남성 1인가구 63.9%, 고령남성 1인가구 41.5%로 나타나 청년층 이후 감소하는 모습은 여성 1인가구와 동일하였으나 세대 간 차이는 적었다. 또한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상용직 비중은 중장년여성 1인가구보다 6.9%p 높았는데 이들은 성별 간 고용상태와 소득차이가 가장 큰 세대로 드러났다.

▌표 Ⅲ-2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지위

(단위: 명, %)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		χ^2(p)
1인가구	(2,183)	(1,379)	63.0	(492)	22.5	(312)	14.3	-
남성	(1,111)	(702)	63.2	(238)	21.4	(171)	15.4	
청년	(591)	(391)	66.2	(125)	21.2	(75)	12.7	26.2***
중장년	(426)	(272)	63.9	(79)	18.5	(75)	17.6	
고령	(94)	(39)	41.5	(34)	36.2	(21)	22.3	
여성	(1,072)	(677)	63.2	(254)	23.7	(141)	13.2	
청년	(570)	(410)	71.9	(118)	20.7	(42)	7.4	64.5***
중장년	(314)	(179)	57.0	(68)	21.7	(67)	21.3	
고령	(188)	(88)	46.8	(68)	36.2	(32)	17.0	
χ^2(p)								3.2

*p<0.1, **p<.0.05, ***p<0.01

서울시 상용직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246.8만원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은 상용직 월평균임금의 59.2%에 불과한 146.6만원이었다. 임시/일용직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9만원 많은 수준으로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었다. 그 중에서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결과를 보였는데 상용직 남성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262.8만원,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30.5만원 낮은 230.3만원이었다. 또한 임시/일용직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는데 임시/일용직 남성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164.7만원, 여성 1인가구는 129.6만원으로 최저임금이하 수준을 보였다. 임시/일용직 1인가구는 상용직보다 약 100만원 낮은 수준의 월평균임금을 보였다. 즉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더 낮은 임금수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차이는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시/일용직 여성 1인가구의 임금은 최저임금이하 수준으로 가장 취약계층이었다.

청년여성 1인가구는 청년남성 1인가구보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았으나, 월평균임금에 있어서 청년남성 1인가구 251.2만원, 청년여성 1인가구 230.2만원으로 21.0만원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임시/일용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약 4만원 높은 139.6만원 수준이었으며, 임시/일용직 청년남성 1인가구 역시 143.6만원으로 최저임금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상용직 임금수준 차이는 중장년 1인가구에서 가장 컸다. 상용직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286.7만원이었으나, 상용직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53.0만원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164.5만원의 월평균임금을 보여 상용직 중장년여성 1인가구보다 69.2만원 낮았다. 또한 임시/일용직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210.7만원보다 46.2만원 낮았다. 특히 고령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223.7만원으로 고령남성 1인가구 212.3만원보다 11.4만원 높았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고령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77.5만원 수준으로 상용직 고령여성 1인가구 임금수준의 34.5%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고령남성 1인가구 135.4만원 보다 57.9만원 낮았다.

▌표 Ⅲ-21 ▌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	
1인가구	2,183	232.4	1,379	246.8	492	146.6	312	304.0
남성	1,111	251.8	702	262.8	238	164.7	171	328.2
청년	591	212.3	391	230.3	125	129.6	75	274.6
중장년	426	235.5	272	251.2	79	143.6	75	307.0
고령	94	281.3	39	286.7	34	210.7	21	336.0
여성	1,072	221.1	677	212.3	254	135.4	141	376.2
청년	570	211.7	410	230.2	118	139.6	42	234.0
중장년	314	230.6	179	233.7	68	164.5	67	289.6
고령	188	183.2	88	223.7	68	77.5	32	296.6

서울시 1인가구는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근로소득과 가족의 지원, 금융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공적 부조, 개인연금 등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30.9%(926명)는 부모, 형제, 재매 등 가족으로부터 매달 58.9만원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청년남성 1인가구 57.2만원, 청년여성 1인가구 60.3만원 수준이었다. 중장년남성 1인가구 71.2만원, 중장년여성 1인가구 84.0

만원, 고령남성 1인가구 48.4만원, 고령여성 1인가구 51.1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은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낮은 모습을 보였다.

본업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 서울시 1인가구는 161명이었으며 월평균 43.1만원의 소득을 가졌다. 추가근로를 하는 1인가구 중 73.9%(119명)는 청년 1인가구로 나타나 청년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부조 수급자는 251명이었으며, 월평균 31.2만원을 수급하고 있었다.

▌표 Ⅲ-22▐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

(단위: 명, %)

구분	가족의 지원		추가 근로소득		공적 부조	
1인가구	926	58.9	161	43.1	251	31.2
남성	405	58.4				
청년	238	59.2				
중장년	85	57.2				
고령	82	71.2				
여성	521	48.4				
청년	212	60.3				
중장년	70	84.0				
고령	239	51.1				

주: 추가 근로소득, 공적 부조의 경우 표본 수가 적어 성별·세대별 구분을 제시하지 않음

앞서 ▌표 Ⅲ-11▐에서 경제활동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 분포를 살펴보았고, 19.7%가 최저임금이하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지원, 추가 근로소득, 공적 부조 등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 전체 1인가구 월평균 총소득에 있어서 무려 31.6%가 최저임금이하 소득수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고령남성 1인가구의 57.6%, 고령여성의 65.0%가 최저임금이하를 보여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고, 청년남성 1인가구 24.9%, 청년여성 1인가구 23.9% 역시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후에 자세히 다루겠으나 저소득층 1인가구는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 생활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요구된다.

▌표 Ⅲ-2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소득

(단위: 명, %)

구분		최저임금 이하		135-200만 원미만		200-250만 원미만		250-300만 원미만		300만원 이상		χ^2(p)
1인가구	(3,000)	(948)	31.6	(510)	17.0	(531)	17.7	(326)	10.8	(685)	22.8	-
남성	(1,469)	(406)	27.6	(225)	15.3	(247)	16.8	(175)	11.9	(416)	28.3	
청년	(739)	(184)	24.9	(126)	17.1	(156)	21.1	(89)	12.0	(184)	24.9	174.6***
중장년	(520)	(101)	19.4	(58)	11.2	(79)	15.2	(76)	14.6	(206)	39.6	
고령	(210)	(121)	57.6	(41)	19.5	(12)	5.7	(10)	4.76	(26)	12.4	
여성	(1,531)	(542)	35.4	(285)	18.6	(284)	18.6	(151)	9.9	(269)	17.6	
청년	(681)	(163)	23.9	(138)	20.3	(175)	25.7	(83)	12.2	(122)	17.9	280.9***
중장년	(384)	(76)	19.8	(88)	22.9	(70)	18.2	(50)	13.0	(100)	26.0	
고령	(466)	(303)	65.0	(59)	12.7	(39)	8.4	(18)	3.9	(47)	10.1	
χ^2(p)												61.2***

*p<0.1, **p<.0.05, ***p<0.01

3.4.2. 비경제활동의 원인 및 구직욕구

□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위축 가장 심각, 비경제활동 고령 1인가구의 높은 치료비 부담. 청년 1인가구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중장년 1인가구 고용조건에 대한 불만족. 구직 시 청년 1인가구 원하는 임금수준 미달, 중장년 1인가구 나이가 가장 큰 어려움. 은퇴한 고령 1인가구 60.4% 여전히 일하기를 희망, 그러나 노인일자리 부족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경제활동 1인가구 중 42.0%는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을 꼽았는데 이는 경제상태와 사회적 관계망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관계망이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에 이서 생계유지의 어려움(29.9%)과 자하실현 부족(15.4%) 등의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질병 치료비 부족(8.0%), 비동거가족 부양비 부족(3.8%)은 낮았다.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성별에 따른 어려움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 위축을 응답한 비중은 남성 1인가구의 40.2%, 여성은 이보다 3.2%p 높은 43.4%였다. 반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가진 남성 1인가구는 32.4%였는데 비경제활동 여성 1인가구 27.9%보다

4.5%p 높았다. 즉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에 민감하나 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보다 생계유지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령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여성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였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 36.5%, 중장년남성 1인가구 41.5%, 고령남성 1인가구 44.0%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 27.9%, 중장년여성 1인가구 54.3%, 고령여성 1인가구 46.8%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어려움을 보인 집단 역시 30% 수준을 보여 비경제활동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 요구된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질병 치료비의 어려움 비중 역시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으로 인해 질병 치료비 부족의 어려움을 가진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4.1%, 중장년남성 1인가구 2.1%에 불과하였으나, 고령남성 1인가구는 12.9%로 조사되었다.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4.3%, 고령여성 14.0%로 나타나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1인가구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높아졌으나 여성 1인가구는 낮아졌다. 이는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와 달리 자아실현의 어려움과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담, 사회적 관계망 위축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 발생하는 결과를 보인다.

▌표 Ⅲ-24▐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가구 일을 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생계유지 어려움		자아실현 부족		비동거가족 부양비 부족		질병 치료비 부족		사회적 관계망 위축		기타	
1인가구	(817)	(244)	29.9	(126)	15.4	(31)	3.8	(65)	8.0	(343)	42.0	(8)	1.0
남성	(358)	(116)	32.4	(61)	17.0	(9)	2.5	(23)	6.4	(144)	40.2	(5)	1.4
청년	(148)	(44)	29.7	(37)	25.0	(3)	2.0	(6)	4.1	(54)	36.5	(4)	2.7
중장년	(94)	(30)	31.9	(17)	18.1	(6)	6.4	(2)	2.1	(39)	41.5	(0)	0.0
고령	(116)	(42)	36.2	(7)	6.0	(0)	0.0	(15)	12.9	(51)	44.0	(1)	0.9
여성	(459)	(128)	27.9	(65)	14.2	(22)	4.8	(42)	9.2	(199)	43.4	(3)	0.7
청년	(111)	(42)	37.8	(30)	27.0	(6)	5.4	(0)	0.0	(31)	27.9	(2)	1.8
중장년	(70)	(16)	22.9	(10)	14.3	(3)	4.3	(3)	4.3	(38)	54.3	(0)	0.0
고령	(278)	(70)	25.2	(25)	9.0	(13)	4.7	(39)	14.0	(130)	46.8	(1)	0.4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는 정년퇴직 및 은퇴(23.%)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16.4%),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이 없어서(15.2%),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느라고(14.6%),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12.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세대별 원인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청년 1인가구의 41.3%는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이 주 원인이었으며 중장년 1인가구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이 없어서가 32.3%로 가장 많았다. 청년 1인가구는 취업을 위한 교육준비, 중장년 1인가구는 고용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 상태로 조사되었다. 고령 1인가구는 정년퇴직 및 은퇴(48.7%), 건강상의 문제(25.9%)로 나타났다.

▌표 Ⅲ-25▐ 서울시 비경제활동 1인가구 세대별 일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경제활동 1인가구	817	99	124	62	44	43	134	119	192
	100.0	12.1	15.2	7.6	5.4	5.3	16.4	14.6	23.5
청년	259	36	45	17	21	23	10	107	0
	100.0	13.9	17.4	6.6	8.1	8.9	3.9	41.3	0.0
중장년	164	29	53	17	23	12	22	8	0
	100.0	17.7	32.3	10.4	14.0	7.3	13.4	4.9	0.0
고령	394	34	26	28	0	8	102	4	192
	100.0	8.6	6.6	7.1	0.0	2.0	25.9	1.0	48.7

주: 표본수로 인해 성별·세대별 구분을 제시하지 않음

①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②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이 없어서 ③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어서 ④일하고 싶지 않아서(59세 이하) ⑤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⑥건강이 좋지 않아서 ⑦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느라고 ⑧정년퇴직 및 은퇴 등(60세 이상)

59세 이하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구직 시 어려움은 나이(27.6%),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9.4%), 임금수준의 미달(19.3%) 등의 순이었다. 그 중에서 청년층은 원하는 임금수준 미달(27.8%),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부재(23.4%)가 주된 장애요인이었으며 19.8%는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비경제활동 중장년 1인가구의 구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이(31.2%)로 나타났으며 능력발휘 일자리의 부재(19.9%), 원하는 임금수준

미달(16.5%) 등으로 조사되었다. 비경제활동 고령 1인가구 역시 구직에 있어서 나이(57.4%)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요구된다.

▌표 Ⅲ-26▐ 서울시 비경제활동 1인가구 구직 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능력발휘 일자리 부재	능력 부족	원하는 임금 수준 미달	근무 시간 문제	출퇴근 거리	성차별	나이	기타
비경제활동 1인가구	878	170	119	169	102	58	15	242	3
	100.0	19.4	13.6	19.3	11.6	6.6	1.7	27.6	0.3
청년	389	91	77	108	57	25	8	22	1
	100.0	23.4	19.8	27.8	14.7	6.4	2.1	5.7	0.3
중장년	231	46	24	38	26	18	6	72	1
	100.0	19.9	10.4	16.5	11.3	7.8	2.6	31.2	0.4
고령	258	33	18	23	19	15	1	148	1
	100.0	12.8	7.0	8.9	7.4	5.8	0.4	57.4	0.4

주1: 표본수로 인해 성별·세대별 구분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정년퇴직 및 은퇴로 현재 일하지 않는 60세 이상 1인가구의 60.4%는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34.9%) 일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고령세대의 일자리 부족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의 보수가 낮음(6.8%)을 지적하였는데, 현재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보수 역시 월평균 50만원 이하 수준으로 낮아 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표 Ⅲ-27▐ 60세 이상 1인가구 비경제활동 이유

(단위: 명, %)

구분	비중	N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34.9	(67)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3.1	(6)
손자녀 돌봄 등으로 인해 일할 시간이 없어서	5.7	(11)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의 보수가 너무 낮아서	6.8	(13)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4.7	(9)
하고 싶은 일자리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0.5	(1)
기타	4.7	(9)
일하고 싶지 않음	39.6	(76)
총 합	100.0	(192)

3.4.3. 생활비 지출 및 노후준비 정도

□ 여성 1인가구 대비 남성 1인가구의 높은 생활비 지출.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67.8% 월평균 100만원 미만 지출부담. 서울시 1인가구의 27.4% 부채보유, 주요 원인은 주거, 그 중 청년층 교육비, 중장년 및 고령층 생활비 마련

서울시 1인가구의 월평균지출 분포는 주로 50-100만원 미만(27.5%)과 100-150만원 미만(25.3%)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200만 원 이상(17.4%), 50만원 미만(14.9%), 150-200만원 미만(14.8%) 순이었다. 성별 월평균지출을 보면 여성 1인가구 중 14.2%가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생활비 지출하는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이보다 6.6%p가 높은 20.8%였다. 가장 고소득 집단인 중장년남성 1인가구 중 32.9%는 200만원 이상의 월평균지출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고령여성 1인가구의 35.2%는 50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남성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및 총소득에 이어 월평균지출에 있어서도 여성 1인가구보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Ⅲ-2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지출 분포

(단위: 명,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χ^2(p)
1인가구	(3,000)	(447)	14.9	(826)	27.5	(760)	25.3	(444)	14.8	(523)	17.4	-
남성	(1,469)	(182)	12.4	(375)	25.5	(366)	24.9	(240)	16.3	(306)	20.8	
청년	(739)	(91)	12.3	(229)	31.0	(191)	25.9	(120)	16.2	(108)	14.6	142.4***
중장년	(520)	(36)	6.9	(82)	15.8	(130)	25.0	(101)	19.4	(171)	32.9	
고령	(210)	(55)	26.2	(64)	30.5	(45)	21.4	(19)	9.1	(27)	12.9	
여성	(1,531)	(265)	17.3	(451)	29.5	(394)	25.7	(204)	13.3	(217)	14.2	
청년	(681)	(82)	12.0	(223)	32.8	(199)	29.2	(96)	14.1	(81)	11.9	200.3***
중장년	(384)	(19)	5.0	(96)	25.0	(113)	29.4	(62)	16.2	(94)	24.5	
고령	(466)	(164)	35.2	(132)	28.3	(82)	17.6	(46)	9.9	(42)	9.0	
χ^2(p)												40.2***

*p<0.1, **p<0.05, ***p<0.01

실제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표 Ⅲ-29▐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지출 상관관계

구분	월평균소득	월평균지출
월평균소득	1	-
월평균지출	0.482***	1

*p<0.1, **p<.0.05, ***p<0.01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의 특성상 현재 소득원이 없는 비경제활동 1인가구라 할지라도 주거비, 생활비 등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를 가진 서울시의 1인가구는 그 부담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울시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31.7%는 매월 50만원 미만의 생활비 지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50-100만원 미만의 고정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67.8%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족의 지원과 부채로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1인가구의 빈곤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표 Ⅲ-30▐ 서울시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별 월평균지출

(단위: 명,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χ^2(p)
경제활동 1인가구	2,183	188	523	602	401	469	410.3***
	100.0	8.6	24.0	27.6	18.4	21.5	
비경제활동 1인가구	817	259	303	158	43	54	
	100.0	31.7	37.1	19.3	5.3	6.6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의 27.4%는 현재 부채를 지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주택마련(29.4%)이었으며 생계비(20.7%), 교육비(14.7%), 사업자금 마련(13.2%), 재테크 자금 마련(10.5%) 등 순이었다. 또한 각 세대별 부채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24.1%는 교육비를 꼽았으며 중장년층의 경우 생계비와 사업자금 마련이 20.6%였다. 고령층 역시 15.0%가 생계비를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비경제활동 1인가구는 주택마련(19.6%)으로 인한 부채보다 생계비(22.2%)를 위해 빚을 지는 비중이 높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이중적 빈곤이 우려된다.

▌표 Ⅲ-31▐ 서울시 1인가구 세대별-경제활동상태별 부채원인

(단위: 명, %)

구분		교육비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장례비	재테크 자금마련	사업자금 마련	생계비	주택 마련	기타
1인가구	1,015	149	53	45	107	134	210	294	23
	100.0	14.7	5.2	4.4	10.5	13.2	20.7	29.0	2.3
청년	465	112	26	21	41	30	104	123	8
	100.0	24.1	5.6	4.5	8.8	6.5	22.4	26.5	1.7
중장년	423	27	15	19	53	87	87	127	8

구분			교육비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장례비	재테크 자금마련	사업자금 마련	생계비	주택 마련	기타
		100.0	6.4	3.6	4.5	12.5	20.6	20.6	30.0	1.9
	고령	127	10	12	5	13	17	19	44	7
		100.0	7.9	9.5	3.9	10.2	13.4	15.0	34.7	5.5
	경제활동	857	120	35	38	96	113	175	263	17
		100.0	14.0	4.1	4.4	11.2	13.2	20.4	30.7	2.0
	비경제 활동	158	29	18	7	11	21	35	31	6
		100.0	18.4	11.4	4.4	7.0	13.3	22.2	19.6	3.8

주1: 표본수로 인해 성별·세대별 구분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 최저임금이하 계층의 부채원인, 주택마련보다 교육비

소득수준별 부채의 원인에서도 1인가구의 생계부담이 관찰된다. 월평균소득 135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집단의 22.0%는 교육비로 인해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6%는 생계비가 그 원인이었다. 즉 이들은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주택마련으로 인한 부채보다 생계와 교육을 위해 빚을 지고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에게 주택마련보다 지금 당장의 생계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의 높은 교육비 대출은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혹은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표 Ⅲ-32▐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부채원인

(단위: 명, %)

구분		교육비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장례비	재테크 자금마련	사업자금 마련	생계비	주택 마련	기타
최저임금 이하	255	56	21	11	19	37	55	48	8
	100.0	22.0	8.2	4.3	7.5	14.5	21.6	18.8	3.1
135-200만원 미만	201	33	12	8	23	21	44	56	4
	100.0	16.4	6.0	4.0	11.4	10.5	21.9	27.9	2.0
200-250만원 미만	205	32	7	12	15	22	46	67	4
	100.0	15.6	3.4	5.9	7.3	10.7	22.4	32.7	2.0

구분		교육비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장례비	재테크 자금마련	사업자금 마련	생계비	주택 마련	기타
250-300만원 미만	128	11	7	6	12	17	22	51	2
	100.0	8.6	5.5	4.7	9.4	13.3	17.2	39.8	1.6
300만원 이상	226	17	6	8	38	37	43	72	5
	100.0	7.5	2.7	3.5	16.8	16.4	19.0	31.9	2.2

주1: 표본수로 인해 성별·세대별 구분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서울시 1인가구의 항목별 지출현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조사대상의 18.1%[8]는 현재 부채상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제외한 지출 중 가장 큰 월평균 4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의 부채가 이들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부양비를 지출하고 있는 비중은 12.0%[9]에 불과하였으나 월평균 43.7만원으로 부채상환 다음으로 높았다.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 특성은 주거비 항목에서 발견된다. 주거비는 여러 지출항목 중 가장 다수가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의 78.5%[10] 매월 27.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인가구의 67.6%[11]는 교제 및 사교비(친구모임, 술값, 경조사비)로 월평균 24.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부담이 가장 낮은 항목은 자기 개발비(운동,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교재, 도서구입비 등)로 월평균 14.7만원 수준이었다.

8) 총 3,000명의 조사대상 중 543명이 부채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 총 3,000명의 조사대상 중 361명이 자녀부양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총 3,000명의 조사대상 중 2,355명이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 총 3,000명의 조사대상 중 2,029명이 교제 및 사교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항목별 지출현황

(단위: 만원, 명)

구분	월평균 저축액		여가 생활비		자기 개발비		교제 및 사교비		부모 부양비		자녀 부양비		주거비		부채 상환	
1인가구	(1,820)	63.2	(1,971)	21.6	(1,358)	14.7	(2,029)	24.0	(870)	28.5	(361)	43.7	(2,355)	27.6	(543)	43.9
남성	(857)	66.7	(960)	24.7	(657)	15.9	(980)	28.6	(455)	30.0	(173)	54.9	(1,140)	29.5	(292)	45.3
청년	(474)	63.3	(601)	18.9	(415)	16.9	(513)	26.9	(229)	25.4	(41)	35.3	(577)	29.7	(124)	37.5
중장년	(317)	74.2	(333)	25.3	(205)	13.8	(364)	32.0	(211)	35.3	(97)	62.3	(424)	30.8	(147)	53.1
고령	(66)	55.8	(67)	18.2	(37)	17.1	(103)	25.1	(15)	25.5	(35)	57.4	(139)	26.7	(23)	37.3
여성	(968)	60.0	(1,011)	18.6	(701)	13.5	(1,049)	19.7	(415)	26.9	(188)	33.4	(1,215)	25.7	(251)	42.2
청년	(504)	59.5	(601)	18.0	(446)	13.6	(555)	20.6	(189)	24.9	(19)	15.6	(575)	28.9	(124)	37.4
중장년	(303)	64.6	(254)	18.0	(175)	13.9	(297)	18.7	(182)	26.7	(100)	37.9	(339)	24.3	(90)	47.1
고령	(161)	52.9	(156)	18.4	(80)	11.5	(197)	18.7	(44)	36.5	(69)	31.7	(301)	20.1	(37)	46.4

주: 각 항목에 대해 지출이 없는 대상자를 제외한 평균값임. 이로 인해 각 항목의 관측지가 상이함

□ 총소득의 39.2% 주거관련 지출, 고령 1인가구 부채상환 및 자녀부양 부담

소득대비 항목별 지출비중을 보면 저축액이 27.2%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부양비(21.6%), 부채상환(20.2%), 주거비(19.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주택마련이 주된 원인인 부채상환과 주거비(19.0%), 즉 주거관련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2%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월평균소득 중 월평균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고령 1인가구의 경우 부채상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중 고령남성 1인가구는 소득 중 부채상환이 2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7.3%는 주거비, 26.5%는 자녀부양비, 월평균저축액은 25.4% 등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층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과 자녀부양에 부담을 동시에 지닌 집단으로 드러났다.

▌표 Ⅲ-3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항목별 소득대비 지출비중

(단위: %, 명)

구분	월평균 저축액		여가 생활비		자기 개발비		교제 및 사교비		부모 부양비		자녀 부양비		주거비		부채 상환		총지출	
1인가구	(1,825)	27.2	(1,971)	12.1	(1,358)	8.9	(2,029)	13.8	(870)	12.2	(361)	21.6	(2,355)	19.0	(543)	20.2	(2,664)	70.5
남성	(857)	27.7	(960)	13.6	(657)	10.1	(980)	15.7	(455)	11.9	(173)	24.7	(1,140)	19.9	(292)	19.6	(1,310)	73.9
청년	(474)	28.1	(560)	14.6	(415)	11.7	(513)	15.3	(229)	10.9	(41)	17.6	(577)	19.7	(122)	17.5	(684)	74.5

구분	월평균 저축액		여가 생활비		자기 개발비		교제 및 사교비		부모 부양비		자녀 부양비		주거비		부채 상환		총지출	
중장년	(317)	27.6	(333)	10.8	(205)	6.0	(364)	14.4	(211)	12.7	(97)	27	(424)	17.7	(147)	19.9	(468)	73.8
고령	(66)	25.4	(67)	18.8	(37)	13.8	(103)	22	(15)	15.4	(35)	26.5	(139)	27.3	(23)	28.5	(158)	71.6
여성	(968)	26.8	(1,011)	10.8	(701)	7.8	(1,049)	12	(415)	12.5	(188)	18.7	(1,215)	18.2	(251)	20.9	(1,354)	67.1
청년	(504)	26.5	(601)	11.0	(446)	8.5	(555)	11.9	(189)	11.1	(19)	9.7	(575)	17.0	(124)	16.8	(658)	67.6
중장년	(303)	27.1	(254)	8.0	(175)	6.3	(297)	9.2	(182)	12.2	(100)	18.1	(339)	14.1	(90)	20.5	(365)	67.8
고령	(161)	26.8	(156)	14.5	(80)	7.3	(197)	16.3	(44)	19.2	(69)	22	(301)	25.1	(37)	35.6	(331)	65.2

주: 각 항목에 대해 지출이 없는 대상자를 제외한 평균값임. 이로 인해 각 항목의 관측지가 상이함

□ 서울시 1인가구의 74.6%, 월평균 총소득의 60% 미만 지출. 노후대비의 어려움

서울시 1인가구의 총소득 중 저축을 제외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총소득의 20%미만을 지출하는 비중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20-40%미만(26.7%), 그리고 40-60%미만(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소득보다 더 큰 지출을 가진 비중도 6.2%로 조사되었다. 여성 1인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가 소득대비 지출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 모두 20-40%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인 고령 1인가구의 경우, 20%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Ⅲ-3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소득대비지출 분포

(단위: 명, %)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χ^2(p)
1인가구	(3,000)	(829)	27.6	(802)	26.7	(610)	20.3	(351)	11.7	(223)	7.4	(185)	6.2	-
남성	(1,469)	(374)	25.5	(381)	25.9	(302)	20.6	(170)	11.6	(132)	9.0	(110)	7.5	
청년	(739)	(174)	23.6	(198)	26.8	(155)	21.0	(81)	11.0	(71)	9.6	(60)	8.1	56.7***
중장년	(520)	(110)	21.2	(148)	28.5	(117)	22.5	(75)	14.4	(35)	6.7	(35)	6.7	
고령	(210)	(90)	42.9	(35)	16.7	(30)	14.3	(14)	6.7	(26)	12.4	(15)	7.1	
여성	(1,531)	(455)	29.7	(421)	27.5	(308)	20.1	(181)	11.8	(91)	5.9	(75)	4.9	
청년	(681)	(147)	21.6	(201)	29.5	(168)	24.7	(83)	12.2	(48)	7.1	(34)	5.0	130.5***
중장년	(384)	(105)	27.3	(117)	30.5	(70)	18.2	(55)	14.3	(20)	5.2	(17)	4.4	
고령	(466)	(203)	43.6	(103)	22.1	(70)	15.0	(43)	9.2	(23)	4.9	(24)	5.2	
χ^2 (p)														14.8***

*p<0.1, **p<0.05, ***p<0.01

▫ 낮은 노후대비 정도,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의 절반이상 노후준비 미흡

서울시 1인가구의 74.6%는 월평균 총소득의 60%미만을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미래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조사대상의 14.6%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노후대비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장년층 역시 노후대비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54.6%, 중장년여성 1인가구 43.8%가 노후대비를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층 역시 고령남성 1인가구 64.3%, 고령여성 1인가구 69.3%로 노후대비 정도가 매우 낮았다.

▌표 Ⅲ-3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노후대비 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		적극적으로 준비		보통		전반적으로 준비를 못함		전혀 준비를 못함		χ^2(p)
1인가구	(3000)	(135)	4.5	(303)	10.1	(827)	27.6	(780)	26	(955)	31.8	-
남성	(1,469)	(69)	4.7	(158)	10.8	(403)	27.4	(360)	24.5	(479)	32.6	22.3***
청년	(739)	(31)	4.2	(87)	11.8	(201)	27.2	(156)	21.1	(264)	35.7	
중장년	(520)	(27)	5.2	(60)	11.5	(149)	28.7	(140)	26.9	(144)	27.7	
고령	(210)	(11)	5.2	(11)	5.2	(53)	25.2	(64)	30.5	(71)	33.8	
여성	(1,531)	(66)	4.3	(145)	9.5	(424)	27.7	(420)	27.4	(476)	31.1	74.7***
청년	(681)	(22)	3.2	(66)	9.7	(188)	27.6	(175)	25.7	(230)	33.8	
중장년	(384)	(24)	6.3	(44)	11.5	(148)	38.5	(102)	26.6	(66)	17.2	
고령	(466)	(20)	4.3	(35)	7.5	(88)	18.9	(143)	30.7	(180)	38.6	
χ^2 (p)												4.5

*p<0.1, **p<0.05, ***p<0.01

▫ 현재 생활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준비 어려움

또한 1인가구의 노후대비는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12]를 보여 소득수준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를 못하는 원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12)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과 노후대비 간의 상관관계는 -0.295***(***p<0.01))로 나타났다.

서(7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후대비를 못하는 있는 절대적인 수는 최저임금 이하가 1,735명 중 82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 생활유지의 문제로 인해 노후대비를 못하는 비중은 300만원 이상(71.4%)의 소득을 가진 집단보다 다소 낮은 72.0%였다. 특히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1.7%로 가장 낮았으며, 최저임금이하 소득계층 역시 1.7%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역시 국가가 사회의 보장을 기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즉 현재 노후대비의 여부는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원인은 소득수준과 별개로 현재 생활유지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 대한 기대도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Ⅲ-37▐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노후대비를 못하는 원인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인가구	1,735	1,312	58	29	30	100	76	33	52	45
	100.0	75.6	3.3	1.7	1.7	5.8	4.4	1.9	3.0	2.6
최저임금 이하	827	595	13	15	14	52	41	26	33	38
	100.0	72.0	1.6	1.8	1.7	6.3	5.0	3.1	4.0	4.6
135-200만원 미만	311	256	14	2	3	20	10	0	3	3
	100.0	82.3	4.5	0.6	1.0	6.4	3.2	0.0	1.0	1.0
200-250만원 미만	288	233	12	5	5	15	8	2	7	1
	100.0	80.9	4.2	1.7	1.7	5.2	2.8	0.7	2.4	0.4
250-300만원 미만	131	101	12	3	2	4	6	2	1	0
	100.0	77.1	9.2	2.3	1.5	3.1	4.6	1.5	0.8	0.0
300만원 이상	178	127	7	4	6	9	11	3	8	3
	100.0	71.4	3.9	2.3	3.4	5.1	6.2	1.7	4.5	1.7

①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 ②결혼자금(예식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③재산 상속이 있어서 ④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을 기대해서 ⑤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⑥건강이 좋지 않아서 ⑦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느라고 ⑧정년퇴직 및 은퇴 등(60세 이상)

5. 1인가구 주거환경 및 안전

3.5.1.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

□ 주거환경(주거면적, 소음, 방음 등)보다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 편리성, 저렴한 비용이 주거 선택 시 가장 우선, 그 중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안전 중요

서울시 1인가구의 31.0%는 주거지 선택 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교통의 편리성(17.2%), 저렴한 비용의 경제성(17.1%), 거주경험이 있는 지역(11.6%)의 순이었다. 특히주거면적 및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보는 비중은 4.8%에 불과하여 1인가구에게 주거환경보다 경제성,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이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모두 전반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치안 및 안전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지 선택 시 치안 및 안정성을 고려하는 남성 1인가구는 1.8% 이었으나,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9.1%p 높은 10.9%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어려움에 있어서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는데, 주거지 선택에서 다시 한 번 여성 1인가구에게 안전이 중요함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선택 시 치안 및 안전은 여성 1인가구 내에서도 세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 14.2%, 중장년여성 1인가구 10.7%, 고령여성 1인가구 6.2%로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혼자 사는 어려움에 있어서도 청년여성 1인가구가 가장 안전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거지 선택에 있어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성 1인가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여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이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에 비해 안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에 민감한 결과를 보였다. 청년남성 1인가구의 18.9%, 중장년남성 1인가구 17.9%, 고령남성 1인가구 26.2%가 경제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1인가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 15.1%, 중장년여성 1인가구 10.9%, 고령여성

1인가구 17.0%로 나타나 남성보다 경제성에 대한 비중이 낮았다.

▌표 Ⅲ-3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지 선택 시 중요요인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인가구		3,000	347	930	247	90	515	512	193	144	22
		100	11.6	31	8.2	3	17.2	17.1	6.4	4.8	0.7
남성		1,469	170	506	100	49	244	288	26	76	10
		100	11.6	34.5	6.8	3.3	16.6	19.6	1.8	5.2	0.7
	청년	739	66	308	46	34	100	140	7	31	7
		100	8.9	41.7	6.2	4.6	13.5	18.9	1	4.2	1
	중장년	520	64	182	26	8	103	93	12	31	1
		100	12.3	35	5	1.5	19.8	17.9	2.3	6	0.2
	고령	210	40	16	28	7	41	55	7	14	2
		100	19.1	7.6	13.3	3.3	19.5	26.2	3.3	6.7	1
여성		1,531	177	424	147	41	271	224	167	68	12
		100	11.6	27.7	9.6	2.7	17.7	14.6	10.9	4.4	0.8
	청년	681	33	276	19	22	104	103	97	26	1
		100	4.9	40.5	2.8	3.2	15.3	15.1	14.2	3.8	0.2
	중장년	384	52	105	35	5	85	42	41	19	0
		100	13.5	27.3	9.1	1.3	22.1	10.9	10.7	5	0
	고령	466	92	43	93	14	82	79	29	23	11
		100	19.7	9.2	20	3	17.6	17	6.2	4.9	2.4

①거주경험이 있는 지역 ②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③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 ④여가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⑤교통 편리성 ⑥경제성(비용) ⑦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안전성(외진 곳, 위험한 골목 등) ⑧주거면적(방의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 층수) ⑨기타

ㅁ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 편리성, 비용이 핵심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은 소득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으나,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소득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의 주거 선택 시 가장 중요 요인은 학교와의 거리(26.4%)였으며, 월평균 3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1인가구 역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38.1%)였다. 또한 교통편리성과 경제성(비용)에 대한 비중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선택 시 중요요인의 중요도의 차이는 동일하였다. 특히경제성(비용)을 고려하는 비중은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 20.4%, 300만원

이상 14.0%로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선택 시 중요도는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에게 2순위, 300만원 이상 1인가구에게 3순위로 그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였다. 이는 1인가구에게 있어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 비용의 중요성은 소득수준과 별개의 문제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표 Ⅲ-39▐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주거지 선택 시 중요요인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제활동 1인가구	2,183	217	769	140	64	382	370	135	100	6
	100.0	9.9	35.2	6.4	2.9	17.5	17.0	6.2	4.6	0.3
최저임금 이하	299	24	79	32	9	58	61	21	13	2
	100.0	8.0	26.4	10.7	3.0	19.4	20.4	7.0	4.4	0.7
135-200만원 미만	500	51	164	22	10	85	105	35	26	2
	100.0	10.2	32.8	4.4	2.0	17.0	21.0	7.0	5.2	0.4
200-250만원 미만	525	48	195	31	20	92	89	30	19	1
	100.0	9.1	37.1	5.9	3.8	17.5	17.0	5.7	3.6	0.2
250-300만원 미만	308	33	121	18	9	49	38	23	16	1
	100.0	10.7	39.3	5.8	2.9	15.9	12.3	7.5	5.2	0.3
300만원 이상	551	61	210	37	16	98	77	26	26	0
	100.0	11.1	38.1	6.7	2.9	17.8	14.0	4.7	4.7	0.0

①거주경험이 있는 지역 ②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③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 ④여가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⑤교통 편리성 ⑥경제성(비용) ⑦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안전성(외진 곳, 위험한 골목 등) ⑧주거면적(방의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 층수) ⑨기타

주거환경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주거면적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최소주거면적(4.23평)이하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진희 외,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면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울시 1인가구의 8.3%가 최소주거면적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평 이상(25.5%), 4.24-15평 이하(24.5%), 10-15평 이하(23.5%), 15-19평 이하(18.2%)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주거면적은 주거형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서울시 1인가구가 가장 많

이 거주하는 연립/다세대은 10-15평 이하(31.9%), 15-19평 이하(23.1%), 20평 이상(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거주비중이 높은 고시원/원룸의 주거면적은 4.23-10평 이하에 절반수준인 49.9%가 거주하고 있었고,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은 무려 29.0%였다. 이는 고시원/원룸 거주비중이 높았던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40▐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거면적

(단위: 명, %)

구분		최소주거 면적이하	4.24-10평 이하	10-15평 이하	15-19평 이하	20평 이상	χ^2(p)
1인가구	3,000	250	734	704	547	765	-
	100.0	8.3	24.5	23.5	18.2	25.5	
단독주택	274	6	37	64	61	106	140.3***
	100.0	2.2	13.5	23.4	22.3	38.7	
연립/다세대	942	30	190	300	218	204	
	100.0	3.2	20.2	31.9	23.1	21.7	
아파트	641	7	11	103	152	368	
	100.0	1.1	1.7	16.1	23.7	57.4	
오피스텔	427	7	150	118	81	71	
	100.0	1.6	35.1	27.6	19.0	16.6	
고시원/원룸	677	196	338	104	31	8	
	100.0	29.0	49.9	15.4	4.6	1.2	
기타	39	4	8	15	4	8	
	100.0	10.3	20.5	38.5	10.3	20.5	

*p<0.1, **p<0.05, ***p<0.01

□ 높은 남성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 주거환경보다 비용에 민감. 최저임금이하 중장년남성 1인가구 가장 심각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보다 좁은 주거지 거주비중이 높았는데, 여성 1인가구의 최소주거면적 거주비중은 4.8%인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약 2.5배 높은 12.1%였다. 여성 1인가구는 고령세대로 갈수록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의 감소세가 뚜렷하였으나, 남성 1인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은 7.3%였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 2.9%, 고령여성 1인가구 2.6%로 감

소하였다. 그러나 청년남성 1인가구 12.6%, 중장년남성 1인가구 11.5%, 고령남성 1인가구 11.4%로 감소추세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지 선택 중요요인에서 보았듯이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보다 주거환경보다 비용을 크게 고려하는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Ⅲ-4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면적

(단위: 명, %)

구분		최소 주거면적 이하		4.24–10평이하		10–15평이하		15–19평이하		20평 이상		χ^2(p)
1인가구	(3,000)	(250)	8.3	(734)	24.5	(704)	23.5	(547)	18.2	(765)	25.5	-
남성	(1,469)	(177)	12.1	(385)	26.2	(320)	21.8	(210)	14.3	(377)	25.7	
청년	(739)	(93)	12.6	(266)	36.0	(159)	21.5	(81)	11.0	(140)	18.9	98.2***
중장년	(520)	(60)	11.5	(94)	18.1	(113)	21.7	(95)	18.3	(158)	30.4	
고령	(210)	(24)	11.4	(25)	11.9	(48)	22.9	(34)	16.2	(79)	37.6	
여성	(1,531)	(73)	4.8	(349)	22.8	(384)	25.1	(337)	22.0	(388)	25.3	
청년	(681)	(50)	7.3	(262)	38.5	(174)	25.6	(109)	16.0	(86)	12.6	252.6***
중장년	(384)	(11)	2.9	(46)	12.0	(101)	26.3	(91)	23.7	(135)	35.2	
고령	(466)	(12)	2.6	(41)	8.8	(109)	23.4	(137)	29.4	(167)	35.8	
χ^2(p)												79.5***

*p<0.1, **p<0.05, ***p<0.01

남성 1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 저소득 중장년남성 1인가구가 심각하였다. 최저임금이하 소득수준을 가진 청년남성 1인가구의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 비중은 19.7%였으며, 고령남성 1인가구는 20.8%였다. 그러나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경우 28.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주거기준뿐만 아니라 중장년남성 1인가구 25.0%, 청년남성 1인가구의 무려 절반수준인 50.0%가 최저주거면적을 간신히 벗어난 4.24-10평 이하 거주비중 역시 매우 높았다.

▌표 Ⅲ-42▐ 서울시 남성 1인가구 소득수주별 주거면적

(단위: 명, %)

구분			최소주거 면적이하	4.24-10평 이하	10-15평 이하	15-19평 이하	20평 이상	χ^2(p)
청년남성	최저임금 이하	66	13	33	13	1	6	74.5***
		100.0	19.7	50.0	19.7	1.5	9.1	
	135-200만원 미만	127	18	55	28	11	15	
		100.0	14.2	43.3	22.1	8.7	11.8	
	200-250만원 미만	152	18	51	33	23	27	
		100.0	11.8	33.6	21.7	15.1	17.8	
	250-300만원 미만	89	7	22	30	10	20	
		100.0	7.9	24.7	33.7	11.2	22.5	
	300이상	157	4	37	32	29	55	
		100.0	2.6	23.6	20.4	18.5	35.0	
중장년남성	최저임금 이하	28	8	7	9	1	3	63.7***
		100.0	28.6	25.0	32.1	3.6	10.7	
	135-200만원 미만	58	13	9	19	8	9	
		100.0	22.4	15.5	32.8	13.8	15.5	
	200-250만원 미만	81	12	16	17	9	27	
		100.0	14.8	19.8	21.0	11.1	33.3	
	250-300만원 미만	83	6	14	16	14	33	
		100.0	7.2	16.9	19.3	16.9	39.8	
	300이상	176	4	29	33	49	61	
		100.0	2.3	16.5	18.8	27.8	34.7	
고령남성	최저임금 이하	24	5	4	2	4	9	28.0**
		100.0	20.8	16.7	8.3	16.7	37.5	
	135-200만원 미만	40	4	7	14	4	11	
		100.0	10.0	17.5	35.0	10.0	27.5	
	200-250만원 미만	7	3	0	2	0	2	
		100.0	42.9	0.0	28.6	0.0	28.6	
	250-300만원 미만	3	0	0	1	1	1	
		100.0	0	0	33.33	33.33	33.33	
	300이상	20	0	0	3	4	13	
		100	0	0	15	20	65	

*p<0.1, **p<0.05, ***p<0.01

여성 1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주거면적은 남성 1인가구와 달리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수준 가진 계층의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이 매우 낮았다. 저소득 여성 1인가구 중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은 청년여성 1인가구 6.0%, 중장년여성 1인가구 3.1%, 고령여성 1인가구 3.1% 수준으로 동일연령 남성 1인가구에 비해 크게 낮아 주거면적에 있어 여성 1인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소득수주별 주거면적

(단위: 명, %)

구분			최소주거 면적이하	4.24-10평 이하	10-15평 이하	15-19평 이하	20평 이상	χ^2(p)
청년여성	최저임금 이하	84	5	45	16	7	11	56.5***
		100.0	6.0	53.6	19.1	8.3	13.1	
	135-200만원 미만	134	13	49	41	22	9	
		100.0	9.7	36.6	30.6	16.4	6.7	
	200-250만원 미만	177	16	76	39	31	15	
		100.0	9.0	42.9	22.0	17.5	8.5	
	250-300만원 미만	82	1	24	27	17	13	
		100.0	1.2	29.3	32.9	20.7	15.9	
	300이상	93	0	22	28	20	23	
		100.0	0.0	23.7	30.1	21.5	24.7	
중장년여성	최저임금 이하	32	1	3	12	9	7	36.8***
		100.0	3.1	9.4	37.5	28.1	21.9	
	135-200만원 미만	94	5	14	24	23	28	
		100.0	5.3	14.9	25.5	24.5	29.8	
	200-250만원 미만	76	2	7	29	16	22	
		100.0	2.6	9.2	38.2	21.1	29.0	
	250-300만원 미만	41	0	11	11	11	8	
		100.0	0.0	26.8	26.8	26.8	19.5	
	300이상	71	2	2	12	18	37	
		100.0	2.8	2.8	16.9	25.4	52.1	
고령여성	최저임금 이하	65	2	5	15	28	15	17.2
		100.0	3.1	7.7	23.1	43.1	23.1	
	135-200만원 미만	47	0	5	9	21	12	
		100.0	0.0	10.6	19.2	44.7	25.5	

구분			최소주거 면적이하	4.24-10평 이하	10-15평 이하	15-19평 이하	20평 이상	χ^2(p)
	200-250만원 미만	32	1	1	6	12	12	
		100.0	3.1	3.1	18.8	37.5	37.5	
	250-300만원 미만	10	0	0	3	2	5	
		100.0	0.0	0.0	30.0	20.0	50.0	
	300이상	34	0	7	5	10	12	
		100.0	0.0	20.6	14.7	29.4	35.3	

*p<0.1, **p<0.05, ***p<0.01

소득수준과 주거면적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남성 1인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졌으나,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주거면적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장진희 외(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여성 1인가구는 주거환경에 더욱 민감하여 여성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거주지 마련방법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의 비해 원가족의 도움비중이 높았다. 남성 1인가구 중 원가족의 도움으로 주거지를 마련한 비중은 24.2%였으나,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0%p 높은 34.2%였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 대비 더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원가족의 도움을 통해 주거면적, 주거형태, 점유유형 등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1인가구가 주거환경, 특히 안전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의 주거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Ⅲ-44▐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주거면적 상관관계

구분	남성 주거면적	여성 주거면적
남성 월평균소득	0.196***	-
여성 월평균소득	-	0.020

*p<0.1, **p<0.05, ***p<0.01

▫ 세입자 신분으로 인한 시설 수리 등 요구 어려움

한편, 서울시 1인가구의 76.7%는 세입자였는데 이들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 혹은 보증금 및 월세인상 등을 통보받는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른바 갑을관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 세입자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성별 및 1인가구로 인한 무시경험을 조사한 결과,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시경험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48.1%는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설 수리 요구의 어려움에 있어서 남성 1인가구 40.0%,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6.2%p 높은 56.2%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가 더 큰 어려움을 가진 결과를 보였다. 특히시설 수리 요구의 어려움은 청년여성 1인가구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 56.6%, 고령여성 1인가구 50.7%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 1인가구 또한 청년남성 1인가구 41.0%, 중장년남성 1인가구 35.9%, 고령남성 1인가구 46.2%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1인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표 Ⅲ-45▐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1인가구	(2,370)	(206)	8.7	(934)	39.4	(560)	23.6	(670)	28.3	-
남성	(1,182)	(62)	5.3	(410)	34.7	(320)	27.1	(390)	33	
청년	(663)	(39)	5.9	(233)	35.1	(176)	26.6	(215)	32.4	23.5***
중장년	(385)	(18)	4.7	(120)	31.2	(115)	29.9	(132)	34.3	
고령	(134)	(5)	3.7	(57)	42.5	(29)	21.6	(43)	32.1	
여성	(1,188)	(144)	12.1	(524)	44.1	(240)	20.2	(280)	23.6	
청년	(627)	(98)	15.6	(270)	43.1	(124)	19.8	(135)	21.5	47.2***
중장년	(267)	(24)	9	(127)	47.6	(60)	22.5	(56)	21	
고령	(294)	(22)	7.5	(127)	43.2	(56)	19.1	(89)	30.3	
χ^2(p)										78.9***

*p<0.1, **p<0.05, ***p<0.01

3.5.2. 주거안전

□ 남성보다 높은 여성 1인가구 주거지 불안, 주거형태 중 원룸/고시원이 가장 취약, 아파트 가장 안전. 그 중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에 가장 민감.

안전은 크게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주거환경 혹은 주거지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약 70%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진희 외, 2016). 이는 주거지의 안전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서울시 1인가구의 18.1%는 주거지에서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어려움과 선호 주거환경에서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를 보였으며 주거지 불안에 있어서도 남성 1인가구 13.4%, 여성 1인가구 22.5%를 보여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26.4%)는 중장년여성(18.5%), 고령여성(20.2%)보다 더 큰 주거지 불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가장 민감한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보였다.

▌표 Ⅲ-4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지 불안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χ^2(p)
1인가구	(3,000)	(539)	18.0	(1,919)	64.0	(492)	16.4	(50)	1.7	-
남성	(1,469)	(318)	21.7	(954)	64.9	(175)	11.9	(22)	1.5	
청년	(739)	(160)	21.7	(474)	64.1	(92)	12.5	(13)	1.8	43.8***
중장년	(520)	(111)	21.4	(350)	67.3	(55)	10.6	(4)	0.8	
고령	(210)	(47)	22.4	(130)	61.9	(28)	13.3	(5)	2.4	
여성	(1,531)	(221)	14.4	(965)	63.0	(317)	20.7	(28)	1.8	
청년	(681)	(77)	11.3	(424)	62.3	(162)	23.8	(18)	2.6	14.3**
중장년	(384)	(70)	18.2	(243)	63.3	(67)	17.5	(4)	1.0	
고령	(466)	(74)	15.9	(298)	64.0	(88)	18.9	(6)	1.3	
χ^2 (p)										68.5***

*p<0.1, **p<0.05, ***p<0.01

주거지 안전은 주거형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원룸이 가장 안전에 취약한 결과를 보였으며, 반대로 아파트는 가장 불안이 낮은 주거형태로 조사되었다. 남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별 주거지 불안정

도는 아파트(6.7%), 오피스텔(8.6%), 단독주택(14.5%), 연립/다세대(15.7%), 고시원/원룸(17.9%) 순이었으며, 고시원/원룸 거주 남성 1인가구의 주거지 불안정도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11.2%p 높았다. 여성 1인가구 역시 아파트(14.3%)가 가장 주거지 불안정도가 낮았으며, 오피스텔(19.5%), 단독주택(23.8%), 연립/다세대(25.0%), 고시원/원룸(31.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동일주거형태에 있어서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 불안이 높은 결과를 보여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안전 지원이 요구된다.

▌표 Ⅲ-4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주거형태별 주거지 불안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χ^2(p)
남성	단독주택	(131)	(29)	22.1	(83)	63.4	(16)	12.2	(3)	2.3	60.1***
	연립/다세대	(389)	(58)	14.9	(270)	69.4	(57)	14.7	(4)	1.0	
	아파트	(284)	(90)	31.7	(175)	61.6	(17)	6.0	(2)	0.7	
	오피스텔	(222)	(61)	27.5	(142)	64.0	(19)	8.6	(0)	0.0	
	고시원/원룸	(430)	(77)	17.9	(276)	64.2	(65)	15.1	(12)	2.8	
	기타	(13)	(3)	23.1	(8)	61.5	(1)	7.7	(1)	7.7	
여성	단독주택	(143)	(21)	14.7	(88)	61.5	(30)	21.0	(4)	2.8	77.3***
	연립/다세대	(553)	(55)	10.0	(360)	65.1	(131)	23.7	(7)	1.3	
	아파트	(357)	(90)	25.2	(216)	60.5	(48)	13.5	(3)	0.8	
	오피스텔	(205)	(31)	15.1	(134)	65.4	(38)	18.5	(2)	1.0	
	고시원/원룸	(247)	(22)	8.9	(148)	59.9	(65)	26.3	(12)	4.9	
	기타	(26)	(2)	7.7	(19)	73.1	(5)	19.2	(0)	0.0	

*p<0.1, **p<0.05, ***p<0.01

□ 주거지 불안 주요 원인, 주거지 내부 안전시설 미비 및 주택주변 안전시설 미비, 원룸/고시원의 경우,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높은 불안감

서울시 1인가구의 32.3%는 주거지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주거지 내부 안전시설 미비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13.7%), 주택 관리인의 부재(11.1%), 비상 시 대처의 어려움(9.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지의 불안은 주거지 외부 요인보다 주거지 내부의 요인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 1인가구의 27.4%, 여성

1인가구의 35.1%가 안전시설 미비를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가장 큰 주거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1인가구는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15.7%), 주택 관리인의 부재(14.2%), 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9.6%)등의 순이었으나, 여성 1인가구는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12.5%),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10.1%), 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불안비중도 남성 1인가구 5.1%보다 5.0%p 높은 10.1%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안전시설과 주택주변의 안전시설이 중요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Ⅲ-48▐ 서울시 1인가구 성별 주거지 불안의 원인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인가구	542	175	60	38	74	39	34	15	45	51	11
	100.0	32.3	11.1	7.0	13.7	7.2	6.3	2.8	8.3	9.4	2.0
남성 1인가구	197	54	28	14	31	16	12	8	10	19	5
	100.0	27.4	14.2	7.1	15.7	8.1	6.1	4.1	5.1	9.6	2.5
여성 1인가구	345	121	32	24	43	23	22	7	35	32	6
	100.0	35.1	9.3	7.0	12.5	6.7	6.4	2.0	10.1	9.3	1.7

①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②주택 관리인의 부재 ③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④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⑤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⑥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⑦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⑧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⑨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⑩기타

여러 주거형태 중 가장 안전한 주거형태로 분류되는 아파트 거주자의 32.9%, 가장 불안한 주거형태로 여겨지던 고시원/원룸 거주자의 25.3%가 주거지 내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불안을 보였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거지 내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44.1%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고시원/원룸은 아파트, 오피스텔에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거주자에 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불안의 비중이 낮았다. 그 원인으로 또 다른 요인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고시원/원룸 거주자는 다른 거주형태 거주자보다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14.9%)이 크게 높았다. 주방 또는 화장실을 공유해야하는 구조의 고시원 특성 상 남녀 공용주거는 주거지 불안의 원

인으로 드러났다.

▌표 Ⅲ-49▐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거지 불안의 원인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단독주택	53	13	11	4	7	6	0	2	4	4	2
	100.0	24.5	20.8	7.6	13.2	11.3	0.0	3.8	7.6	7.6	3.8
연립/다세대	199	71	22	12	22	21	8	5	14	20	4
	100.0	35.7	11.1	6.0	11.1	10.6	4.0	2.5	7.0	10.1	2.0
아파트	70	23	8	6	7	4	1	3	9	8	1
	100.0	32.9	11.4	8.6	10.0	5.7	1.4	4.3	12.9	11.4	1.4
오피스텔	59	26	7	4	9	0	1	2	5	4	1
	100.0	44.1	11.9	6.8	15.3	0.0	1.7	3.4	8.5	6.8	1.7
고시원/원룸	154	39	12	12	27	8	23	3	13	14	3
	100.0	25.3	7.8	7.8	17.5	5.2	14.9	2.0	8.4	9.1	2.0
기타	7	3	0	0	2	0	1	0	0	1	0
	100.0	42.9	0.0	0.0	28.6	0.0	14.3	0.0	0.0	14.3	0.0

①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②주택 관리인의 부재 ③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④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⑤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⑥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⑦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⑧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⑨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⑩기타

3.5.3. 공동체주거

□ 공동체주거에 대한 낮은 인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주거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는 긍정적. 공동체 주거를 위해 낮은 비용, 사생활보장,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필요

서울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공동체주택의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동체주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인가구 중 공동체주거에 대해 신청방법, 비용, 종류, 주거형태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은 7.6%에 그쳤으며 주거형태와 비용을 아는 비중은 28.4%였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공동체주거를 들어본 적만 있다는 응답자는 35.7%, 모른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청년층과 여성 1인가구가 높은 공동체주거 인지도를 보였으며 청년남성 1인가

구 중 19.6%, 청년여성 1인가구 중 7.9%만이 공동체주거를 모르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고령남성 1인가구의 56.7%, 고령여성 1인가구의 61.6%가 공동체주거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 비중이 높은 고령층은 공동체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의 공동체주거 사업의 참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가 요구된다.

▌표 Ⅲ-5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공동체주거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알고 있음		들어본 적만 있음		모름	
1인가구	(3,000)	(228)	7.6	(852)	28.4	(1,070)	35.7	(850)	28.3
남성	(1,469)	(111)	7.6	(420)	28.6	(526)	35.8	(412)	28.1
청년	(739)	(79)	10.7	(244)	33.0	(271)	36.7	(145)	19.6
중장년	(520)	(25)	4.8	(137)	26.4	(210)	40.4	(148)	28.5
고령	(210)	(7)	3.3	(39)	18.6	(45)	21.4	(119)	56.7
여성	(1,531)	(117)	7.6	(432)	28.2	(544)	35.5	(438)	28.6
청년	(681)	(87)	12.8	(287)	42.1	(253)	37.2	(54)	7.9
중장년	(384)	(23)	6.0	(98)	25.5	(166)	43.2	(97)	25.3
고령	(466)	(7)	1.5	(47)	10.1	(125)	26.8	(287)	61.6

공동체주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망 지지에 있어서 공동체주거의 거주가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비중은 64.5%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년남성 1인가구 66.3%, 청년여성 1인가구 58.7%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고령남성 1인가구 70.0%, 고령여성 1인가구 69.1%로 청년 1인가구보다 고령 1인가구에게 더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51▐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1인가구	(3,000)	(333)	11.1	(1,603)	53.0	(844)	28.1	(220)	7.3	-
남성	(1,469)	(179)	12.2	(802)	54.6	(405)	27.6	(83)	5.7	4.5
청년	(739)	(89)	12.0	(401)	54.3	(200)	27.1	(49)	6.6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중장년	(520)	(61)	11.7	(283)	54.4	(149)	28.7	(27)	5.2	
고령	(210)	(29)	13.8	(118)	56.2	(56)	26.7	(7)	3.3	
여성	(1,531)	(154)	10.1	(801)	52.3	(439)	28.7	(137)	9.0	
청년	(681)	(71)	10.4	(329)	48.3	(206)	30.3	(75)	11	19.4***
중장년	(384)	(30)	7.8	(203)	52.9	(115)	30.0	(36)	9.4	
고령	(466)	(53)	11.4	(269)	57.7	(118)	25.3	(26)	5.6	
χ^2(p)										15.2***

*p<0.1, **p<0.05, ***p<0.01

공동체주거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방, 거실 등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며, 이는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공동체주거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된다(장진희 외, 2016). 조사결과, 이러한 문제는 1인가구 공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인가구의 78.6%가 공동체주거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청년층과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사생활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남성 1인가구 74.4%였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8.3%p 높은 82.7%였다. 또한 청년남성 1인가구는 74.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1인가구는 14.4%p 높은 88.7%에 달하였다. 이는 공동체주거의 사생활보장은 서울시 1인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그 중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특히 필요한 환경임을 의미한다.

▌표 Ⅲ-52▐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1인가구	(3,000)	(1045)	34.8	(1,315)	44.0	(516)	17.2	(124)	4.1	-
남성	(1,469)	(435)	29.6	(658)	44.8	(307)	20.9	(69)	4.7	
청년	(739)	(245)	33.2	(304)	41.1	(156)	21.1	(34)	4.6	27.0***
중장년	(520)	(156)	30.0	(245)	47.1	(99)	19.0	(20)	3.9	
고령	(210)	(34)	16.2	(109)	51.9	(52)	24.8	(15)	7.1	
여성	(1,531)	(610)	39.8	(657)	42.9	(209)	13.7	(55)	3.6	
청년	(681)	(348)	51.1	(256)	37.6	(63)	9.3	(14)	2.1	96.0***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중장년	(384)	(149)	38.8	(167)	43.5	(49)	12.8	(19)	5.0	
고령	(466)	(113)	24.3	(234)	50.2	(97)	20.8	(22)	4.7	
χ^2(p)										48.2***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의 79.7%는 공동체거주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이는 사생활보장문제보다 더 큰 결과를 보였다. 그 중 중장년남성 1인가구(77.3%)와 청년여성 1인가구(89.1%)가 특히 높았다. 고령남성 1인가구(72.8%)와 고령여성 1인가구(75.4%)는 다른 사람과의 마찰로 인한 어려움 비중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70%를 넘는 높은 비중을 보여 공동체거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표 Ⅲ-53▐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1인가구	(3,000)	(937)	31.2	(1,454)	49.0	(484)	16.1	(125)	4.2	-
남성	(1,469)	(377)	25.7	(724)	49.3	(296)	20.2	(72)	4.9	
청년	(739)	(219)	29.6	(327)	44.3	(157)	21.2	(36)	4.9	23.6***
중장년	(520)	(125)	24.0	(277)	53.3	(95)	18.3	(23)	4.4	
고령	(210)	(33)	15.7	(120)	57.1	(44)	21.0	(13)	6.2	
여성	(1,531)	(560)	36.6	(730)	47.7	(188)	12.3	(53)	3.5	
청년	(681)	(318)	46.7	(289)	42.4	(61)	9.0	(13)	1.9	87.2***
중장년	(384)	(134)	34.9	(198)	51.6	(36)	9.4	(16)	4.2	
고령	(466)	(108)	23.2	(243)	52.2	(91)	19.5	(24)	5.2	
χ^2 (p)										61.5***

*p<0.1, **p<0.05, ***p<0.01

공동체주택에 거주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개인사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었는데, 공동체주거에 필요한 요인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동체주거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낮은 주거비용(월세, 보증금)을 꼽은 비중이 무려 42.0%를 보였으며, 사생활보호가 33.3%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을 포함한 주거정책요구는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공동체주거에 필요한 요인 2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주거를 위한 2순위로는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25.0%)과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15.7%), 낮은 주거비용(11.6%),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의 문제를 기본으로 사생활보장을 위한 공간과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차이에 있어서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여성 1인가구는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평균 수준의 원룸보다 넓은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여성 1인가구는 7.7%에 불과하였으나, 남성 1인가구는 이보다 7.7%p 높은 13.9%였다. 반면,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을 요구한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은 14.3%, 남성 1인가구는 8.9%였다. 공동체주거를 함에 있어 낮은 비용, 사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주거면적과 안전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 1인가구는 다른 세대보다 공동체주거를 위해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가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문화 및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을 요구한 청년남성 1인가구는 2.0%에 불과하였으나, 중장년남성 1인가구 4.5%, 고령남성 1인가구 9.0%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 1.9%, 중장년여성 1인가구 6.6%, 고령여성 1인가구 11.1%로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문화시설 및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필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시만의 공동체주거에 관한 사업시행 시 이러한 1인가구의 요구를 고려한 공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5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공동체주거를 위해 필요한 점(2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인가구	2,948	341	274	736	317	342	325	143	462	8
	100.0	11.6	9.3	25	10.8	11.6	11	4.9	15.7	0.3
남성	1,447	148	143	380	201	128	174	56	215	2
	100.0	10.2	9.9	26.3	13.9	8.9	12	3.9	14.9	0.1
청년	734	84	80	207	97	79	86	15	85	1
	100.0	11.4	10.9	28.2	13.2	10.8	11.7	2	11.6	0.1
중장년	512	47	44	131	68	31	56	23	111	1
	100.0	9.2	8.6	25.6	13.3	6.1	10.9	4.5	21.7	0.2
고령	201	17	19	42	36	18	32	18	19	0
	100.0	8.5	9.5	20.9	17.9	9	15.9	9	9.5	0
여성	1,501	193	131	356	116	214	151	87	247	6
	100.0	12.9	8.7	23.7	7.7	14.3	10.1	5.8	16.5	0.4
청년	680	89	42	179	58	106	51	13	142	0
	100.0	13.1	6.2	26.3	8.5	15.6	7.5	1.9	20.9	0
중장년	381	44	30	89	28	58	42	25	65	0
	100.0	11.6	7.9	23.4	7.4	15.2	11	6.6	17.1	0
고령	440	60	59	88	30	50	58	49	40	6
	100.0	13.6	13.4	20	6.8	11.4	13.2	11.1	9.1	1.4

① 낮은 주거비용(월세, 보증금 등) ②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③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넓은 거주 공간 ④ 평균 수준의 원룸보다 넓은 거주 공간 ⑤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 ⑥ 교통이 편리한 위치 ⑦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 ⑧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⑨ 기타 ( )

6. 1인가구 안전상태

3.6.1. 일상생활 안전 및 교육

□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시 도와줄 사람 혹은 대처방법의 필요.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안전 확보

서울시 1인가구 중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중이 85.8%로 나타났으며,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14.3% 수준이었다. 앞서 여성 1인가구는 높은 주거지불안을 보였으나, 일상생활에의 불안은 17.4%로 다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1인가구(11.0%)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여 여전히 여성 1인가구는 안전에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고령남성 1인가구(21.9%)와 청년여성 1인가구(19.9%)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이 높은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		별로 안전하지 않음		전혀 안전하지 않음		χ^2(p)
1인가구	(3,000)	(383)	12.8	(2,189)	73.0	(399)	13.3	(29)	1.0	-
남성	(1,469)	(254)	17.3	(1,053)	71.7	(153)	10.4	(9)	0.6	
청년	(739)	(151)	20.4	(521)	70.5	(64)	8.7	(3)	0.4	43.8***
중장년	(520)	(76)	14.6	(395)	76.0	(48)	9.2	(1)	0.2	
고령	(210)	(27)	12.9	(137)	65.2	(41)	19.5	(5)	2.4	
여성	(1,531)	(129)	8.4	(1,136)	74.2	(246)	16.1	(20)	1.3	
청년	(681)	(47)	6.9	(499)	73.3	(121)	17.8	(14)	2.1	14.3*
중장년	(384)	(30)	7.8	(294)	76.6	(58)	15.1	(2)	0.5	
고령	(466)	(52)	11.2	(343)	73.6	(67)	14.4	(4)	0.9	
χ^2(p)										68.5***

*p<0.1, **p<0.05, ***p<0.01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가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52.1%)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일상생활 불안을 가진 비중도 11.5%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실제 고민상담을 하는 친구의 수와 안전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사회적 관계망과 1인가구의 안전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표 Ⅲ-55▐.

▌표 Ⅲ-56▐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친구 수-안전정도 상관관계

구분	주거지 안전	고민상담 친구수
주거지 안전	1.0	-
고민상담 친구 수	0.078***	1.0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의 모든 세대에서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을 가지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중장년 1인가구(56.0%), 고령 1인가구(54.7%)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앞서 고령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정도가 떨어지는 결과는 건강문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청년 1인가구 6.9%, 중장년 1인가구 7.3%, 고령 1인가구 13.7%로, 고령세대가 특히 높았다. 따라서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건강증진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57▐ 서울시 1인가구 세대별 일상생활에서 불안의 원인

(단위: 명, %)

구분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몰라서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안가서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해서		기타	
1인가구	(428)	(60)	14.0	(223)	52.1	(47)	11.0	(49)	11.5	(38)	8.9	(11)	2.6
청년	(202)	(30)	14.9	(98)	48.5	(31)	15.4	(24)	11.9	(14)	6.9	(5)	2.5
중장년	(109)	(12)	11.0	(61)	56.0	(12)	11.0	(11)	10.1	(8)	7.3	(5)	4.6
고령	(117)	(18)	15.4	(64)	54.7	(4)	3.4	(14)	12.0	(16)	13.7	(1)	0.9

▫ 고령 1인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강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서울시 1인가구 스스로 노출되어 있다고 여기는 범죄유형은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주로 폭행(19.7%)과 주거침입절도(15.8%), 사기죄(12.9%)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무려 31.2%에 달하였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와 달리 성희롱·성폭행(29.5%)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거침입절도(15.5%)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성희롱·성폭행(45.2%), 몰래카메라(16.4%)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성희롱·성폭행(25.8%), 주거침입절도(16.4%)의 비중이 높았다. 고령여성 1인가구는 청년 및 중장년여성 1인가구와 달리 주거침입절도(23.4%), 택시, 노상강도(13.7%)에 노출되어 있다고 여기는 비중이 높았다. 청년세대에서 고령세대로 올라갈수록 성희롱·성폭행에 대한 불안은 감소하는 반면,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고 낙후된 주거지에 신체적 약자가 혼자 거주하는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5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노출되어 있는 범죄유형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인가구		3,000	361	504	257	287	238	118	469	28	738
		100	12	16.8	8.6	9.6	7.9	3.9	15.6	0.9	24.6
남성		1,469	290	53	124	190	62	52	232	8	458
		100	19.7	3.6	8.4	12.9	4.2	3.5	15.8	0.5	31.2
	청년	739	148	33	66	91	31	32	108	3	227
		100	20	4.5	8.9	12.3	4.2	4.3	14.6	0.4	30.7
	중장년	520	108	17	41	70	27	7	84	3	163
		100	20.8	3.3	7.9	13.5	5.2	1.4	16.2	0.6	31.4
	고령	210	34	3	17	29	4	13	40	2	68
		100	16.2	1.4	8.1	13.8	1.9	6.2	19.1	1	32.4
여성		1,531	71	451	133	97	176	66	237	20	280
		100	4.6	29.5	8.7	6.3	11.5	4.3	15.5	1.3	18.3
	청년	681	20	308	33	22	119	34	65	2	78
		100	2.9	45.2	4.9	3.2	17.5	5	9.5	0.3	11.5
	중장년	384	12	99	36	34	36	17	63	6	81
		100	3.1	25.8	9.4	8.9	9.4	4.4	16.4	1.6	21.1
	고령	466	39	44	64	41	21	15	109	12	121
		100	8.4	9.4	13.7	8.8	4.5	3.2	23.4	2.6	26

① 폭행 ② 성희롱·성폭행 ③ 택시, 노상강도 ④ 사기죄 ⑤ 몰래카메라 ⑥ 납치 또는 인신매매 ⑦ 주거침입 절도 ⑧ 기타 ⑨ 없음

서울시 1인가구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주거지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중 32.6%는 안전을 목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안전을 위한 노력 역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보다 누군가와 통화 또는 통화하는 척이 17.7%였다. 이 밖에 안전을 위해 파출소 등 치안시설 위치파악(16.7%),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11.7%), 체력단련·호신술 등 배움(9.1%) 등의 순이었다.

남성 1인가구는 안전을 목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0.5%였으며, 주로 파출소 등 치안시설 위치파악(15.1%), 체력단련 및 호신술(14.5%)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1인가구 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비중은 25.8%로

남성보다 낮았으나 누군가와 통화 또는 통화하는 척 이동(25.9%)이 가장 높았으며, 파출소 등 치안시설 위치파악(18.2%),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12.6%) 등으로 나타났다. 체력단련 및 호신술 등을 배운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특히 안전을 위한 노력에서 이웃주민과의 친밀도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청년남성 1인가구 3.4%, 청년여성 1인가구 2.6%에 불과하지만, 중장년남성 1인가구 8.4%, 중장년여성 1인가구 8.6%, 고령남성 1인가구 11.7%, 고령여성 1인가구 14.2%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은 단순 고립의 해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의미한다.

▌표 Ⅲ-5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안전을 위한 노력방법

(단위: 명, %)

구분		호신용품 구입		체력단련, 호신술		치안시설 위치파악		통화 또는 통화하는 척		안전시설 설치		이웃주민과 친밀		없음	
1인가구	(3,961)	(209)	5.3	(359)	9.1	(663)	16.7	(702)	17.7	(464)	11.7	(271)	6.8	(1,293)	32.6
남성	(1840)	(78)	4.2	(274)	14.5	(277)	15.1	(153)	8.3	(197)	10.7	(116)	6.3	(745)	40.5
청년	(943)	(50)	5.3	(179)	19.0	(145)	15.4	(90)	9.5	(92)	9.8	(32)	3.4	(355)	37.7
중장년	(640)	(21)	3.3	(72)	11.3	(90)	14.1	(40)	6.3	(70)	10.9	(54)	8.4	(293)	45.8
고령	(257)	(7)	2.7	(23)	9.0	(42)	16.3	(23)	9.0	(35)	13.6	(30)	11.7	(97)	37.7
여성	(2121)	(131)	6.2	(85)	4.0	(386)	18.2	(549)	25.9	(267)	12.6	(155)	7.3	(548)	25.8
청년	(1000)	(82)	8.2	(67)	6.7	(197)	19.7	(332)	33.2	(115)	11.5	(26)	2.6	(181)	18.1
중장년	(535)	(27)	5.1	(7)	1.3	(100)	18.7	(146)	27.3	(83)	15.5	(46)	8.6	(126)	23.6
고령	(586)	(22)	3.8	(11)	1.9	(89)	15.2	(71)	12.1	(69)	11.8	(83)	14.2	(241)	41.1

주: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세입자 1인가구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시설 설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을 위한 노력방법 중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하는 비중은 자가 16.6%, 전세 12.2%, 반전세 11.7%, 보증금 있는 월세 10.2%, 사글세 7.4%, 정부임대 7.0%로 불안정성이 높은 점유유형일수록 낮았다. 이는 주거가 불안정한 집단은 계약만료 이후 거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음에도 비용부담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60▐ 점유유형별 안전을 위한 노력방법

(단위: 명, %)

구분		호신용품 구입		체력단련, 호신술		치안시설 위치파악		통화 또는 통화 하는 척		안전시설 설치		이웃주민과 친밀		없음	
자가	728	39	5.4	48	6.6	105	14.4	102	14	121	16.6	71	9.8	242	33.2
전세	1,094	53	4.8	93	8.5	196	17.9	196	17.9	133	12.2	73	6.7	350	32
반전세	375	35	9.3	35	9.3	72	19.2	70	18.7	44	11.7	19	5.1	100	26.7
보증금 월세	1,269	59	4.7	127	10	230	18.1	256	20.2	130	10.2	79	6.2	388	30.6
사글세	310	16	5.2	41	13.2	36	11.6	43	13.9	23	7.4	15	4.8	136	43.9
정부임대	185	7	3.8	15	8.1	24	13	35	18.9	13	7	14	7.6	77	41.6

주: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3.6.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이용률 및 정책요구

서울시는 2013년 최초로 여성안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앱개발, 몰래카메라와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안심특별시 2.0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존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기반중심'에서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을 지향하는 '가치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현재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안전정책으로 늦은 밤 2인 1조의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귀가를 도와주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하고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 및 안전귀가를 돕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여성안전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인지도는 14.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어서 안심귀가스카우트(13.9%), 택시안심귀가(10.6%), 여성긴급전화 1366(9.4%), 여성안심택배(9.0%) 등의 순이었다. 청년여성 1인가구는 안심귀가스카우트(14.0%), 택시안심귀가(13.9%),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여성안심지킴이집(18.7%), 안심귀가스카우트(15.7%), 고령여성 1인가구 안심귀가스카우트(12.0%), 여성안심지킴이집(10.3%)의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중복응답임을 감안했을 때 인지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안전정책의 홍보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표 Ⅲ-61▐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택배	여성안심 지킴이집	여성 긴급전화 1366	민간 연계 홈방범	택시 안심 귀가	지하철 안전	올빼미 버스	정책 모름
여성 1인가구	2322	323	210	326	217	52	245	187	154	608
	100.0	13.9	9.0	14.0	9.4	2.2	10.6	8.1	6.6	26.2
청년	1141	160	103	157	116	38	159	90	118	200
	100.0	14.0	9.0	13.8	10.2	3.3	13.9	7.9	10.3	17.5
중장년	581	91	56	107	64	7	59	48	26	123
	100.0	15.7	9.6	18.4	11.0	1.2	10.2	8.3	4.5	21.2
고령	600	72	51	62	37	7	27	49	10	285
	100.0	12.0	8.5	10.3	6.2	1.2	4.5	8.2	1.7	47.5

주: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여성안전정책의 인지도보다 이용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성 1인가구의 무려 83.8%가 여성안전정책 이용경험이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안전정책의 이용률은 3.9%에 불과했으며, 높은 이용률과 성과로 인해 타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여성안심택배도 3.4%에 그쳤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늦은 시간 귀가와 관련된 안심귀가스카우트(5.5%)와 올빼미 버스(4.8%), 택시안심귀가(4.1%)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중장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심귀가스카우트(3.8%), 택시안심귀가(2.6%), 여성안심택배(2.3%), 고령여성 1인가구는 여성안심택배(3.8%), 여성안심지킴이집(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이용률이 크게 낮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표 Ⅲ-62▐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전정책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택배	여성안심 지킴이집	여성 긴급전화 1366	민간 연계 홈방범	택시 안심 귀가	지하철 안전	올빼미 버스	이용 경험 없음
여성 1인가구	1,571	61	54	17	10	7	43	20	42	1,317
	100.0	3.9	3.4	1.1	0.6	0.5	2.7	1.3	2.7	83.8
청년	708	39	27	7	5	6	29	9	34	552
	100.0	5.5	3.8	1.0	0.7	0.9	4.1	1.3	4.8	78.0
중장년	391	15	9	2	5	0	10	2	6	342
	100.0	3.8	2.3	0.5	1.3	0.0	2.6	0.5	1.5	87.5
고령	472	7	18	8	0	1	4	9	2	423
	100.0	1.5	3.8	1.7	0.0	0.2	0.9	1.9	0.4	89.6

주: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서울시의 다양한 여성안전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25.9%)를 꼽았으며, 여성안심지킴이집(20.4%), 여성긴급전화 1366(13.7%), 여성안심택배(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1인가구 다른 세대에 비해 택시안심귀가서비스(11.0%)와 올빼미버스(10.0%)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중장년 및 고령여성 1인가구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안심지킴이집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즉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안전정책의 요구가 높았으며, 중장년 및 고령여성 1인가구는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책요구가 높았다. 중장년 및 고령여성 1인가구의 정책요구는 앞서 혼자 사는 어려움으로 위급상황 시 대처의 어려움을 가장 문제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장년 이후 1인가구를 중심으로 위급상황 시 지원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Ⅲ-6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가장 필요한 여성안전정책

(단위: 명, %)

구분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택배	여성안심 지킴이집	여성 긴급전화 1366	민간 연계 홈방범	택시 안심 귀가	지하철 안전	올빼미 버스	이용 경험 없음
여성 1인가구	1,571	396	183	313	209	113	132	73	112	1,531
	100.0	25.9	12.0	20.4	13.7	7.4	8.6	4.8	7.3	100.0
청년	708	193	88	118	74	42	75	23	68	681
	100.0	28.3	12.9	17.3	10.9	6.2	11.0	3.4	10.0	100.0
중장년	391	104	45	79	55	29	30	18	24	384
	100.0	27.1	11.7	20.6	14.3	7.6	7.8	4.7	6.3	100.0
고령	472	99	50	116	80	42	27	32	20	466
	100.0	21.2	10.7	24.9	17.2	9.0	5.8	6.9	4.3	100.0

주: 각 보기에 대한 중복응답임

7. 1인가구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3.7.1. 원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 사회적 고립이 낮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 여성 1인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높고, 특히 고령 1인가구가 가장 심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

1인가구는 혼자 거주하는 특성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고립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은 동호회, 친구만남, 지역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관계망을 유지하기도 하며, 그 중 일부는 고립을 보이기도 한다. 즉 1인가구는 모두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활발한 관계망을 지닌 집단과 고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정의함에 있어 원가족 또는 친구,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고립으로 본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란 단순 절대적인 친구, 이웃의 수를 넘어 본인의 속마음, 고민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적인 관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였다.

서울시 1인가구 중 25.8%는 현재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결과를 보였으며 2명(21.5%), 3명(19.3%), 5명 이상(16.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1인가구 10명 중 4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성 1인가구의 31.5%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1.2%p 낮은 20.3%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고립은 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고민상담 상대가 없는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27.6%, 중장년남성 1인가구 32.5%, 고령남성 1인가구 42.9%로 높았다.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청년여성 1인가구가 14.1%로 가장 낮았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 21.9%, 고령여성 1인가구 27.9%로 높아 여성 1인가구 역시 청년층보다 중장년 및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남성 1인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표 Ⅲ-6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인가구	(3,000)	(773)	25.8	(314)	10.5	(646)	21.5	(580)	19.3	(180)	6.0	(507)	16.9
남성	(1,469)	(463)	31.5	(132)	9.0	(296)	20.2	(251)	17.1	(71)	4.8	(256)	17.4
청년	(739)	(204)	27.6	(56)	7.6	(142)	19.2	(135)	18.3	(35)	4.7	(167)	22.6
중장년	(520)	(169)	32.5	(58)	11.2	(109)	21.0	(89)	17.1	(23)	4.4	(72)	13.9
고령	(210)	(90)	42.9	(18)	8.6	(45)	21.4	(27)	12.9	(13)	6.2	(17)	8.1
여성	(1,531)	(310)	20.3	(182)	11.9	(350)	22.9	(329)	21.5	(109)	7.1	(251)	16.4
청년	(681)	(96)	14.1	(69)	10.1	(138)	20.3	(160)	23.5	(47)	6.9	(171)	25.1
중장년	(384)	(84)	21.9	(48)	12.5	(106)	27.6	(88)	22.9	(20)	5.2	(38)	9.9
고령	(466)	(130)	27.9	(65)	14.0	(106)	22.8	(81)	17.4	(42)	9.0	(42)	9.0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은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 중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비중은 32.7%이었으며 135-200만원 미만 24.4%, 200-250만원 미만 21.1%, 250-300만원 미만 19.8%, 300만원 이상 20.7%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립의 비중은 낮았다.

▌표 Ⅲ-65▐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최저임금이하	(1,116)	(365)	32.7	(130)	11.7	(210)	18.8	(179)	16.0	(64)	5.7	(168)	15.1
135-200만원	(500)	(122)	24.4	(64)	12.8	(108)	21.6	(100)	20.0	(36)	7.2	(70)	14.0
200-250만원	(525)	(111)	21.1	(51)	9.7	(120)	22.9	(110)	21.0	(28)	5.3	(105)	20.0
250-300만원	(308)	(61)	19.8	(26)	8.4	(82)	26.6	(65)	21.1	(21)	6.8	(53)	17.2
300만원	(551)	(114)	20.7	(43)	7.8	(126)	22.9	(126)	22.9	(31)	5.6	(111)	20.2

*p<0.1, **p<0.05, ***p<0.01

▌표 Ⅲ-66▐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고민상대 수 상관관계

구분	고민상대 수	남성 고민상대 수	여성 고민상대 수
월평균소득	0.105***	-	-
남성 월평균소득	-	0.116***	-
여성 월평균소득	-	-	0.101***

*p<0.1, **p<.0.05, ***p<0.01

사회적 고립은 1인가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집단 중 38.0%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1명인 경우 33.8%, 2명 24.5%, 3명 20.3%, 4명 26.7%, 5명 이상 15.6%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은 양의 부호를 갖는 결과를 보였다. 실제 고민상담 상대의 수와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5점 척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드러나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표 Ⅲ-67▐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상대 수 -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구분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고민상대 수
1인가구 삶의 만족도	1	0.144***
고민상대 수	0.144***	1

*p<0.1, **p<.0.05, ***p<0.01

▌표 Ⅲ-68▐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상대 수 별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χ^2(p)
없음	(773)	(69)	8.9	(225)	29.1	(386)	49.9	(93)	12	125.6***
1명	(314)	(15)	4.8	(91)	29	(169)	53.8	(39)	12.4	
2명	(646)	(20)	3.1	(138)	21.4	(382)	59.1	(106)	16.4	
3명	(580)	(14)	2.4	(104)	17.9	(371)	64	(91)	15.7	
4명	(180)	(5)	2.8	(43)	23.9	(101)	56.1	(31)	17.2	
5명 이상	(507)	(11)	2.2	(68)	13.4	(344)	67.9	(84)	16.6	

*p<0.1, **p<0.05, ***p<0.01

□ 혈연가구보다 비혈연가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고령층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이웃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높은 세대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는 고민상담의 대상에 있어서 이웃(65.1%)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부모(9.0%), 형제/자매(8.0%), 자녀(5.2%), 배우자(2.0%)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개인의 걱정 혹은 고민거리 상담은 혈연가구보다 비혈연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혈연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 자녀가 없는 청년

1인가구는 친구 및 이웃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장년 및 고령세대로 갈수록 자녀와 형제/자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 역시 친구 및 이웃의 비중이 다른 대상을 크게 넘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Ⅲ-6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고민상담 상대

(단위: 명, %)

구분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 및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전문 상담가	성직자	기타
1인가구	2,227	200	44	179	116	1,449	96	69	13	17	44
	100	9	2	8	5.2	65.1	4.3	3.1	0.6	0.8	2
남성	1,006	86	30	63	18	688	49	44	3	6	19
	100	8.6	3	6.3	1.8	68.4	4.9	4.4	0.3	0.6	1.9
청년	535	72	5	25	3	377	23	15	1	2	12
	100	13.5	0.9	4.7	0.6	70.5	4.3	2.8	0.2	0.4	2.2
중장년	351	14	12	32	2	232	25	25	0	3	6
	100	4	3.4	9.1	0.6	66.1	7.1	7.1	0	0.9	1.7
고령	120	0	13	6	13	79	1	4	2	1	1
	100	0	10.8	5	10.8	65.8	0.8	3.3	1.7	0.8	0.8
여성	1,221	114	14	116	98	761	47	25	10	11	25
	100	9.3	1.2	9.5	8	62.3	3.9	2.1	0.8	0.9	2.1
청년	585	79	3	49	0	392	20	16	5	3	18
	100	13.5	0.5	8.4	0	67	3.4	2.7	0.9	0.5	3.1
중장년	300	21	6	46	14	177	21	5	1	5	4
	100	7	2	15.3	4.7	59	7	1.7	0.3	1.7	1.3
고령	336	14	5	21	84	192	6	4	4	3	3
	100	4.2	1.5	6.3	25	57.1	1.8	1.2	1.2	0.9	0.9

서울시 1인가구의 63.2%는 친구 및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를 보여 이들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1인가구는 다른 세대와 달리 고민상담 대상의 수가 적고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나 이웃의 비중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및 이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고령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되지 못하는 현

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구나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 청년남성 1인가구 55.0%, 청년여성 1인가구 54.3%, 중장년남성 1인가구 62.9%, 중장년여성 1인가구 71.1%, 고령남성 1인가구 71.0%, 고령여성 1인가구 79.6%로 고령세대로 올라갈수록 친구나 이웃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이전의 결과와 미루어볼 때, 고령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이웃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프로그램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Ⅲ-7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이웃의 중요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인가구	(3,000)	(482)	16.1	(1,414)	47.1	(913)	30.4	(191)	6.4
남성	(1,469)	(197)	13.4	(685)	46.6	(476)	32.4	(111)	7.6
청년	(739)	(70)	9.5	(336)	45.5	(256)	34.6	(77)	10.4
중장년	(520)	(71)	13.7	(256)	49.2	(168)	32.3	(25)	4.8
고령	(210)	(56)	26.7	(93)	44.3	(52)	24.8	(9)	4.3
여성	(1,531)	(285)	18.6	(729)	47.6	(437)	28.5	(80)	5.2
청년	(681)	(71)	10.4	(299)	43.9	(255)	37.4	(56)	8.2
중장년	(384)	(77)	20.1	(196)	51.0	(99)	25.8	(12)	3.1
고령	(466)	(137)	29.4	(234)	50.2	(83)	17.8	(12)	2.6

이웃의 의미에 대해 서울시 1인가구 중 31.7%는 왕래는 없지만 안면이 있고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들이라 보았으며 29.9%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로 여겼다.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19.8%),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며 지내는 사람들(11.3%), 잦은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6.9%)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웃에 대한 의미가 점차 넓어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주로 청년 1인가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또는 '왕래는 없지만 인사를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이보다 더욱 긍정적은 의미로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는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4.3%, 청년여성

1인가구 3.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고령층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는 비중은 고령남성 1인가구 22.9%, 고령여성 1인가구 27.0%로 청년 1인가구보다 크게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는 비중 역시 고령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표 Ⅲ-7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이웃의 의미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1인가구	(3,000)	(898)	29.9	(952)	31.7	(593)	19.8	(206)	6.9	(339)	11.3	(12)	0.4
남성	(1,469)	(455)	31	(493)	33.6	(251)	17.1	(84)	5.7	(181)	12.3	(5)	0.3
청년	(739)	(249)	33.7	(256)	34.6	(135)	18.3	(32)	4.3	(63)	8.5	(4)	0.5
중장년	(520)	(165)	31.7	(172)	33.1	(68)	13.1	(34)	6.5	(81)	15.6	(0)	0
고령	(210)	(41)	19.5	(65)	31	(48)	22.9	(18)	8.6	(37)	17.6	(1)	0.5
여성	(1,531)	(443)	28.9	(459)	30	(342)	22.3	(122)	8	(158)	10.3	(7)	0.5
청년	(681)	(269)	39.5	(213)	31.3	(118)	17.3	(24)	3.5	(53)	7.8	(4)	0.6
중장년	(384)	(100)	26	(126)	32.8	(98)	25.5	(24)	6.3	(35)	9.1	(1)	0.3
고령	(466)	(74)	15.9	(120)	25.8	(126)	27	(74)	15.9	(70)	15	(2)	0.4

①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②왕래는 없지만 안면이 있고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들 ③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④잦은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 ⑤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며 지내는 사람들 ⑥기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웃을 잦은 왕래와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서울시 1인가구의 28.8%는 현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는 지내지만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이 가진 이웃에 대한 의미와 실제 이웃과의 관계에 간극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메워줄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가장 긍정적으로 이웃을 정의한 고령층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관계망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 1인가구는 속마음을 말하기,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외에 이웃을 사귀고 싶으나 방법을 모른다는 비중도 높은 결과를 보여 이들에 대한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표 Ⅲ-72▐ 서울시 성별·세대별 이웃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1인가구	(3,858)	(489)	12.7	(745)	19.3	(1111)	28.8	(798)	20.7	(656)	17.0	(59)	1.5
남성	(1,869)	(253)	13.5	(344)	18.4	(531)	28.4	(433)	23.2	(284)	15.2	(24)	1.3
청년	(935)	(134)	14.3	(160)	17.1	(227)	24.3	(272)	29.1	(128)	13.7	(14)	1.5
중장년	(673)	(80)	11.9	(128)	19.0	(209)	31.1	(125)	18.6	(125)	18.6	(6)	0.9
고령	(261)	(39)	14.9	(56)	21.5	(95)	36.4	(36)	13.8	(31)	11.9	(4)	1.5
여성	(1989)	(236)	11.9	(401)	20.2	(580)	29.2	(365)	18.4	(372)	18.7	(35)	1.8
청년	(955)	(140)	14.7	(160)	16.8	(229)	24.0	(215)	22.5	(201)	21.1	(10)	1.1
중장년	(505)	(59)	11.7	(112)	22.2	(164)	32.5	(65)	12.9	(101)	20.0	(4)	0.8
고령	(529)	(37)	7.0	(129)	24.4	(187)	35.4	(85)	16.1	(70)	13.2	(21)	4.0

①이웃을 사귀고 싶으나 방법을 모름 ②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③알고는 지내지만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움 ④이웃의 필요성 느끼지 못함 ⑤이웃의 지난친 간섭이 부담스러움 ⑥기타

□ 여성 1인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의 높은 이웃과의 단절 비중. 특히 고령남성 1인가구의 높은 사회적 고립 위험 나타나 고독사 방지방안 필요. 원가족, 이웃보다 친구중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친구만남은 소득수준과 유의미한 관계

서울시 1인가구의 이웃과의 직접만남 빈도는 소통 없음이 64.0%로 가장 높았으며 월 1회 이하(16.0%), 월 2-3회(10.7%), 월 4회 이상(9.4%) 순이었다. 남성 1인가구의 5.1%는 월 4회 이상 이웃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8.4%p 높은 13.5%였다.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의 이웃과의 직접 만남 횟수가 많은 결과는 고령층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고령여성 1인가구 중 월 4회 이상 이웃을 만나는 비중은 무려 32.0%로 고령남성 1인가구 9.5%보다 22.5%p 높았다. 바꿔 말하면, 이웃과의 교류가 현저하게 낮은 고령남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방지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73▐ 서울시 성별·세대별 이웃과의 직접만남 빈도

(단위: 명, %)

구분		월 4회 이상		월2-3회		월 1회 이하		소통 없음		χ^2(p)
1인가구	(3,000)	(281)	9.4	(321)	10.7	(479)	16.0	(1919)	64.0	-
남성	(1,469)	(75)	5.1	(158)	10.8	(263)	17.9	(973)	66.2	
청년	(739)	(27)	3.7	(61)	8.3	(125)	16.9	(526)	71.2	34.7***
중장년	(520)	(28)	5.4	(59)	11.4	(100)	19.2	(333)	64.0	
고령	(210)	(20)	9.5	(38)	18.1	(38)	18.1	(114)	54.3	
여성	(1,531)	(206)	13.5	(163)	10.7	(216)	14.1	(946)	61.8	
청년	(681)	(28)	4.1	(32)	4.7	(89)	13.1	(532)	78.1	293.6***
중장년	(384)	(29)	7.6	(51)	13.3	(73)	19.0	(231)	60.2	
고령	(466)	(149)	32	(80)	17.2	(54)	11.6	(183)	39.3	

*p<0.1, **p<0.05, ***p<0.01

1인가구에게 친구 및 이웃의 수는 고민 상담을 포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이웃과의 직접 만남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친구만남에 있어 서울시 1인가구 중 친구와 만남이 없는 비중은 9.4%에 불과하였으며, 34.9%는 월 2-3회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4회 이상 친구를 만나는 비중도 32.5%에 달하고 있었으며 월 1회 이하는 23.1%로 나타나 이웃만남과 달리 친구만남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고령세대로 올라갈수록 빈도가 높았던 이웃만남과는 달리, 친구만남은 고령세대보다 청년세대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직접만남 빈도에 있어 소통이 없는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8.0%, 중장년남성 1인가구 11.7%, 고령남성 1인가구 18.6%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 4.3%, 중장년여성 1인가구 8.1%, 고령여성 1인가구 13.5%로 조사되었다. 이웃과의 교류가 낮았던 고령남성 1인가구는 친구만남에 있어서도 가장 교류가 적은 결과를 보여 다시 한 번 이들의 사회적 보호망이 강조되었다.

▌표 Ⅲ-7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친구 직접만남 빈도

(단위: 명, %)

구분		월 4회 이상		월2-3회		월 1회 이하		소통 없음		χ^2(p)
1인가구	(3,000)	(976)	32.5	(1,048)	34.9	(694)	23.1	(282)	9.4	-
남성	(1,469)	(444)	30.2	(509)	34.7	(357)	24.3	(159)	10.8	52.0***
청년	(1,531)	(532)	34.8	(539)	35.2	(337)	22.0	(123)	8.0	
중장년	(739)	(273)	36.9	(240)	32.5	(167)	22.6	(59)	8.0	
고령	(520)	(134)	25.8	(180)	34.6	(145)	27.9	(61)	11.7	
여성	(210)	(37)	17.6	(89)	42.4	(45)	21.4	(39)	18.6	74.1***
청년	(681)	(283)	41.6	(235)	34.5	(134)	19.7	(29)	4.3	
중장년	(384)	(96)	25.0	(134)	34.9	(123)	32.0	(31)	8.1	
고령	(466)	(153)	32.8	(170)	36.5	(80)	17.2	(63)	13.5	
χ^2 (p)										12.7***

*p<0.1, **p<0.05, ***p<0.01

친구와의 만남횟수와 소득수준의 관계에 있어 월 4회 이상 친구만남은 소득수준과 눈에 띄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통 없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1인가구 중 친구와 소통이 없는 비중은 5.6%, 250-300만원 미만 5.2%, 200-250만원 미만 5.9%로 소득이 내려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135-200만원 미만 10.2%, 최저임금이하 13.7%로 관찰되었다. 즉 소득수준은 고민상담 상대의 수와 더불어 가장 만남이 잦은 친구와의 만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요인인 것이다.

▌표 Ⅲ-75▐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친구만남 빈도

(단위: 명, %)

총합		월 4회 이상		월2-3회		월 1회 이하		소통 없음	
최저임금 이하	(1,116)	(387)	34.7	(354)	31.7	(222)	19.9	(153)	13.7
135-200만원 미만	(500)	(158)	31.6	(168)	33.6	(123)	24.6	(51)	10.2
200-250만원 미만	(525)	(168)	32.0	(192)	36.6	(134)	25.5	(31)	5.9
250-300만원 미만	(308)	(91)	29.6	(121)	39.3	(80)	26.0	(16)	5.2
300만원 이상	(551)	(172)	31.2	(213)	38.7	(135)	24.5	(31)	5.6

주로 월 4회 이상, 월 2-3회의 만남을 보인 친구와의 교류와 달리 원가족은 간헐적 또는 명절 등 월 1회 이하가 33.2%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모의 사망 등을 포함하는 소통 없음의 비중도 27.3%로 높았으며, 월 2-3회(21.0%), 월 4회 이상(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남성 1인가구 42.6%. 청년여성 1인가구 41.7%는 월 1회 이하 부모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만남보다 적은 수의 만남횟수를 가진 결과를 보였다. 즉 1인가구는 혈연가구보다 친구와 이웃 등 비혈연가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집단이며, 비혈연가구와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 저소득 혹은 특정 연령대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결방안도 필요한 것이다.

▌표 Ⅲ-76▐ 서울시 성별·세대별 부모 직접만남 빈도

(단위: 명, %)

구분	총합	월 4회 이상		월2-3회		월 1회 이하		소통 없음		χ^2(p)
1인가구	(3,000)	(558)	18.6	(629)	21.0	(993)	33.1	(820)	27.3	-
남성	(1,469)	(255)	17.4	(322)	21.9	(535)	36.4	(357)	24.3	
청년	(1,531)	(303)	19.8	(307)	20.1	(458)	29.9	(463)	30.2	530.7***
중장년	(739)	(167)	22.6	(202)	27.3	(315)	42.6	(55)	7.4	
고령	(520)	(81)	15.6	(106)	20.4	(197)	37.9	(136)	26.2	
여성	(210)	(7)	3.3	(14)	6.7	(23)	11.0	(166)	79.1	
청년	(681)	(200)	29.4	(168)	24.7	(284)	41.7	(29)	4.3	734.6***
중장년	(384)	(63)	16.4	(104)	27.1	(137)	35.7	(80)	20.8	
고령	(466)	(40)	8.6	(35)	7.5	(37)	7.9	(354)	76.0	
χ^2 (p)										54.8***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의 친구만남 횟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만남횟수는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소득과 친구만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이 관계를 보여 소득수준이 만남에 중요한 요인임을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만남, 자녀만남, 이웃만남 횟수 역시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평균소득과 부모만남은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이웃만남

과 자녀만남은 월평균소득과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원가족과 만나는 주된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Ⅲ-77▐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부모, 자녀, 친구, 이웃만남 상관관계

구분	월평균소득	부모만남	자녀만남	친구만남	이웃만남
월평균소득	1	-	-	-	-
부모만남	0.222***	1	-	-	-
자녀만남	-0.206***	-0.39***	1	-	-
친구만남	0.037**	0.22***	0.026	1	-
이웃만남	-0.131***	-0.17***	0.361***	0.150***	1

*p<0.1, **p<0.05, ***p<0.01

성인자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령 1인가구의 원가족가 만나는 주된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고령남성 1인가구는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을 받기 위해서(16.2%)가 가장 높았다. 고령여성 1인가구는 개인/집안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15.0%), 말벗/이야기 상대를 위해서(11.8%),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10.3%)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직접만남 비중이 가장 높았던 청년 1인가구는 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집안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원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78▐ 서울시 성별·세대별 원가족과 만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인가구	3,000	282	252	141	77	415	247	75	49	1,399	63
	100	9.4	8.4	4.7	2.6	13.8	8.2	2.5	1.6	46.6	2.1
남성	1,469	157	170	58	31	212	97	32	27	646	39
	100	10.7	11.6	4	2.1	14.4	6.6	2.2	1.8	44	2.7
청년	739	100	73	34	17	85	42	16	15	343	14
	100	13.5	9.9	4.6	2.3	11.5	5.7	2.2	2	46.4	1.9
중장년	520	23	79	19	6	99	39	11	7	221	16
	100	4.4	15.2	3.7	1.2	19	7.5	2.1	1.4	42.5	3.1
고령	210	34	18	5	8	28	16	5	5	82	9
	100	16.2	8.6	2.4	3.8	13.3	7.6	2.4	2.4	39.1	4.3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여성	1,531	125	82	83	46	203	150	43	22	753	24
	100	8.2	5.4	5.4	3	13.3	9.8	2.8	1.4	49.2	1.6
청년	681	58	30	19	15	66	56	9	6	413	9
	100	8.5	4.4	2.8	2.2	9.7	8.2	1.3	0.9	60.7	1.3
중장년	384	19	38	34	5	67	39	13	6	158	5
	100	5	9.9	8.9	1.3	17.5	10.2	3.4	1.6	41.2	1.3
고령	466	48	14	30	26	70	55	21	10	182	10
	100	10.3	3	6.4	5.6	15	11.8	4.5	2.2	39.1	2.2

①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을 받기 위해서 ②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을 주기 위해서 ③돌봄(간호, 양육 등)을 해주기 위해서 ④돌봄(간호, 양육 등)을 받기 위해서 ⑤개인/집안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⑥말벗/이야기 상대를 위해서 ⑦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⑧가사를 지원받기 위해서 ⑨특별한 목적 없이 ⑩기타

3.7.2. 1인가구 여가활동

□ 여행/나들이 희망, 그러나 경제적 부담 및 시간부족으로 여가활동 제약. 주로 남성 1인가구 연인, 여성 1인가구 친구 및 이웃과 함께 여가활동 희망

개인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TV/비디오 시청(25.4%), 가사(20.1%), 친구만남 등 모임활동(17.5%), 운동(11.5%) 등의 순이었다. 남성 1인가구는 TV/비디오 시청(26.6%)이 가장 주된 활동이었으며, 여성 1인가구는 가사(25.7%)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만남 등 모임활동을 하는 비중도 남성 1인가구 19.1%, 여성 1인가구 16.0%로 조사되어 1인가구의 일부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 TV/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아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될 우려가 나타났다.

▌표 Ⅲ-7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현재 주로 하는 활동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인가구	3,000	604	114	525	345	112	184	129	25	761	141	60
	100	20.1	3.8	17.5	11.5	3.7	6.1	4.3	0.8	25.4	4.7	2
남성	1,469	211	57	280	198	68	101	48	7	391	77	31
	100	14.4	3.9	19.1	13.5	4.6	6.9	3.3	0.5	26.6	5.2	2.1
청년	739	95	38	147	119	32	56	21	2	160	55	14
	100	12.9	5.1	19.9	16.1	4.3	7.6	2.8	0.3	21.7	7.4	1.9
중장년	520	74	15	97	53	30	37	15	4	163	21	11
	100	14.2	2.9	18.7	10.2	5.8	7.1	2.9	0.8	31.4	4	2.1
고령	1,531	393	57	245	147	44	83	81	18	370	64	29
	100	25.7	3.7	16	9.6	2.9	5.4	5.3	1.2	24.2	4.2	1.9
여성	210	42	4	36	26	6	8	12	1	68	1	6
	100	20	1.9	17.1	12.4	2.9	3.8	5.7	0.5	32.4	0.5	2.9
청년	681	127	16	109	86	26	55	16	4	179	50	13
	100	18.7	2.4	16	12.6	3.8	8.1	2.4	0.6	26.3	7.3	1.9
중장년	384	117	18	49	34	11	16	26	5	89	11	8
	100	30.5	4.7	12.8	8.9	2.9	4.2	6.8	1.3	23.2	2.9	2.1
고령	466	149	23	87	27	7	12	39	9	102	3	8
	100	32	4.9	18.7	5.8	1.5	2.6	8.4	1.9	21.9	0.6	1.7

①가사 ②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 ③친구만남 등 모임활동 ④운동 ⑤여행/나들이 ⑥문화관련 여가활동(영화, 연극 관람 등) ⑦종교 활동 ⑧봉사·사회활동 ⑨TV/비디오 시청 ⑩자기개발(학습, 교육 프로그램 수강) ⑪기타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나들이(38.4%)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세대별 모든 집단에서 여행/나들이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현재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TV/비디오 시청을 희망하는 비중은 4.7%에 그쳐 1인가구는 희망여가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희망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인가구	3,000	62	99	337	329	1,153	360	106	92	140	276	46
	100.0	2.1	3.3	11.2	11.0	38.4	12.0	3.5	3.1	4.7	9.2	1.5
남성	1,469	36	59	179	171	522	179	54	49	77	120	23
	100.0	2.5	4.0	12.2	11.6	35.5	12.2	3.7	3.3	5.2	8.2	1.6
청년	739	15	32	100	94	255	95	21	17	32	67	11
	100.0	2.0	4.3	13.5	12.7	34.5	12.9	2.8	2.3	4.3	9.1	1.5
중장년	520	14	20	52	55	195	63	22	20	31	39	9
	100.0	2.7	3.9	10.0	10.6	37.5	12.1	4.2	3.9	6.0	7.5	1.7
고령	210	7	7	27	22	72	21	11	12	14	14	3
	100.0	3.3	3.3	12.9	10.5	34.3	10.0	5.2	5.7	6.7	6.7	1.4
여성	1,531	26	40	158	158	631	181	52	43	63	156	23
	100.0	1.7	2.6	10.3	10.3	41.2	11.8	3.4	2.8	4.1	10.2	1.5
청년	681	11	8	61	69	301	98	5	12	33	73	10
	100.0	1.6	1.2	9.0	10.1	44.2	14.4	0.7	1.8	4.9	10.7	1.5
중장년	384	7	11	28	48	153	40	15	11	10	57	4
	100.0	1.8	2.9	7.3	12.5	39.8	10.4	3.9	2.9	2.6	14.8	1.0
고령	466	8	21	69	41	177	43	32	20	20	26	9
	100.0	1.7	4.5	14.8	8.8	38.0	9.2	6.9	4.3	4.3	5.6	1.9

주: 문항의 번호는 표Ⅲ-78과 동일함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운 점으로 비용부담과 시간부족을 꼽았다. 서울시 1인가구의 30.6%는 여가활동 비용부담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장시간 근로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함도 23.4%를 차지하였다.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중은 6.5%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Ⅲ-8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희망여가활동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총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인가구		3,000	257	701	155	917	157	120	93	196	40	364
		100	8.6	23.4	5.2	30.6	5.2	4	3.1	6.5	1.3	12.1
남성		1,469	110	335	85	427	84	59	49	101	14	205
		100	7.5	22.8	5.8	29.1	5.7	4	3.3	6.9	1	14
	청년	739	26	176	60	226	45	29	21	44	9	103
		100	3.5	23.8	8.1	30.6	6.1	3.9	2.8	6	1.2	13.9
	중장년	520	41	133	18	146	28	20	24	43	4	63
		100	7.9	25.6	3.5	28.1	5.4	3.9	4.6	8.3	0.8	12.1
	고령	210	43	26	7	55	11	10	4	14	1	39
		100	20.5	12.4	3.3	26.2	5.2	4.8	1.9	6.7	0.5	18.6
여성		1,531	147	366	70	490	73	61	44	95	26	159
		100	9.6	23.9	4.6	32	4.8	4	2.9	6.2	1.7	10.4
	청년	681	20	203	20	260	34	22	10	50	13	49
		100	2.9	29.8	2.9	38.2	5	3.2	1.5	7.3	1.9	7.2
	중장년	384	22	119	14	114	19	17	16	25	5	33
		100	5.7	31	3.7	29.7	5	4.4	4.2	6.5	1.3	8.6
	고령	466	105	44	36	116	20	22	18	20	8	77
		100	22.5	9.4	7.7	24.9	4.3	4.7	3.9	4.3	1.7	16.5

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②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부족 ③가족 돌봄으로 인한 시간부족 ④여가활동 비용 부담 ⑤여가 시설이나 장소 없음 ⑥여가 프로그램 없음 ⑦여가활동 관련 정보 부족 ⑧함께 할 사람 없음 ⑨기타 ⑩어려움 없음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고 싶은 대상으로 친구나 이웃(32.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인(28.4%), 가족(19.1%), 혼자(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29.2%)보다 연인(34.9%)과 함께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여성 1인가구는 연인(22.0%)보다 친구나 이웃(35.7%)과 함께 보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청년남성 1인가구와 청년여성 1인가구 모두 가족, 친구나 이웃과 함께 보내기를 희망하기보다 주로 연인과 함께 여가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년 1인가구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연인(32.0%)이 가장 높았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37.4%)과 함께 여가활동을 희망하였다. 이후 고령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는 원가족보다 비혈연가구와의 여가활동을 희망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그 대상에 있어 주로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연인,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 고령 1인가구는 친구나 이웃과 더불어 가족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82▐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대상

(단위: 명, %)

구분		가족		연인		친구/이웃		동호회 등		기타		혼자	
1인가구	(2,974)	(568)	19.1	(843)	28.4	(967)	32.5	(208)	7.0	(22)	0.7	(366)	12.3
남성	(1,465)	(225)	15.4	(511)	34.9	(428)	29.2	(122)	8.3	(9)	0.6	(170)	11.6
청년	(737)	(83)	11.3	(325)	44.1	(195)	26.5	(46)	6.2	(2)	0.3	(86)	11.7
중장년	(519)	(79)	15.2	(166)	32.0	(147)	28.3	(52)	10.0	(3)	0.6	(72)	13.9
고령	(209)	(63)	30.1	(20)	9.6	(86)	41.2	(24)	11.5	(4)	1.9	(12)	5.7
여성	(1,509)	(343)	22.7	(332)	22.0	(539)	35.7	(86)	5.7	(13)	0.9	(196)	13.0
청년	(681)	(100)	14.7	(239)	35.1	(198)	29.1	(32)	4.7	(3)	0.4	(109)	16.0
중장년	(382)	(89)	23.3	(75)	19.6	(143)	37.4	(31)	8.1	(1)	0.3	(43)	11.3
고령	(446)	(154)	34.5	(18)	4.0	(198)	44.4	(23)	5.2	(9)	2.0	(44)	9.9

8. 1인가구 건강

3.8.1.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 고령 1인가구의 낮은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청년여성 및 중장년남성 1인가구 주관적 정신건강 취약,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방안 필요

서울시 1인가구의 주관적 신체건강에 있어서 19.2%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 역시 48.6%에 그쳤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건강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 1인가구 15.9%였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6.4%p 높은 22.3%였다. 청년남성 1인가구 중 9.7%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중장년남성 1인가구 20.8%, 고령남성 1인가구 26.2%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청년여성 1인가구 15.7%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 16.6%, 고령여성 1인가구 36.7%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Ⅲ-8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χ^2(p)
1인가구	(3,000)	(79)	2.6	(497)	16.6	(966)	32.2	(1,062)	35.4	(396)	13.2	-
남성	(1,469)	(34)	2.3	(200)	13.6	(453)	30.8	(536)	36.5	(246)	16.8	
청년	(739)	(10)	1.4	(61)	8.3	(221)	29.9	(276)	37.4	(171)	23.1	
중장년	(520)	(17)	3.3	(91)	17.5	(160)	30.8	(194)	37.3	(58)	11.2	80.3***
고령	(210)	(7)	3.3	(48)	22.9	(72)	34.3	(66)	31.4	(17)	8.1	
여성	(1,531)	(45)	2.9	(297)	19.4	(513)	33.5	(526)	34.4	(150)	9.8	
청년	(681)	(8)	1.2	(99)	14.5	(219)	32.2	(258)	37.9	(97)	14.2	
중장년	(384)	(4)	1.0	(60)	15.6	(153)	39.8	(138)	35.9	(29)	7.6	116.1***
고령	(466)	(33)	7.1	(138)	29.6	(141)	30.3	(130)	27.9	(24)	5.2	
χ^2 (p)												46.3***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의 주관적 정신건강은 신체건강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주관적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14.5% 수준이었으며, 신체건강과 달리 중장년남성 1인가구(14.4%)와 청년여성 1인가구(17.2%)가 가장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Ⅲ-8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관적 정신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χ^2(p)
1인가구	(3,000)	(44)	1.5	(389)	13.0	(962)	32.1	(1,116)	37.2	(489)	16.3	-
남성	(1,469)	(22)	1.5	(180)	12.3	(454)	30.9	(540)	36.8	(273)	18.6	
청년	(739)	(9)	1.2	(79)	10.7	(211)	28.6	(267)	36.1	(173)	23.4	32.5***
중장년	(520)	(10)	1.9	(65)	12.5	(171)	32.9	(192)	36.9	(82)	15.8	
고령	(210)	(3)	1.4	(36)	17.1	(72)	34.3	(81)	38.6	(18)	8.6	
여성	(1,531)	(22)	1.4	(209)	13.7	(508)	33.2	(576)	37.6	(216)	14.1	
청년	(681)	(14)	2.1	(103)	15.1	(201)	29.5	(253)	37.2	(110)	16.2	18.8*
중장년	(384)	(1)	0.3	(41)	10.7	(138)	35.9	(154)	40.1	(50)	13.0	
고령	(466)	(7)	1.5	(65)	14.0	(169)	36.3	(169)	36.3	(56)	12.0	
χ^2(p)												11.7*

*p<0.1, **p<0.05, ***p<0.01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은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로 성립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의 경우 신체 및 정신건강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은 고민상담 상대의 수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 신체와 정신건강이 중요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1인가구 고립의 해소를 위해 가장 건강증진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85▐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 신체건강, 고민상담 상대의 수 상관관계

구분	월평균소득	고민상담 상대 수	신체건강	정신건강
월평균소득	1	-	-	-
고민상담 상대 수	0.105***	1	-	-
신체건강	0.118***	0.178***	1	-
정신건강	0.063***	0.189***	0.658***	1

*p<0,1, **p<.0.05, ***p<0.01

□ 높은 우울감 경험비중, 청년여성 1인가구 가장 심각, 사회적 관계망 및 주거환경, 안전 상태와 유의미한 관계

주관적 정신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70.2%는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달 1~2회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중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주 1~2회(19.3%), 주 3~4회(7.5%), 매일(1.5%)의 순이었다. 남성 1인가구의 우울감 경험비중은 65.0%였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0.1%p 낮은 75.1%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우울감 경험빈도가 다소 높았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우울감 경험빈도가 높았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의 83.1%가 우울감 경험을 보였다. 이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 73.2%, 고령여성 1인가구 65.0%를 훨씬 넘는 수치이며, 청년남성 1인가구 65.6%보다도 17.5%p 높다. 종합적으로, 서울시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1인가구 정신건강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울감의 원인을 가늠해보기 위해 고민상담 상대의 수, 주거면적, 주거안전정도,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정도, 월평균소득과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민상담 상대의 수, 주거면적과 월평균소득은 우울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주거지의 안전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물론, 상관관계만으로 변수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나, 이러한 요인들과 우울감과 확실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6▐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우울감 경험빈도

(단위: 명, %)

구분		느끼지 않음		아주 가끔 (매달 1~2회)		가끔 느낌 (주 1~2회)		자주 느낌 (주 3~4회)		매일 느낌		χ^2(p)
1인가구	(3,000)	(895)	29.8	(1,285)	42.8	(549)	18.3	(226)	7.5	(45)	1.5	-
남성	(1,469)	(514)	35.0	(608)	41.4	(246)	16.8	(84)	5.7	(17)	1.2	
청년	(739)	(254)	34.4	(312)	42.2	(130)	17.6	(34)	4.6	(9)	1.2	27.6^{***}
중장년	(520)	(194)	37.3	(215)	41.4	(80)	15.4	(31)	6.0	(0)	0.0	
고령	(210)	(66)	31.4	(81)	38.6	(36)	17.1	(19)	9.1	(8)	3.8	
여성	(1,531)	(381)	24.9	(677)	44.2	(303)	19.8	(142)	9.3	(28)	1.8	
청년	(681)	(115)	16.9	(303)	44.5	(166)	24.4	(79)	11.6	(18)	2.6	72.3^{***}
중장년	(384)	(103)	26.8	(197)	51.3	(55)	14.3	(26)	6.8	(3)	0.8	
고령	(466)	(163)	35.0	(177)	38.0	(82)	17.6	(37)	7.9	(7)	1.5	
												45.7^{***}

*p<0.1, **p<0.05, ***p<0.01

▌표 Ⅲ-87▐ 우울감, 주거면적, 고민상담 상대의 수, 일상생활 및 주거지 안전정도,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우울감 경험빈도	주거면적	고민상담 상대의 수	일상생활 안전정도	주거지 안전정도	월평균소득
우울감 경험 빈도	1	-	-	-	-	-
주거면적	-0.054^{***}	1	-	-	-	-
고민상담 상대의 수	-0.117^{***}	-0.036^{**}	1	-	-	-
일상생활 안전정도	0.198^{***}	-0.096^{***}	-0.078^{***}	1	-	-
주거지 안전정도	0.152^{***}	-0.175^{***}	-0.055^{**}	0.496^{***}	1	-
월평균소득	-0.041^{**}	0.112^{***}	0.105^{***}	-0.077^{***}	-0.097^{***}	1

*p<0.1, **p<0.05, ***p<0.01

3.8.2. 의료·보건기관 이용 및 식생활

□ 여성 1인가구의 높은 만성질환 노출비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10가구 중 8가구 혼자 의료기관 이용

서울시 1인가구 중 21.3%는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가, 청년세대보다 고령세대에서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비중이 높았다. 그 중 고령남성 1인가구 40.0%, 고령여성 1인가구 47.0%가 만성질환 진단경험이 있었는데, 수입원이 매우 제한적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에 대한 무료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Ⅲ-8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만성질환 진단 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χ^2(p)
1인가구	(3,000)	(640)	21.3	(2,360)	78.7	-
남성	(1,469)	(265)	18.0	(1,204)	82.0	
청년	(739)	(63)	8.5	(676)	91.5	121.4***
중장년	(520)	(118)	22.7	(402)	77.3	
고령	(210)	(84)	40.0	(126)	60.0	
여성	(1,531)	(375)	24.5	(1,156)	75.5	
청년	(681)	(76)	11.2	(605)	88.8	195.8***
중장년	(384)	(80)	20.8	(304)	79.2	
고령	(466)	(219)	47.0	(247)	53.0	
χ^2 (p)						18.6***

*p<0.1, **p<0.05, ***p<0.01

서울시 1인가구 57.1%는 최근 1년 이내 보건소, 동네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보건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방문경험이 있는 1인가구 중 80.7%는 혼자 의료·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자 방문하는 비중은 남성 1인가구 84.9%, 여성 1인가구 77.7%로 남성 1인가구가 높았으며, 그 중 중장년남성 1인가구와 청년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약자로 구분되는 고령 1인가구의 혼자 방문하는 비중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

고 고령남성 1인가구 70.6%, 고령여성 1인가구 60.9% 수준이었다.

▌표 Ⅲ-8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의료·보건기간 동행자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 자매		친구 또는 이웃		연인		부모		혼자		기타	
1인가구	(1,737)	(13)	0.8	(124)	7.1	(31)	1.8	(95)	5.5	(30)	1.7	(38)	2.2	(1,401)	80.7	(5)	0.3
남성	(717)	(5)	0.7	(28)	3.9	(9)	1.3	(42)	5.9	(11)	1.5	(12)	1.7	(609)	84.9	(1)	0.1
청년	(309)	(0)	0	(2)	0.7	(6)	1.9	(16)	5.2	(10)	3.2	(8)	2.6	(266)	86.1	(1)	0.3
중장년	(272)	(2)	0.7	(6)	2.2	(3)	1.1	(9)	3.3	(1)	0.4	(4)	1.5	(247)	90.8	(0)	0
고령	(136)	(3)	2.2	(20)	14.7	(0)	0	(17)	12.5	(0)	0	(0)	0	(96)	70.6	(0)	0
여성	(1,020)	(8)	0.8	(96)	9.4	(22)	2.2	(53)	5.2	(19)	1.9	(26)	2.6	(792)	77.7	(4)	0.4
청년	(445)	(1)	0.2	(0)	0	(5)	1.1	(18)	4	(15)	3.4	(21)	4.7	(385)	86.5	(0)	0
중장년	(245)	(3)	1.2	(10)	4.1	(6)	2.5	(13)	5.3	(4)	1.6	(3)	1.2	(206)	84.1	(0)	0
고령	(330)	(4)	1.2	(86)	26.1	(11)	3.3	(22)	6.7	(0)	0	(2)	0.6	(201)	60.9	(4)	1.2

*p<0.1, **p<0.05, ***p<0.01

앞서 월평균소득수준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38.6%)을 꼽았다. 이는 의료비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청년 1인가구에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 1인가구에게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약절차의 불편과 먼 거리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응답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꿔 말하면 고령 1인가구는 비용부담 외에도 다른 여러 어려움을 가진 계층임을 의미한다. 실제 이용절차 복잡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진 비중은 고령남성 1인가구 21.6%, 청년남성 1인가구 10.7%였으며, 고령여성 1인가구 20.4%, 청년여성 1인가구 10.2%였다. 이들에 대한 동행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절차안내 등을 위한 편의성 확대가 요구된다.

▌표 Ⅲ-9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분		예약절차 불편		비용부담		이용절차 복잡		의사, 직원 불친절		먼 거리		같이 갈 사람이 없음	
1인가구	(2,222)	(303)	13.6	(858)	38.6	(319)	14.4	(204)	9.2	(367)	16.5	(171)	7.7
남성	(887)	(134)	15.1	(333)	37.5	(122)	13.8	(74)	8.3	(147)	16.6	(77)	8.7
청년	(374)	(52)	13.9	(165)	44.1	(40)	10.7	(35)	9.4	(66)	17.7	(16)	4.3
중장년	(332)	(55)	16.6	(117)	35.2	(43)	13.0	(25)	7.5	(52)	15.7	(40)	12.1
고령	(181)	(27)	14.9	(51)	28.2	(39)	21.6	(14)	7.7	(29)	16.0	(21)	11.6
여성	(1335)	(169)	12.7	(525)	39.3	(197)	14.8	(130)	9.7	(220)	16.5	(94)	7.0
청년	(581)	(61)	10.5	(260)	44.8	(59)	10.2	(76)	13.1	(92)	15.8	(33)	5.7
중장년	(322)	(45)	14.0	(132)	41.0	(50)	15.5	(24)	7.5	(44)	13.7	(27)	8.4
고령	(432)	(63)	14.6	(133)	30.8	(88)	20.4	(30)	6.9	(84)	19.4	(34)	7.9

□ 절반이상 집에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르고, 반찬 만들기가 번거로워 대충 해결

한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가사 등 모든 생활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1인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현재 1인가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대표적 사업으로 소셜다이닝, 공동부엌 등을 꼽으며 서울시 1인가구 지원조례에도 소셜다이닝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의 62.6%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청년 1인가구가 식사를 거르는 비중이 높았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식사를 거르는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68.2%, 중장년남성 1인가구 65.1%, 고령남성 1인가구 47.6%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 69.5%, 중장년여성 1인가구 55.8%, 고령여성 1인가구 53.9%였다. 식사를 거르는 비중은 청년세대와 고령세대는 여성 1인가구가 높았으며, 중장년의 경우 남성 1인가구가 중장년여성 1인가구보다 9.3%p 높았다. 특히1인가구의 절반(53.3%)은 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부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표 Ⅲ-91▐ 서울시 1인가구 하루에 한번 식사를 거르는 빈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1인가구	(3,000)	(562)	18.7	(1,318)	43.9	(785)	26.2	(335)	11.2	-
남성	(1,469)	(282)	19.2	(660)	44.9	(366)	24.9	(161)	11.0	
청년	(739)	(164)	22.2	(340)	46.0	(174)	23.6	(61)	8.3	52.6***
중장년	(520)	(97)	18.7	(241)	46.4	(131)	25.2	(51)	9.8	
고령	(210)	(21)	10.0	(79)	37.6	(61)	29.1	(49)	23.3	
여성	(1,531)	(280)	18.3	(658)	43.0	(419)	27.4	(174)	11.4	
청년	(681)	(181)	26.6	(292)	42.9	(156)	22.9	(52)	7.6	78.1***
중장년	(384)	(59)	15.4	(155)	40.4	(121)	31.5	(49)	12.8	
고령	(466)	(40)	8.6	(211)	45.3	(142)	30.5	(73)	15.7	
χ^2 (p)										2.8

*p<0.1, **p<0.05, ***p<0.01

하루에 한 번 이상 식사를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61.9%는 반찬 만들기가 번거로워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비중이 높았다. 식사를 거르는 빈도와 마찬가지로 청년남성 1인가구 67.9%, 청년여성 1인가구 74.3%가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1인가구의 불규칙한 식습관 문제가 드러났다

▌표 Ⅲ-92▐ 서울시 1인가구 반찬 만들기 번거로워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빈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p)
1인가구	(3,000)	(420)	14	(1,438)	47	(827)	27.6	(315)	10.5	-
남성	(1,469)	(197)	13.4	(728)	49.6	(398)	27.1	(146)	9.9	
청년	(739)	(116)	15.7	(386)	52.2	(175)	23.7	(62)	8.4	60.7***
중장년	(520)	(66)	12.7	(261)	50.2	(156)	30	(37)	7.1	
고령	(210)	(15)	7.1	(81)	38.6	(67)	31.9	(47)	22.4	
여성	(1,531)	(223)	14.6	(710)	46.4	(429)	28	(169)	11.0	
청년	(681)	(160)	23.5	(346)	50.8	(132)	19.4	(43)	6.3	131.4***
중장년	(384)	(25)	6.5	(172)	44.8	(134)	34.9	(53)	13.8	
고령	(466)	(38)	8.2	(192)	41.2	(163)	35	(73)	15.7	
										3.4

*p<0.1, **p<0.05, ***p<0.01

9.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3.9.1. 변수설명 및 분석모형

1인가구의 삶과 태도를 이해하고 전반적 복지향상을 위해 이들이 갖는 '1인가구로서의 삶'이 여러 요인 중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로 연령, 성별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 변수는 이혼과 별거를 한 개의 집단으로 기혼/미혼/이혼·별거/사별로 사용하였다. 점유유형은 월세부담을 가진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월세부담 및 주거불안정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자가/비자가로 처리하였다. 임금수준과 주거면적은 취약계층을 드러낼 수 있는 변수로서 임금수준의 경우 최저임금이하 여부로 활용하였고 주거면적의 경우 최저주거면적 여부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또한 노후대비 정도와 최근 건강영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감 경험빈도와 객관적 건강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의사로부터 판정받은 만성질환 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편견, 및 차별경험이 1인가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망 즉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변수로 고려함에 있어 가족과의 만남횟수, 친구와의 만남횟수, 이웃과의 만남횟수 등을 각각 모형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정서적 관계를 포괄하는 사회적 고립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가족 및 이웃, 친구와의 만남횟수는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된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순위를 갖는 순위형 변수이다. 따라서 순위형 모형

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형 모형은 잠재변수 y^*가 점차 높은 임계치들을 통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위를 갖는 결과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모형화한다. 즉 y^*는 만족도에 대해 관측되지 않는 척도이다. 개인 i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y_i^* = x_i'\beta + u_i$$

설명변수 x가 절편α을 포함하지 않음을 통해 정규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y^*의 값이 매우 낮은 것은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y^* > \alpha_1$인 경우 만족도가 대체로 만족인 상태로 향상되며 $y^* > \alpha_2$ 인 경우 만족도는 매우 만족상태로 향상된다. 추가적인 범주들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m개의 대안을 갖는 순위형 모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lpha_{j-1} < y_i^* \leq \alpha_j \text{ 일 때 } y_i = j, \quad j = 1, \cdots, m$$

여기서 $\alpha_0 = -\infty$ 이고 $\alpha_m = \infty$이다. 이 경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Pr(y_i = j) = F(\alpha_j - x_i'\beta) - F(\alpha_{j-1} - x_i'\beta)$$

F는 u_i의 누적분포함수이며 회귀모수 β와 $m-1$개의 임계치 모수 $\alpha_{1,\cdots,}\alpha_{m-1}$은 위에서 정의한 $p_{ij} = \Pr(y_i = j)$에 대한 로그우도를 극대화하여 추정한다. 순위형 로짓모형은 u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므로 $F(z) = e^z/(1+e^z)$이다. 이때 추정된 회귀모수 β의 부호는 설명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변수 y^*가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된 β_j가 양수인 경우, x_{ij}의 증가는 가장 낮은 범주 $y_i = 1$ 즉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 선택확률을 감소시키고 가장 높은 범주 $y_i = 4$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가 선택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설명변수 x_r 의 변화가 대안 j를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각 설명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다.

$$\frac{\partial \Pr(y_i = j)}{\partial x_{ri}} = F'(\alpha_{j-1} - x_i'\beta) - F'(\alpha_j - x_i'\beta)\beta_r$$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Ⅲ-93▐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구분	빈도, 평균	퍼센트, 표준편차
종속변수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134	4.5
		대체로 불만족	669	22.3
		대체로 만족	1,753	58.4
		매우 만족	444	14.8
설명변수	연령(세)		44.3	17.0
	혼인상태	기혼	287	9.6
		미혼	1,953	65.1
		이혼/별거	417	13.9
		사별	343	11.4
	교육수준	고졸이하	1,144	38.1
		대졸이상	1,856	61.9
	점유형태(주거불안정 및 주거비 부담)	자가	546	18.2
		비(非)자가	2,454	81.8
	월평균 최저임금이하 소득여부	최저임금초과	1,884	62.8
		최저임금이하	1,116	37.2
	최저주거면적 거주여부	최저주거면적 초과	2,750	91.7
		최저주거면적 이하	250	8.3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		0.4	0.79
	우울감 경험빈도	느끼지 않음	895	29.8
		매달 1~2회	1,285	42.8
		주 1~2회	549	18.3
		주 3~4회	226	7.5
		매일	45	1.5
	1인가구로 인한 편견, 차별경험	없음	1,703	56.7
		있음	1,297	43.2
	사회적 고립여부(고민상담 대상 유무)	없음	773	25.8
		있음	2,227	74.2

3.9.2. 분석결과

서울시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추정결과 1인가구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 임금수준, 주거면적, 우울감, 차별경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요인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보다 미혼 및 이혼/별거 집단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자가 1인가구에 비해 주거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지닌 1인가구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임금수준과 주거면적은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불안과 삶의 만족도는 음의 관계로 주거안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건강 측면에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는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1인가구로 인한 편견과 차별의 경험에 있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험한 집단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종합하여보면 서울시 1인가구는 경제, 주거면적과 안전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우울감,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표 Ⅲ-94▐ 추정결과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편차
연령	-0.007**	0.004
성별(기준변수: 남성)		
여성	0.625***	0.077
혼인상태(기준변수: 기혼)		
미혼	1.365***	0.149
이혼/별거	0.364**	0.150
사별	-0.136	0.164
교육수준(기준변수: 대졸이하)		
대졸이상	0.064	0.089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편차
주거환경(기준변수: 자가)		
주거불안정 및 월세부담	-0.384***	0.100
취약계층여부(기준변수: 최저임금초과, 최저주거기준 초과)		
최저임금이하	-0.280***	0.085
최저주거기준이하	-0.580***	0.135
만성질환 개수	-0.064	0.050
우울감 경험빈도	-0.275***	0.041
차별경험(기준변수: 없음)		
차별경험 있음	-0.400***	0.079
사회적 고립여부(기준변수: 고민상담 상대 1명 이상)		
사회적 고립	-0.309***	0.087
Obs	3,000	
log likelihood	-2947.2	

추정계수는 각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으나 각 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계효과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인이 1인가구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좁은 주거면적과 주거불안정 및 주거비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로 인한 편견과 차별경험, 사회적 고립, 최저임금이하 여부 등의 순이었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만족도가 6.6% 높았으며, 기혼에 비해 미혼의 만족도는 12.3% 높았다. 또한 최저주거면적 이하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5.1% 낮았으며 편견 또는 차별경험이 있는 집단은 4.1% 낮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는 고립되지 않은 1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3.1%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최저임금이하를 받는 1인가구는 비교 집단보다 2.9% 만족도가 떨어졌다. 즉 1인가구에게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중에서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망,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95▐ 한계효과

변수명	추정계수
연령	-0.001**
성별(기준변수: 남성)	
여성	0.066***
혼인상태(기준변수: 기혼)	
미혼	0.123***
이혼/별거	0.021**
사별	-0.006
교육수준(기준변수: 대졸이하)	
대졸이상	0.007
주거환경(기준변수: 자가)	
주거불안정 및 월세부담	-0.044***
취약계층여부(기준변수: 최저임금초과, 최저주거기준 초과)	
최저임금이하	-0.029***
최저주거기준이하	-0.051***
만성질환 개수	-0.007
우울감 경험빈도	-0.029***
차별경험(기준변수: 없음)	
차별경험 있음	-0.041***
사회적 고립여부(기준변수: 고민상담 상대 1명 이상)	
사회적 고립	-0.031***

10. 소결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본 장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 1인가구로 1년 이상 거주한 20-80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삶, 경제, 주거, 안전, 여가, 사회적 관계망, 건강 총 7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본설계를 위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층화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에서의 성별과 세대가 갖는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영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0.1. 1인가구의 삶

서울시 1인가구는 주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이혼, 사별,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1인가구로 유입되었으며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유입비중은 2.8%에 불과하여 원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 중에서 청년층은 주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고령층은 사별이 주된 유입경로였고 중장년층의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혼인해체, 개인적 편의 등 다양한 경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1인가구로 살아감에 있어서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중장년여성이 가장 큰 경제적 불안을 보였다. 혼인해체로 인해 갑작스럽게 1인가구로 유입된 비중이 중장년여성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결과를 보여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 환경 조성방안이 요구된다. 이밖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서울시 1인가구의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로 35.8%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1인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중도 23.7%로 높았다. 특히 1인가구의 53.5%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그 형태로 여성 1인가구는 주로 지속적인 결혼강요, 남성 1인가구는 무능력자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그리고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를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며 인식개선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구 등 친한 사람 또는 뜻 맞는 사람들과의 가구구성을 희망하는 비중도 9.8%로 나타나 비혈연과의 가구구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었다. 그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 청년층보다 중장년 이후 세대가 비혈연과의 가구구성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세대융합형 중심의 공동체주거 공급방식에서 중장년이후 세대 중심으로의 공동체주거 공급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10.2. 경제상태 및 노후준비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8%였으나 경제활동 1인가구 중 22.5%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었다. 임시/일용직은 월평균 146.6만원임금수준으로 246.8만원을 보인 상용직의 59.2%에 불과하였다. 특히 임시/일용직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1인가구 164.7만원보다 35.1만원 낮은 129.6만원이었으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즉 임시/일용직 1인가구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 더욱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자립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월평균임금은 개인의 교육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고졸이하 고령 1인가구의 월평균임금은 54.2만원으로 필요 생계비 100.0만원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고졸이하 청년 1인가구는 최저임금이하인 124.5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의 부채 주요원인은 교육비로 나타나 이들의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비정규직 1인가구, 저학력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주된 어려움은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드러났으며 고령여성과 중장년남성에게 특히 큰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외에

소득원이 없는 1인가구의 특성 상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도 관찰되었으며 고령층은 다른 세대와 달리 질병 치료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방안과 비경제활동 또는 저소득 고령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경제활동 청년 1인가구는 구직 시 임금수준 미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중장년층의 경우 나이가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 1인가구의 27.4%는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빚을 지게 된 주요 원인은 주택마련과 생계비였다. 특히 월평균소득의 39.2%를 주거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하 저소득층의 부채원인은 주택마련보다 교육비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1인가구의 74.6%는 월평균 총소득의 60%미만을 매월 지출하고 있었는데 높은 지출비중은 미래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서울시 1인가구 중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은 14.6%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노후대비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장년남성 1인가구 54.6%, 중장년여성 1인가구 43.8%가 노후대비가 되지 않고 있었다. 고령남성 1인가구 64.3%, 고령여성 1인가구 69.3%로 고령층의 노후대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생활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례준비를 포함한 노후대비 재무 설계 등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3.10.3. 주거환경 및 공동체주거

선호하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와 교통 편리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안전 중요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1인가구의 주거공급에 있어서 주거환경보다 위치가 가장 우선 시 되

어야 하며 여성은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시 1인가구의 8.3%는 최소주거면적(4.23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고시원/원룸 거주 1인가구의 29.0%가 최소주거면적 이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주거면적과 정신건강 및 우울감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안전에 민감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 1인가구는 주거환경보다 주거비에 민감하여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1인가구의 32.1%는 주거지 선택 시의 어려움으로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 및 부동산 계약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을 꼽았는데 서울시 1인가구의 76.7%가 세입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임대차계약 시 정보제공 및 이사지원 동행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높은 세입자 비중은 1인가구로 하여금 집주인-세입자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어려움은 시설 수리 등을 요구로 나타났다. 즉 간단한 시설수리를 위한 안내서와 공구대여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지 안전에 있어서 세입자 1인가구는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비중이 자가에 비해 크게 낮아 이들의 안전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가 집주인에게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주거지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높은 주거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여성과 고시원/원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는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를 꼽았으며 고시원/원룸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이 크게 높았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주거안전에 더욱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시설지원에 대한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욱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안전시설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공동체주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1인가구 중 공동체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비중은 7.6%였으며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인지도가 낮았다. 따라서 1인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공동체주거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자가 비중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공동체주거의 낮은 인식도에도 불구하고 64.5%는 공동체주거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주거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로 사생활보장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공동체주거를 위해 비용과 사생활보호,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이해와 자율적인 규칙을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즉 공동체주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1인가구의 주거수요 만족과 동시에 개인공간의 확보, 자율적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10.4. 안전환경 및 여성안전정책

높은 주거불안과 달리 1인가구 중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가진 비중은 14.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가 더 높은 일상생활의 불안을 보여 여전히 여성 1인가구 안전에 취약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여성이 가장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의 원인으로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주원인이었는데 고민상담 친구 수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였다. 즉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증진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다양한 여성안전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중 26.2%는 다양한 여성안전정책 중 하나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인지도는 14.0%에 그쳤다. 게다가 여성 1인가구 중 83.8%는 여성안전정책을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따라서 여성안전정책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청년여성의 경우 안심귀가스카우트를 꼽았으며 중장년 및 고령여성 1인가구는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안심귀가스카우를 꼽았다. 즉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여성안전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10.5. 사회적 관계망 및 여가

일반적으로 원가족, 친구 또는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란 단순 절대적인 친구 또는 이웃의 수를 넘어 자신의 속마음, 고민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즉 정서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회적 고립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 1인가구의 25.8%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가,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또한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보았듯이 1인가구의 경제상태는 사회적 고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1인가구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의 주된 사회적 관계망 대상은 이웃보다 친구로 나타났으며 고령 1인가구는 친구보다 이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령 1인가구는 다른 세대와 달리 이웃을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보았으나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렵고 알고는 지내지만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 1인가구의 생활반경을 고려한 이웃과의 교류 및 자조모임 등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 1인가구는 이웃과의 단절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크게 높았으며 그 중 고령남성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 1인가구는 원가족, 이웃보다 친구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개인의 소득수준이 사회적 관계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주요 만남대상인 친구는 만남횟수와 소득수준은 양의 관계를 가졌는데 바꿔 말하면 친구만남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1인가구가 여행/나들이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TV/비디오 시청 활동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동일하다. 또한 남성 1인가구는 연인, 여성 1인가구는 친구 및 이웃과 함께 여가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10.6. 건강상태

서울시 1인가구의 건강상태에 있어서 고령층은 주로 신체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년여성 및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 70.2%는 우울감 경험이 있으며 그 중에서 청년여성 1인가구가 83.1%로 가장 심각한 결과를 보였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우울감의 경험빈도는 사회적 관계망, 주거면적, 주거지 및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은 1인가구의 신체건강과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조성이 우울감 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나 안전과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청년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안전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1인가구의 21.3%, 그 중 고령남성 1인가구 40.0%와 고령여성 1인가구 47.0%가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없거나 매우 낮은 월평균소득을 가진 고령 1인가구는 의료비용 부담이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용의 부담은 고령뿐만 아니라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에게도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이었다. 고령 1인가구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보건기관 이용절차의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동행지원서비스와 의료절차안내 등을 위한 편의상 확대가 요구된다.

식생활에 있어서 1인가구의 62.6%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식사를 거르고 있었으며 주로 청년층에게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1인가구의 절반이상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공동부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식사를 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61.9%는 반찬 만들기가 번거로워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부엌을 통한 반찬 만들기와 더불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1인가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2. 1인가구 형성경로와 가족관계
3. 경제와 주거
4. 건강과 관계망
5. 미래 전망과 가족구성 계획
6.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1인가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해 얻기 힘든 더 세밀한 생활경험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FGI 대상으로는 다양한 1인가구 중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거나 특별히 취약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향후 정책수립 시 주요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집단을 정책핵심 수요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주거취약집단이다. 우선 1인가구의 정의 자체가 거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 관한 문제가 1인가구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다, 대체로 1인가구 주거지가 적은 면적의 취약한 장소이기 쉽다는 점에서 이들은 다수의 1인가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좋은 집단이다. 더욱이 취약한 주거는 취약한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1인가구 중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우선시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경험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취약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중에서 청년그룹과 중장년 남성 그룹을 각각 선정하여 면접에 참여토록 했다. 청년 1인가구는 양적으로 서울시 1인가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를 가장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취약주거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빈곤, 안전, 사회적 관계망 문제가 집결된 집단으로, 고독사[13]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관심이 특히 필요한 집단이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주거 생활자 집단이다. 공동체 주거는 협동주거, 콜랙티브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그 명칭과 종류, 정의가 매우 다양하기는 하나, 넓은 의미에서 현대 도시의 주택 문제와 공동체 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현재 시도되어 온 공동체 주거 생활 1인가구의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더 적절한 공동체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간 공동체주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여성 1인가구에게 제공한 안심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의와 개선점을 찾기 위해 이들 주택 거주자들도 FGI에 참여토록 했다.

세 번째 집단은 비혼 1인가구이다. 흔히 1인가구 유입 경로의 대표적 구분을 혼인상태(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준으로 할 만큼, 결혼은 1인가구에 대한 설명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전통적 의미에서 가족이 결혼을 매개로 하는 혈연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때, 결혼관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의 증가는 1인가구 증가를 비롯한 가족구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에 대한 태도, 가족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내용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즉 비혼 1인가구 집단은 1인가구 증가 원인 중 하나이자 향후 가족 정책의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대상이다.

이밖에 장애 1인가구와 다문화배경 1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성을 더 가진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수요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연구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

13) 서울시의 고독사 통계를 분석하면 자치구별 1인가구수와 고독사 확실사례·의심사례수가 비례(송인주, 2016)하며,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보고서 분석 결과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김명숙, 2016).

참여자 모집은 우선적으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면접 동의자와 연구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에 모집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을 취했다. 샘플링 기준은 취약주거 1) 청년 그룹의 경우 고시원·원룸 거주자, 20세 이상 40세 미만, 6개월 이상 동일유형 주택 거주, 2) 취약주거 중장년 그룹은 고시원·원룸 거주자, 50세 이상 남성, 6개월 이상 동일유형 주택 거주, 3) 공동체주거 거주자 그룹[14]은 서울시·SH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민간(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타) 공동체 주거 생활자, 20세 이상, 3개월 이상 동일유형 주택 거주, 4) 비혼 그룹은 30세 이상 50세 미만, 비혼 여성 및 남성 (단, 평균 소득수준 상위 10% 제외), 5) 장애인 그룹과 6) 다문화 그룹은 성별, 연령, 법정 '다문화' 범위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장애유형이나 체류자격·출신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공통 조건으로는 1년 이상 1인가구 생활 유지로 제한하였다.

2) 조사진행방법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9차례에 나누어 진행하였다(비혼 그룹 3회 나누어 실시). 장소는 서울여성플라자 내 회의실, 시간은 각각 2시간 남짓 소요되었다. 연구 목적 및 내용을 사전에 소개하고 익명 보장 및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연구참여동의서 서명 절차를 밟았다. 연구자 1인이 진행하고 기록과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자 1명이 함께 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질문내용을 간단히 안내하였다.

사전에 기획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참여자의 응답내용과 인터뷰 분위기에 따라 융통성 있게 후속질문을 조절하였다. 그룹 인터뷰이기는 하나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심층적인 이야기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참여자 간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발언기회를 열어놓았다. 녹음된 파일은 녹취록으로 남겨 코딩·분석하였다. 참여자의 발언은 익명으로 인용하고, 발언 의도와 감정을 왜곡하지 않기 위

14) 서울시 1인가구 관련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부록 참조

하여 이해 가능한 선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실었다.

3)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FGI에는 7개 그룹 총 43명의 1인가구가 참여하였다. 21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으로 1인가구 유지기간은 최단 1년 이상, 최장 23년이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Ⅳ-1▐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연령 (만)	성별	학력	혼인 상태	거주지	직업	1인가구 유지기간	그룹
A	21	여	고졸	미혼	성북구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1년+	주거취약 청년
B	30	남	대재	미혼	성동구	학생	2년	
C	25	남	대재	미혼	성동구	학생	1년+	
D	28	여	대졸	미혼	성동구	교사	4년 6개월+	
E	27	남	초대졸	미혼	성동구	자영업	4년+	
F	27	남	대졸	미혼	서초구	인테리어 디자이너	2년	
G	57	남	고졸	기혼	성동구	무직	3년	주거취약 중장년 남성
H	53	남	고졸	기혼	노원구	고시원 총무	10년	
I	61	남	고졸	미혼	노원구	무직	30년	
J	64	남	초졸	이혼	강서구	무직	8년	
K	58	남	고졸	이혼	강서구	건설노동자	25년	
L	30	여	대졸	미혼	동작구	회사원	-	공동체 주거 1 (공공임대 주택/민간 공동체주거 생활자)
M	28	남	대졸	미혼	은평구	대학원생	4년+	
N	27	여	대졸	미혼	서대문구	방송작가	5년+	
O	32	여	대졸	미혼	영등포구	회사원	3년+	
P	26	여	대졸	미혼	구로구	회사원	4년 6개월	공동체 주거 2 (여성안심 주택
Q	28	여	고졸	미혼	구로구	상담사	2년 4개월+	

이름	연령 (만)	성별	학력	혼인 상태	거주지	직업	1인가구 유지기간	그룹
R	28	여	대졸	미혼	구로구	회사원	3년 6개월	거주자)
S	48	여	대학원졸	미혼	마포구	NPO 활동가	10년	비혼
T	37	남	대졸	미혼	관악구	수험생	4년	
U	29	남	고졸	미혼	강남구	회사원	9년	
V	36	남	고졸	미혼	서초구	회사원	6년	
W	32	남	석사	미혼	영등포구	회사원	10년+	
X	40	여	대졸	미혼	은평구	구직중	15년	
Y	33	여	대졸	미혼	관악구	회사원	9년+	
Z	36	여	대졸	미혼	동작구	시민단체 활동가	6년	
AA	33	여	박사수료	미혼	서대문구	연구원	4년+	
BB	37	여	대학원졸	미혼	마포구	화가	9년	
CC	30	남	고졸	미혼	관악구	프로그래머	8년	
DD	44	여	대졸	미혼	은평구	비영리단체 직원	20년+	
EE	30	여	대졸	미혼	서초구	유치원 교사	9년	
FF	43	여	박사수료	미혼	노원구	대학 교원	6년	
GG	38	남	대졸	미혼	구로구	자영업	7년	
HH	59	여	-	미혼	서초구	무직	3년	장애
II	57	여	-	미혼	강서구	무직	23년	
JJ	54	남	-	미혼	광진구	장애인단체활동가	15년	
KK	50	여	-	미혼	강서구	학생	20년+	
LL	24	여	대졸	미혼	종로구	NGO직원	4년	
MM	51	여	대학원졸	이혼	동작구	다문화강사	7년	다문화
OO	25	남	대재	미혼	서대문구	학생	5년	
PP	54	남	-	이혼	광진구	자영업	10년	
QQ	45	여	-	이혼	광진구	생산직	5년	
RR	43	여	-	이혼	동작구	단기계약직	10년	

4) 조사내용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그룹인터뷰이기는 하나, 공통된 질문을 던져 1인가구 형성경로와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질문 외에는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Ⅳ-2▐ FGI 주요내용

그룹	내용
주거취약 청년	■ 1인가구 형성 이유 및 향후 가족구성 전망 ■ 생활실태 (경제활동, 건강, 사회적관계망, 여가) ■ **주거실태 (현 주거지 선택이유, 내외부 환경, 비용)** ■ 정책지원 요구
주거취약 중장년	■ 1인가구 형성 이유 및 향후 가족구성 전망 ■ 생활실태 (경제활동, 건강, 사회적관계망, 여가) ■ **주거실태 (내외부 환경, 비용)** ■ **원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 ■ 정책지원 요구
공동체주거 생활자	■ 1인가구 형성 이유 및 향후 가족구성 전망 ■ 생활실태 (경제활동, 건강, 사회적관계망, 여가) ■ **공동체주거 생활경험 및 개선요구사항** ■ 정책지원 요구
여성안심주택 거주자	■ 1인가구 형성 이유 및 향후 가족구성 전망 ■ 생활실태 (경제활동, 건강, 사회적관계망, 여가) ■ **주거실태 (입주경로, 내외부 환경, 비용)** ■ **정부지원 주택 관련 정책지원 요구**
비혼	■ 1인가구 형성 이유 및 향후 가족구성 전망 ■ **생활실태 (경제활동, 건강, 사회적관계망, 여가, 주거)** ■ **가족·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 **사회적 관계망** ■ 정책지원 요구

2. 1인가구 형성경로와 가족관계

1) 가구구성 변동

가구 형성의 변화

누구나 생애에 한번씩은 1인가구로 살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인터뷰참가자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되었다가 다시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새로운 구성원과 살다가도 다시 1인가구가 되는 등 가구구성의 변화를 겪은 이들이 많았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 시기의 경우 진학과 취업으로 인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가 1차적인 1인가구 형성 이유이나, 이후에도 가족, 친구, 연인을 포함한 관계망 속에서 이합집산을 통해 새로운 가구 형성을 이루어왔다. 주로 원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뒤 주거비용과 안전 등을 이유로 친구나 친척과 함께 살다가 생활 스타일의 따로 떨어져 1인가구가 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L(30,여): 저도 본가가 경기도 여주여가지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혼자 살았거든요. 별별 형태의 주거를 다 해봤어요.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친구들끼리 모아서 살기도 하고 친척 언니랑도 살기도 하고 거의 한 1년 마다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정말 안살아본 주거 형태가 없었고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때는 서울에 동생이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해서 둘이 같이 투룸에서 계속 지내다가...

AA(33,여): 저는 본가가 대구고요. 대학을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를 탈출해야겠다 생각해서 편입 시험을 쳐서 편입으로 올라와서 2004년에 올라 왔고요. 올라와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증금이 없어서. 편입시험을 친다는 말을 집에 안 한 거예요. 붙고 나서 알렸거든요. 보증금을 해줄 상황도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살다가 1년 즈음 있다가 아버지가 보증금을 보태주셔서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혼자 산 기간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산 기간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고. 최근 한 4년은 혼자 살았어요.[...] 같이 살았던 여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 바람에... 저랑 보증금을 반씩 내고 살았다가, 그때 생활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쪼개져서 갈라졌

고. 나머지는 남자친구가 반동거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요.

관계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분가와 합가가 반복되기도 한다. 통근거리 등과 같은 이유보다 가족과의 불화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혼자 살게 된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원가족에 다시 합류하기도 한다. GG(38,남)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1인가구가 되었다가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나오게 된 사례이다.

GG(38,남): 그 전에 20대때 그 혼자 살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한 오년 정도 혼자 살다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집에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다시 모을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집에 들어갔지만 다시 또 집에 돈이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돈이 나가더라구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금 받았는데 또 뺏기고. 하하. 예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듯 분가와 합가를 통해 가구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구성원의 수가 적은 가족은 두세개의 1인가구로 나뉘게 되기도 한다. 참여자들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다 떨어져 2개의 1인가구가 되는 등 한 가구에서 2개 이상의 1인가구가 만들어진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제상황과 가족관계 변화

청년 참여자들과는 달리, 중장년 남성 고시원 그룹 참여자의 경우는 거의 모두 경제사정이 나빠져 혼자 살게 된 사례들이다. 사업 실패 또는 오랜 투병 때문에 악화된 경제적 상황이 이혼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1인가구 형성 이유가 되었다. 대개의 경우 1인가구 형성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1인가구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들 그룹은 경제위기로 인해 원하지 않는 가족해체를 경험하게 되어 비자발성이 강한 1인가구로 칭할 수 있다.

K(58,남): 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족이 있었죠. 와이프와 아이들 둘. 근데 지금 사업 실패로 혼자 산지가 한 25년 정도 되요. 아니죠. 이혼 하고 몇 년은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있었죠. 근데 도저히 남자 혼자서 애들 밥을 못 먹이는 거에요. 내가 지방 출장 가버리면 애들밖에 없잖아. 여자가 없으니까. 그럼 애들이 맨날 밖에서 밥을 사먹고 오니까. 그 때 당시에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도저히 안되니까 지 엄마가 와서 애들을 자기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게 됐습니다.

G(57,남): 전 혼자 산지는 3년 됐어요. 한 12년 전에 신장 말기 신부전증에 걸려서 투석을 시작했어요. 투석을 하다가 그 때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식을 해서 몇 년 쓰다가 또 거부 반응이 생겨가지고 다시 투석을 해서 지금 10년 됐거든요. 다시 투석한지가. 그러다보니까 금전적인 여유도 점점 없어졌고 이제 애들이 둘 있는데 다 커서 외국도 나가 있고 한 애는 시험 공부하느라 공부하고 있고 고시원 같은데서. 그런데 너무 긴 투병 생활을 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한 3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살게 된거죠.

H(53,남):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빌붙어 있을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싸움하게 되요. 자꾸 애들한테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편해요 또.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게 한 7, 8년 됐습니다. 고시원 왔다 갔다 한지가.

이들은 1인가구가 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쇠약한 남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에 의한 가족해체를 “남성 가장”의 실패와 연결지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에 의한 경제활동과 여성에 의한 가족돌봄으로 이분화된 가부장적 성별분업 고정관념의 폐해가 드러난 경우이다. 뒤에서 논의할 이들의 가사(일상적인 취사 등의 살림)와 자기돌봄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관계까지 경제적 지위의 추락에 의해 변하게 되는 멀어지게 되기도 하여, J(64,남)씨는 경제적 어려움, 이혼에 이어 형제간의 왕래가 뜸해진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는 뒤에서도 계속 언급될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문제와도 연결된다.

J(64,남): 형제지간도 돈이 있어야 형제지간이에요. 〔…〕 형제지간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망가지니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장남인데 맨날 우리 집에서 제사지냈어. 식구가 다 와가지고. 딱 내가 마누라하고 찢어지니까 하나도 안 와.

원가족과의 관계

누구나 처음부터 1인가구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거주하던 원래의 가족과 어떠한 이유로든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접촉과 연락을 하며 살고 있기도 하다. 원가족과의 관계 질과 접촉 양은 각기 다양해서, 연락을 끊다시피한 경우부터 매일 안부를 전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경우까지 정도의 차가 크다.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가족과 직접 왕래하거나 손쉬운 메신저 사용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청년세대의 경우 반찬을 매개로 부모와 만나거나 형제자매와의 잦은 통화로 소통하고 있었다.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 이를 1인가구 생활 이후의 긍정적 변화로 꼽는 사례도 많았다. GG(38,남)씨 역시 가족과 따로 살게 된 원인이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해졌다.

GG(38,남):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10년 전에 결혼을 했고 그전에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남매사이에 맨날 치고 박고하는 앙숙같은, 진짜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애틋해져가지고, 통화는 매일 해요. 여동생하고 통화는 매일 하고. 〔…〕 아버지하고는 정말 트러블이 많았구요. 그래서 그 20대 때부터 20대 초 중반부터 인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예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탓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와 트러블이 많았는데, 아버지도 제가 따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십대 중반에 나왔는데 이제 뭐 또 합의 하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밖에 또 나왔는데 나온 게 진짜 정답인거 같아요. 나와 사니까 아버지가 좀 뭐랄까 또 많이 유해지셨어요.

Q(28,여) : 저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예요. 가족들이랑 다 그렇잖아요. 친할수록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한 편이였는데 친한 것만큼 비례를 했는데, 나와서 사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거나 그런 게 있고 혼자만의 자유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일부는 원가족의 구성원이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X(40,여): 저는 서로 도움을 안 받고 안 주는...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 형제는 없고, 서로 약간 도움이 그쪽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서로가 살아

남는 걸로... 암묵적인 합의가 그렇게...

BB(37,여): 저는 워낙에 처음에 흩어지게 된 게 드라마틱해서 서로서로 모두가 연락이 없어요. 연락하면 서로 싫어해요.

특히 중장년 남성 그룹 참여자의 경우는 대개 원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매우 낮아 거의 단절에 가까운 사이로 남아있었다. 1인가구 형성의 직접적진 이유였던 나쁜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거의 없다. K(58,남)씨는 가족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현재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아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K(58,남): 정책이 좀 드러운 게 뭐냐면 제가 갔는데 자식들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되더라도 주민등록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수급자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연락하고 싶은 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경제적 위기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진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1인가구 형성의 원인 또는 결과를 반드시 원가족과의 불화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가족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1인가구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관계의 진전 또는 회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실천된 행위일 수도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가족과의 마찰을 줄이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방식일 수도, 억압적인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관계 악화를 중단시키고 자기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부양 부담

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1인가구가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원가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보다는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부모부양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미 다가왔거나 향후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통근거리 때문에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Q(28,여)씨는 돌봄역할을 위해 주말마다 원가족에게 가고 있으며, T(37,남)씨는 본인의 노후에 관한 전망에 부모부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V(36,남)씨도 현재는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나 미래에는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Q(28,여) : 아프셔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나와 있는데, 출퇴근이 힘들어서 나와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주말마다 매주 집에 가는 편이예요

T(37,남): 일단은 젊은이들에게 노후준비라고 하면 본인보다도 지금 늙어가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심할 수도 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두 분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애일수도 있는데...

V(36,남): 어머니는 지금 여주에 계시는데 외삼촌이 사업가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데 저는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죠. 제가 뭐 부양할 가족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늙으시면 제가 아무래도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으니까. 제가 잘 되어야죠. 잘 돼야 되는데...

사실 1인가구로 살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로 원가족 구성원이 1인가구 본인의 일상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고령이 되고 질환을 갖게 되어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자녀보다 비혼 1인가구 자녀가 돌봄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1인가구와 원가족의 관계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 사이의 돌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부양과 간병·가사 등의 돌봄을 나누어봤을 때 성별차가 존재하는데, 중장년층에서 원가족과 만나는 주된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지원 목적을 돌봄 지원 목적보다 높게 꼽고 있지만 여성은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이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여성이 더 많은 돌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과 돌봄은 단지 자녀에 의한 부모돌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 돌봄 방향도 포함하는 문제이다. 이미 고령 여성 1인가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돌봄(양육, 간병, 가사)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김영정, 2016),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중장년 1인가구 자녀와 고령 1인가구 부모 사이의 상호 돌봄이 가족 사이의 돌봄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1인가구 생활 만족도

1인가구 생활의 장점: 자유

혼자 거주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을 통해 1인가구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알아보았다. 통근거리, 진학, 함께 살던 가족의 독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가구로 유입되었지만, 거의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자유'를 1인가구 생활의 장점으로 꼽았다.

X(40,여): 내가 뭐 화려하거나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가전제품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해서. 지금 중시하는 게 지금 현재는 요리라면 그거에 맞춰 생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EE(30,여): 조금 제 스스로 뭔가 변화하고 싶을 때 가족이 있으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Z(36,여):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구성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집에 있었을 때 씻고 바로 그대로 나와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가족과도 같이 못살겠거든요.

1인가구 생활의 자유는 역으로, 이전의 가족생활에서 경험했던 통제된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대가족 또는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통제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경우, 이를 벗어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 1인가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AA(33,여): 장점은 '신경 안 쓰고 뭘 해도 된다. 빨개 벗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인 것 같고. 저는 대구 있을 때는 9시30분이 통금이었는데 축제가 있으면 9시까지 미친 듯이 술을 마신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새벽에 뭘 하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경제적 부담과 가사 부담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는 한편, 1인가구로서 느끼는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단점은 주된 몇 가지로 드러났는데, 주거를 포함한 생활비 부담과 가사노동 부담,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위험상황에서 혼자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설문조사에서 1인가구로서 어려운 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의 응답이 나왔던 경제적 어려움은 인터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하나는 뒤에서 살펴볼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후를 포함한 미래 전망에서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함이다. 또 하나는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이다. 1인이 혼자 생계를 꾸려야 하므로 월세 등 주거비용을 비롯하여 금전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A(21,여) : 아주 만족을 하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에요. 돈도 모으고 싶은데 잘 안 돼서...

GG(38,남): 단점이라면 이제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혼자 살면서 드는 비용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한 거죠.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문제가 언급된 가운데, 가사 부담을 1인가구의 어려움으로 꼽은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는 청년세대와 여성 참여자들에게서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혼자 살면서 갖게 되는 로망인 요리' 또는 '귀찮아서 포기하는 살림' 정도로 언급된 반면, 중장년 남성 고시원생활자 그룹에서는 크나큰 애로사항으로 여겨졌다.

J(64,남): 뭐든지 내가 다 챙겨야 돼. 본인이 챙겨먹지 않으면 안돼. 일 갔다 오면 빨래해야지, 샤워해야지, 밥 먹어야지 다른 사람은 마누라 있으니까 다 옷 벗어놓으면 마누라가 다 빨아주고 밥상 차려놓는데 우리는 다 챙겨먹어야 되잖아. (…) 나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 중요한 걸 그 때 알았지. 아 이제 뭐 장가가긴 다 틀렸고. 여자가 중요한지를 내가 인제 알았지.

G(57,남): 내가 다 해야된다는 것 때문에. 빨래, 청소, 설거지, 밥 그 다음에 냉장고 관리, 화장실 청소...

가사 부담은 상대적으로 원가족과의 접촉정도나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중장년 그룹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나, 인용된 인터뷰에서 엿보이듯 앞서 논의했던 "실패한 가장"으로서의 자기 인식, 그리고 가사 부담을 여성의 부재와 연결시키는 사고와도 이어져 있다. 가부장적 풍토는 요리와 세탁 같은 최소한의 생활유지기능을 익히지 않은 채 이를 당연한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케 했고, 이로 인해 결혼·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져오는 충격을 가중시킨 것이다.

사회적 편견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비혼의 경우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결혼 압력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압력은 여전히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을 완성된 것으로 보고 비혼상태를 '미완성' 내지 '결핍'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FF(43,여): 민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나 기타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왠지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이저의 민원에 대해서 그쪽에서 응대하는 방식이. 〔…〕 느리거나 아니면 불친절하거나 좀 부적절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그 작년. 올해 초까지 그 민원을 시 법률 자문까지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 친구들.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거 나 혼자 살아서 그쪽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혼에 관한 통념 중 미완성과 결핍은 더 나아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인식과도 연결된다. 앞으로도 1인가구로 계속 살 의향이 있는 R씨는, 40대 비혼 여성 선배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걱정한다.

R(28,여) : 저는 너무 오래 혼자 산 기간이 많아서 누구랑 못 살 거 같기도 하고 친구들도 다시 들어갔다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혼자 살 거 같기도 한데, 좀 걱정 되는 게 나이가 있고 하다보면, 혼자 사는 미혼의 40대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런데

조그만 것들에 신경질을 내거나 그러면은 또 혼자 살아서 히스테리 부린다고 노쳐녀 히스테리다 그런걸 보니까 내가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이런 시선으로 나를 볼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가족들 보면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한마디씩 하니까 이런 게 좀 부담스럽고.

외로움

자유가 1인가구의 최대 장점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외로움이 단점으로 꼽힌다. 다만, 대체로 인터뷰 참여자들 사이에서 외로움은 1인가구의 전반적인 삶을 위협할만한 큰 애로사항으로 여겨지지는 않았고 외로움의 이유가 단지 혼자 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X씨는 가끔 찾아오는 우울감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극복하고 있으며, V씨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되 육체적인 외로움만 느낄 뿐이다.

X(40,여): 단점은 제가 아까 모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평상시에 괜찮다가 약간 우울할 때로 가면 한참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정기적으로 꺼내주지 않으면 좀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V(36,남): 영적인 외로움은 없는데 육적인 외로움은 있잖아요. 그런 게 단점이지 그 외에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가끔 육적인 외로움 빼면 괜찮죠.

위의 사례들과는 달리, 중장년 남성 고시원 생활자 그룹에서는 외로움이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I(61,남): 외로움을 많이 타요. 저도 외로워가지고 혼자 이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주위에서 뭐 외롭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 〔…〕 심리적으로 외로우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죠. 아무래도 절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생활에 좀 적응을 못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되지. 외롭고 마음이 망가지다보니까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우선. 사람이 뭘 해야겠다는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 좋은 점이라고 하면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누가 이제 간섭 안하니까 그것뿐이지 뭐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이 어딨어요. 외롭지 주위에서 챙겨주는 것도 없고 다 혼자 감당해야 되거든. 모든 걸. 그러니까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

J(64,남): 외로움이죠. 외로워요. 누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방에서 이러고 그냥. 어떤 때는 추운 겨울에는 운동도 하기 싫고 방에서 일도 못하고 그냥 골방에 있는 거에요. 테레비나 보고 반찬 사다가 때 되면 밥 먹고. 친한 친구들 뭐 받아줘야 하는 거지. 망가지니까 뭐 받아줘?

H(53,남): 혼자 밥 먹을 때. 때가 없다고. 때가 배고플 때라고. 가정 같으면 이렇게 다 챙겨 가지고 먹는데 남자 혼자 밥 먹는 게 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안 봐도 뻔합니다. 밥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라면 끓여놓고 이렇게. 식사할 때 하고 외로운 건 그건 이제 타성에 젖은 거니까 식사할 때 가장...

G(57,남): 그런 걸 전혀 안하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익숙해지긴 했는데 혼자라는 거 그런 게 이제 문득문득 외롭죠. 혼자 잔소리 안 듣고 편한 게 한 5%라면 나머지 95%는 혼자 하는 게 외로움의 연속이죠.

이들이 겪는 외로움은 심리적인 문제로만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가족과의 단절과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빈곤에 의해 가족과 단절됨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해진 것이다.

J(64,남): 영등포 OO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친구들이 영등포에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마누라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망가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요. 예전엔 같이 어울렸다가 내가 이제 어려우니까 같이 못 쫓아갈 꺼 아니에요. 애경사도 못 댕기고. 애경사가 보통 한 5만원씩 가져가야 되는데 고시원 이런데 있으면서 내가 5만원 부칠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친구들이 멀어지고 모임 때도 전화가 안와요. 메시지가 안 와.

G(57,남): 이제 말 그대로 돈 없고 혼자 살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싫어서 피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있으니까 뭘 결정할 때 쉽게 하지만 1/n로 나누려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내가 자꾸 피하게 되요.

I(61,남): 제가 사회생활도 안하고 혼자 생활한지 오래됐으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제가 형편이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이. 인맥관계가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1년 동안 안만나고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만나지지가 않더라구요. 서로 바쁘고. 그래도 내가 가진게 있을 땐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그릇 먹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주위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안되니까는 차츰차츰 전부 멀어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까 사회생활도 못하고 혼자 생활도 못하다 보니까 주위에 남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위험상황과 고독사 우려

혼자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은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건강 이상이나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칫 방치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 EE씨는 직장의 1인가구 동료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웃 등 비상연락처를 직장에서 수집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F(27,남) :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시험]준비를 할 때, 집에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안 찾아 올 수 있겠다. 적어도 3주 정도는 연락이 안될 수 있겠다 싶은 거에요. 학원을 다녀도 학원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잖아요. 연락을 해도. 얘가 연락을 안 하네 무슨 일이지 까지만 하고 끝내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 친하고 이러고 집에 왔다갔다하는 친구가 아니면 그런 친구들이라도 얘가 무슨 일 있나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C(30,남): 같이 살아보기도 했고 계속 한 10년 넘게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도 갑자기 아파가지고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는데 병원 갔다와서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뭐 이랬다 요정도로만 끝나더라고요.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프면 이러다 누가 죽고 일주일 동안 시체로 방치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S(48,여): 돌연사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자다가도 생각나는 그런 불안감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모든 사람이 겪는 거겠지만 특히 저도 이제 소화기관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밤에 막 아프고 그러면 되게 긴장을 하고 오늘 밤을 잘 보내야 하는데, 의료 상비약이 다 있지만, 친구나 다 전화번호를 가지고는 있지만 돌연사 하면 어쩌지 하는 일상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게 약간 스트레스 같아요.

C씨와 S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홀로 돌연사하는 경우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들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실제로 혼자 사망하는 경우를 접하기도 한다. 중장년 남성 그룹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례가 드러났다.

K(58,남):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 고시원 생활하면서 밤새 안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 하늘나라 가는 사람. 근데 그런 모습을 내가 3번을 봤거든요. 근데 참 비참하게 실려가더라구. 그래서 추적을 한번 해봤지. 주민등록 상으로 연락이 다 간다고 하는데 안 찾아오더라구. 그러면 그 시체가 어디로 가겠어요? 〔…〕 그래서 내가 이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으면 내 몸뚱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싫거든. 그래서 저는 사랑의 장기기증을 등록했어요. 내 사후 죽었을 때 필요하면 갖고 가고 대신 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 이거야. 내 자식이 올지 마누라가 올지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우리 나이에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 상황을 제가 세 번을 봤어요. 그냥 비참하게 나가더만.

J(64,남):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어저께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술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 밥 안 먹고 일주일 내 소주 다섯병, 일곱병씩 먹어 빈속에. 그러니까 죽더라고. 보니까 두들기는데 사람이 없어, 열어보니까 죽었어. 쉰여섯인데 젊은 친구 노가다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술 먹고 죽더라고. 원장은 그냥 신고만 하면 땡이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비참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수급자들이 비싼 데는 못가고 60, 70만원 받아서 고시원 싼 데만 찾아다니는 거지, 수급자들이 그 돈을 쪼개 써요. 담배 펴야지, 술 먹어야지 그러니까 쪼개 쓰다 보니까 폐인 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 서울시 고독사(가족, 이웃, 친구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 실태를 파악안 조사(송인주, 2016)에 의하면 고독사 위험집단의 특성이 40-64세 남성, 1인가구, 유질환자, 일용직 근로자 또는 무직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관악구, 은평구, 금천구, 동대문구의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및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의 도시개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고독사 사례 발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송인주, 2016). 따라서 이들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시원 등 취약한 주거지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1인가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 단지 직접적으로 고독사 발굴 및 후속처리에 국한된 대책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요구된다.

3) 정책체감도: 정책 바깥의 1인가구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체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1인가구 특화 정책이 없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실제로는 기존 정책지원 대상이 특정 연령대 또는 빈곤계층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그 밖의 1인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없다고 느껴진 데서 나왔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 지원정책은 이미 추진되어왔고 근래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가 체감되는데 반해, 청년도 노인도 아닌 연령대에게는 소외감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40대인 DD씨와 GG씨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DD(44,여): 사회 초년생은 초년생이라고 최근에는 사회 초년생을 배려해서 뭐 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고, 젊은 층은 20대도 뭐 그런 게 있는데, 30,40대 특히 40 되니까 '아~ 나는 빨리 10 한 5년 지나서 노인이 되어야지. 그럼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구나.' 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소외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한테' 이러는거지.

GG(38,남): 사실 저도 이제 청년이 1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법적인 청년이 만 40세 까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은 청년이 제일 힘드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도 아닌 40대로 중년의 싱글들한테는 아까 말씀 하셨듯이... 1인 가구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청년 1인 가구가 아니고,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세밀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끼인 세대들에 대한 정책들은 좀 많이 개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혼부부 위주의 주택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가구로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X(40,여): 5년 계획 정도는 SH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신혼들만 지원해주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순차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 저는 임대주택 들어 갈 수 있는 게 어쨌든 신혼부부 위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전체 수요가 적은 거라서 1인 가구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Z(36,여): 일단 서울시에서 이런 1인 비혼 가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B씨는 혼자 거주하는 아버지의 경우를 들어 중장년층 1인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세대의 경우 직접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 외에도, 소속된 곳이 없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정보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B(30,남) :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소속감이 조금씩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퇴직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소속 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 많으신 게 아니라서 동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나잇대에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돼요. 사실. 저희는 소속감이 있으니까 적어도 누가 연락 할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연락을 하거나 직장에서 연락을 하거나, 혼자 사는 건 아니까 직장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뭔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나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1인가구 중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발견되지 않은 이들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으로서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의 경우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아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보 취약성과 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알 수 있다.

I(61,남): 저도 오래됐어요. 질병이 있은지가 10년이 넘게. 저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는데 저도 혜택 받은지가 얼마 안됐어요. 꼭 혜택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생활이 안 되니까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더랬으니까. 어디 가서 이걸 내가 신청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 거에요. 저 같은 경우가 아마 많을꺼에요. 어디 가서 의논할 데가 없는 거에요. 하는 방법도 몰라.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신청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 네, 수급이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워낙 힘드니까 죽기 일보직전까지 가니까는 거기 뭐라고 하죠? 〔…〕 네, 복지관. 복지관에 거기 사회 담당하시는 그분이 내가 죽기 일보직전까지 갔더랬어. 쓰러져서 거동도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거기서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거기 동사무소를 연결해 줘가지고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하시는게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조사를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G(57,남): 없고. 몰라서 맨 처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피하고 그래서 생각도 안했고 최근에는 그걸 어떻게 받는지를 그냥 알고는 싶은데 막연히. 혜택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H(53,남):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하기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솔직히.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자존심 상해서. 말은 하는데 내가 거까지는. 죽으면 죽었지 거기까지는 가기도 싫고

이밖에도 1인가구의 경우는 세금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소위 "싱글세"라 불리우는 사정에 대하여 불만이 토로되기도 했다.

S(48,여): 저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인간이 한번씩은 다 1인가구를 경험해 본다고 하거든요? 100세를 살던, 80세를 살던, 결국 모든 사람은 1인가구가 될 건데 너무 우리 사회가 정상가족 위주로 세제혜택 별로 안 주고... 1년에 한번씩 싱글세요? 연말정산 혜택 별로 안 주고. 저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게 누구는 4인가족, 정상가족이라고 세제를 더 주고 누구는 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서울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 누려야 하는 것들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단지 세제혜택의 유불리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나아가 개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책의 소외 측면에서, 출산과 관련 없는 1인가구가 과연 정부의 정책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취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AA씨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연 '가임기 외의 여성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AA(33,여): 이런 걸 인터뷰를 해보고 하면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첫번째는 가임기를 지나간 여성들한테 정말 정부가 관심을 가질까? 그들 이야기로는 효용이 떨어질 텐데... 저출산 지도를 만드는 판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1인가구에 대한 논의 역시 결혼기피와 전통적 가족형태 해체, 이로 인한 출산율 저하 우려로 이어지는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관점은 1인가구의 증가를 결혼하기 좋은 환경 (부부

로 이루어진 가족을 만들기 좋은 환경,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 외의 삶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이슈를 저출산 해결로 귀결시킴으로써 출산과 관련이 없는 (또는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1인가구들의 정책적 소외를 낳을 우려가 있다.

3. 경제와 주거

1) 불안한 경제상황

앞의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서울시 1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수준에서 알 수 있듯 1인가구 다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중에서 63.2%만이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포함한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를 포함한 미래 계획도 불투명하게 만든다. 물론 청년세대의 저조한 취업률, 중장년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노년의 일자리 부족 및 빈곤 가능성과 같은 문제가 1인가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라도 1인가구의 경우는 체감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구성원 없이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 시 보완책이 없다는 점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AA씨는 “그런 직장이 없을 때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라는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송작가인 N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언제든 경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AA(33,여): 일단은 지금은 정직원으로 있고 4대보험이 나오니까 이것만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프리로 있는 동안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월세를 고민해야 하고, 주택부금을 또 해야 하는데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안정함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이는 더 들고.. 그런 게 싫어서 정직원인 채로 연봉이 오르지 않더라도 쭉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 역시나 4대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절박함이 있고, 이건 제가 프리로 일할 때도 느꼈던 거라서 그런 직장이 없을 때에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주지, 어디서 살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N(27,여): 제가 처음에 방송작가를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 막내작가 지금 방송계 근무여건에서 말이 많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다보니까 내년도 기약하기가 진짜 좀 어렵거든요.

이렇듯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미래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다수의 1인가구에게 나타난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1인가구가 된 뒤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 이미 강도 높은 위기를 겪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결혼이민으로 이주했다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RR씨가 그러하다.

RR(43,여): 저 같은 경우는 시부모가 일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나가서 일하다 보면 머리가 트고 눈이 트고 하다 보면 도망간다고 일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고생은 별로 안했어요.[…이제 일을 꼭 해야 하니까]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을 먹[여살리]고 살아야 하니까. 한국에는 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니까.

앞서 1인가구 생활의 단점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당장의 생활비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다. 하나의 가구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생활유지 비용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고, 금전적인 비용 외에 가구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재생산노동 또한 혼자 감당하거나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홍현진·강민수, 2016). GG씨는 소득이 낮은 업종으로 직업을 바꾼데다 부모와 함께 살다 1인가구가 되고 나서 주거비용이 크게 부담된다고 한다.

GG(38,남): 주거비 마련은 제가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 일을 직장생활을 병행하다가 했거든요. 이 일을 한지는 한 4~5년 됐고, 직장 그만 둔지는 한 2년 됐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인 돈이 좀 되서 그 돈으로 이제 주거비 마련을 했었고, 이제 월세도 부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까지더라구요. 예, 그래서 주거비는 그렇게 마련을 했고 사는 집은 조금 넓은 원룸 형태고, 짐이 많아가지구. 그것 때문에 좀 선택을 했죠. 원룸인데 좀 면적이 넓어서. 그 월세 부담이 솔직히 압박이 좀 되더라구요. 평생 월세를 안 내고 다니다가 그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엄마한테 월세 개념으로 용돈을

드렸었는데 그거하곤 차원이 다르더라구요. 뭐 식사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편, 중장년 남성 고시원 1인가구 그룹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나타났다. 이는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조건이 되어 빈곤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기본적인 자본과 건강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점점 더 악화된 상황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J(64,남): 제가 또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좀 안됩니다. 위축도 되고, 막말로 노가다를 하려고 해도 할 상황이 안 돼요. 수술한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더라구요. 자영업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자본도 없고. 젊었을 때는 그냥 떵떵거리고 재밌게 살았는데 점점 이렇게 한 계단씩 내려오는 게 내가 느껴져.

I(61,남): 몸이 건강하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벌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형편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위주로 얘기하는 건데. 몸이 아프다보니까 아무것도 부수입이라는게 없잖아요. 전부 수급비로 다해서 한 달을 먹고 사는데.

2) 낮은 주거의 질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작은 면적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의 질에 대해 많은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원룸·고시원에 살고 있는 취약거주 그룹뿐만 아니라 비혼 1인가구의 대다수도 주거의 면적과 질이 취약하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잦은 이사를 해왔고, 1인가구로 살아온 기간을 '취약주거 전전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AA(33,여): 저는 지금 집은 되게 좋거든요.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반지하 살았을 때에는 강서구 화곡동 송정역 쪽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누워있으면 밖에서 누가 쳐다보는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 반지하는 아니구나.. 습기 차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어디선가 보고 있다는 게 커서 반지하에 안 살겠다는 기준이 생겼고. 그리고 몇 번 이사를 하다 보니까 골목을 한두 블럭만 들어가도 어두워 지니까 예전에 스토킹 피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큰 길가에 환한 곳을 찾게 되는데

비용들이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월세 25만원 이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잠정적으로 올라가서 단위가 뛰니까 나중에는 제가 직장 다니기 전에 대학·대학원 생활 할 때 2000에 55까지 냈던 것 같아요.

D(28,여) : 저는 고향이 경상도여서 대학을 처음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3학년 때 자취를 1년 했는데 그때 처음 나와서 살다가 그때는 교대역에 살아가지고 집값이 진짜 비싸더라고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이셔가지고 막 집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비싼 곳은 못 구하고 처음에는 반지하를 들어갔어요. 1천에 40이였는데, 진짜 너무 저는 자취방을 처음 구해봤는데 제가 부모님 없이 스스로 구한 거 가지고 집을 어떻게 볼지 몰랐던 거에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습기가 너무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그렇게 1년을 살다가 다시 기숙사에서 1년 살고 취직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죠.

W(32,남): 저는 원래 전라도 00가 집이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됐고, 처음에는 고시원에 잠깐 살다가 대방 남도학숙에서 3년 반정도 있었고요. 취업하고 나서 혼자 원룸에서 자취해서, 혼자 산 기간은 군대 빼고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주거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은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 편리성, 비용 순이다. 대단히 큰 규모의 서울시에서 당연하게도 먼저 통근·통학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는 비용에 따라 집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많지 않아서 다세대주택 원룸이나 고시원 등 좁은 면적의 집에 거주하게 된다. 많은 입주자를 받기 위해 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불편한 구조라거나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심각한 벽간 소음이 발생하는 등 참여자들 다수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F(27,남) : 결국 제가 결정한 곳은 반지하로 해가지고 500에 43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월세는 38이고 관리비가 5만원 해서 43인데 반지하 뭐 괜찮겠지 하고 살았는데 이번 여름에 거기서 났는데 너무 덥고 너무 습기도 많고, 거기서 빨래를 널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널어놔도 잘 안 마르고 좀 눅눅하고 등등 그래서 1년 계약은 했는데 옮기려고요. 다른 곳으로 반지하는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D(28,여) : 처음에 교대역에서 반지하 들어갔을 때는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 정말 불을 끌 때마다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아무래도 반지하다 보니까 아래 창문을 못 열어가지고 무섭고 그리고 이렇게 커튼을 쳐 놓아도 어떻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 네, 그런 구조

니까 좀 저는 반지하를 왜 짓지 너무 비인간적인 집이라 그래야 하나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C(25,남) : 학교 원룸촌이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를 할렘이라 그래요. 너무 안 좋아서. 나 할렘 산다고, 아니면 슬럼, 비버리 힐즈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너무 안 좋아요. [...] 계단이 되게 안 좋은데, 엄마가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이런 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냐고, 제가 거기를 3학년 때 들어 왔던 거라서 친구 집들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여기 애들 이렇게 산다고 그렇긴 했는데 엄마랑 이모랑 같이 왔는데, 엄마는 여기서 못 산다고... 계단 하나하나가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팍팍. 술 먹고 떨어지면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막 그래서 그런 거 힘든데 그냥 열악하게 다 살고. 문을 열고 옆 집 문이랑 같이 열 수가 없어요. [웃음] 방을 쪼개기를 해 놓아가지고 제 문을 열면 옆 집 문을 못 열게 되어있어요.

K(58,남): 시장 주변에 생활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꾸 고시원에 들어가라 고시원에 들어가라. 나는 고시원을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일단 그 사람들 권유로 들어가게 됐는데 방을 딱 들어가 보니까 딱 눕고 공간이 이 정도 남아요. 야 이거 갑갑해서 이거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반지하를 왜 짓지"라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항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거환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제한·개선되어야 한다. 좁은 면적이 기본적 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기, 조리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다.

X(40,여) : 저는 서울시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대 청년이든 1인 가구든 6평에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님이.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주택을 내놓고 하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 방 2개에 주방이 있는 요리 할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 그 정도는 최소가 아닐까. 6평 월세로 사는 게 지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시원보다 나은 삶인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AA(33,여): 작은 평수 못살겠어요. 숨만 쉬고 살라는 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정평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사를 가려고 봐도 점점 평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몸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끝인 공간만 자꾸 만들어지는 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 평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E(27,남) : 요즘 보니까 방음시설 그런 게 좀 저는 더 규제가 좀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층간 소음 때문에도 진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짜 솔직히 고시원 이런 곳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의 최소주거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일조권, 소음, 안전시설 등을 포함하여 적정수준 이하의 주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 1인가구의 경우 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여타 1인가구에 비해 주거지 선택의 폭이 더 좁기 때문이다. 민간주택 중 휠체어 이용이 쉬운 곳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면적이 적어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II(57세, 여): 집을 얻으러 다니니까 이 휠체어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얻을 수가 없는 거에요. 돈도 없고. 다 이렇게 턱이 있거나 그리고 아파트는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 때 수급자도 아니었는데 그 수급자만, 수급자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아파트 같은 것도 오기가 쉽다고.

JJ(54,남): 근데 아까 선생님들 얘기 하셨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좁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욕실이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요.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복지관 같은 서울시 같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나마도 예약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 문 열면 변기 하나 들어가 있고 샤워꼭지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라 휠체어 장애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자체가 없어요.

좁은 면적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은 좁은 욕실이다.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에도 1개월 중 제공되지 않는 며칠간은 제공되지 않는 공백시간이 있어 위험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 이를 메구어 위험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3) 원룸·고시원의 안전문제와 고립

안전 우려와 보수 불편

주거가 취약하다는 것은 협소한 면적이나 열악한 시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인가구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매우 큰 문제로 느끼고 있다. 혼자 살아 범죄나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하기 어렵고 범죄 타겟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여기에다 다세대 원룸이나 고시원과 같이 노출된 창과 현관, 방범창 미비, 인적 드문 골목에 인접한 위치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주거지라면 불안감은 더 커진다.

Z(36,여): 그런데 저희 집이 공동현관에서 공동현관이 바로 열리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 앞에 있는 문이에요. 사실상 문을 열었을 때 완전히 외부랑 노출이 되는 구조거든요. 위에서 지켜봤을 때 저는 못 보지만 그 사람은 지켜 볼 수 있는... 거기서 담배들을 피우기 때문에 항상 문 열 때마다 조마조마 하고. 누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누가 매일 어떤 시간에 나오는 걸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또 같은 층에 남자 두명이서 같이 사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은 자꾸 문 열 때마다 마주치고 자꾸 보니까, 혼자 산다는 게 알려 질까봐 불안한 게 있어요.

D(28,여) : 근데 옆에 높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이 되게 컸어요. 한 저 정도 크기 정도 위에 거 정도. 그래서 큰 거 되게 맘에 들었는데 창문을 열 수 없었어요. 옆에 있는 건물 복도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집 안을 다 보는 거예요.

O(32,여): 혼자 살 때는 외식이라던지 이런 걸 먹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배달 오는 것도 괜히 막 그렇고. 저는 오피스텔 살았을 때의 경험이 최악이었거든요. 일산이었는데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일산은 딱 오피스텔이 백석동이었는데 거긴 밤만되면 진짜 조용해요. 그 때 여자니까 불안한데 야근을 많이 했을 땐데 홍대에서 11시쯤 들어가면 너무 없어요, 도로에. 맨날 뛰어다니고, 오피스텔 경험은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주거 안전은 특히 여성 1인가구들이 중요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로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주거환경은 더 나아, 낮

은 비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남성에 비해 주거의 질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은 거의 드러내지 않은 반면, 여성들은 안전이 취약한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비용을 높여서라도 안전한 집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AA씨는 안전문제를 주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1인가구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불안요소로 여긴다. 범죄에 혼자 대처하기 힘든 현실이 여성 1인가구 삶의 어려운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AA(33,여): 예전에는 월세 25만원 이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단위가 뛰니까 나중에는 제가 직장 다니기 전에 대학·대학원 생활 할 때 2000에 55까지 냈던 것 같아요. 관리비 따로. 그 비용을 내고서라도 안전하게 살아야겠다는 게 있는 거죠. 〔…〕 스토킹이고 뭐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나 혼자서 대처 할 수 없구나에 대한 무기력에 빠지는 거에요. 남자친구가 와서 몇날 몇일 같이 있어 줘야 했고, 아침 출퇴근길에 데리러 왔어야 했고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 사는 여자로써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된다거나 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1인 가구 여성으로서 느끼는 그거인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1인가구 주거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도 안전 지원을 요구하였다.

D(28,여): 제가 이사를 하면서 불안했던 점이 몰카였는데요. 화장실에 몰카 검색 이런 걸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인가 봤는데, 이제 원룸도 이사를 갈 때 신청을 하면 원룸 전체에 몰카가 있는지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 길에 가로등 같은 거를 더 많이 세워줬으면 해요.

Z(36,여): 여성들은 안전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비싸게 살게 되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담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여성 참여자가 남성 참여자들에게 “정부에서 여성 1인가구에게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남성 참여자들이 지원에 공감하기도 했다.

B(30,남) :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여자 원룸 같은 거를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기본적인 안전 문제 외에 1인가구 주거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개·보수 문제이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가구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도구와 시설을 공간과 비용이 부족한 1인가구가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취약한 주택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서, 취약 주거 1인가구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항으로 꼽힌다. 집주인에 따라 보수가 늦어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D(28,여) :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물이 빨리 안 차요. 물이 가득 안 차니까 누르고 그냥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15초를 누르고 있어야 물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해줘 가지고 저는 집주인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 아줌마가 제 연락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름이니까 이사를 갔나 했는데, 친구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그 때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제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니까 제 전화를 피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10일 만에 변기를 고치긴 고쳤는데...

P(26,여) :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공구 같은 거를 빌려주세요. 드릴 같은 거를요. 그런데 친구네 집은 그런 게 안 된데요.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그렇다고 드릴을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빌려주면... 역사나 그런 데에서 빌려줬으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P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집안에서 보수가 필요할 때 공구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렴한 소형 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구 대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공구사용법을 비롯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집수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보수 작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나왔다.

Z(36,여):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할 수 있는 거, 전기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집 전체에 대한 거.. 예전에는 가구들이 같이 사니까 할아버지라든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봐줬지만 우리가 1부터 10까지 집에 대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

면 좋겠고요.

FF(43,여): 커튼 다는 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모르겠어요. 남자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니까 뭘 옮기든 뭘 하든 하여튼 집안 보수 관련해서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혼자는 못하고 둘이 하면 딱 좋을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항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불편하긴... 〔…〕 공구만 있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도구 사용을 익혀야 되는데 받쳐주고 해야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인력이 필요한...

자가가 아닌 전월세의 경우, 공구대여나 개보수는 일차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어야 하므로, 이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만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임대계약 및 집주인-세입자 관계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 1인가구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더 시급하게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비상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 서비스나 동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중증 장애인 일부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JJ(54,남): 정태근: 누르면 누르기만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소방관이 와요.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그런 서비스는 있는데.[...]
II(57,여): 저도 중증 장애인은 위급 환자로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저는 큰 병원에 치료를 한 게 많아 가지고. 근데 그런 건 없던데, 벨은...
JJ(54,남): 그거는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자기 손으로 물 먹을 수 있으면 중증 장애인 아니에요.

또한, 범죄로부터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데, 장애 1인가구의 재난 시 대책이 부재하다.

KK(50,여):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것은... 공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지진 나고 막 이랬을 때요. 제가10층에 살거든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식인데, 집에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죽어야 하나. 내가 목발을 집고10층에서 내려가기 참 힘든데, 지진이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그러고 목발 집고 내려가다 사람에 깔려 죽을 수도 있겠고. [...] 그 때 여기저기 사이트에 장애인 분들 이런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때 저도 심오하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10층에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나. 불 났을 때 루프 타고 내려가는 장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KK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느꼈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화재 시 대피요령으로 알려진 방법들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것들이므로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했다. 장애 1인가구의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더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비상시 대피방법이 마련되고 안내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고시원의 고립생활

위에서 드러난 안전과 개보수에 대한 걱정이 물리적 주거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면, 중장년 남성 고시원 거주 1인가구가 느끼는 고립감은 단지 물리적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면적이 좁고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장소인 고시원에서 수면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서로 모르는 개개인이 모여 살면서 교류가 거의 없는 채로 살 수 밖에 없다.

J(64,남): 고시원은 옆방에서 방구 뀌는 소리도 들려요. 옆방에서 핸드폰소리 울림(진동)으로 해놔야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난감해. 모르는 사람이 또 지랄할 수도 있는거고. 노는 날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있지 않으면 좀 부지런한 사람은 근방에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게으른 사람은 방구석에서 술먹고 자든지. 〔…〕 누구 만날려고 해도 만날수가 없잖아요. 방에서 이러고 그냥. 어떤 때는 추운 겨울에는 운동도 하기 싫고 방에서 일도 못하고 그냥 골방에 있는거에요. 테레비나 보고 반찬 사다가 때되면 밥 먹고. 친한 친구들 뭐 받아줘야 하는 거지. 망가지니까 뭐 받아줘?

I(61,남): 혼자 고립되서 사는거잖아요. 혼자 고립되서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거든요. 주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니까 그게 이제 고립됐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고시원 생활 하시는 분들.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만난 사람들 이니까. 〔…〕 그렇죠. 그쪽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개인 주택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왕래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주로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맘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다보면 과거 얘기도 나오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농담도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대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전부 숨기죠. 겉으로만 빙빙 도는 얘기만 하다보니까. 말을 특별나게 할게 없어요 줄거리가. 보편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이 보면 그래.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시원이 1인가구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이기는 하나 교류가 단절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는 곳이다. 즉 고립된 개인들이 계속해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장소이다.

4) 대안으로서 공동체 주거

공동체 주거의 장점: 경제성과 커뮤니티 형성

1인가구 주거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난 주거의 질과 비용, 안전,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 주거가 자주 거론된다. 설문조사에서 1인가구 생활자들의 공동체 주거 인지도와 장단점 등 일반적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면, FGI에서는 현재 공동체 주거를 선택하여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의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이를 통하여 대안으로서 공동체 주거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동체주거의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에서 정책범위로 고려할 수 있는 1인가구 공동주택과 민간 공동체주거 생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공동체 주거 생활자들이 생각하는 장점으로 비용을 꼽을 수 있다. 사회주택 조례에 따라 주변 시설의 80% 이하로 형성된 보증금과 월세 덕택에, 같은 비용으로 민간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집보다 나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AA(28,여) : 삶의 질도 좋아지고, 30만원 정도를 벌은 거잖아요.

O(32,여): 만약에 평소대로라면 아마 한 천만원 정도에서 구해야 됐을 텐데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은 제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P(26,여) : 공과금 같은 거 하면 민간 원룸보다 반값 정도 밖에 안 돼요. 〔…〕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리를 잡을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너무 비싸니까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 살고 좀 이제 좀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돼서 내려갈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서울시의 여성안심주택에 살고 있는 O씨의 말처럼,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조건은 열악하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또는 민간의 협동주거를 통해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할 수 있다. P씨는 주거의 안정이 생활 전반과 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가장 부담스러운 주거비용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자립이 경제자립과 생애계획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여성안심주택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입주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이러한 주택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EE(30,여): 근데 공공주택은 서울시에서 마련해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정적 이고 너무 한 군데 몰려있다는 거는 어차피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양한 곳에 가장 많이 설치를 하는 게 그게 되게 실효성이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또한, 여성안심주택에 거주하는 P씨는 30세까지인 연령제한을 높여주어, 임대료를 좀 더 올리더라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랬다. 실제로 청년세대가 임대주택에 생활하면서 향후 자립하여 주거를 마련하려면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26,여) : 임대료를 더 높은 버전으로 해서 조건을 더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나 수입이나.

한편, 경제적 효율성 외에 공동체 주거의 최대 장점으로는 관계망 형성을 꼽을

수 있다. 혈연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통해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줄 이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동체주거를 다룬 기사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이 "매일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일은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모두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라고 했다. 1인가구로서 지향했던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동의 생활과 욕구를 충족하는 거주 방식을 선호한다. 설문조사에서 공동생활 때문에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거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는 일반 1인가구의 예측과는 달리, 이미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선택하고 생활방식도 조율하고 있었다.

O(32,여): 큰 기대가 정말 막 환상이 있거나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끈끈했을 때도 좋고 지금은 그래도 막 데면데면한게 아니고 오면 문 여는 소리 나면 누구 왔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피곤하면 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 피곤한가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프로그램은 우주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대부분 쓰려고 하고 대부분은 같이 먹을 때 제일 친해져요 같이 먹으면서 확 이렇게. 같이 저녁에 먹는다거나 저희가 외식을 정하자. 〔…〕 저희는 강제성은 없고 느슨한데 짬뽕 먹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단톡방이 있으니까 나 오늘 짬뽕 먹고 싶다고 하면 어 나도 해서 먹는다거나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외식이라던지 이런 걸 먹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배달 오는 것도 괜히 막 그렇고.

O씨가 거주하는 민간 쉐어하우스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O씨는 이 경비를 주로 하우스메이트 외식비용으로 쓰는데, 일부러 과도한 공동생활을 강요하지 않고 느슨하게 안부확인과 친목도모를 함으로써 오히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N씨는 서울시에서 제공한 협동조합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각각 독립된 방에 살면서 서로 반려동물을 챙겨준다거나 옥상의 세탁물을 걷어주는 등의 이웃관계를 형성했다고 한다.

N(27,여): 여기 왔을 때 언니들이랑 가장 얘기가 나왔던 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도 좋고 같은 방향으로 향해도 얼굴 아는 사람이 인사할 수 있어서 좋고 문열어놓고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했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니즈가 같이 살면 이런 거 하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그런 걸 여러 번 했었어요. 소모임도 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하고 주차장 수입은 사회공헌에 다 쓰거든요. 그게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공식적인 수입도 아니고 SH에서도 묵인하듯이

그렇게 하되 이걸 사적으로 쓰면 안된다 해서 1년에 한번 저희 창립총회 해가지고 청 만들어서 주변에 돌리고 김치 만들어서 김장해서 주변에 돌리고 이런 걸로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 밥 때를 못 챙겨줘서 다른 집 사는 언니가 대신 챙겨준 적도 있고 옥상에 빨래를 넣어놨는데 비가 오면 걷어주고 그런 소소한 것들은 이게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남들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Q(28,여) :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하더라고요. 그게 참가비가 있었어요. 그냥 밥값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2000원 정도이긴 했는데 뭐 재료비도 나라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커요.

공동체 주거가 저절로 대안적 공동체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함께 살기'가 익숙해지기까지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R(28,여) : 근데 불편하긴 확실히 불편해요. 밤에 생활패턴이나 그런 게 안 맞고 이러면은. 다 같이 공동 청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반상회, 입주자 회의, 협동조합 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 운영을 통해서 공동생활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조정 또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27,여):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반상회 없어도 집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반상회를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안온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앙금이 생기고 할 때 좀 회의감이 들어요. 사실 한 다섯 명만 있어도 집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야할 때. 근데 또 이 사람들만 참여하고 이 사람들만 안하는데 내버려둘 수는 사실 없잖아요. 이게 약속을 하고 들어온 집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2주에 한번 계단 청소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계단 청소업체한테 맡기는 게...[...] 그런 청소가지고도 갈등이 되더라고요.

M씨는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킨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과 관계를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한다. 구성원들은 혈연가족 또는 기존에 맺었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문제들 -외모평가, 고정관념에 따른 표현, 연령에 따른 위계 등-을 극복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주거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M(28,남): 사실 좋은 점은 서로 얘기를 안하니까 낯뜨겁기도 하고. 그래도 자리를 만들다보니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은 뭐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서 좋아요 라든지. 어떤 전형화된 대상화된 표현을 안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좋다. 또는 나이로 위계질서를 만들지 않아서 좋다. 어떤 사람은 가끔 느끼긴 한다 이렇게 저는 사실 그런 걸 나는 이래서 우리 관계가 좋고 싫고를 부모님과 연인관계 외에서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딱히, 그런 말을.

공동체 주거에서 고려할 점: 공동체활동 지원, 운영의 전문성, 정보제공 효율화

공동체 주거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 조율과 공동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공동체 주거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의 필요성은 입주자들에게만 자율적 관리를 맡긴 곳에서 제기되었다.

N(27,여):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게 '코디네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코디네이터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도 할 텐데 저희가 첫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고 청년주택 사업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초반 협동조합 교육까지는 해줬는데 그 코디네이터를 하기에는 자기네도 권한이 없는 거죠.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된 사항은 경험있는 전문가 없이 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평일 낮에 집에 없는 청년 1인가구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전담 관리자의 부족,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이 지적되었다.

N(27,여): 참 이해가 안가는게 이웃기웃도 다 1인가구들이거든요. SH도 공무원이니까 낮에 일을 하잖아요. 〔…〕 주거실태조사를 낮에 와요. 집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 저희는 가족이 없으니까 누가 대체해 줄 사람이 없는데 꼭 내가 해야만 하고 그 시간대에만 해야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 집에 들어오는 그것도 그렇고 보증금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모델 자체가 처음이다보니까 SH공사에서도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처음에 막. 민간

에서 지어서 하자가 정말 많았어요. 이걸 가이드를 해줄 관리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일이 SH공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럼 이제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힘들고. 매번 저희 여기 이웃기웃인데요 하면 거기 뭐죠? 하면 여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죠 이걸 매번 해야 되니까 한 명이 다 모아가지고 했었는데 그 설명을 한 일년동안 여기 이웃기웃인데요 그게 뭐죠 하면... 이걸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 이게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사장이나 이런 걸 매번 하는데 이게 공실이 많으면 그 때 그 때 하는 게 아니라 한번에 쫙 몰아서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공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에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들어오면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는 모르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세요? 이러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손을 놔버려서 이번에 공실이 1년 정도 공실이었던 곳을 열었더니 막 다 곰팡이 이런 경우도 많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은 관에서 하되 공동체 주거 운영을 민간, 즉 전문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L(30,여): 일단 쉐어하우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시행해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수요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제안한게 SH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긴 만드세요. 만들지만 운영을 차라리 우리한테 맡기던가. 그런데 또 운영은 여기서 SH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난리나는 거에요.

M(28,남): 제 생각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권을 줘야할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 운영할 역량이 안되니까. LH는 조금 이번에 해서 운영하고 있긴 저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긴 하는데 여기도 처음이라 조금 미숙하긴 한데 하다못해 주택 선정부터 뭔가 좀 줘야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그래야 경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긴 입주전까지만 했잖아요. 입주 전에 협동조합 만드는 코디를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를 못하고 이런. 그래서 입주자가 사실은 SH랑 개개인별로 부딪혀야 되는. 중간에 이걸 케어해주는 조합이나 기관이 없으니까.

O(32,여):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할 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시민 단체라든지 현재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공청회든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협의] 횟수가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아요. OO든 어떤 단체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회가 정말 많아야 될 것 같고.

공동체 주거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과 홍보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여러 참여자로

부터 나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1인가구용 주택들에 대한 정보는 접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 공동체 주거에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 제공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동체주거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망라된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F(27,남) : 임대주택 괜찮더라고요 월세도 싸고 SH나 LH 같은테 저도 아직 정보는 많이 없는데 쉐어하우스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 그래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을 수 있게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M(28,남): 하다못해 SH어플만 해도 직방 이런건 정말 잘되어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SH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모바일이 안됐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PC버전으로 밖에 안되는 거에요. 어플은 둘째치고 모바일 최적화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림이라도 뜨게 좀 할 수 있는게 너무 수준차이가 너무 나서. 〔…〕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서 내가 갈 수 있는 주택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막막해요. 너무 복잡하고 무슨 형 무슨 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4. 건강과 관계망

1) 식사와 영양

흔히 '혼밥'으로 상징되는 1인가구의 식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편의점·배달음식 먹기와 끼니 거르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혼자 하는 식사를 위해 투여해야하는 것 치고는 시간, 비용, 에너지가 많은데다, 남는 음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W(32,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취를 했을 때는 밥통도 있고 다 해먹었어요. 점점 혼자 먹다 보니 재료도 많이 남고, 회식 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이게 다 버려야 해서 이사를

하면서, 하면서 밥통 버리고, 햇반을 먹고 점점 사먹는 간편 조리식으로 바뀌었고요.

Y(33,여): 식사는 거의 저도 이제 막 처음에는 해먹어야지 하고 사다놨는데 안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냉동식품들을 사다 놓고 배고프면 그걸로.. 주말에는 안 나가고 그냥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렇게만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냉동식품으로...
GG(38,남):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니고 한 달에 제가 삼분의 일 정도는 모든 식사의 삼분의 일 정도는 배달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 하는데, 그게 또 배달 음식이 비싸요. 비싸고 평균적으로 그 2인분 이상을 되고 하니까 이걸 2회로 나눠서 먹기 〔…〕 예, 한번에 많이 시키고 그걸 따로 저장해놓고 그렇게 먹거나...

HH(59,여): 저는 가족들하고 살아서 뭐 삼시세끼 다 챙기고 막 그랬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이제 하루에 두 끼 먹는 거. 그래도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속은 편하고요.

원룸이나 고시원은 공간이 협소하여 조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조리도구를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집밥을 먹는 것은 더욱 어렵다. 좁고 취약한 주거환경이 식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E(30,여): 조리기구도 라면 끓여 먹을 거 하나 정도? 하나 정도만 남겨두고 다 없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편의점 음식을 많이 좀 이용하는 편이라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인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건강에 좋지, 분명히 안좋을텐데 근데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오븐에 해먹을 수도 없는 환경이고.

중장년 남성 고시원 1인가구의 경우 조리가 불가능하여 충분한 반찬 없이 밥과 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 취약하여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1인가구 그룹보다 더 열악한 형편이다. 식사를 대신하는 잦은 음주 역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H(53,남): 때가 없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지. 세끼 찾아먹은 적은 없어요. 두끼. 배고프면 먹고. 〔…〕 혼자 밥 먹을 때. 때가 없다고. 때가 배고플 때라고. 가정 같으면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먹는데 남자 혼자 밥 먹는 게 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안 봐도 뻔합니다. 밥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라면 끓여놓고 이렇게.

K(58,남): 여기 계신 사장님들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밥 주니까 해결하고. 아침 점심 주거든요. 평상시 끝나고 오면 밥 생각 없으면 막걸리 한 잔 먹고 가고. 〔…〕 그거 한잔 먹으면 밥 뛰어넘어도 되고.

V(36,남): 저는 끼니는요. 고시원에 살고 있으면 라면이 항상 있어요.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는 라면을 먹고, 술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 가서 맥주 세 병을 사와서 그걸로 저녁을 할 때가 있고...

최근 유행하는 소셜다이닝이 청년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도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관계망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다

앞서 1인가구 생활의 단점으로 꼽히는 외로움에 대하여 논하면서, 경제적 빈곤, 원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관계 축소를 경험한 중장년 남성 고시원 생활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들처럼 특수하게 고립의 위험을 가진 집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소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다양한 관계망을 맺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4조(기본원칙) 1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는 문구는 공동체에서 탈락한 적이 없는 1인가구들을 공동체로 회귀시킨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FF(43,여): 저는 근데 스스로 고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이나 이런 뭐랄까 그런게 이렇게 다 돼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립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자들은 친구와 직장동료 등 오래된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친목, 학습, 취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임을 찾아나서기도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T씨는 신림동에서 수험생 생활을 하는 동안 자칫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주변의 다른 수험생들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스터디와 여가를 함께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울 것으로 간주되는 1인가구 고시촌에서도 "밥터디"와 같은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T(37,남):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동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노량진하고 신림동에 많아요. 그래서 같이 당구를 친다거나 아니면 관악산이나 냇가도 많거든요. 그 근처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소주를 한다 던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여가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노량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다 보니까 단타인데 신림동은 10년 정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청춘의 어떤 소중한 시기를 불나방 같이 본인을 희생하고 대부분 사람들끼리 그래도 동고동락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의 처지를 그나마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위로가 되면서도 돌파구를 서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찾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지내는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친밀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원활하게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성장했으나 취업을 이유로 서울에 이주하여 오래된 친구가 없는 경우,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소원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해 동호회를 찾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W(32,남):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임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술자리가 있으면 안 빠지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조그마한 모임도 만들고, 동네에서.. [...]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같은 시기에 들어온 동기들이 당산, 목동 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집 위치도 서로 집에 한번씩 가서 다 알고. 유사시에는 그 친구들이 연락할 거고. 〔…〕 그거 외에 제가 또 하는 건 와인동호회를 최근에 들어서 그 분들하고 한 달에 한번 모이고. 그거랑 책 읽는 동호회. 이건 대학생 때 했는데 그게 저는 몇 해 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져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끔 가죠.

Y(33,여): 저는 학교 친구들은 지방에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전에 직장 다니면서 사귄 친구들 다 그렇게 된 친구들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근거리 친구들이 없어요. 다 강동 뭐 이런 쪽에 살고 있어서 쉽게 만나지는 못하고 약속 잡아야지 만나는 거죠. 한 2~3년 전에는 제

가 취미생활로 문화생활 하는 모임에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몇 명의 친구들은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점점 친구들이 시집을 가면서 놀 친구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놀 친구를 찾아서 모임을 찾고 있어요. 어떤 모임을 들어갈까 검색 중이에요.

D(28,여) : 직장 일을 처음 시작하니까 갔다 와서 쓰러져서 맨날 자고 그렇게 일 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를 찾아봤더니 거의 다 강남, 홍대, 건대 입구 이쪽이 많더라고요. 모이는 장소가. 그런데 창동역이 너무 구석이어서 정말 가기 힘들다... 어쨌든 홍대에 있는 잠깐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직종이 너무 딱 한 길만 있는 직종이어서 그래서 다 똑같은 일만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구요. 다 다른 직종에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 다르고 그래서.

R(28,여) : 구로구에서 지하철 역사를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구로구가 그런 것들 지켜보는 우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하게끔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저는 풍물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전단지나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갔어요.

장애 1인가구인 JJ씨는 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겼다고 한다.

JJ(54,남):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그들하고 같이1년에3, 4번씩 여행 다니고 그들의 고민 또 얘기 하고. 장애인들이 거의 다 중증 장애인들이라 중증 장애인한테 가장 필요한 게 활동 보조인들도 필요하지만 보조 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도 공유 하다 보니까. 그냥 삶에 자신감도 좀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비슷한 연령대에서 기혼자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고 육아 등으로 대화 주제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1인가구들끼리 잦은 만남을 통해 경험과 정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통념, 그리고 혼인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형태만을 정상으로 보는 관념이 여전한 사회에서, 비혼 1인가구 커뮤니티 내지 이를 이해하는 커뮤니티는 지지와 연대로 버팀목이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은 결혼이나 다른 형태의 가족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1인가구로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힘이자, 통념에 도전하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X(40,여): 저도 자주 연락하는 동네에 10분 근거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모임 중에 하나가 은평구에 사는 거의 비혼 여성인데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책읽기 모임을 하거든요.

S(48,여): 저도 책모임을 해요.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은 데 못 읽는 걸 같이 읽고 싶다고 생각해서 2주에 한번씩 책 한 권 읽기, 모여서 하기도 하고. 사실은 1인 가구,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데 저는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밖에 있거든요. 집에 가도 일상적인 대화에 거의 끼지 못해요. 자식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정상가족을 비정상으로 보는 이런 수다 모임? 수다.. 별로 개의치 않고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욕할 수 있고.

AA(33,여): 저는 지금 주로 세 그룹 인데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연구원으로 같이 있어서 공적인 거랑 사적인 게 섞여 있는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는 늘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 또 운동하고 있는 그룹이 다 미혼에다가 레즈비언도 있고 돌싱도 있고 그룹이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여기서 걸스토크하고 놀고 여기 한 그룹이 있고, 나머지 한 그룹은 홍대에서 밴드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주기적으로 놀고. 그래서 왁자지껄하게 세 그룹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

동네 친구의 중요성

인터뷰 참여자들 가운데 비혼 1인가구 여성 몇몇은 동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공동체 주거의 방식을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더구나 공동체 주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정부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1인가구의 수요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대안이다. 안전, 일상적 생활경험 공유, 잦은 접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DD(44,여): 사실 그런 근처에 연대가 꼭 같이 사회주택을 안해도 그렇게 좀 동네 친구들이 있는게 굉장히 좋더라구요. 몰랐는데. 정말 동네 친구 있는게 정말 최곤거 같아요. 그러니깐 싱글들은 동네 친구들을 사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있는 집은요. 아이라는 이유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고.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다양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가지구 해서 동네 친구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랄까? 좀 그런게 좀 있으면은 좋겠다...

AA(33,여): 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친구들이 있는 동네에서 항상 살았어요. 지금 있는 홍은동도 친구들이 바로 건너편에 두 명이 살다가 이사를 갔고. 다시 또 누가 이사를 올 거고.. 이런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5분 내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S(48,여): 저녁에 밥 먹을래 그러면 같이 먹고. 밥 같이 먹는 친구가 제일 좋더라고요. 같이 먹던 친구가 멀리 이사가면 슬프고. 〔…〕 동네에 또래 몇 명 좀 있어요. 서교동에 한명, 망원동에 한명 있어서.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있고, 서로 챙겨주는 거죠. 주말에 분명히 안 챙겨 먹을거다 하면 같이 먹자, 같이 나가서 먹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안 먹거나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시켜먹지는 않고 나가서 먹고, 같이 만들어서 먹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X(40,여): 이게 주거가 1인 가구 생활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혼자 사는 방식이 괜찮고, 나한테 잘 맞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근거리에 친구도 있고.. 뭐 어디 갈 때 내 고양이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 정도이고. 저녁 같은 건 술 한잔 생각날 때 있냐? 내려와라, 이 정도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미래에도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각자 집은 있고,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좋은 것 같아요.

동네에서 책읽기 모임을 꾸린 X씨는 요즘 관계의 형성 자체보다 지속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1인가구로 평생 살기로 결심했다면 오래 가는 관계를 통한 상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X(40,여): 나이가 들면서 그랬나, 제가 딱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내가 이 모임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구성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오래 지속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달에 한번이던 두번이던 만들었으면 한 10년정도 가져 갈 수 있는 모임으로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누가 오던 안 오던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20~30대, 젊었을 때랑 하다 끊기고 하다 끊기고 그런 건 약간 다르게 약간 소원해지더라도 꾸준하게 가자는 모임을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가는 끈끈한. 오래가는..

이렇게 동네친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1인가구들은 이를 위한 정책지원을 요구하

기도 했다. 근거리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업, 취미를 위한 1인가구 모임의 실질적 지원이 제안되었다.

Z(36,여):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제 나이가 이제 30대라서 맘에 대한 맘이 다 네트워크에요. 어떤 동네 지역맘, 은평구 맘… 그들은 네트워크가 단단하거든요. 비혼은 어떤 네트워크도 낄 수가 없어요. 기타를 배우겠다 춤을 배우겠다고 나가면 다 20대이고. 거기 가서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동네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데 저희 네트워크는 1인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친구를 만나서 홍대 이런 데서 놀고 돌아오니까 동네에서는 전혀 안 노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동네 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수가 되면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또 못 만나잖아요. 그냥 슬리퍼 신고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필요하니까 동네 친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W(32,남): 보통 노는 문화를 생각하면 동네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어머님들이 다니시는 문화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어머니들 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인가구를 위한 그런 게, 6시 이후 반 그 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1인 가구와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런 제가 와인 동호회를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데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시에서 지원이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그런 문화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지원의 욕구가 드러났다. V씨는 고시원이라도 소통공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생활의 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S씨는 상업적인 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어 공공장소의 활용을 통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주었다.

V(36,남): 제가 고시원을 몇 군데 살아 봤는데 옥상에 평상도 있고, 이야기 할 공간이 있는 고시원하고 앞뒤 꽉꽉 막힌 고시원하고 같이 살아 봤는데 소통할 공간이 있는 곳이 훨씬 분위기가 좋고 사는 게 더 재미있고.

S(48,여):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동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는 거의 노인 분들 저희 아버지랑 저를 비교하면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세요.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카페도 돈을 내고 가야하고. 아버지는 오히려 컴퓨터나 뭘 하면 오히

려 수강료를 받으세요. 정원의 얼마를 얹어서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아빠 나보다 훨씬 더, 내가 낸 세금으로 더 누리고 있다고. 카페를 가려고 해도 혼자 가서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고.. 1인가구를 위한 문화적인 혜택이 있어야겠다. 돈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5. 미래 전망과 가족구성 계획

1) 노후준비와 미래계획

1인가구들에게 노후에 대한 전망과 향후 5년 정도의 중기 계획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참여자들은 편안한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또는 너무 막연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들려주었다. 특히 교육자본을 갖추었으되 경제적 지위는 신빈곤층에 위치하는 젊은 비혼여성들(송제숙, 2016)은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전혀 못하거나, 조금의 저축과 보험에 가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AA(33,여): 노후준비는 예전에 돈을 조금씩 모아봤는데 모으는 속도보다 물가가 빨리 오르는 거에요. 그래서 모아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족족 차라리 나를 위해서 쓰자 지금 다니는 운동도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 거의 몰빵해서 다 쓰고 있고. 노후 대책은 여전히 로또를 하고 있고...

FF(43,여): 미래 문제는 저는 이제 학교 공부를 좀 오래 해서 사실 어, 적은 생활비로 빠듯빠듯 하게 사는 생활을 계속 이어 왔고, 그 딱히 노후에 대해서 그 돈을 얼마씩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

N(27,여):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다보니까 내년도 기약하기가 진짜 좀 어렵거든요. 우선은 지금 국민연금 회사에서 넣는 것의 두배로 제돈으로 넣는 거랑 병원 실비랑 보험 잘 넣고 있는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우선은 여유 자금이 되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노후자금이라도 할텐데 지금은 제 생활 꾸리는거랑 전세자금대출 갚고 하는 것 밖에 안되서 노후는 사실 너무 멀어서 생각을 안해봤고 막연하게 그 때 되면 조금 돈이 생기지 않을

까?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좀 멀게 느껴지는게 있고.

금전적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와 미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가능한 준비를 건강 유지와 친구 사귀기로 보고 이에 집중하기도 한다. DD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주의를 하게 되었으며, S씨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을 노후 준비의 유일한 방편으로 여긴다. 건강자원과 관계자원의 확보는 1인가구가 투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DD(44,여): 사실은 미래도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가장 큰 고민은 나이가 드니까 건강. 왜냐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병 같은건. 그래서 사실 보험 같은 걸 원래 드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한 3년 전에 보험을 들었어요. 암 보험이랑 실손 보험. 있잖아요? 사실 60세 이후는 직장이 없는데 이후의 삶은 솔직히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고려를 좀 안하는 건 사실 인 것 같아요.

S(48,여): 어쨌든 저는 제 삶을 좀 온전히 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래서 노후가 걱정인데 해결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 놓는 것 같아요.

2) 가족구성 전망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결혼의 조건

1인가구 생활의 장점으로 자유와 독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대다수가 꼽았지만, 그것이 곧 친밀성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관계망 부분에서 살펴보았듯 1인가구 생활자들이 다양한 모임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친밀성 요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결혼 및 가족구성과 관련해서도 친밀한 관계요 욕구가 드러났다. DD씨는 현재 삶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직업에 관해 불안정성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할 가족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쉽고, 공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연대의 관계보다 좀 더 긴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드러냈다.

DD(44,여): 제가 남자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남자라기보다는 파트너죠. 저와 생각을 나누는

동료. 뭐 그런 어떤 그런 파트너들에 대한 아쉬움. 그거는 사실 여성이어도 상관없고. 직장 동료도 상관없는데 공공의 연대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긴밀한 좀 더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마 직. 아마 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지금 현재 직장에서 그런 좀 거의 혼자 일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료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직장 관두고 또 옮길 거에요. 〔…〕 사실 지금 가장 큰건. 저에게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사실 일 문젠데 저의 20년을 같이 할 저의 그 비전인데, 그게 지금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가 비혼은 기본, 그게 흔들릴 때. 그게 저의 기본인데 그게 흔들릴 때 약간 서포트 해주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 결혼을 만약에 했으면 그래도 좀 약간 비빌 구석? 근데 그게 좀 없는 게 그것 땜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는데...

그러나 "비빌 구석" 내지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던 결혼이 이들에게는 필수가 아니거나 불확실한 계획이다.

GG(38,남): 솔직히 미혼과 비혼의 사이 같거든요. 저는. 약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는 당연시 했었는데 점점 그게 흐릿해지는 게 제 상황이구요. 〔…〕 그래도 아직까지 결혼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는 하는데 지금 나이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나이도 차서 그런데 제가 아직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서 결혼할 생각은 좀..그렇습니다.

Z(36,여): 저도 뭐 딱히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남들 만날 때 딱히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에너지를 쏟기도 귀찮고, 일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이상 이게 너무 힘들만큼 외롭지도 않고요.

N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좀 더 열리는 것" 같다고 평한다. 결혼이 당위성을 잃고 불확실해지면서 오히려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N(27,여):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다보니까 내년도 기약하기가 진짜 좀 어렵거든요. 제가 주기적으로 바쁜게 아니라 어쩔 땐 바빴다가 아니다 하니까 강아지 밥 챙겨주기도 벅찬데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키운다면 너무 막막한 거에요. 점점 저는 결혼을 안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제 인생에서 당연히 영위해야 되는 단계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없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멀어져서 삶이 좀 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대가족에서 자란 AA씨 역시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생각을 바꾸면서 파트너십의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 결혼으로 결정된 배우자나 성애적 관계가 아니면서도 친밀한 관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AA(33,여): 저는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자 마자 아빠친구 아들하고 결혼해야 한다, 진짜로 저는 결혼에 대한 나름의 로망은 있었거든요. 막상 서울 살이 하면서 저도 동거를 경험 해봤고 막상 지내보니까 정말로 하나를 가르치고 고쳐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동거를 한다는 건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작은 곳에서 꽁냥거리고 지내는 건데 정말 못 볼걸 다 보게 되고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고, 섹스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 것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었고.[...] 좋았던 경험은 지금 서른 넘어서 제가 사는 층 바로 위층에 전 애인이 살았거든요. 저랑 헤어진.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랑 연애할 때도 관계가 좋았고, 헤어지는 것도 잘 정리를 해서 헤어지고 나서 친구관계로 지내면서 서로의 삶을 쉐어 할 수 있게 된 거죠. 택배가 오면 받아서 넣어주고. 열쇠도 가지고 있었고.. 데이트는 서로 다른 사람이랑 하고. 서로 생활을 터치 하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보호가 되니까.. 아플 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런 사이로 살아보니까 그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주변에 사는 건 좋은데 내 집에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이 불확실한 기획이 됨에 따라 정서적 또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되기도 한다.

CC(30,남):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없고. 결혼을 절대 하기 싫다 또 이런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를 비중을 두고 있고..

U(29,남): 결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고요. 약간 선택의 기회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여유가 되면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선택의 기회 때문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데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차후에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수 있는 여건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꼽는 한편, 결혼해야하는 이유로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기도 한다. 위의 U씨는 경제적 안정을 결혼의 조건으로 여기다가도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결혼 외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W씨는 결혼비용과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반면, EE씨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방편으로 결혼을 상정한다.

W(32,남): 일단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정해놓고 지내온 건 아니에요. 20대 초반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쓱 지나갔고, 그 이후에 여자친구를 사귀면 결혼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안 됐고. [...] 최근에 다시 또 그 굴레를 벗어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은 또 다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서로 어느 정도 수준에 왔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 이제 서울에서 살려면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혼은 일단 시작부터 경제적인 큰 과정을 겪어야 하니까, 돈을 많이 써야 하고 집을 구하거나 결혼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상상 이상.. .주변에 유부남이나 친구들을 보니까 많이 드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멋모르고 뛰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논의는 하고는 있지만 주저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 하겠다는 마음 없이 ing 이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EE(30,여) : 저는 조금 더 경제적인게 조금 더 많이.. 지금 저도 이제는 유치원 교사 저희 유치원에서 돈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제는 언제까지 제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그런 경제적인게 한 6~70%? 그리고 안정감이 3~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좀 아무래도 남자가 저보다 잘 버니까.

대안가족 희망

결혼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비혼 의지가 확연해질 경우, 결혼을 통한 가족 또는 기존의 혈연가족 외에 다른 형태의 대안가족을 희망하기도 한다. 1인가구 생활이 지속될 것을 예상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동체 주거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 EE씨와 DD씨 역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근 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된 공동체 주거 생활양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EE(30,여): 저도 약간 그 대안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TV에서 보면은 그게 뭐 각자의 생활만 공간만 보장이 되고,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공간이 없으면은 그 단체 생활이라는게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혼자 살고 하면은 외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직장 생활에만 같이 있어도. 집에 가면은 원래 가족이 맞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혼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이고. 그러니깐 외로운 마음이 훨씬 덜 드니깐. 그런 쪽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DD(44,여): 솔직히 제가 고민했던 건 제가 향후 한 1~20년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사실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꿈이 있었던 거에요. 지금 물론 비혼은 맞아요. 주변에 싱글 비혼. 진짜 많이 있거든요. 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같이 사는거는 다른 맥락이더라구요. 〔…〕 사실은 사회주택에 대해서 뭐 선배들이 덴마크. 예전에 막 그 사실 북유럽이 그런 게 잘 되 있잖아요? 가서 와서 보고 향후 그걸 적용. 이렇게 실험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때는 그냥 에~ 했는데 지금 굉장히 절실한 게 있어요.

공동체 주거는 단지 물리적인 주거지의 해결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논의되었던 사회적 관계망 욕구의 연장선상에서, 노후에 일어날 건강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생긴다.

HH(59,여): 요즘들어 주변에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다거나 그게 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는 것들인데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내 노후를 생각하면 좀 막막하죠.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주변에 그렇게 많이 얘기 했어요. 우리 나이 들면은 그냥 같이 모여서 살자. 쉐어 하우스 같이요. 자기 공간이 있고 공동 공간이 있는 그게 참 이상적일 것 같더라고요.

6. 소결

지금까지 1인가구의 형성과 가족관계, 경제와 주거, 건강과 관계망, 미래전망과 가족구성 계획을 망라한 1인가구의 생활경험과 욕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드러난 중요한 사항들을 1) 불안정한 현재·불확실한 미래, 2) 독립향유와 친밀성욕구의 공존, 3)정책으로부터 소외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3▐ 1인가구 FGI 결과

	불안정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	독립향유와 친밀성욕구	정책으로부터 소외
1인가구 형성과 가족관계	■ 이합집산 가구구성 ■ 경제상황으로 인한 가족변화 ■ 부모부양 부담	■ 원가족과 관계 향상 ■ 독립적 관계 ■ 자유로운 생활 ■ 위험상황과 고독사 우려 ■ 사회적 편견	■ 청년도 노인도 아닌 자의 소외 ■ 출산하지 않는 자의 배제 ■ 가족없는 자의 소외
경제와 주거	■ 소득불안, 직업불안 ■ 취약주거 전전 ■ 나쁜 주거상태·주거보수 불편 ■ 고시원의 고립 ■ 안전불안	■ 공동체 주거 장점: 경제적 효율성, 커뮤니티 형성 ■ 공동체 주거 고려지점: 공동활동 지원, 운영의 전문성, 정보제공 효율화	■ 임대주택 공급 부족 ■ 적정주거기준 필요 ■ 주택정보안내 개선 필요 ■ 안전지원 필요 ■ 정부제공 공동체 주거 관리 개선 필요: (코디네이터·전문가 관리)
건강과 관계망	■ 끼니 거르기 ■ 편의점·배달음식 ■ 질병 ■ 사회적 고립	■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는 않음 ■ 동네친구의 중요성 ■ 관계의 지속성 필요 ■ 학습/취미 공동체 요구	■ 건강관리지원 부족 ■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공간지원 필요
미래전망과 가족구성 계획	■ 노후계획 부재 ■ 예측하기 힘든 미래 ■ 결혼 불확실	■ 생애전략 고민 ■ 대안가족 희망	■ 1인가구 정책 부재

1) 불안정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위기에 따른 가족 분리, 진학·취업에 따른 실리적 선택, 독립적 라이프스타일 추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인가구가 형성되며, 가족구성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1인가구로 살더라도 원가족과의 관계는 대체로 지속되고, 부모부양 책임의 1순위가 되기 쉬운 1인가구는 미래 계획에 이를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소득과 직업이 불안정한 1인가구들은 취약한 소형 주택을 전전하기 쉬운데,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득은 적은 반면 안전을 위해 주거비용은 더 지출하는 성별차가 드러난다. 주거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지원에 대하여 요구가 크다.

끼니 거르기와 편의점·배달음식으로 대표되는 1인가구의 식사습관, 전망하기 힘든 미래와 노후계획의 부재는 1인가구 삶에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특히 중장년 취약주거 생활자들은 원가족과의 단절과 빈곤의 영향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군이 되기 쉽다. 실제로 고독사 사례가 많은 중장년 남성 취약주거 생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독립향유와 친밀성욕구 공존

1인가구는 자유의 향유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은 항상 우려되고 있다. 고립과 결핍의 상태로 간주되곤 하는 1인가구는, 사실 혼자 살기는 하지만 고립되려 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도한다. 이들의 관계망에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동네친구이다. 공동거주를 하지는 않더라도 가까이에서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한편, 친밀성을 보장하는 기본 구조로 간주되어 왔던 결혼 및 그로 인한 가족 형성은 1인가구에게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안정을 결혼의 조건으로 여기기도 하고 목적으로 여기기도 하면서 생애전략의 하나로 결혼을 기획하기도 하

나, 결정은 불확실하다. 결혼의 불확실성과 비혼 의지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공동체 주거가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정부제공 청년임대주택들과 민간의 협동주거들은 시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어 만족도가 크고, 민간의 협동주거들은 커뮤니티 형성으로 외로움과 안전 문제에 도움을 준다. 물론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있기는 하나, 이웃기웃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천왕여성안심주택 등의 사례는 1인가구에 대한 공동체 지원, 저렴한 주거비 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참조할만한 사례로 드러났다.

3) 정책으로부터 소외

1인가구에 특화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1인가구는 몇 가지 차원에서 정책대상에서 벗어나 있음을 토로한다. 청년정책이나 노인정책의 대상이 아닌 연령층의 소외, 신혼부부 지원 또는 저출산대책에서 벗어난 '출산하지 않는 자'의 배제, 그리고 다인가구 중심에서 '가족 없는 자'의 소외가 그것이다.

1인가구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취약집단으로 상정하여 정책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인가구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 정책이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공동체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1인가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정책은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중심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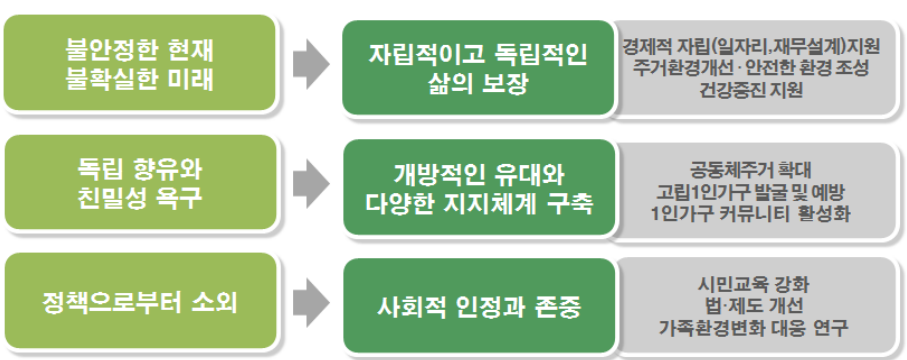
1인가구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1인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에 대한 지원, 즉 임대주택 공급확대, 적정주거기준 제시와 준수,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를 지원하여 1인가구를 포함한 시민들 사이의 지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1인가구를 특별한 취약계층으로 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 수혜자로 만들지 않고도 1인가구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호 지지와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지원은 공동체 주거 확대와 활동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 특히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위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연가족 대신 비혈연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해하는 태도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혼자서도 행복하고 개개인이 선택한 삶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도출하도록 한다.



V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1.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의 개요
2.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핵심 키워드
3.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4.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5. 사회적 인정과 존중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1.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의 개요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서울시 가족 삶의 형태와 내용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가족변화의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듯이, 서울시의 1인 가구가 112만을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의 눈높이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거듭 논의한 바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결코 간단치 않은데, 이것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들 가구의 형성요인이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양태 또한 세대 및 계층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책대상자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정책대상자의 욕구사정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책범주와 수준 획정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가구 및 유배우 가구의 지속적인 축소세에 비해 서울시 1인가구는 그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지원망의 부재는 곧 장·노년기 및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실한 지원 정책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은 이들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을 최소함으로써 건강한 자립적 삶을 보장하고, 혼자서 생활하지만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환경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원정책의 마련은 1인 가구들로 하여금 사회 성원으로의 소속감과 함께 공동체적 유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의 건강한 시민사회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국 가족은 그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2000년대를 전후하여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명시적인 가족정책전달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 가족주의에 기대어 개인 돌봄의 전적인 책임을 위임받아온 가족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의 재생산 기능조차 잠식되면서 가족은 점차 주요한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와 삶의 방식이 타인들에게 백안시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가족구성권에 대한 관심 역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1인 가구 역시 충분한 인정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1인 가구정책 영역은 대단히 폭넓은 정책 영역과 중첩적이기도 하며 교차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가급적 이들 가구가 쉽사리 표적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만큼 다소 논의의 층위와 수준은 분절적일 수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들에 국한하여 주요 과제나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전히 포괄적이며 종합적인데, 예컨대 먼저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일자리 제공과 이를 통해 자기 돌봄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토대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1인 가구 스스로의 능력구비와 함께 이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마련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연관된 주요 정책과제들은 주로 일자리와 돌봄 및 건강관련 과제 및 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 및 지역 환경의 불안 및 위협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 및 지역환경의 안전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의 문제와 함께 주거를 둘러싼 생활기회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저출산 해법의 하나로 유자녀가구 중심 주거지원정책의 우선성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고질적인 주거빈곤에 대한 특단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주거빈곤 및 생활기회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성의 주거지원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1인가구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거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컨대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주거 지원정책이나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자서 생활하지만 독립된 생활일 뿐 다양한 자조망과 네트웍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1인 가구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성과 건강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사실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중심적인 가치와 생활문화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가 없지 않으며, 독신가구에 대한 편견 또한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김혜경, 2015). 그러므로 가족 및 가구다양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로부터 인식개선 사업 등도 고민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젠더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준해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정책영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영역	구분	세부 사업명	추진부서
1. 일자리	확대·강화	1-1. 일자리 종합계획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신규	1-2.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일자리정책담당관
	신규	1-3.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확대·강화	1-4.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금융 컨설팅	서울시복지재단
2. 주거	확대·강화	2-1.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주택정책과
	신규	2-2.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가족담당관
	신규	2-3. 1인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가족담당관
	확대·강화	2-4.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주택정책과
3. 안전	확대·강화	3-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	여성정책담당관
	신규	3-2.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주택정책과
	신규	3-3.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신규	3-4.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4. 사회적 관계망	신규	4-1.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	가족담당관
	신규	4-2.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가족담당관
	확대·강화	4-3. 마을 공동부엌 활성화 지원	가족담당관

정책영역	구분	세부 사업명	추진부서
	신규	4-4. 다양한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가족담당관
	신규	4-5.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택정책과
	확대·강화	4-6.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	서울글로벌센터
5. 건강	확대·강화	5-1.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서비스	어르신복지과
	확대·강화	5-2.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운영 확대	보건의료정책과
	신규	5-3. 1인가구 건강 동아리 지원	가족담당관
	신규	5-4. 1인가구 생활상식 ABC 마련 및 배포	가족담당관
6. 법·제도 및 인식 개선	신규	6-1. 1인가구 공동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가족담당관
	신규	6-2.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평생학습포털
	신규	6-3. 가족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신규	6-4. 가족통합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부서 설치	가족통합지원센터
	신규	6-5.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개정	가족담당관

2.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핵심 키워드

오늘의 한국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가구 및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는 고유한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가족주의라는 한국 전통의 가족문화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의 충돌로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수용과 문화적 관행은 미흡하고, 아직은 위험에 처한 개인에 대한 충분한 사회보장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1인가구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는 서울시 1인가구"**로 설정하며, 주요한 정책 목표는 첫째, 혼자서도 충분히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삶의 보장, 둘째, 가족 이외에도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유대와 지지체계가 촘촘하게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시로 설정할 수 있다. 주요한 정책목표와 각 목표간 연관성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1▐ 서울시 1인가구 지원의 목표 및 방향



첫째,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임에 구애받음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자기부양과 돌봄이 가능해야만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부터 기초보장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중위소득이상의 계층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돌봄에 서툰 1인가구에게는 맞춤식 자기 돌봄의 노하우와 훈련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자립적인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여성단독가구는 범죄나 유해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행이나 생활편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주거보급이나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자립적인 1인가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둘째,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인간이 갖는 다양한 결속과 유대의 원천이 가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개인에 대한 일차적 안전망이자 사회적 위치 및 소속감의 원천으로 가족만을 강조해왔다. 다양성의 시대에는 가족이외에 다양한 소속감과 유대가 가능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인 공동체의식과 결속의 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취향과 취미, 여건에 부합되는 동호회 등의 사적 네트워크로부터 이웃 및 지역민으로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인가구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느슨한 지지체계의 구축은 현대인들의 불안감이나 고립감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포용과 어울림의 기회 및 장(場)을 제공하고,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한 지역 및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상호 관심사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배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회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상이한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배제 못지않게 무관심과 무시 또한 1인가구에 대한 차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구 및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만큼 가족 및 가구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특정 가구·가족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4▐ 1인가구 영역별·세대별 핵심 정책대상

	청년	중장년	노년
주거취약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1인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1인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취약 1인가구	일자리 종합계획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일자리 종합계획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한시적 생계비 지원*	한시적 생계비 지원*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금융 컨설팅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금융 컨설팅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안전취약 1인가구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신체/건강 취약 1인가구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서비스
		1인가구 건강 동아리	1인가구 건강 동아리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지원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운영 확대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운영 확대	
사회적 관계망 취약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마을 공동부엌 활성화 지원	마을 공동부엌 활성화 지원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	
1인가구 일반		1인가구 생활상식 ABC 마련 및 배포	
		다양한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1인가구 공동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가족통합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부서 설치	
서울시민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가족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개정	

주: *사업의 경우 여성을 주요 대상자로 하는 사업임

3.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3.1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확대·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주거취약계층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악화 방지 ○ 시설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지 안전 확보
핵심정책대상	○ 주거취약 1인가구
추진부서	○ 주택정책과
협조부서	○ 집수리지원센터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 중 31.4%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에 22.6%는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비중은 18.2%에 불과하여 1인가구 중 81.8%는 세입자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1인가구 중 48.1%는 세입자 신분으로 인해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신분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고령 1인가구의 경우 자가 비중은 높으나 소득원이 없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로 작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집수리닷컴(집수리센터)을 통해 드릴세트, 공구세트, 사다리 등의 공구임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나 1인가구가 밀집된 관악구에 0개소, 강남구에 1개소로 이용에 제약적이다. 특히 공구임대 서비스의 시간은 주중 9시~18시로 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의 경우 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집수리센터는 공사비 융자지원(적용금리의 2%)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원이 저소득 고령 1인가구의 경우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더불어 자가 수리를 위한 기존 집수리사업의 기능 확대가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 사업내용

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원이 없어 누수, 내·외벽 균열 등 낙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부양자가 없는 저소득 1인가구 우선지원을 고려한다.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리스트를 확보하거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을 제안한다. 또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 업체명단을 확보하고 공개한다면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입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1인가구는 전구교체, 간단한 배수구 수리 등은 비교적 간단한 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구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수리 시 출장비와 수리비의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입자 신분으로 인해 시설수리를 하지 못하는 1인가구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집주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수리에 필요한 정보와 공구를 제공한다. 더불어 간단한 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설수리에 대한 안전상식과 방법 등을 담은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할 것을 제안한다.

○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가 보유 저소득 1인가구 대상 주택보수 차등지원

• 자가 보유 저소득 또는 소득원이 없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누수, 내·외벽 균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업대상자 발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우선 검토)

• 자산기준에 따른 주택보수 차등지원 기준 마련(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부양의무자 및 소득원이 없는 1인가구 전액지원, 부양의무자 또는 소득원이 있는 1인가구 일부 지원 등의 기준 마련

○ 집수리지원센터 공구임대 서비스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

• 공구임대신청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주중 ~19시, 토요일 ~13시) 연장

• 공구임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주민센터, 치안시설로 확대 배치

• 1인가구 밀집지역(관악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공구임대서비스 확대

• 시설수리 시 필요한 전기, 화재 등 안전상식 및 전구교체, 배관 막힘 등 시설수리 안내책자 제작·배포

• 집수리닷컴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업체 명단 확보 및 정보제공

※ 현재 집수리닷컴 내 일반 집수리업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구분	기존 공구임대신청 서비스	개선(안)
대여대상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누구나	좌동
대여기간	3일(1회 연장가능)	좌동
이용시간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9시~18시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10시~19시(확대)** **매주 토(공휴일 제외) 9시~13시(확대)**
대여장소	각 자치구 집수리지원센터 29개소 ※ 1인가구 밀집지역 관악구 0개소, 강남구 1개소	좌동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치안시설(확대)** ※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확대
대여공구	드릴세트, 공구세트, 사다리, 줄자, 삽 등	좌동 **공구사용 및 시설수리를 위한 책자 배포 (신설)**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사업대상자	발굴	50가구 (500)	지속	지속	지속
공구마련	자치구별 10set(62.5)	지속	지속	지속	지속
브로슈어 제작	1,000개(5)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67.5	567.5	567.5	567.5	567.5

1) 공구세트(15만원/1set), 전기드릴(10만원/1ea)을 포함하며 관악구, 강남구 시범사업(각각 10set)

(신규)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이동이 잦은 1인가구 주거비 부담경감 ○ 부동산 계약절차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핵심정책대상	○ 전·월세 거주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의 32.1%는 주거지 선택 시 계약절차 또는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총소득의 39.2%를 주거관련으로 지출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비가 1인가구의 경제상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동이 잦은 1인가구의 특성상 공인중개수수료의 발생 빈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주거관련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절차와 좋은 주거환경을 선별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 서울시 대시민 토론회(2017.11.14.)

□ 사업내용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부당한 주택전세계약을 방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주거환경 선별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표준화된 주택전세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포하여 부당한 주택전세계약을 방지한다. 추가로 원룸, 연립/다세대 중

개 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한다면 1인가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인가구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해 10% 인하 혜택을 주어 1인가구의 주거관련 비용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계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연계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혹은 구청장의 표창 또는 인증서 부착 및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 명패를 제작하여 유인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구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털사이트 부동산 소개에 이를 인증할 수 있는 마크 등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한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이하 맞춤 부동산)' 사업 참여자 발굴
- 주거안전 및 주거환경, 주택전세계약서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구분	체크리스트 목록(안)
주거안전	□ 주택주변 및 주 출입구에 CCTV는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 후미진 골목 또는 유흥가 주변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가? □ 방범창은 설치되어 있는가? □ 주택내부(복도 등)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가? □ 도어락은 설치되어 있는가? □ 주택내부에 은폐가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 주택주변에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파출소, 편의점 등)이 있는가?
주거환경	□ 방의 면적은 생활하기에 적정한가? □ 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 물의 수압은 적정한가? □ 장판아래, 벽지, 창틀 주변부 등 곰팡이는 없는가? □ 도배와 장판이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가? □ 못 구멍, 화장실 세면대 등 부서지거나 망가진 시설은 없는가? □ 도시가스가 들어오는가? □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유선 수신료, 난방 방식 등 각종 잡비는 적정한가?
주택전세계약서	□ 수리필요 시설(현관문, 싱크대, 변기, 세면대 등)이 있는가? □ 계약서상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가? □ 근저당이 잡혀있는가?

구분	체크리스트 목록(안)
	▫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설정하였는가?(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지만 이동성이 높은 1인가구의 특성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증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음. 1년 계약 시 임대차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년까지 거주 가능)

- 표준화된 주택전세계약서 마련
- 1인가구 공인중개수수료 5% 인하 혜택

※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40만원 시 최대 중개보수 48만원 : 4만 8천원 혜택 (주거용오피스텔 기준)

○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장 혹은 구청장 표창 혹은 인증서 부착

※ 추후 인증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등)마련 필요

-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 명패 제작
- 서울시, 구청, 부동산 관련 앱(다방, 직방 등)내, 주거관련 단체 온라인 페이지를 통한 맞춤 부동산 적극적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사업대상자	발굴	시행	시행	발굴	발굴
인증절차 마련	준비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주거안전 및 주거환경 체크리스트	준비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주택전세계약서	제작(2)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온라인 홍보	구축1)(10)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12	12	12	12	12

1) 온라인 홍보페이지 개설 및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 CI 개발 등

(신규) 1인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 주거 공간 확보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핵심정책대상	○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지 거주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는 주로 연립/다세대, 원룸/고시원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립/다세대의 3.2%, 고시원/원룸의 29.0%는 4.24평 이하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면적을 보이고 있었다. 좁은 주거면적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면적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좁은 주거면적은 삶의 질을 낮추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원룸/고시원 거주 1인가구 대상 물품보관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치안시설(파출소, 소방서)등 공공기관 건물의 유휴공간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물품보관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계절용품(선풍기, 전열기구 등)과 대형캐리어 등 일시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한다. 특히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물품이 변질되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군은 보관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우리 동네 1인가구 보관함’ 운영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치안시설(파출소, 소방서) 등 유휴공간 현황파악
- 선풍기, 전열기구, 대형캐리어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좁은 원룸/고시원 거주자를 중심으로 물품보관서비스 실시

※ 최대 1년을 보관기간으로 하며 장기간 보관에도 물품이 변질되거나 파손의 우려가 없는 제품군에 한하여 소정의 보증금(추후 물품회수 시 지급)과 함께 보관서비스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공간마련	발굴	시행	지속	지속	지속
물품보관 기준	마련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0	0	0	0	0

(확대·강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장애인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핵심정책대상	○ 휠체어 생활이 필요한 1인가구 (고령 및 장애인 포함)
추진부서	○ 주택정책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장애 1인가구 FGI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드러났다. 민간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에서도 휠체어 이용이 쉬운 주거지를 찾기 어려우며 좁은 면적이 특히 문제가 된다. 면접 참여자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은 욕실 면적 문제, 즉 씻을 수 있는 환경의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 선성순위에 상관없이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이 되고 있는 정도이며, 장애 1인가구의 요구는 특별히 반영되어있지 않다.

□ 추진근거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를 개정한다.

○ 최저주거기준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의 장애인 활동 공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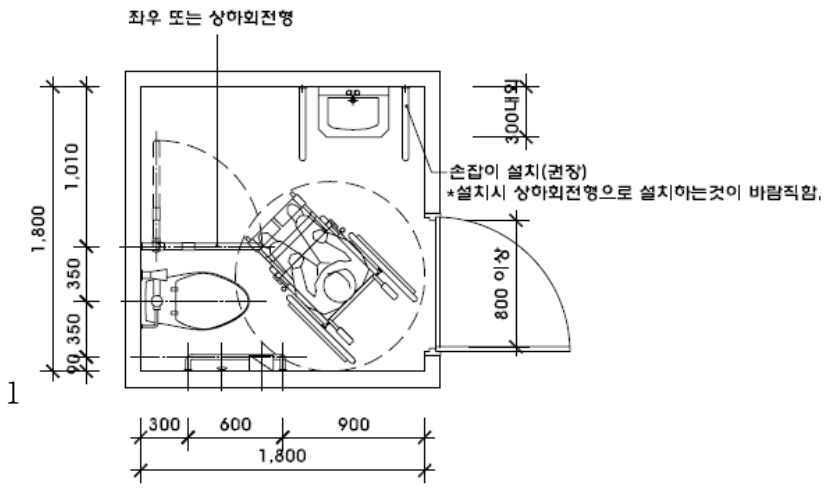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내 장애인 활동에 적절한 욕실크기(1,900mm × 1,700mm) 보장

• 필수적인 설비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도록 개정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table>
<tr><th>현행 최저주거기준</th><th>개선(안)</th></tr>
<tr><td>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table>
<tr><th>가구원수</th><th>실(방)구성</th><th>면적(m²)</th></tr>
<tr><td>1</td><td>침실, 부엌</td><td>14</td></tr>
</table>
</td><td>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 및 <u>특성별</u>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table>
<tr><th colspan="2">가구원수</th><th>실(방)구성</th><th>면적(m²)</th></tr>
<tr><td rowspan="2">1</td><td>일반</td><td>침실, 부엌</td><td>14</td></tr>
<tr><td>장애인</td><td>침실, 부엌</td><td>16</td></tr>
</table>
</td></tr>
<tr><td>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td><td>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활동공간을 갖추어야 한다.</td></tr>
</table>

▌그림 Ⅴ-2▌ 장애인 위생시설 활동 공간 및 구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법개정	개정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위생시설(개)	30	공급량의 5%	공급량의 5%	공급량의 5%	공급량의 5%
총 소요예산(백만원)	-	-	-	-	-

3.2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강화) 일자리 종합계획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일자리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서울시 1인가구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저소득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
핵심정책대상	○ 비경제활동 및 저소득층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8%였으나 가장 안정적 고용형태로 분류되는 상용직의 비중은 63.2%에 그쳤으며 22.5%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임금은 146.6만원 수준으로 이는 246.8만원을 보인 상용직 월평균임금의 59.2%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상태는 사회적 관계망을 비롯한 주거환경과 건강, 여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비경제활동 1인가구 역시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망위축,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나이와 고용조건으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훈련서비스가 요구된다.

2017년 서울시는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 저소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에게 일자리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는 각 대상(청년, 여성, 저소득 등)에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을 집중 조명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급격하게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정책 영역이 신설되고 대상의 확대가 요구되어진다. 예로 기존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 중 일자리카페 사업을 통해 입사지원서와 면접·이미지컨설팅 등 취업클리닉,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특

강 및 모의면접 등 체감형 지원, 스터디룸 무료대여, 면접용 메이크업 특강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1인가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중장년 및 고령층 1인가구까지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비경제활동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가 밀집된 관악구의 일자리카페는 1개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카페의 확충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

▫ 사업내용

2017년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의 일자리카페 기능 확대를 제안한다. 특히 서울시 1인가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재 구직중이거나, 질 낮은 일자리의 저소득 1인가구를 중심으로 Job-coach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각 개인의 인적자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가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구직희망자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구인구직 및 Job-Training Program 안내 등을 제안한다(신규). 이뿐만 아니라 취업시장의 비대칭정보로 인한 고용환경 불만족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업, 일·가족양립우수기업 등 민간일자리와의 매칭사업도 요구된다. 일자리 매칭사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1인가구를 양질의 민간일자리로 연계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에 1인가구 영역 신설

- 기존 일자리 종합계획 중 1인가구에 해당하는 영역을 분리, 1인가구 영역 신설
-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대상사업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정책사각지대대 발굴 및 개선

구분	기존 일자리 종합계획	개선(안)
정책대상	청년(87개)	정책대상 좌동 ※ 기존 일자리 종합계획 중 1인가구에 해당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1인가구'정책대상 신설
	여성(46개)	
	중장년(22개)	
	고령자(13개)	
	저소득(6개)	
	장애인(5개)	
	기타(70개)	
	-	**1인가구(신설)**

○ 기존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대상자 및 기능 확대

• Job-Coaching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 전문 컨설턴트 (여성인력센터 강사 활용)

• 동주민센터 등 자치구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간 마련 필요

구분	기존	개선(안)
정책대상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층 및 중장년층 1인가구**
설치장소	총 47개소	1인가구 밀집지역(관악구, 강남구) 중심으로 확충 ※ 2017년 기준 관악구 1개소, 강남구 3개소 설치
	일자리센터, 도서관, 커피숍 등	일자리센터, 도서관, 커피숍, **대학교, 동주민센터 등**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전공분야 맞춤형 취업컨설팅(신설)**

○ 취약 1인가구 일자리 매칭 : 사회적 기업,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매칭

• 1인가구 구직자 리스트 확보 및 일자리 욕구 조사

- 교육수준, 전공, 경력, 자격증 여부 등 개인 인적특성에 관한 정보수집

• 사회적 기업,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인력수요 조사

※ 서울시 사업 및 용역참여(일·가족양립 컨설팅,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 등) 시 인력수요 조사 포함

○ 취약 1인가구 희망일자리 및 사업체 인력수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국가공인자격증 중심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개설(초급, 중급, 고급 연차별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일자리 수요조사	3,500명[1)]	-	-	-	3,500명
교육프로그램 마련	3강좌	5강좌	7강좌	7강좌	7강좌
소요예산(백만원)	76.5	40	56	56	108.5

1) 서울시 비경제활동 1인가구의 1% 수준을 표본으로 산출함

(신규)	(가칭)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핵심정책대상	○ 고령 1인가구
추진부서	○ 희망복지과
협조부서	○ 일자리 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최근 고독사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태조사에서도 고시원 등 취약주거 중장년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하고 원가족과 단절된 경우도 많아 고립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체계 중 고독사 예방에 관련 있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경우, 65세 도래 노인과 70세 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방문사업으로 고령 1인가구 지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년 취약 1인가구 발굴 확률은 높지 않다. 또한 우리동네 주무관 등의 사업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물리적 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 찾동사업과 연계하되 마을주민 조직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1인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 사업내용

고령 1인가구의 활동범위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며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고령 1인가구의 경로당을 거점으로 고령 1인가구 대상의 정책 등을 전파하고 갑자기 연락이 단절된 고령가구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경로당에서 주로 활동하는 저소득 고령 1인가구를 '(가칭)우리 동네 이웃지킴이'로 선정하고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웃지킴이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고령 1인가구 대상 정책·사업 등을 경로당에 전파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 모집 등의 활동을 부여하여 지역 내 고령 1인가구 정책접근성을 확대한다. 또한 이웃지킴이를 통해 고령 1인가구 대상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여 이들의 일자리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요구된다.

○ 지역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고령 1인가구 대상 '(가칭)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 신체활동에 지장이 없는 중장년 또는 고령 1인가구
-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수준 책정
  - 9,211원/시간 × 월 30시간 근무 = 276,330원/월 (2017년 기준)
- 서울시 및 자치구 1인가구 관련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등)전파
- 지역 내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 비상연락망 마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와 연계한 찾동 사각지대 고립 1인가구 발굴

	구분	주요 내용
찾동	사업대상	65세·70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위기 가정,
	주요내용	복지플래너(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점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중장년 1인가구 및 65세, 70세를 제외한 연령 발굴 한계
우리동네 주무관	주요내용	주무팀 팀장(총괄담당), 동장, 구역 담당공무원이 주요 거점(미장원, 경로당, 공원, 부동산 등) 중심으로 주민관계형성, 취약계층 발굴
	한계점	1인가구 밀집지역 접근 부재 및 지역 주민과의 연대
개선방안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우리동네 이웃지킴이) • 우리동네 주무관과 연계한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쪽방촌, 중장년 1인가구 및 고령 1인가구 안부확인 등

• 지역 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이웃지킴이' 사업 실시

• 우리동네 주무관이 방문하지 못한 1인가구 밀집 쪽방촌, 고시원, 원룸지역 방문

•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 방문 및 안부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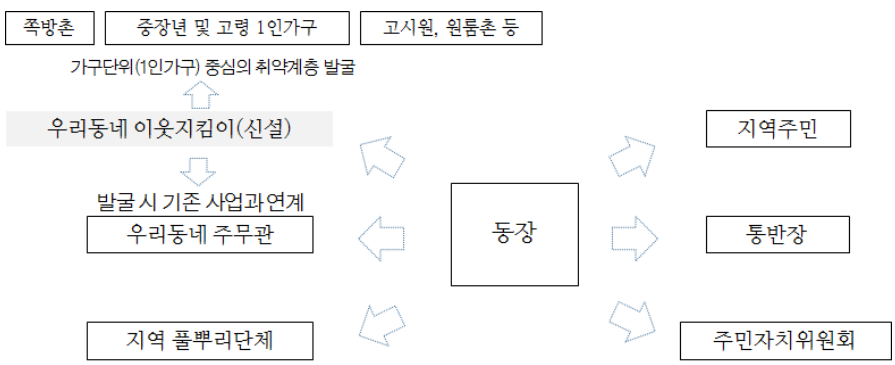
※ 전입신고 시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의 경우 우리동네 이웃지킴이 방문을 위한 사전승인 필요.

•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1인가구 발굴 시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와 연계

• 건강상태 이상 1인가구 발굴 시 방문간호사 연계

• '우리동네 이웃지킴이'와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연계

▌그림 Ⅴ-3▐ 우리동네 이웃지킴이 운영체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이웃지킴이	준비 (세부역할)	시행 21명 (69.6)[1]	확대시행 42명(139.3)[2]	확대시행 380명(1,260.1)[3]	지속
소요예산(백만원)	0	69.6	139.3	1,260.1	1,260.1

1) 시범사업 대상지 노원구의 19개동별 1명의 이웃지킴이 사업 실시. 단, 면적이 넓은 상계1동, 공릉2동의 경우 2명의 이웃지킴이를 배치함. 9,211원 × 30시간 × 21명 ×12개월

2) 2단계 시범사업으로 관악구(21개동) 확대

3) 1,2단계를 통해 우수모델을 선별하고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신규)	한시적 생계비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정책사각지대의 위기 1인가구 긴급지원을 통한 생계보장 ○ 위기 1인가구의 빈곤화 예방
핵심정책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대상 사업장 실직 저소득 1인가구
추진부서	○ 희망복지지원과

□ 현황 및 추진배경

현행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과 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이혼/별거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집단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혼/별거를 경험한 1인가구의 27.2%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1인가구는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혼자서 책임져야하는 특성으로 인해 실직 시 다가오는 경제적 충격은 다인가구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층 대출의 주요 원인이 생계비라는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던 1인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 **사업내용**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저소득 위기 1인가구의 실직은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며 생계를 위한 대출 등 1인가구의 빈곤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비대상자 1인가구 중 저소득 위기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 독려 및 구직급여 하한액 지급을 통해 이들의 빈곤화를 방지한다.

○ 구직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 저소득 위기 1인가구 대상 한시적 생계비 지급
  • 구직급여 하한액(43,416원/1일)을 대체하는 구직활동 지원비 지급
    - 43,416원 × 90일 = 1,302,480원
  • 한시적 생계비 지급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교육훈련 이수, 소득기준,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 등의 정밀한 지급기준 마련
  • 1인가구의 빈곤화 방지를 위해 선지급, 다만 생계비 지급기준 미충족할 시 추후 경제활동 개시 후 분할납부로 징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1인가구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우리 동네 Job Cafe 사업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한시적 생계비 지급기준	마련	-	-	-	-
한시적 생계비 지원	-	시행 100명(130.2)	확대시행 200명(260.4)	확대시행 300명(390.6)	지속
소요예산(백만원)	0	130.2	260.4	390.6	390.6

(확대·강화)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금융 컨설팅**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 노후준비 지원을 통한 미래 불안 경감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의 31.6%는 월평균소득 135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고령남성 1인가구 57.6%, 고령여성 1인가구 65.0%로 높았다. 또한 1인가구의 74.6%는 월평균 총소득의 60% 미만을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의미한다. 실제 조사결과 서울시 1인가구 중 57.8%는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5.6%만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노후대비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장년남성 54.6%, 중장년여성 43.8%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층 역시 고령남성 64.3%, 고령여성 69.3%로 매우 높았다. 또한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찬 현실을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1인가구의 재무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안 제시,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

▫ 사업내용

재무상담 및 경제교육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MOU 체결 등을 통해 1인가구 맞춤형 재무컨설팅 서비스 실시를 제안한다. 특히 노후대비가 가장 요구되는 중장년층

1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하며 매년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여 서울시 1인가구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노후대비를 위한 서비스 실시를 제안한다.

○ 재무상담 및 경제교육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1인가구 재무금융 컨설팅 제공

- 에듀머니 등 재무컨설팅 업체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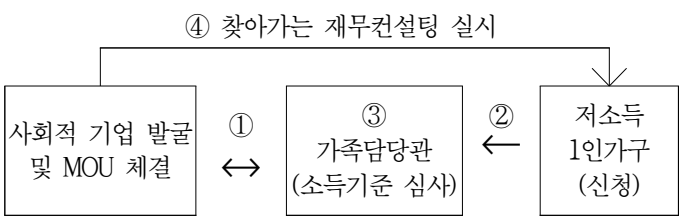
  ※ 현재 에듀머니의 경우 성남시 찾아가는 채무상담 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재무컨설팅 실시(노후준비,

  ※ 에듀머니 기준 사무실 내방 20만원, 찾아가는 상담 30만원 수준임

- 연차별 대상자 확대실시

▌그림 Ⅴ-4▐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컨설팅 운영방안(안)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확대를 통한 1인가구 노후대비 지원

구분	상담분야		주요내용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상담		과다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 지원
		파산면책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면책을 위한 상담지원
		개인회생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 받도록 상담지원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지원
		재무관리(신설)	파산선고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무관리 지원
	가정재무상담		자산 부채 구조의 건전성, 가계 수진 균형 등 재무상담에 대한 상담. **미래 노후대비(은퇴, 장례 등)에 대한 컨설팅(신설)**
	복지서비스연계		각 분야별 기관 연계
		복지	강동, 사당,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주거	은평주거복지센터, LH, SH 연계

구분	상담분야	주요내용
	고용	광역자활센터, 강남·관악 고용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무역협회
	금융	주빌리은행, 사회적 **기업 재무컨설팅 업체(신설)**
	의료	자살예방센터, 신촌세브란스, 보라매병원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람마중
	법률	로앤컴퍼니
	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체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재무컨설팅 사회적 기업 발굴	준비(MOU)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재무컨설팅 실시	-	시행 100명(30)	확대시행 200명(60)	확대시행 300명(90)	확대시행 400명(120)
소요예산(백만원)	0	30.0	60.0	90.0	120.0

3.3 '안심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안정성 확보'

(확대·강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활성화 ○ 1인가구 안전정책 요구의 즉각적 반영 경로 마련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핵심정책대상	○ 안전취약 1인가구
추진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는 여성안전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등 여성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안심지킴이집 14.0%, 안심귀가스카우트 13.0%, 택시안심귀가 10.6%, 여성긴급전화 9.4%, 여성안심택배 9.0%의 인지도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83.8%의 여성이 여성안정정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결과를 보여 이용률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여성안심지킴이집 등에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안전정책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2012년 최초 여성안심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여성안심특별시 2.0, 2017년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시행중에 있다. 그 중「안심이」앱을 통해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은평구, 성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총 4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중이다. 따라서 기존 안심이 앱의 정보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안전민감도가 가장 높은 청년여성 1인가구를 핵심대상으로 선정하고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 긴급전화1366, 택시안심귀가, 지하철보안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각 여성안전정책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 예컨대 이용가능시간대와 이용가능장소, 설치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이용률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가로등 및 CCTV 미설치로 인한 후미진 지역을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확보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안심이」 앱의 기능 확대·강화를 통한 여성안전정책 활성화

• 「안심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절차 간소화

- 현재 안심이 가입을 위해 본인인증, 이름, 성별, 생년, 보호자 이름 및 전화번호, 관리구청, 목적지, 본인사진 등 총 11개의 정보를 입력해야함 → 접근성 감소

-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안심귀가스카우트로 제한적임

구분	현재 안심이 앱	개선(안)
가입절차	본인인증, 이름, 성별, 생년, 보호자 이름 및 전화번호, 관리구청, 기본 목적지, 사진, 본인 전화번호 등 총 11개 항목	**개인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절차 간소화** ※ 안심귀가 및 스카우트 서비스 사용자에 한하여 위치정보 공유,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이용가능 프로그램	안심귀가서비스, 스카우트서비스	안전정책 좌동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정보제공(신설)** ※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가능시간 및 장소 여성안심지킴이집 위치 등 **안전시설 미설치 지역 신고서비스(신설)** **치안시설 위치(신설)** **소화기, 완강기 사용법(신설)** **재난·재해 시 위급상황 대처법(신설)** **동단위 안심지도(신설)** ※ 안심지도 만들기는 공모사업을 통해 실시

-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가능시간 및 장소, 여성안심지킴이집 위치 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전반적 정보제공
- 지역 내 CCTV, 가로등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후미진 곳 안전시설 추가 신청 기능 탑재 및 셉티드 사업 시 우선 고려
- 지역 내 치안시설의 위치, 지역 내 안심지도 제공

  ※ 안심지도 만들기는 시민 공모사업 후 그 결과를 통합서비스 앱과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을 통해 배포)

- 소화기, 완강기 사용법, 재난, 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 시 대처 매뉴얼 제공
- 1인가구 밀집지역 지하철 역사 내 앱 홍보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안심이 앱 기능강화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안심지도 공모사업	시행(38)[1)]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위급상황 대처 매뉴얼	1,000부(5)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63	5	5	5	5

1) 자치구별 공모사업 100만원, 마련된 안심지도 제작 50만원(인포그래픽스)

(신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핵심정책대상	○ 안전취약 1인가구
추진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협조부서	○ 주택정책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의 54.0%는 연립/다세대 또는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주거형태보다 더욱 주거지 불안을 크게 갖는 결과를 보였다.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32.3%)가 불안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중은 자가(16.6%)에 비해 전세(12.2%), 반전세(11.7%), 보증금 월세(10.2%), 사글세(7.4%)로 낮아져 세입자의 안전시설 확보 문제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집수리닷컴(집수리센터)을 통해 드릴세트, 공구세트, 사다리 등의 공구 임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나 1인가구가 밀집된 관악구에 0개소, 강남구에 1개소로 이용에 제약적이다. 특히 공구임대 서비스의 시간은 주중 9시~18시로 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의 경우 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더불어 자가 수리를 위한 기존 집수리사업의 기능 확대가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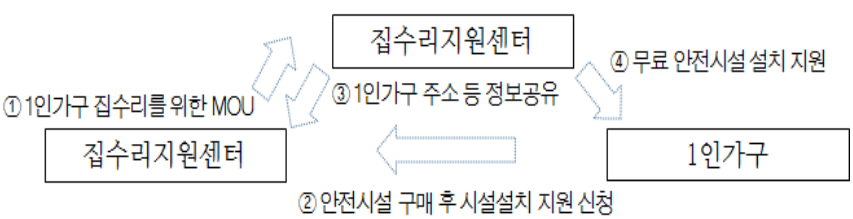
□ 사업내용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안전과 직결되는 방범창, 도어락, CCTV, 자동감지센서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발생된 비용의 일정부분을 집주인과 서울시가 보존하여 1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집주인의 참여유도를 위해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과 연계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안심이」 앱 내에 안전한 주거지로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 안전취약 여성 1인가구 중심의 안전시설 설치지원(직접 지원)

- 1인가구 대상 안전시설 수요조사 및 대량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집수리닷컴과 연계하여 안전시설 설치인력 확보
- 자동감지센서등, 도어락 등 거주자 직접 구매 → 설치인력 또는 공구 지원

▌그림 Ⅴ-5▐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운영방안(안)



○ 집주인 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방범창, 자동감지센서등, 도어락 설치비용의 50% 보존(최대 5만원)
- '우리 동네 1인가구 맞춤 부동산'과 연계한 적극적 홍보
- 「안심이」 앱 내에 안전한 주거지 소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안전시설 수요조사	수요조사(37.5)	-	-	-	-
시설구매 (직접 지원 시)	준비	1,000가구 (100)	1,000가구 (100)	1,000가구 (100)	1,000가구 (100)
시설비용 (간접 지원 시)	-	100가구(50)	100가구(50)	100가구(50)	100가구(50)
총 소요예산(백만원)	37.5	100	100	100	100

1) 자치구별 공모사업 100만원, 마련된 안심지도 제작 50만원(인포그래픽스)

(신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안전교육을 통한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 1인가구 경제적 자립지원
핵심정책대상	○ 안전취약 1인가구 및 저소득 1인가구
추진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22.5%는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는 남성 1인가구 13.4%보다 9.1%p 높다. 이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어려움에 있어 남성의 0.8%가 성폭력, 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진 반면 여성 1인가구는 11.2%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청년여성 1인가구의 21.7%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보여 가장 안전에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거지 안전시설 미비와 더불어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불안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안전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경찰의 순찰횟수 증가 및 늦은 시간 귀갓길 지원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음으로 높은 요구를 보여 안전한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보였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시민순찰대를 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순찰대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배치하고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발

하여 1인가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시민순찰대를 활용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때에 따라서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여성안전정책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위급상황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지원하여 1인가구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이들이 집중 거주하는 원룸/고시원,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안내 및 교육(소화기, 완강기 사용법, 대피방법 및 경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지역 내 시민순찰대 결성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시범사업)

•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시민순찰대(중장년 1인가구 중심) 결성

구분	시민순찰대(안)
구성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2인 이상(자치구당 10명)으로 구성 ※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
역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순찰강화 및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시간 확대 지원 ※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시간 월요일 22시~24시, 화~금요일 22시~01시. 시민순찰대 운영을 통해 낮시간 등 탄력적 운영 지역 내 후미진 곳 발굴 위급상황 시 지원(의료기관동행 등)

○ 원룸/고시원, 오피스텔 등 재난 대응 안내 의무 배치

• 소화기, 완강기 사용법, 비상 시 대피방법 및 경로 등 교육실시

•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한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시민순찰대	모집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위급상황 안내 책자	제작(10)	-	-	-	-
총 소요예산(백만원)	10	884.2[1)]	884.2	884.2	884.2

1) 생활임금 9,211원 × 4시간 × 8회(주당 2회) × 250명(자치구당 10명) × 12개월

(신규)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핵심정책대상	○ 중증장애인 1인가구
추진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비상재난본부

□ 현황 및 추진배경

장애 1인가구 FGI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재난에 무방비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해 지진사고로 인해 화재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장애 1인가구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등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대피요령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것들이므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더더욱 위험에 처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요령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장애인을 위한 정보가 전무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나 재난관리 체크리스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사업내용

건물 내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장애인 1인가구 대피요령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내 비상시 장애인 대피요령 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비상벨 지원을 제안한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1인가구의 위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해 이웃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 국민안전처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내 장애인 재난예방 대피요령 마련
  • 거주지 내 화재 시 도움요청 방법(저층/고층), 지진 시 행동 등 장애인 매뉴얼 마련

○ 중증장애인 1인가구 이웃결연사업 실시(시범사업 실시)
  • 중증장애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대상
  • 공동주택거주 중증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앞집, 옆집 또는 위·아래 집 이웃과 결연사업 실시 → 위급상황 시 중증장애 1인가구 옥상으로 이동 등 지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대상	중증장애인 1인가구 인근 이웃(앞집, 옆집, 위·아래 집)
활동내용	위급상황 시 중증장애인 1인가구 대피 지원
진행절차	① 중증장애인 1인가구 이웃 중심 신청서 송부(복지본부)
	② 신청내용 확인 및 대상자 연결(동주민센터)

○ 위급상황 대비를 위한 중증장애인 1인가구 거주지 내 비상벨 설치지원
  • 이웃결연 및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1인가구 중심
  • 재난·재해 시 이웃, 공동주택 경비실, 119, 동주민센터 등으로 연결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이웃결연(명)	100	300	500	700	1,000
장애인 대피요령 마련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비상벨 설치지원(개)	100	500	1,000	1,500	2,000
총 소요예산(백만원)	101)	50	100	150	200

1) 응급상황 비상벨 1,00,000원 × 비상벨 설치지원 수

3.4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삶 구현'

(확대·강화)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서비스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을 통한 1인가구 건강증진 ○ 독거노인의 의료보건기관 이용 활성화
핵심정책대상	○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기초수급권자를 제외)
추진부서	○ 어르신복지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은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80.7%는 의료·보건기관을 혼자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령층은 신체건강 상태가 낮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가진 비중 40.0% 이상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고령 1인가구는 다른 세대보다 더욱 의료·보건기관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1인가구는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혼자가거나 자녀 또는 손자녀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이들에게 의료·보건기관 방문 시 동행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남성 1인가구 52.5%, 고령여성 1인가구 54.7%는 의료·보건기관 이용 시 예약절차 또는 이용절차, 먼 거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의료·보건기관 이용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통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 서비스, 위생·청결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건강 체크, 한방치료 등), 영양서비스, 기능회복 서비스(물리치료, 운동치료, 발마사지 등), 이동서비스(모셔오기, 모셔다 드리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를 제외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일반 노인질환자(등급외자)에 대해 이용요금(등급외자 월 27만 5천원 이내)을 부과하고 있다. 즉 이동서비스만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의 불편한 1인가구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케어센터의 여러 서비스 중 이동서비스에 한하여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1인가구 시민순찰대', 자치구별 데이케어센터와 연계하여 고령 1인가구 및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의료·보건기관 이용을 지원한다. 특히 현재 데이케어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 이동서비스만을 필요로 하는 _대상으로 이동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1인가구가 가진 의료·보건기관 이용절차와 예약의 불편함, 먼 거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동행서비스 및 병원예약 및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 진료가능 질환의 경우 우선적으로 보건소를 활용하여 고령 1인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 고령 1인가구 중심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서비스 실시

- 긴급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핫-라인 설치 (동주민센터)
- 고령 1인가구를 포함한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1인가구 시민순찰대 또는 해당 자치구 데이케어센터로 연계
-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 의료·보건기관 동행서비스(데이케어센터 서비스 중 일부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고령 1인가구에게도 무료 제공), 병원예약 및 이용지원
- 보건소 진료가능 질환 시 보건소 우선 동행서비스 (의료비 절감)

구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개선(안)
대상자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자 (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질환자)	좌동
이용시간		• 월~금요일 8시~22시 • 주말 및 휴일은 시범운영기관에 한정	좌동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함(최대 48,800원, 최저 20,840원) • 기초수급권자: 무료 • 일반 노인질환자(등외자): 27만 5천원 이내	좌동
	서비스	치매 전문 서비스(유료)	치매 전문 서비스(유료)
		위생·청결서비스(유료)	위생·청결서비스(유료)
		건강지원 서비스(유료)	건강지원 서비스(유료)
		영양서비스 및 기능회복서비스(유료)	영양서비스 및 기능회복서비스(유료)
		이동서비스(유료)	**이동서비스(무료전환)** ※ 이동서비스(의료기관 동행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대상자에 무관하게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 대상 무료지원.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고령 1인가구에 대해서도 서비스 필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핫라인 설치	준비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0	0	0	0	0

(확대·강화)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운영 확대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의료·보건기관 이용가능 시간 확대를 통한 1인가구 건강증진 ○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핵심정책대상	○ 경제활동 1인가구
추진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 중 스스로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8.6%이며, 정신건강 역시 53.5% 수준이었다. 이처럼 낮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비중은 70%를 보여 경제활동 1인가구의 의료·보건기관 이용가능 시간은 늦은 저녁 또는 주말에 제한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간 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을 45개소[15] 확보하였으나 1인가구가 집중된 관악구 2개소, 강남구 1개소, 노원구 3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의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 내과 등으로 이용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서울시 1인가구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료과목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1인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

15) 자치구별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치구별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현황

자치구별 야간휴일 클리닉 현황	강동구(3), 중랑구(3), 성동구(3), 노원구(3), 은평구(3), 송파구(3) 광진구(2), 동대문구(2), 성북구(2), 서대문구(2), 동작구(2), 관악구(2), 서초구(2), 용산구(2), 강북구(1), 도봉구(1), 마포구(1), 양천구(1), 강서구(1), 구로구(1), 금천구(1), 영등포구(1), 강남구(1), 종로구(1), 중구(1),

□ **사업내용**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료·보건기관 방문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봉사 비영리단체, 의료관련 NGO 등과 연계하여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중 정기야간 서비스를 실시하며 혈압, 당뇨 등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함께 진료한다. 특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가능 시간, 장소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전입신고 시 이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야간·휴일 클리닉의 경우 1인가구 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다.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청년 1인가구가 밀집된 관악구의 경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야간상담을 마련하고 신체건강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 밀집지역 노원구는 정형외과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 의료단체와 연계한 1인가구 밀집지역 주중 정기야간 서비스 운영

- 글로벌케어 등 의료봉사 비영리단체, 의료관련 NGO 등과 연계하여 주중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야간의료서비스 제공

  ※ 인근 의료기관과의 마찰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사전조율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혈압, 당뇨, 관절 등의 검사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정신관련 질환 진료
- 찾아가는 정기적 의료서비스의 검사내용, 방문시간 및 장소 등을 포함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전입신고 시 정보제공 용이하도록 동주민센터에 배치)

○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확대

- 관악구, 강남구, 노원구 등 1인가구 밀집지역 야간·휴일 클리닉 의료기관 확대
-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등
- 신체건강에 가장 취약한 고령 1인가구 밀집지역 노원구: 정형외과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의료단체 연계	발굴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0	0	0	0	0

(신규) 1인가구 건강 동아리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 동아리 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어르신복지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사회적 관계망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결과를 보였으나 서울시 1인가구의 74.2%는 혼자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신체 건강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청년층 및 중장년층과 고령세대가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세대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1인가구는 여가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꼽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드러났다.

▫ 추진근거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업내용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등록된 동아리(1인가구 5인 이상으로 구성)에 한하여 지역체육시설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활동시설, 자치구별 다목적체육센터, 지역 내 체육

활동 시설과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원하는 주말을 활용하여 호신술, 위급상황 시 대처 등의 강의를 지원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 더불어 경로당을 지역거점 건강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한 세대융합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1인가구 건강동아리 체육활동 지원

• 지역체육시설(자치구별 다목적 체육센터, gym, 수영장, 볼링장 등)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비 일부 지원(최초 등록 시 최대 1인당 2만원 지원)

※ 5인 이상의 1인가구 동아리 등록 후 연계된 지역체육시설 이용 시 20% 할인

• 의료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1인가구 건강관련 프로그램 마련

○ 여성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지원(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시범사업)

• 주말을 활용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동주민센터에 자기방어훈련 강사 지원

※ 5인 이상의 1인가구 동아리 등록 후 신청 시 강사지원. 호신술, 위급상황 시 대처 등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용대상자 확대를 통한 세대융합형 건강 지원

•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 가입한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대상을 2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세대융합 지원

구분	기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개선(안)
대상자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 가입한 어르신	**20세 이상 서울시민(확대)**
활성화 프로그램	한방침술,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등	좌동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1인가구 동아리 기준	준비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역체육시설 연계	발굴	시행(25)[2]	지속	지속	지속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시행(3.6)[1]	확대시행(10.8)[3]	확대시행(18.0)[4]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3.6	35.8	43.0	43.0	43.0

1) 강사료 1회 3시간 30만원 × 12개월(월 1회) × 1개 자치구
1) 2만원 × 50명 × 25개 자치구
2) 강사료 1회 3시간 30만원 × 12개월(월 1회) × 3개 자치구
2) 강사료 1회 3시간 30만원 × 12개월(월 1회) × 5개 자치구

(신규)	‘1인가구 생활상식 ABC’ 마련 및 배포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흔히 ‘혼밥’으로 상징되는 1인가구의 식습관은 편의점 및 배달음식 이용과 식사를 거리는 것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가 불가능한 고시원에 거주자는 라면만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음주로 식사를 대신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습관의 장기화는 1인가구 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 주거,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여러 영역에 걸쳐 1인가구이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불규칙한 식습관 개선,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동네부엌 등), 주거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1인가구 생활상식 ABC’를 만들어 제공하여 정책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업내용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학 및 건강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식습관 및 영양, 음주습관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한다. 또한 성별과 세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 및 검진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1인가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건강관련뿐만 아니라 1인가구로 살아감에 도움이 되는 안전, 주거, 사회적 관계망 등

상식,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1인가구 생활상식 ABC’ 마련 및 배포

- 의학 및 건강관련 전문가 의견을 통한 식습관 및 영양, 음주습관 등에 관한 정보 마련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 및 검진정보 제공
-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공동부엌, 텃밭 가꾸기, 건강관련 동아리 등 정보 제공
- 주거안전, 신체건강,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제공
- 이밖에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정보

구분	내용(안)
건강 ABC	• 생애주기별 필수 건강검진 목록 • 영양과 식습관 체크리스트 • 안전한 음주 가이드 • 24시간 응급 진료기관 목록 • 정신건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주거 ABC	• 안전한 임대차계약 가이드 • 집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보 • 공동체 주거 정보 • 정리정돈 팁
안전 ABC	• 재난시 안전 행동수칙 • 범죄피해시 대응요령 • 재난시 안전 행동수칙 • 우리동네 안전지도(지역별)
생존 ABC	• 집밥 레시피 • 간단한 집수리 상식 • 자동차 안전 상식 • 1인가구를 위한 필수 앱 소개 • 우리동네 공동체지도: 마을카페, 공유공간, 주민동아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1인가구 생활상식 ABC 연구	시행(30)	-	-	-	-
책자제작	-	시행(15)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30	15	15	15	15

4.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4.1 '따로 또 같이 하는 따듯하고 풍요로운 삶 실현'

(신규)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사회적 고립 고위험 집단의 위기상황 예방 및 고독사 방지 ○ 1인가구 정책 사각지대 해소
핵심정책대상	○ 사회적 고립위험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1인가구 중에서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 건강이상,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 남성들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드러났으며 면접조사 결과 실제로 고시원 거주 중장년 남성들은 고독사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돌봄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니거나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경우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1인가구를 발굴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 사업내용

고립위험 1인가구 발굴을 위해 자치구별 고시원 및 쪽방촌을 중심으로 고립위험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고위험 1인가구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과 쪽방촌이 밀집된 자치구 및 동 단위 지역 내 건물관리인, 지역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등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한다.

○ 고립위험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별 고립위험 1인가구 밀집지역(고시원, 쪽방촌) 현황 파악
- 동장 1명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물관리인, 지역상인, 통장, 파출소, 소방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병원, 사회복지지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성: 발대식 등 모임비용 지원
- 지역 내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조치, 성공 사례 등 공유(월 1회 회의)

○ 고립위험 1인가구 위기상황 대응 지원
- 고립위험 1인가구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관리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 고립위험 1인가구(중장년남성 1인가구 중심) 자조모임 형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네트워크 구성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자조모임 형성 지원	준비[1)]	시행	확대시행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0	11	22	22	22

1) 지역내 고립위험 1인가구 발굴
2) 지원비용(100만원*10개모임)+운영비

(신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유도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1인가구는 혼자 거주하지만 친밀성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1인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원가족, 친구 또는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적 고립은 고민 등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경우 즉 정서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광의의 정의를 적용했을 때 서울시 1인가구의 25.8%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가,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더욱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고립 방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환경은 부족하다. 인터뷰 결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간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실제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위한 정책요구에 있어서도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26.5%)', 다음으로 '현 거주지 옥상 등 공간에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19.2%)'순으로 높았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공간마련 요구가 26.5%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공간지원은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으로 기대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 **사업내용**

공간지원을 통한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시원과 원룸건물의 옥상을 활용하도록 한다. 1인가구와 고독사 고위험군이 밀집해 있지만 공용공간은 부족한 고시원과 원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1인가구의 참여활성화와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물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장소로 개방함하고 고령층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세대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옥상개조 프로젝트 지원
  - 고시원, 연립/다세대 옥상을 개조하여 고시원에 거주하는 고립된 개인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입주자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개조 기획 공모 후 평가에 따라 대상 선정
  - 공간개조 실비 지원
  - 개조된 공간은 1인가구 지역거점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바리스타 교육 및 함께 차 마시기, 가죽공예 등)
  - 공간개조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코디네이터 지원(공동체 주거 코디네이터 양성사업과 연계)

○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마을 공동공간 및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
  -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물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장소로 개방
  -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개방하여 세대교류의 장으로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공간 지원	시행 5곳 (150)[1]	확대시행 10곳 (300)	확대시행 15곳 (450)	확대시행 20곳 (600)	확대시행 25곳 (750)
프로그램 지원	시행(15)[2]	시행(30)	확대시행(45)	확대시행(60)	확대시행(75)
총 소요예산(백만원)	165	330	495	660	825

1) (바닥데크 2,400만원 + 파고라/캐노피 500만원 + 조명시설 100만원) × 5곳 (시범사업)
2) 50만원 × 6회 × 5곳

(확대·강화) **마을 공동부엌 활성화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 증진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유도
핵심정책대상	○ 중장년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식사 문제는 1인가구들에게 취약한 점 중 하나이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편의점 음식과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요리를 포함한 가사활동에 취약하기까지 해서 식사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 1인가구의 불규칙한 식생활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몇몇 자치구 및 타지역에서는 마을부엌과 소셜다이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문제 등을 보이고 있는데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 공동체 참여를 유도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업내용

공동으로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일상생활 지원 차원에서 집밥 노하우를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공동부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공간, 즉 지역의 문화센터, 조리학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지역 조리시설과 연계한 1인가구 공동부엌 마련

• 지역 내 조리학원, 쿠킹클래스, 문화센터, 마을부엌 등 시설 연계

※ 문화센터 쿠킹클래스 수강료 2만원, 재료비 2-3만원, 이 중 일부 지원

• '함께 만들고 함께 먹기' 프로그램 운영

○ 고시원 주방 및 취약계층 대상 반찬 나누기 실시

• 공동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고시원 옥상개조 사업으로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기 프로그램 운영

• 기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확대하여, 조리시설과 음식이 취약한 조리원에 반찬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조리시설연계 공동부엌	자원조사	시행(15)	확대시행(30)	지속	지속
고시원 주방 반찬제공	준비주체 발굴	시행	확대시행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0	15[1)]	30[2)]	30	30

1) 2만원 × 50명 × 5회 × 3개자치구
2) 2만원 × 50명 × 5회 × 6개자치구

(신규) 다양한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의 친밀성 욕구 충족, 여가시간 활용, 유대감 강화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유도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 현황 및 추진배경

1인가구는 독립적 생활의 자유를 향유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유대와 상호 보살핌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유지·확대 욕구에도 불구하고, 각종 친목모임이나 취미 동호회를 근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입과 활동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비혼, 1인가구, 청년세대가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안전 확보, 친밀성 욕구 충족, 사회활동 기회 마련과 동시에,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들의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할 경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도록 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업내용

1인가구 공동체 공모를 통해 활동목적이 뚜렷하고 활동을 통한 1인가구 유대 형성이 기대되는 공동체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관련 회계·행정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느슨한 연대라

할지라도 모임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1인가구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주제 - 살림, 취미·여가, 건강, 반려동물 등 -를 폭넓게 제시하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함께 하는 모임, 또래모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모임을 추동한다. 또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공간, 강사 지원 및 여행사 등 지역 업체와 연계 지원을 고려하고,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우리 동네 1인가구 텃밭 공동체' 운영
  • 서울시 내 유휴지, 동주민센터 옥상 등을 텃밭으로 활용
  • 텃밭 관리에 필요한 물품(모종삽, 물뿌리개 등)과 비용(2만원) 지원
  • 공통된 관심사를 통한 유대감 형성 및 간접적 소셜다이닝 효과
○ 학습 동아리 지원
  • 1인가구 살림 노하우, 안전 노하우, 건강 노하우, 집수리 노하우, 차량정비 노하우 등 정보공유와 인문학 강좌·독서 동아리 등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모임
  • 강사 지원(다수 동아리 동시 지원 가능), 기존 평생학습기관 등의 강의실 지원
○ 기타 다양한 취미동아리 활동비용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동아리 공모 및 지원	준비[1)]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0	60[2)]	60	60	60

1) 지원사업선정 기준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2) 활동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평균 150만원*40개모임

(확대·강화)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이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안정적 정착 지원
핵심정책대상	○ 저소득 이주 1인가구
추진부서	○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다문화지원센터

▫ 현황 및 추진배경

다문화 배경 1인가구가 혼자 살면서 경험하는 장단점은 여타 1인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은 1인가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체류자격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권리 제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문화 배경 1인가구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 다양한 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선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드러났다. FGI를 통해 특히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소통과 교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났다. 다문화 배경 1인가구와 선주민 모두에게 이웃 커뮤니티 형성은 문화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며, 다문화 배경 1인가구들이 좀 더 쉽게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다문화 커뮤니티(자조모임) 또는 멘토링 지원사업들이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들, 즉 결혼과 가족 테두리 안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그 대상의 초점을 확대·이동하여, 이혼·사별·취업·유학 등으로 인해 혼자 살아가게 된 다문화 1인가구들이 선주민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사업내용

기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주민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매칭 및 모임활성화를 위해 장소, 물품,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시부모, 배우자 등 가족단위 중심의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대상자에 이주 1인가구를 포함하여 이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정착을 지원한다.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대상자 확대 및 강화

- 기존 사업대상자 확대: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및 선주민
-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매칭* 및 모임을 위한 장소대관, 운영물품, 공동체자문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등을 위한 운영비용(200만원/년) 지원

  ※ 이주 1인가구 및 선주민 모임은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시 지원대상자로 함
- 이주 1인가구와의 매칭을 위한 선주민의 경우 연 1회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시적 또는 공동체 활동 참여희망자 이주 1인가구 추천을 통해 참여

구분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개선(안)
대상자	•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및 선주민** ※저소득 외국인주민 우선 고려
지원내용	• 장소대관, 운영물품, 공동체자문 등	• 장소대관, 운영물품, 공동체자문 등 • **모임을 위한 운영비용(200만원/년)** ※문화교류 등을 위한 비용 •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매칭**
모집방법	• 연 1회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 연 1회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외국인) • **상시 및 이주 1인가구 추천(선주민)**

○ 다문화지원센터 사업대상자 확대

- 기존 가족단위 사업대상자에서 개인단위(이주 1인가구)로의 확대

구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선(안)
대상자	• 결혼이민자, 시부모, 배우자, 일반시민	• 결혼이민자, 시부모, 배우자, 일반시민 • **이주 1인가구**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모임지원(개)	시행	확대시행	지속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20[1)]	40	40	40	40

1) 10개 모임 × 200만원 = 2,000만원 (모임별 200만원/년 지원)

4.2 '주거공동체와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 구현'

(신규)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정책목표**

○ 공동체주택 정책수요를 고려한 공동체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제공

○ 민간영역에서의 공동체주택 사업 참여 지원

○ 공동체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공동체주택 정책수요를 고려한 공동체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제공 ○ 민간영역에서의 공동체주택 사업 참여 지원 ○ 공동체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핵심정책대상	○ 공동체주택 사업참여자 및 공동체주택 거주자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협조부서	○ 주택정책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는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을 위해 2017년 7월 13일「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주택의 위치, 안전, 커뮤니티 공간, 규칙 등 1인가구의 공동체주거욕구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다. 또한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 시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해 2% 이내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을 위해서 공동체주택의 공간계획과 공간운영계획을 심사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주택 활성화와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위해 공동체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업내용**

서울시 1인가구의 높은 정책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생활보장, 안전, 비용, 커뮤니티 공간,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동체 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서울형공동체주택을 인증받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체공간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동체주택 분쟁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마련 및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 공동생활구역(거실, 주방 등) 청소 역할분담, 비품 및 청소기구 사용, 주차, 방음, 친구초대, 반려동물 유무 등 타인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관리규약 마련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구분	세부내용(안)	대상
관리규약	• 공동생활구역 청소 역할분담 • 비품(조리기구, 주방용품 등) 및 청소기구 이용 • 주차공간 이용에 대한 거주자 간 상호협의 • 개인 사생활공간에 대한 간섭금지 •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제약 • 외부인 방문에 대한 규칙 ※ 외부인 출입금지 혹은 공유부엌이나 거실까지 방문, 가족은 하루 숙박 허용 등 외부인 방문에 대한 규칙 필수 • 반려동물에 대한 거주자 간 상호협의	기존 및 신규 공동체주택 등
가이드라인	• 대중교통과의 가까운 거리 • 인근 원룸 월세보다 낮은 비용 • 공동체 프로그램 마련 ※ 함께 요리하기(월), 함께 여행가기(반기), 공동의 취미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 기업 및 신규 공동체주택

구분	세부내용(안)	대상
	동 공유 등 공동체 프로그램 마련 •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실내 커뮤니티 공간 확보 • 공동체주택 거주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공동체주택 주 출입구, 창문 등 안전시설 설치	

※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 시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해 2% 이내 이자보전함. 인증을 위해서 공간계획(공동체공간), 공간운영계획(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포함됨.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공동체 주거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 공동체 주거 관련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NGO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교육 및 인증

•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력 및 정기적으로 공동체주택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여가·건강 활동 등)

- 입주전: 공용공간 디자인, 생활계획 구상, 입주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비 거주자 워크숍 및 정례모임 지원

- 입주후: 정기모임 지원, 동아리 및 자치회 조직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공동체주택의 공동공간을 지역시민에게 개방(정기·부정기 이벤트)하여 공공성(1인가구 공동체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교류기회 마련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이웃기웃'에서는 주차장 수익사업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화합 노력

○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보 통합제공

•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체주택, 민간공동체, 서울형공동체주택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공동체주택 가이드라인	준비	시행	지속	지속	지속
공동체주거 코디네이터 양성	30명 (35)	30명 (35)	30명 (35)	30명 (35)	지속
공동체주거 홍보 웹페이지	구축(4)	지속	지속	지속	지속
프로그램 운영	-	시행(10)[1)]	확대시행(20)	확대시행(30)	확대시행(40)
총 소요예산(백만원)	39	49	59	69	79

1) 공동체프로그램 100만원, 총 10개의 공동체주택을 대상으로 함. 추후 연차별 10개의 공동체주택으로 확대

(신규)	1인가구 건강 동아리 지원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 동아리 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어르신복지과

▫ 현황 및 추진배경

사회적 관계망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결과를 보였으나 서울시 1인가구의 74.2%는 혼자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신체 건강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청년층 및 중장년층과 고령세대가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세대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1인가구는 여가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꼽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드러났다.

▫ 추진근거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사업내용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등록된 동아리(1인가구 5인 이상으로 구성)에 한하여 지역체육시설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활동시설, 자치구별 다목적체육센터, 지역 내 체육

활동 시설과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원하는 주말을 활용하여 호신술, 위급상황 시 대처 등의 강의를 지원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 더불어 경로당을 지역거점 건강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한 세대융합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1인가구 건강동아리 체육활동 지원

- 지역체육시설(자치구별 다목적 체육센터, gym, 수영장, 볼링장 등)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비 일부 지원(최초 등록 시 최대 1인당 2만원 지원)

  ※ 5인 이상의 1인가구 동아리 등록 후 연계된 지역체육시설 이용 시 20% 할인

- 의료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1인가구 건강관련 프로그램 마련

○ 여성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지원(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시범사업)

- 주말을 활용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동주민센터에 자기방어훈련 강사 지원

  ※ 5인 이상의 1인가구 동아리 등록 후 신청 시 강사지원. 호신술, 위급상황 시 대처 등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용대상자 확대를 통한 세대융합형 건강 지원

-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 가입한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대상을 2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세대융합 지원

구분	기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개선(안)
대상자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 가입한 어르신	**20세 이상 서울시민(확대)**
활성화 프로그램	한방침술,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등	좌동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1인가구 동아리 기준	준비	시행	지속	지속	지속
지역체육시설 연계	발굴	시행(25)[2]	지속	지속	지속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시행(3.6)[1]	확대시행(10.8)[3]	확대시행(18.0)[4]	지속	지속
총 소요예산(백만원)	3.6	35.8	43.0	43.0	43.0

1) 강사료 1회 3시간 30만원 × 12개월(월 1회) × 1개 자치구
1) 2만원 × 50명 × 25개 자치구
2) 강사료 1회 3시간 30만원 × 12개월(월 1회) × 3개 자치구
2) 강사료 1회 3시간 30만원 × 12개월(월 1회) × 5개 자치구

5. 사회적 인정과 존중

5.1 '인식과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

(신규)	1인가구 공동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관계망 강화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협조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협력팀

□ 현황 및 추진배경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를 위해 기존 관계망 유지와 새로운 관계 형성 시도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안전, 일상적인 생활공유, 정서적 교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1인가구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면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1인가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커뮤니티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커뮤티니 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진근거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1인가구 커뮤티니 사례를 발굴하고 활동 동기, 내용, 구성원 소회 등을 정리하여 책자 발간, 미디어 기사 게재 등의 방법으로 확산한다. 취미와 여가 공동체, 주거 공동체, 건강 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가, 지역 여성단체, 청년단체, 노인복지관 등의 통로를 활용한다. 제작물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의 공간에서 배포하고 관련기관 뉴스레터 기사, 북토크 개최 등의 방식으로 홍보한다.

○ 1인가구 커뮤니티 사례 모음집 발간

- 커뮤니티에 관심있는 1인가구에게 동기부여
- 1인가구의 다양한 삶과 적극적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심화
- 드러나지 않은 모범사례 발굴
- 해당 커뮤니티들에게는 활동 정리와 성찰의 기회 제공
- 1인가구 및 지역공동체 활동 관련 기관을 통해 배포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사례모음집발간	공모	시행	평가	-	-
총 소요예산(백만원)	-	30[1)]	-	-	-

1) 원고료 및 인쇄·제작비

(신규)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서울시민의 가족다양성 이해와 존중 의식 고취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및 서울시민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협조부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현황 및 추진배경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자 산다는 이유로 편견, 차별, 무시를 경험했다는 1인가구가 53.5%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지속적인 결혼강요(15.2%)와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3.6%) 등이 있었다. 비혼여성의 경우, “골드미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한편 “히스테리”를 가진 존재로 폄하되기도 한다.

1인가구는 미디어와 시장에서 대세로 부상한 반면에 여전히 부족, 불완전, 결핍, 이탈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곤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 즉 결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부-자녀 가족을 정상가족이라 여겨온 것과 관련이 있다.

1인가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차원의 제한된 정책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선택의 존중’이야말로 1인가구의 삶과 여타 가구형태를 선택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 추진근거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시민대학(2018년부터 '자유시민대학'),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 등에서 관련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1인가구 및 가족 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

- 시민대학, 마을공동체 교육 등에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 '가족의 미래', '싱글턴 부상의 의미' 등 강좌 유치
- 전문 강사 확보
- 왜곡된 1인가구 이미지에 대한 모니터링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시민교육	준비[1]	시행	지속	지속	평가·환류
총 소요예산(백만원)	2[2]	비예산			

1) 교육현황 및 수요조사
2) 조사비

(신규) 가족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가족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정책 수립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협조부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현황 및 추진배경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단순히 현재의 1인가구 해당자 이슈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가족의 기능, 구조,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넓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 형태를 대신하여 다양한 형태(1인가구, 혼인 외 파트너십, 공동체 가족 등)의 가족이 부상하고 있어, 가족구조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젠더모델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장래에도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서울시 1인가구 기초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1인가구 실태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한 현상의 파악과 장기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추진근거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서울시 1인가구 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족” 개념에 대한 구체적 논의, 가족형태 및 기능의 다양화에 대한 시민 인식 파악, 비혈연 가구 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 가족중심적 복지체계와 돌봄 관계망의 재구조화 논의, “정상가족” 외 가족/개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연구를 실시한다.

○ 가족환경변화 대응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 비혼인·비혈연가족(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가족-동거가족, 비혈연 공동체 등)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
- 가족에 관한 서울시민 의식 조사
- “사회적 가족” 개념과 실현 방식에 대한 학계·현장의 논의 심화

○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2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1인가구 정책사업 홍보 강화
- 1인가구 관련 사업 모니터링과 개선요구사항 점검
- 후속 과제 도출을 위한 소규모 조사·연구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가족환경변화대응 연구	준비	시행(30)	확산[2]	-	-
기본계획 2차 수립 준비	정책홍보	지속	사업 모니터링(2)	기초조사	본조사
총 소요예산(백만원)		30[1]	2[3]	20[4]	80[5]

1) 연구용역비
2) 공론화(보도 및 토론)
3) 조사비
4) 연구용역비(10×2과제)
5) 연구용역비

(신규) 가족통합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부서 설치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서울시 1인가구 정책지원의 효율성 향상
핵심정책대상	○ 1인가구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협조부서	○ 가족통합지원센터

□ 현황 및 추진배경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서울시 가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0년에는 _%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예측 증가추세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1인가구가 서울시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1인가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위한 인력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추진근거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업내용

가족통합지원센터 내 1인가구 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1인가구 지원부서' 신설 및 인력을 배치한다. 소요인력은 1인가구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자 1명과 영역별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3명이 요구된다. 이들은 1인가구 기본계획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연도별 사업 평가 및 환류, 자치구별 1인가구 특성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 일자리,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인식개선, 기타영역 인력배치

- 1인가구 사업 총괄 1명 및 영역별 사업담당인력 3명 배치
- 자치구별 1인가구 특화사업 발굴
-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연도별 평가 및 환류

(신규)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개정

□ 정책목표 및 대상

정책목표	○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부서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1인가구 지원기본조례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1인가구를 정상적인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1인가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채택하게 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족을 인정함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혈연이나 혼인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서 가족의 개념전환에 기여하고 가족정책의 지평을 넓혔다. 셋째, 1인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과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5년 단위로 1인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1인가구 정책으로서 소셜다이닝, 공동생활가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적 실현방안을 규정함으로서 1인가구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을 하였다. 다섯째, 서울시의 혁신적인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과 함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실행하면 보다 혁신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정의미를 가진 조례이지만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연령별, 성별 등에서 생활실태 및 정책요구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1인가구 정책이 연령 및 성별 등을 제고하여 수립되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인가구 대상 정책이 보다 구체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조례의 보완·개정이 요구된다.

□ **사업내용**

1인가구 실태조사 시 연령별, 성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조례 제9조에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1인가구 유입경로, 현재 처한 상황 내지 생활실태 등이 다르므로 이들의 정책욕구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이며 특히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선택 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 명확한 성별차이를 보인다. 중장년층은 경제지원 내지 취업지원정책 등을, 고령 1인가구는 건강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 시 연령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1인가구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정책욕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실태조사 시 이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개정안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명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가구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는 2016.3.24. 조례 6192호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개정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는 2016.5.19. 조례6225호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관련조례 조항도 바뀌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 1인가구는 특히 주거 등에서의 안전에 대한 정책욕구가 강하므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등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8호에 있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매우 중요하므로 8호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별개의 호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1인가구 복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지원 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단체 기관지원사업 7. 1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1인가구 복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지원 사업 3.「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5.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6. 소셜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7.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지원사업 8. 1인가구 복지 관련단체 기관지원사업 9. 1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참고문헌

R. Kelly Raley·Larry Bumpass. 2003. “The topography of the divorce plateau:Levels and trends in union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after 1980”. Demographic Research 8: 245-260.

김명숙. 2016. “고독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독생’을 돌아보자”.『복지이슈Today』 42: 9.

김영정.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영정·장진희. 2017. “서울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혜영.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한국사회』 15(2): 55-94.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가족과 문화』 20(2): 37-63.

김혜영·선보영·진미정.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건.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송인주. 2016. “서울시 고독사 통계와 의미”.『복지이슈Today』 42: 10-11.

송제숙(황성원 역). 2016. “혼자 살아가기”. 파주: 동녘.

우해봉. 2011. “소득과 기대여명”.『보건사회연구』 31(2). 60-94.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이진숙·이윤석. 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인구학』 37(4): 1-24.

장진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홍현진·강민수. 2016.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1인가구를 위한 마을사용설명서”. 서울:오마이북: 오마이뉴스.

통계청(2015),『인구총조사』.

통계청(2017),『인구총조사』.

<부록.1>

Survey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1인가구 생활모습과 주거환경, 안전, 건강, 경제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 하나가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끝까지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되어 통계적으로만 분석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Ⅰ.일반적사항>

SQ1연 령 : 만 ( )세

SQ2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SQ3학 력 :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석사졸 ⑦ 박사졸

(※ 중퇴의 경우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 현재의 학력으로 간주함)

SQ4혼인상태 : ① 기혼(배우자있음)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SQ5현거주지 : 서울시 ( )구

SQ6거주형태 :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원룸 ⑥ 기타 ( )

<Ⅱ. 1인가구의 삶>

1.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　　)개월

2. 현재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④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⑤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 기타(　　)

3.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4.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드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성(性)적인 문제 해결　⑥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⑦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　⑧ 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⑪ 기타(　　)

5. 귀하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애인은 있으나 결혼은 불투명
③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애인이 있음　④ 애인이 있기를 희망함
⑤ 연애 및 결혼생각 없음　⑥ 해당사항 없음

6. 만약 조건이 마련된다면, 귀하가 앞으로 이루시기 원하는 가구·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지금처럼 혼자　② 원래의 가족과 함께
③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④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각자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등)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　　)

7.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편견, 차별, 무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경험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② 지속적인 결혼 강요
③ 성희롱 ④ 소득공제에서 제외
⑤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 ⑥ 기타( )
⑦ 없음

⇨ 7-1. (①~⑥ 선택 시) 누구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중복응답가능)

① 가족 ② 이웃주민 ③ 관공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설 직원
④ 직장동료 ⑤ 모르는 사람(음식점, 상가 등
⑥ 친구 등 주변사람 ⑦ 기타( )

<Ⅲ.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

8. 귀하께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거주경험이 있는 지역 ②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③ 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 ④ 여가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⑤ 교통 편리성 ⑥ 경제성(비용)
⑦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안전성(외진 곳, 위험한 골목 등)
⑧ 주거면적(방의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 층수)
⑨ 기타( )

9. 귀하께서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부동산 계약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②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
③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부족 ④ 주택 구입비용
⑤ 보증금/월세 비용 ⑥기타( )

10. 현 거주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 (평 또는 ㎡)

11.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자가[▶**주택가** : _____억 _____만원] ***(➜ 문11-3으로 이동)***
② 전세[▶**전세금** : _____억 _____만원] ***(➜ 문11-3으로 이동)***
③ 반전세 월세 ***(➜ 문11-1로 이동)***

※ 반전세는 현 거주지 주변 전세시세 50% 이상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

④ 보증금 있는 월세 ***(➜ 문11-1로 이동)***

⑤ 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 ***(➜ 문11-1로 이동)***

⑥ 정부임대주택 [공공임대, 보람채, 해뜰나래 등 정부지원 주택] ***(➜ 문11-1로 이동)***

⑦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무료) ***(➜ 문11-3으로 이동)***

⑧ 기타 ( ) ***(➜ 문11-3으로 이동)***

⇨ 11-1. 살고 계시는 집의 보증금(전세금)이나 월세(임대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 보증금(전세금) : _____억 _____만원

▶ 월세(월임대료) : _____만원

⇨ 11-2.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월세, 사글세)는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됨 ② 약간 부담됨 ③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④ 부담 없음

⇨ 11-3. [정부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임대주택 입주조건이나 절차 등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②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③ 임대주택의 위치가 직장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④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⑤ 주변의 민간주택과 월세 등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⑥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⑦ 기타( )

⇨ 11-4. [자가, 무상 거주자 제외] 전세, 월세, 사글세 등 세입자 경험에 관한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집주인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여성(혹은 남성)이라 집주인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4)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도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임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셨습니까?

①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대출없음) ② 금융기관 대출(1금융권/2금융권 포함)
③ 사금융(3금융권) ④ 직장 내 대출
⑤ (매월 상환해야하는)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
⑥ (상환하지 않는)부모나 친지, 형제·자매의 도움
⑦ 자녀의 도움 ⑧기타( )

13.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택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함 ② 대체로 안전함 ③ 약간 불안함 ④ 매우 불안함

⇨ 13-1. (③, ④선택 시) 현재의 거주지가 불안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원인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② 주택 관리인의 부재
③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④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⑤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⑥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⑦ 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⑧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⑨ 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⑩ 기타( )

14. 현재 주거지의 점유유형, 주거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문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①	②	③	④	⑤
2) 거주지의 점유형태(월세, 사글세 등)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①	②	③	④	⑤
3) 상·하수도 등 주거내부 시설이 낙후되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께서는 개인공간(침실 등)을 가지면서 공동공간(주방, 거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주거에 대해 아십니까? (예 : 공동생활주거, 쉐어하우스, 협동주택 등)

① 매우 잘 알고 있음(신청방법, 비용, 종류, 주거형태 등)
② 대체로 알고 있음(주거형태, 비용 등)
③ 들어본 적만 있음 ④ 모름

16. 공동체주거에 관한 의견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동체주택에 거주하신다면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혼자 생활하지 않아 외롭지 않을 것 같음	①	②	③	④
2) 여럿이 살아 안전할 것 같음	①	②	③	④
3) 공동으로 생활하여 주거비가 더 낮아질 것 같음	①	②	③	④
4)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음	①	②	③	④
5) 공동생활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것 같음	①	②	③	④
6)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것 같음	①	②	③	④
7) 동성 외에도 같이 산다면 불안할 것 같음	①	②	③	④

17. 공동체주거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낮은 주거비용(월세, 보증금 등)
②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③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④ 평균 수준의 원룸보다 넓은 거주 공간
⑤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
⑥ 교통이 편리한 위치
⑦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
⑧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⑨ 기타( )

<Ⅳ. 안전>

18.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 ② 대체로 안전 ③ 별로 안전하지 않음 ④ 전혀 안전하지 않음

⇨ 18-1. (③, ④선택 시) 안전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몰라서 ②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③ 경찰에 대해 신뢰가 안가서 ④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⑤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해서 ⑥ 기타( )

19. 귀하에게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집안 ②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 ③ 주차장~주거지 이동 공간
④ 대중교통~주거지 이동 공간 ⑤ 유흥가 밀집지역 ⑥ 공중화장실
⑦ 지하주차장 ⑧ 엘리베이터 내부 ⑨ 공원, 산책로
⑩ 대중교통 수단 내부 ⑪ 기타( )

20. 귀하는 다음의 범죄유형 중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폭행 ② 성희롱·성폭행 ③ 택시, 노상강도
④ 사기죄 ⑤ 몰래카메라 ⑥ 납치 또는 인신매매
⑦ 주거 침입 절도 ⑧ 기타( ) ⑨ 없음

21. 귀하는 범죄예방, 위급상황 시 대처 등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21-1로 이동)*** ② 없음 ***(➜ 문22로 이동)***

⇨ 21-1. 안전교육을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고등학교 ② 대학교 ③ 직장 ④ 군대 및 예비군
⑤ 민방위 ⑥ 기타( )

⇨ 21-2. 귀하께서 받으신 안전교육이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 ② 대체로 도움
③ 별로 도움 되지 않음 ④ 전혀 도움 되지 않음

22.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 구입 ② 체력단련, 호신술 등 배움
③ 파출소 등 치안시설 위치파악 ④ 누군가와 통화(또는 통화하는 척)하며 이동
⑤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⑥ 이웃주민과 친밀도 향상
⑦ 안전을 목적으로 따로 하는 행동(행위)은 없음

※ 아래 박스의 내용은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입니다.

① **안심귀가스카우트** : 월~금 22:00~01:00까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2명이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도움

② **안심택배** :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음

③ **여성안심지킴이집** :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하여 위급상황 시 긴급대피 및 경찰신고, 안심귀가 지원

④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을 비롯해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 긴급신고 및 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경찰, 의료기관 등 연계활동

⑤ **민간업체 연계 홈방범 서비스** : 민간 방범업체인 ADT의 홈방범 서비스를 일정금액(9,900원)에 이용

⑥ **택시안심귀가서비스** : 택시 승차 후 스마트폰을 태그(NFC)하여 자신의 위치와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림

⑦ **지하철안전** : 지하철 내 응급환자, 성추행 등 도움 필요 시 지하철 보안관 및 112 출동서비스

⑧ **올빼미버스** : 자정~05:00까지 특정 노선을 운행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

23-1. 다음 중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해 <u>알고 계시는 정책</u>은 무엇입니까?

① 안심귀가스카우트 ② 안심택배
③ 여성안심지킴이집
④ 여성긴급전화 1366 ⑤ 민간업체 연계 홈방범 서비스
⑥ 택시안심귀가서비스 ⑦ 지하철안전(보안관/안전지킴이)
⑧ 올빼미버스 ⑨ 알고 있는 정책 없음

23-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중 <u>이용해 보신 경험</u>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안심귀가스카우트 ② 안심택배
③ 여성안심지킴이집 ④ 여성긴급전화 1366
⑤ 민간업체 연계 홈방범 서비스 ⑥ 택시안심귀가서비스
⑦ 지하철안전(보안관/안전지킴이) ⑧ 올빼미버스 ⑨ 이용해 본 서비스 없음

23-3.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안심귀가스카우트 ② 안심택배
③ 여성안심지킴이집
④ 여성긴급전화 1366 ⑤ 민간업체 연계 홈방범 서비스
⑥ 택시안심귀가서비스 ⑦ 지하철안전(보안관/안전지킴이)
⑧ 올빼미버스

<V. 건강>

24.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건강함 ⑤ 매우 건강함

25.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건강함 ⑤ 매우 건강함

26. 귀하께서 우울감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느끼지 않음 ② 아주 가끔 느낌(매달 1~2회)
③ 가끔 느낌(주 1~2회) ④ 자주 느낌(주 3~4회)
⑤ 매일 느낌

27. 현재 귀하는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① 예 (▶만성질환 수 : _____개) ② 아니오

28. 귀하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운동(가벼운 걷기, 실내외 운동 모두 포함)을 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 문28-1로 이동)*** ② 주 3~4회 ***(➔ 문28-1로 이동)***
③ 주 1~2회 ***(➔ 문28-1로 이동)*** ④ 월 1~2회 ***(➔ 문28-1로 이동)***
⑤ 안 한다 ***(➔ 문28-3으로 이동)***

⇨ 28-1. (①, ②, ③, ④번 응답자) 귀하가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집 ② 지역복지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
③ 동네 공원 또는 무료개방 운동 시설 ④ 사설 운동시설(유료 헬스클럽)
⑤ 기타( )

⇨ 28-2. 주로 누구와 운동을 하십니까?

① 가족 ② 이웃 ③ 친구
④ 모임이나 동호회 회원 ⑤ 혼자 ⑥ 기타( )

⇨ 28-3. (⑤번 응답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건강해서)
② 운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일, 가사, 돌봄 등으로 인해)
④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⑤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⑥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⑦ 하기 싫어서
⑧ 기타( )

29. 귀하는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의료·보건기관(보건소, 동네병원,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이용함 ***(➔ 문29-1로 이동)*** ② 이용하지 않음 ***(➔ 문30으로 이동)***

⇨ 29-1. (①번 응답자) 의료·보건기관에 주로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또는 손자녀 ③ 형제자매
④ 친구 또는 이웃 ⑤ 연인 ⑥ 부모
⑦ 혼자 ⑧ 기타( )

⇨ 29-2. 의료·보건기관을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예약절차가 불편하다 ②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④ 의사나 직원이 불친절하다
⑤ 거리가 멀다 ⑥ 같이 갈 사람을 찾기 어렵다

30. 평소 식생활에 관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르곤 함	①	②	③	④
2) 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끼니를 거르곤 함	①	②	③	④
3)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함	①	②	③	④
4) 반찬을 만들기가 번거로워 대충 끼니를 해결함	①	②	③	④
5)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 노력함	①	②	③	④

<Ⅵ.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31. 귀하는 근로시간 및 수면시간 외에 개인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 1) 평일 : 1일 평균 ( )시간

▶ 2) 주말 : 1일 평균 ( )시간

32. 개인시간에 귀하가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하는 활동과 희망하는 활동을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주로 하는 활동	1순위 : ( )	2순위 : ( )
2) 희망하는 활동	1순위 : ( )	2순위 : ( )

① 가사 ②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 ③ 친구만남 등 모임활동
④ 운동 ⑤ 여행/나들이 ⑥ 문화관련 여가활동(영화, 연극 관람 등)
⑦ 종교활동 ⑧ 봉사·사회활동 ⑨ TV/비디오 시청
⑩ 자기개발(학습, 교육 프로그램 수강) ⑪ 기타( )

33. 원하는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② 장시간 근로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
③ 가족(자녀, 손자녀 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④ 여가활동 비용이 부담되서 ⑤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⑥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⑦ 여가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⑧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⑨ 기타( )
⑩ 어려움 없음

34. 귀하가 주로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현재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 : ( )

▶ 2)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 ( )

① 가족 ② 연인
③ 친구 또는 이웃
④ 동호회 등 단체 회원 ⑤ 기타( )
⑥ 혼자

35. 귀하께서 지난 1년간 활동하셨던 사회단체나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동창회/동창모임 ② 부녀회/반상회/마을공동체 등 지역모임
③ 직장동료모임 ④ 각종동호회

⑤ 자원봉사단체
⑥ 시민운동단체 ⑦ 정당
⑧ 종교단체

⇨ 35-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동창회/동창모임 ② 부녀회/반상회/마을공동체 등 지역모임
③ 직장동료모임 ④ 각종동호회
⑤ 자원봉사단체
⑥ 시민운동단체 ⑦ 정당
⑧ 종교단체

36. 귀하는 현재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① 있음(_____명) ② 없음 ***(➔ 문38로 이동)***

37. 귀하께서는 평소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자녀 ⑤ 친구 및 이웃 ⑥ 직장동료
⑦ 선후배 ⑧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⑨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⑩ 기타( )

38. 귀하께 이웃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함 ② 약간 중요함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음

39. 귀하는 이웃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② 왕래는 없지만 안면이 있고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들
③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④ 잦은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
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며 지내는 사람들
⑥ 기타( )

40.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이웃을 사귀고 싶으나 방법을 모름 ②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만나기 어려움
③ 알고는 지내지만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움 ④ 이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⑤ 이웃의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움 ⑥ 기타( )

41.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 및 접촉빈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을 골라주십시오.

문 항		월 4회 이상	월 2~3회	월 1회 이하 (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소통 없음	해당 없음
직접만남	1) 부모	①	②	③	④	⑤
	2)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①	②	③	④	⑤
	5) 이웃	①	②	③	④	⑤
전화 또는 문자연락	1) 부모	①	②	③	④	⑤
	2)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①	②	③	④	⑤
	5) 이웃	①	②	③	④	⑤

42. 원가족과 만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을 받기 위해서 ②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을 주기 위해서
③ 돌봄(간호, 양육 등)을 해주기 위해서 ④ 돌봄(간호, 양육 등)을 받기 위해서
⑤ 개인/집안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⑥ 말벗/이야기 상대를 위해서
⑦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⑧ 가사를 지원받기 위해서
⑨ 특별한 목적 없이 ⑩ 기타(　　)

43. 귀하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역할(양육, 간병, 가사 등)을 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한다 ***(➔ 문43-1로 이동)*** ② 가끔 한다 ***(➔ 문43-1로 이동)***
③ 하지 않는다 ***(➔ 문44로 이동)***

⇨ 43-1. 귀하께서 돌보는 가족과 그 가족 돌봄횟수는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부모(월____회) ② 배우자(월____회) ③ 형제자매(월____회)
④ 자녀(월____회) ⑤ 손자녀(월____회) ⑥ 조카 (월____회)
⑦ 기타(가족: _____ / 월_____회)

44. 다음의 사회관계에 대하여 현재 귀하께서 느끼시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가족은 나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나 이웃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동년배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별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세대와 어울리는 데 별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Ⅶ. 경제활동>

45. 귀하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46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45-1로 이동)***

⇨ 45-1. 현재 귀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아 가장 어려운 점을 골라주십시오.

① 소득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움 ② 자아실현 부족
③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 부양비 부족 ④ 질병 치료비 부족
⑤ 일을 하지 않아 사회적 관계가 위축됨 ⑥ 기타( )

⇨ 45-2. 현재 귀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이 없어서
③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어서 ④ 일하고 싶지 않아서(59세 이하)
⑤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⑥ 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⑦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느라고
⑧ 정년퇴직 및 은퇴 등(60세 이상) ***(➔ 문45-4로 이동)***

⇨ 45-3. (문45-2 ①~⑦선택 시) 귀하는 구직 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② 원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못 미쳐서
③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④ 근무시간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⑤ 출퇴근 거리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⑥ 채용 상의 성차별 ⑦ 나이가 많아서 ⑧ 기타( )

➜ 응답 후, 문50으로 이동

⇨ 45-4. (문45-2 ⑧선택 시) 향후 더 일할 수 있으십니까? 있다면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②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③ 손자녀 돌봄 등으로 인해 일할 시간이 없어서
④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의 보수가 너무 낮아서
⑤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⑥ 하고 싶은 일자리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⑦ 기타( )
⑧ 일하고 싶지 않음

➜ 응답 후, 문50으로 이동

46.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이외(미상, 분류불능 포함) ⑪ 기타( )

47. 현재 일하고 계신 일자리는 어떠한 업종입니까?

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② 교육서비스업
③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④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⑦ 숙박 및 음식점업 ⑧ 운수업 ⑨ 도매 및 소매업
⑩ 건설업 ⑪ 제조업 ⑫ 기타( )

48. 귀하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사업체)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상용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③ 임시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혹은 특정한 사업완료의 필요 때문에 고용된 사람]

④ 무급가족종사자 [급여는 없으나 자가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소득에 기여한 자로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사람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사업주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

⇨ 48-1. (①, ②, ③ 선택 시)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②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③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④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49. 현재 귀하의 주당(7일 기준) 평균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 7일기준 총 합 : ( ) 시간

50. 귀하께서는 총소득을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소득원에 대해 각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간 평균금액) 해당이 없는 항목에는 꼭 '0' 기재

문 항	월평균 소득 [※없으면 '0' 으로 기재]
1) 세금 공제 후 월 평균 근로소득(수령금액)	만원
2) 가족의 지원(부모, 형제, 자매 등)	만원
3) 전)배우자의 지원	만원
4) 추가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	만원
5) 금융소득(이자소득 등) 및 부동산 임대소득	만원
6)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부조 (기초연금, 정부 등 보조금 등)	만원
7) 개인 연금 등(은행, 보험 등 민간)	만원
8) 그 외 기타소득	만원

51. 귀하의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 3개월간 생활비(고정적인 지출)평균을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비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 / 저축 및 개인연금 납입액 등은 미포함)

▶ 월평균 ( ) 만원

52. 귀하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다음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해당이 없는 항목에는 꼭 '0' 기재

항 목	월평균 지출액 [※없으면 '0' 으로 기재]
1) 월평균 저축액(예금, 보험 등)	월평균 : 만원
2) 여가생활비(공연, 연극, 영화, 여행, 레저, 취미활동비)	월평균 : 만원
3) 자기개발비(운동,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교재, 도서구입비 등)	월평균 : 만원
4) 교제 및 사교비(친구모임, 술값, 경조사비 등)	월평균 : 만원
5) 부모 부양비(생활비, 용돈, 의료비, 주거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	월평균 : 만원
6) 자녀 부양비(생활비, 용돈, 의료비, 주거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	월평균 : 만원
7) 주거비(전기, 수도 요금, 가스요금 포함)	월평균 : 만원
8) 부채상환(원금+이자)	월평균 : 만원

53.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소유하고 있음 ② 없음

54. 귀하가 현재 갖고 계신 빚(부채)은 얼마입니까?

▶ 총 부채액 ( ) 만원 [※없으면 '0' 으로 기재]

⇨ 54-1. 귀하께서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교육비(본인, 자녀, 사교육비) ② 의료비
③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장례비 등 ④ 재테크 자금마련(주식, 부동산 등)
⑤ 사업자금 마련 ⑥ 생계비(식비, 수도 및 가스 요금, 월세 등)
⑦ 주택 마련 ⑧ 기타( )

55. 귀하께서는 노후를 대비해 현재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문55-1로 이동)***
②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편이다. ***(➔ 문55-1로 이동)***
③ 보통 정도이다. ***(➔ 문55-1로 이동)***

④ 전반적으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편이다. *(➜ 문55-3으로 이동)*
⑤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 *(➜ 문55-3으로 이동)*

➪ 55-1. 노후준비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보험, 저축 등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
②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유지
③ 직업이나 일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와 자기관리
④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대비
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관리　　⑥ 기타(　　)

➪ 55-2. 귀하께서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 연금(교직원, 군인 포함)
③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연금)　④ 퇴직금
⑤ 예금, 적금　　⑥ 부동산　　⑦ 주식, 채권, 증권
⑧ 기타(　　)

➪ 55-3. 귀하께서 현재 장례 준비 및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
② 결혼자금(예식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③ 재산 상속이 있어서
④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을 기대하므로
⑤ 지금부터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되어서
⑥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서
⑦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⑧ 장례준비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서　⑨ 기타(　　)

<Ⅷ. 정책수요>

56.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구분	세부내용	매우 필요함	대체로 필요함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주택안정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거환경 개선	낙후시설 교체 지원,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3) 안전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일자리 지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구인·구직정보 제공, 능력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증진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인식개선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여가/관계망 지원	가족관계 회복, 1인가구 연대 등 참여형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8) 장례 지원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상조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57. 귀하는 주택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원룸형 소형주택'이 '공동주택'보다는 비싸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소형주택 공급 ②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공동체 주택 공급

③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④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⑤ 부동산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58. 귀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낙후된 시설(도배, 창문, 지붕 등) 보수지원

②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 설치지원 ③ 주택 내·외부 환경 개선

59. 귀하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외진 곳, 골목길 등 가로등 및 CCTV 증설

② 민간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주거안전 서비스 실시

③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의 무인택배함 설치

④ 경찰의 순찰횟수 증가 및 늦은 시간 귀갓길 지원

⑤ 안전관련 무료 교육 프로그램 실시

60. 귀하는 경제·일자리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자신의 전공 및 전문성을 반영한 민간취업 연계 프로그램
②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공공근로사업
④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한 수급조건 완화 ⑤ 노후설계 프로그램 지원

61. 귀하는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병원동행 시스템 ②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④ 이웃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증진 모임 지원

62. 귀하는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현 거주지 옥상 등 공간에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② 마을부엌, 집밥 프로젝트 등의 공동체 식사 활동 지원
③ 동호회, 동아리, 마을공동체 등의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
④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공동체주거 활성화
⑤ 자원봉사·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확대
⑥ 여가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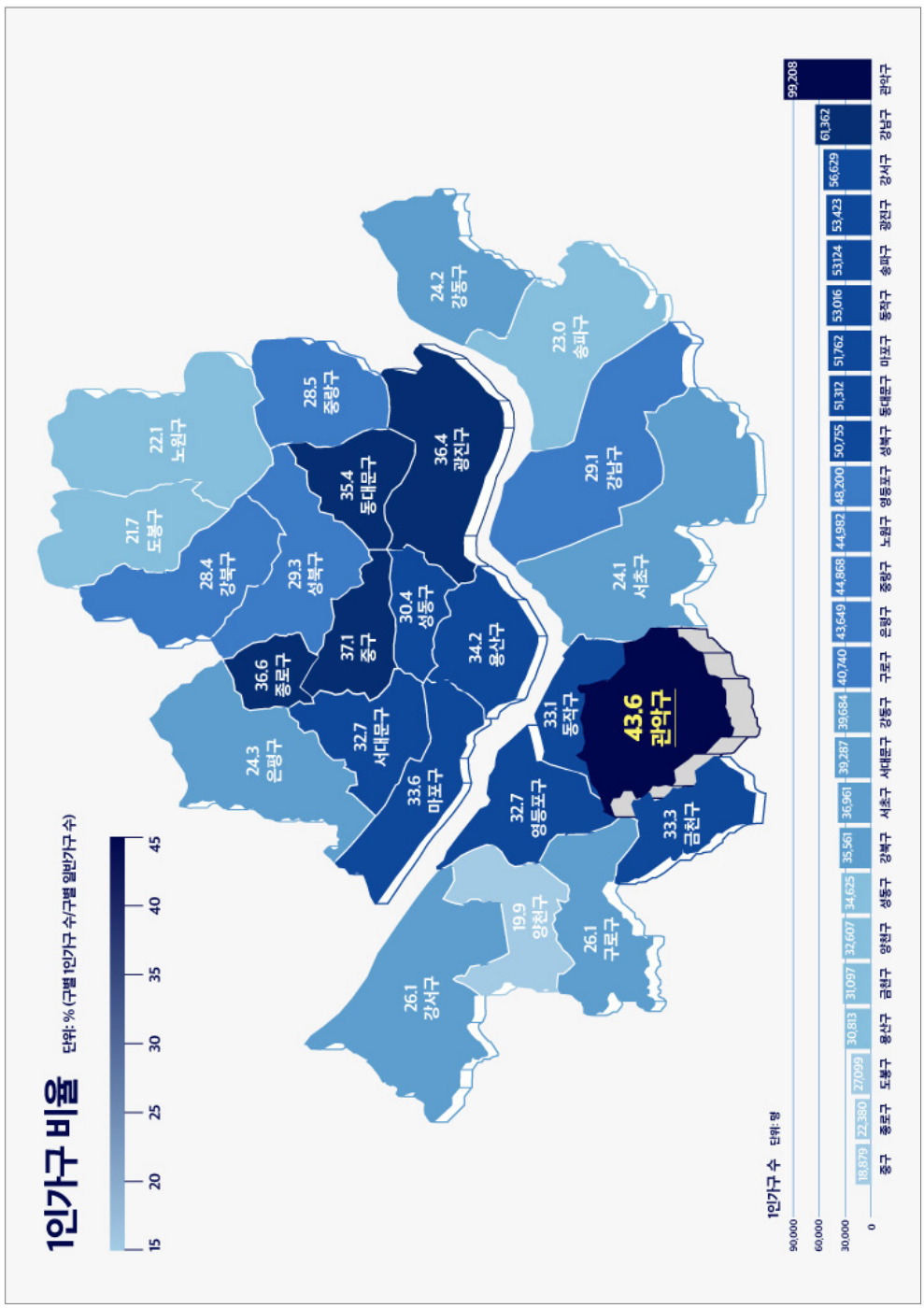
아래 연락처는 설문 검증용(설문 응답 여부 확인 등)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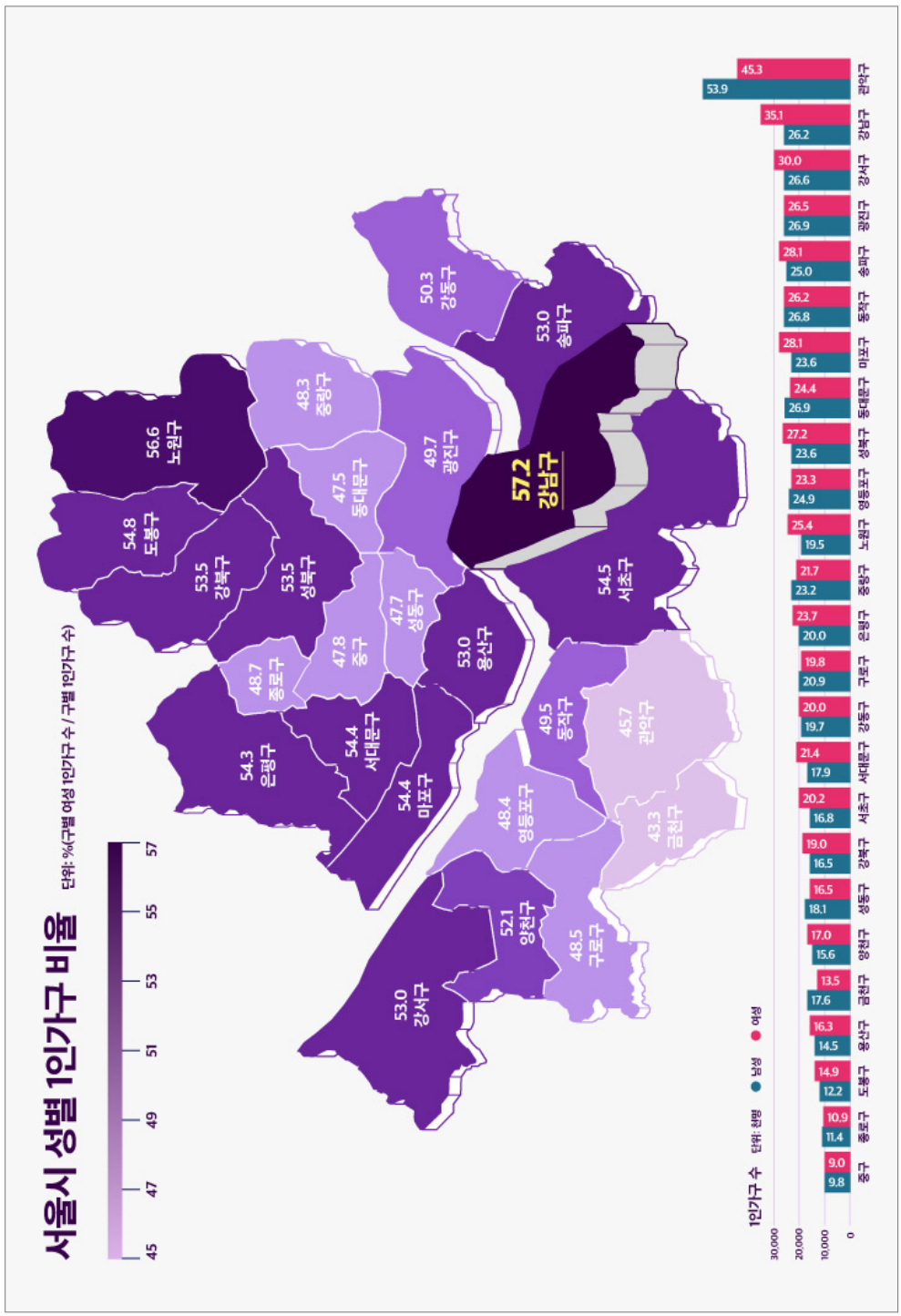
*** 통계법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응답자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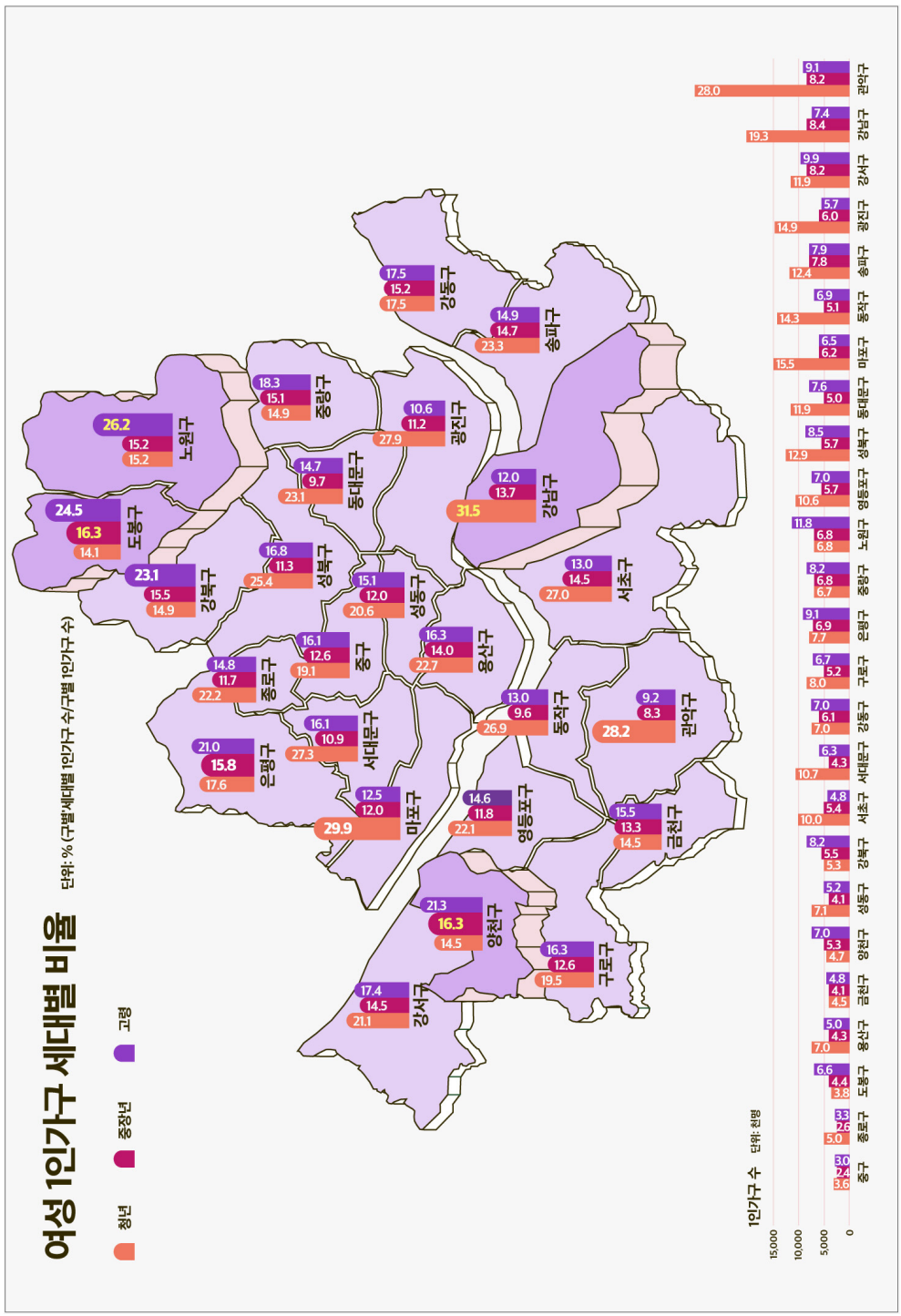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2> - 지도


1인가구 비율
단위: % (구별 1인가구 수/구별 일반가구 수)
15
20
25
30
35
40
45
21.7 도봉구
22.1 노원구
28.5 중랑구
24.2 강동구
28.4 강북구
29.3 성북구
35.4 동대문구
36.4 광진구
23.0 송파구
36.6 종로구
37.1 중구
30.4 성동구
34.2 용산구
29.1 강남구
24.3 은평구
32.7 서대문구
33.6 마포구
24.1 서초구
33.1 동작구
43.6 관악구
32.7 영등포구
33.3 금천구
19.9 양천구
26.1 구로구
26.1 강서구
1인가구 수 단위: 명
90,000
60,000
30,000
0
18,879
22,380
27,099
30,813
31,097
32,607
34,625
35,561
36,961
39,287
39,684
40,740
43,649
44,868
44,982
48,200
50,755
51,312
51,762
53,016
53,124
53,423
56,629
61,362
99,208
중구
종로구
도봉구
용산구
금천구
양천구
성동구
강북구
서초구
서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영등포구
성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
강남구
관악구


서울시 성별 1인가구 비율
단위: %(구별 여성 1인가구 수 / 구별 1인가구 수)
45
47
49
51
53
55
57
56.6 노원구
54.8 도봉구
53.5 강북구
53.5 성북구
48.3 중랑구
47.5 동대문구
49.7 광진구
50.3 강동구
53.0 송파구
57.2 강남구
54.5 서초구
48.7 종로구
47.8 중구
47.7 성동구
53.0 용산구
54.3 은평구
54.4 서대문구
54.4 마포구
49.5 동작구
45.7 관악구
48.4 영등포구
43.3 금천구
52.1 양천구
48.5 구로구
53.0 강서구
1인가구 수 단위: 천명 남성 여성
30,000
20,000
10,000
0
45.3
53.9
35.1
26.2
30.0
26.6
26.5
26.9
28.1
25.0
26.2
26.8
28.1
23.6
24.4
26.9
27.2
23.6
23.3
24.9
25.4
19.5
21.7
23.2
23.7
20.0
19.8
20.9
20.0
19.7
21.4
17.9
20.2
16.8
19.0
16.5
16.5
18.1
17.0
15.6
13.5
17.6
16.3
14.5
14.9
12.2
10.9
11.4
9.0
9.8
중구 종로구 도봉구 용산구 금천구 양천구 성동구 강북구 서초구 서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영등포구 성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 강남구 관악구

남성 1인가구 세대별 비율
단위: % (구별 세대별 1인가구 수/구별 1인가구 수)
청년
중장년
고령
노원구 34.9 31.0 34.1
중랑구 27.4 39.7 32.9
강동구 25.9 37.3 36.8
송파구 21.1 32.9 46.0
광진구 15.7 27.5 56.8
동대문구 22.1 25.7 52.3
강남구 16.5 28.0 55.5
도봉구 34.8 36.8 28.4
강북구 33.4 36.8 30.7
성북구 23.2 26.2 50.6
성동구 21.6 31.4 47.0
서초구 18.0 30.6 51.4
중구 25.2 33.4 41.3
용산구 23.6 32.2 44.1
종로구 23.6 29.1 47.3
동작구 17.6 22.3 60.1
관악구 13.2 22.3 64.5
서대문구 22.3 24.3 53.5
은평구 29.4 34.3 36.3
마포구 16.9 25.3 57.9
영등포구 22.0 31.2 46.8
금천구 24.0 37.3 38.6
양천구 30.3 37.0 32.7
구로구 23.9 33.1 43.0
강서구 24.9 32.1 43.0
1인가구 수 단위: 천명
30,000
20,000
10,000
0
관악구 13.1 22.0 64.0
강남구 10.1 17.2 34.0
강서구 14.1 18.1 24.4
광진구 8.4 14.7 30.4
송파구 11.2 17.5 24.4
동작구 9.4 11.8 31.8
마포구 8.7 13.1 29.9
동대문구 11.3 13.2 26.8
성북구 11.8 13.3 25.7
영등포구 10.6 15.0 22.6
노원구 15.7 13.9 15.3
중랑구 12.3 17.8 14.8
은평구 12.8 15.0 15.9
구로구 9.8 13.5 17.5
강동구 10.3 14.8 14.6
서대문구 8.7 9.5 21.0
서초구 6.7 11.3 19.0
강북구 11.9 12.8 10.9
성동구 7.5 10.9 16.3
양천구 9.9 12.0 10.7
금천구 7.5 11.6 12.0
용산구 7.3 9.9 13.6
도봉구 9.4 10.0 7.7
종로구 5.3 6.5 10.6
중구 4.8 6.3 7.8


여성 1인가구 세대별 비율
단위: % (구별/세대별 1인가구 수/구별 1인가구 수)
청년
중장년
고령
노원구 26.2 15.2 15.2
도봉구 24.5 16.3 14.1
강북구 23.1 15.5 14.9
중랑구 18.3 15.1 14.9
동대문구 14.7 9.7 23.1
성북구 16.8 11.3 25.4
강동구 17.5 15.2 17.5
송파구 14.9 14.7 23.3
광진구 10.6 11.2 27.9
강남구 12.0 13.7 31.5
서초구 13.0 14.5 27.0
성동구 15.1 12.0 20.6
중구 16.1 12.6 19.1
용산구 16.3 14.0 22.7
종로구 14.8 11.7 22.2
은평구 21.0 15.8 17.6
서대문구 16.1 10.9 27.3
동작구 13.0 9.6 26.9
관악구 9.2 8.3 28.2
마포구 12.5 12.0 29.9
영등포구 14.6 11.8 22.1
금천구 15.5 13.3 14.5
양천구 21.3 16.3 14.5
구로구 16.3 12.6 19.5
강서구 17.4 14.5 21.1
1인가구 수 단위: 천명
15,000
10,000
5,000
0
관악구 9.1 8.2 28.0
강남구 7.4 8.4 19.3
강서구 9.9 8.2 11.9
광진구 5.7 6.0 14.9
송파구 7.9 7.8 12.4
동작구 6.9 5.1 14.3
마포구 6.5 6.2 15.5
동대문구 7.6 5.0 11.9
성북구 8.5 5.7 12.9
영등포구 7.0 5.7 10.6
노원구 11.8 6.8 6.8
중랑구 8.2 6.8 6.7
은평구 9.1 6.9 7.7
구로구 6.7 5.2 8.0
강동구 7.0 6.1 7.0
서대문구 6.3 4.3 10.7
서초구 4.8 5.4 10.0
강북구 8.2 5.5 5.3
성동구 5.2 4.1 7.1
양천구 7.0 5.3 4.7
금천구 4.8 4.1 4.5
용산구 5.0 4.3 7.0
도봉구 6.6 4.4 3.8
종로구 3.3 2.6 5.0
중구 3.0 2.4 3.6

자치구별 1인가구 핵심 정책수요 지도

청년 청년여성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고령 스페이스 살림, 서울혁신파크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발 행 처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구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 구 자 장진희

발 행 일 2017년 12월

인 쇄 처 행복한나무

ISBN 979-11-6161-290-4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